

1)아래 도표는 내가 사용하는 언어들이 어느 군(family)에 속하는 지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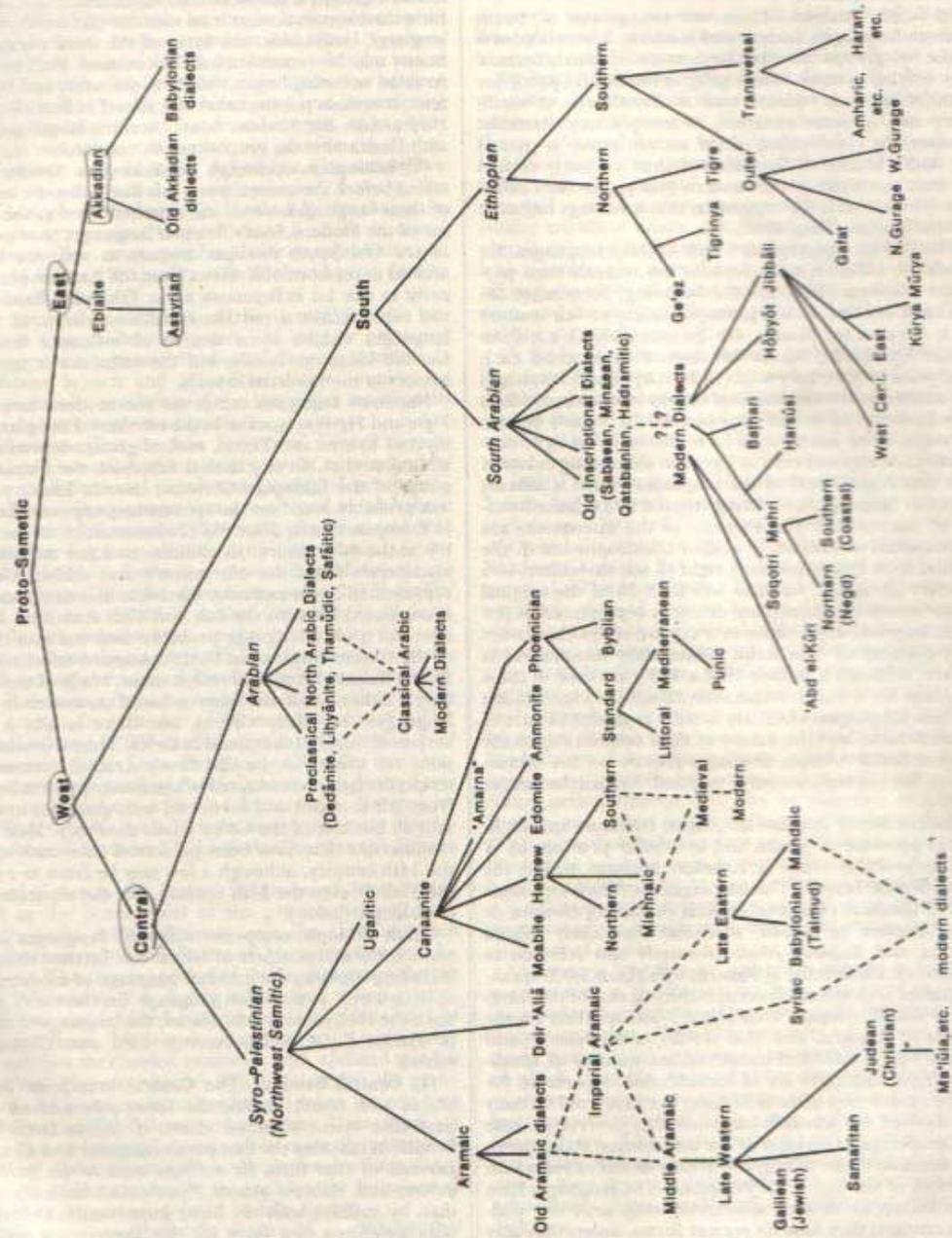
언어	군(family, 群)
성서히브리어	셈어[afro-asiatic(Hammito-semitic)>semitic> <b>cannanite</b> ]
희랍어	인도유럽어( <b>indo-european</b> >hellenic)
라틴어	인도유럽어(indo-european> <b>italic</b> )
이태리어	로망스어(indo-european> <b>romance</b> )
불어	로망스어(indo-european> <b>romance</b> )
독어	게르만어(indo-european>germanic> <b>western</b> )
러시아어	슬라브어(indo-european> <b>slavic</b> >eastern)
영어	게르만어(indo-european> <b>germanic</b> >western)
스페인어	로망스어(indo-european> <b>romance</b> )
아랍어	셈어(afro-asiatic> <b>semitic</b> >north arabic)
산스크리트어	인도아리안어(indo-europeas> <b>indo-aryan</b> >sanskrit)
힌두어	인도이란어(indo-european> <b>indo-iranian</b> >indic)
일어	알타이(altaic)?

북경어	시노-티벳어>시노(sino-tibetan> <b>sinitic</b> )
대만어	시노-티벳어>시노(sino-tibetan> <b>sinitic</b> )
몽골어	알타이( <b>altaic</b> )
한국어	알타이(alta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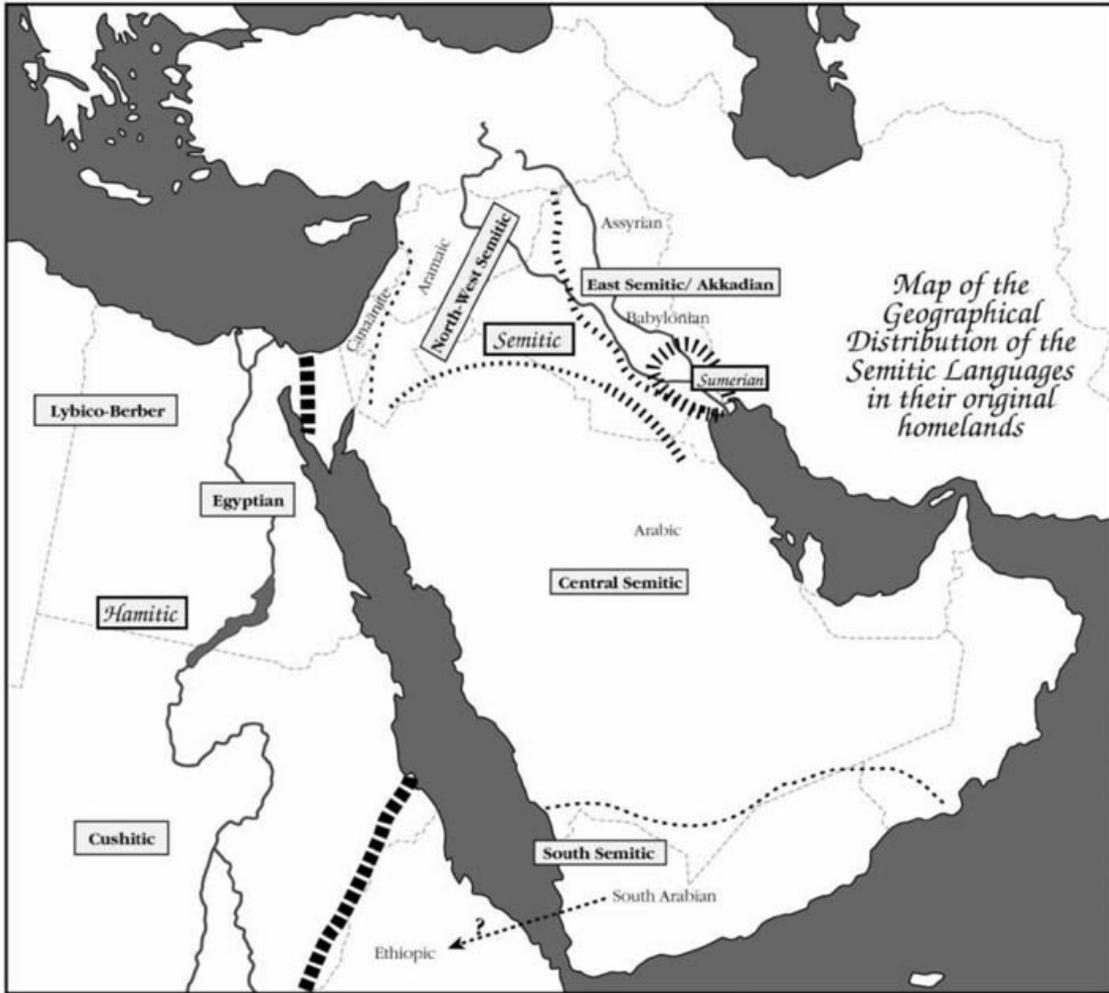
2)지금의 이라크 남부 바그다드 철로 옆에 위치한 현대의 우르(Ur) 지역에서 약 1.5 마일 떨어진, 그리고 현재의 유프라테스 강 바닥에서 약 10 마일(16 키로미터) 정도 그리고 바벨론에서 남쪽으로 약 140 마일(225 키로미터) 정도 떨어진, 옛 갈데아 우르(Ur) 지역을 셈 족속 함무라비의 바빌론 시대(기원전 약 1800-1757 년 경)에 빠져 나올 때의 아브라함 족속이 사용하던 말과 글은 무엇이였을까? 아마 아브라함이 사용했을 글은 그 당시 그 지역에 널리 퍼졌던 수메르인(수메르 인은 셈족이 아니다)의 글자인 쉐기문자(cuneiform, 설형문자, 楔形文字)였을 것이다. 아브라함 가족을 정치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을 함무라비 왕의 법전 역시 쉐기 문자로 쓰여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사용하던 말은 무엇이였을까? 만약 수메르 인의 쓰기법을 빌려 글 살이를 한 반면 말은 자신의 것이었다면 그 말은 글과 일치하지 않았을 것이다. 소리(말)과 글(문자)의 불일치 .... 아브라함이 사용하던 말은 구약 성서 이전의 고대 히브리어일까? 그 당시에 히브리어 알파벳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히브리어'는 아닐 것이다. 어쨌든 수메르 인의 언어는 1781 년 독일인 역사학자 슈레저(A.L.Schloezer) 가 만든 용어인 '셈 어'(semitic language) <sup>1</sup> 에 속하지 않는 반면 히브리어는 속한다. 셈 어족은 아래처럼 분류될 수 있으리라.

---

<sup>1</sup> 'Eichhorn의 Repertorium für bibl. u. morgenl. Literatur'(1781, p. 161)에서 Schlözer가 처음으로 사용했다.



LAN.81. Chart showing the genetic classifications of the various Semitic languages.



3) 동부 셈어인 앗시리아-바빌로니아 쉐기문자(cuneiform, 설형문자)로 쓰여진 비문, 특히 앗시리아의 것은 히브리어 문헌학(사전편찬)에 있어 아주 중요하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자: Deilzche Prolegomena eines neuen hebr.-aram. Wörterbuchs zum A.T., Lpz. 1886; P. Haupt, 'Assyrian Phonology, &c.,' in Hebraica, Chicago, Jan. 1885, vol. i. 3; Delitzch, Assyrische Grammatik, 2nd ed., Berlin, 1906.

3-1) 셈족에 속하는 언어들은 페니키아어와 앗시리아어처럼 지금은 소멸됐거나, 아니면 시리아 기독교인들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인들 그리고 쿠르드인들 이 사용하는 신(新) 시리아어(아랍어), 구약언어의 순수 문학적인 재 생산을 제외한 현대 유대인들의 히브리어, 그리고 후기 앗시리아 방언 형식의 에티오피아어

(Tigrè, Tigriña, Amharie)처럼 고전기의 그것에 비해 저질의 형태로만 보존될 뿐이다. 단지 아랍어 만이 아라비아 본디 거주 지역을 확보하여 생존하면서 다른 언어 속으로 자신을 확장하고 있다.

동북 방향의 더 넓은 지역을 확보하고 있는 인도-게르만어<sup>2</sup>를 그 한계로 지니는 셈어는 오히려 콥트어(Coptic)가 그것에서 유래한 고대 이집트어와 그리고 북-서 아프리카어와 공통의 특히 문법적인 구조를 처음부터 지녔다. 물론 이런 언어들과 근본적으로 셈어는 특히 그 사전학적(lexicographical)인 관점에서 차이나기는 해도 말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Erman의 'Das Verhältnis des Aegyptischen zu den semitischen Sprachen'(in the ZDMG. xivi, 1892, p. 23ff.)와 Brockelmann의 'Grundriss'(i. 3.)을 참조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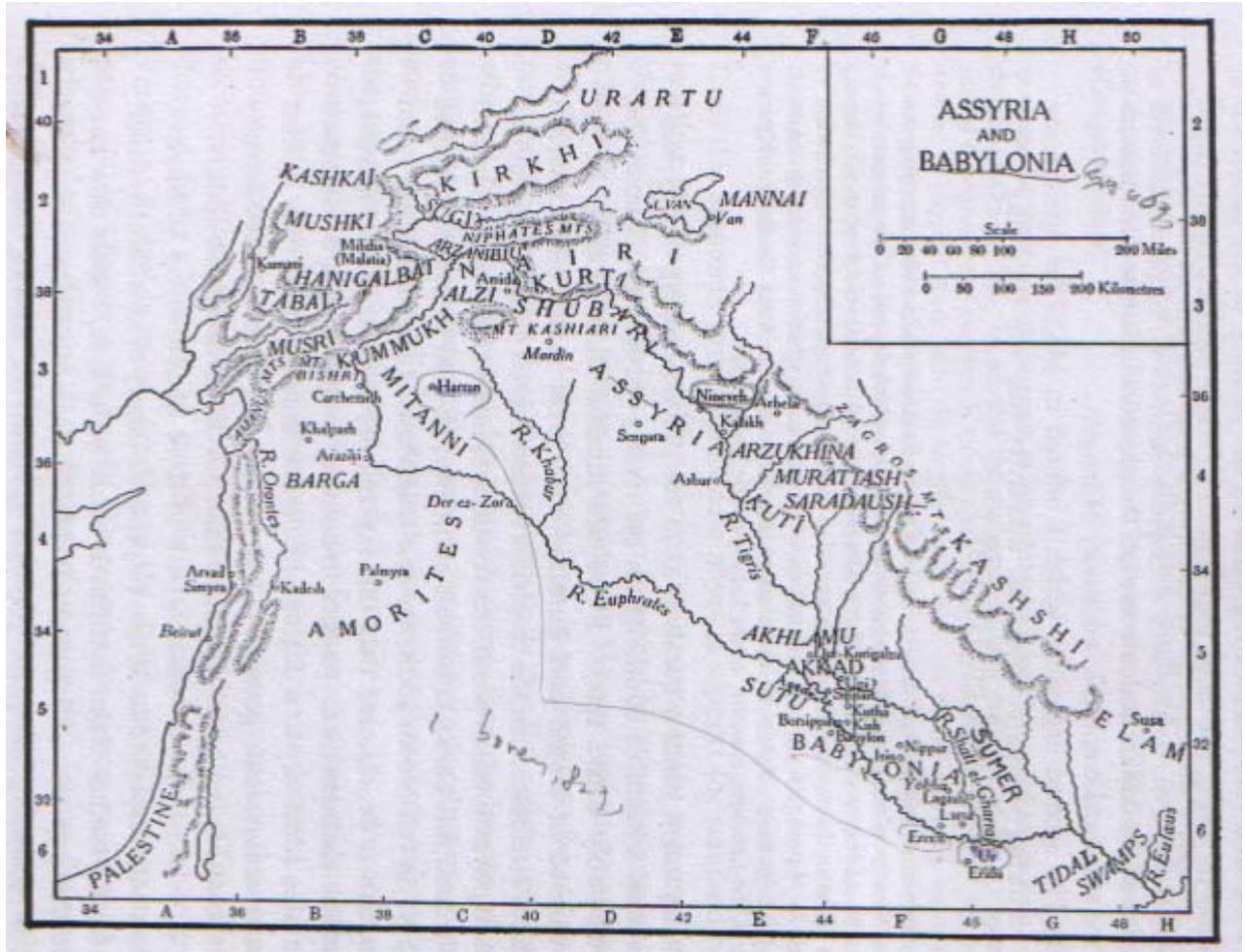
#### 4)뿔기문자(cuneiform, 설형楔形문자)

##### 4-1)수메르인의 언어(sumerian)

// 수메르인들은 누구인가? 이 물음에 대한 정확한 답이 아직은 없다. 이들이 산들을 본 때 만든 피라밋 모습의 사원(寺院)인 지구라트(ziggurats) 등을 볼 때 수메르인들은 아마 동쪽 산악지대에서 왔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몇몇 전통들은 그들이 선사시대 오래 전에 해안 근방에서 살았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아마 수메르인들은 메소포타미아 하부(下部) 지역 토착민이었으리라. 그리고 아마 수메르인의 첫 문명을 창조했던 사람들은 이미 인종적으로 혼합된 집단이었으리라. 어찌든 '수메르인'이라는 용어는 인종적인 것 보다는 언어적인 것이다--이들의 언어는 셈(족의 언)어가 아니다. 그리고 수메르인의 전통에 따르면, 이들의 가장 오래된 도시 에리두(eridu)에 이어 기원전 3000년 중반에 우르(ur)와 라가스(lagash)와 움마(umma) 등의 도시들이 건설된다. //

---

<sup>2</sup> 인도-게르만 어족(indogermanische Sprachstamm)이라는 이름은 Klaproth클라프로트의 'Asia poluglotta'(Paris 1823)에서 처음 사용된다. 이것을 위해서는 Leo Meyer(레오 메이어)의 NGgG(1901, s.454)참조할 것.



수메르 인의 언어는 가장 오래 존재한 문자(written) 언어(言語)이다. 기원전 3100 년 경의 기록이 남부 메소포타미아에 남아있는 수메르 어는 기원전 2000~3000 년 사이에 주로 많이 쓰였다. 비록 자신의 문자체계를 받아들인 셈족의 아카디아 어(앗시리아-바빌로니아 어, Assyro-Babylonian)에게 문자 언어 지위를 내어 주는 대신 소리(spoken) 언어로 명맥을 유지하긴 해도, 수메르 어의 문자적인 용법(usage)은 기독교 시작 무렵의 아카디아(Akkadian) 언어 말기까지 주욱 이어진다. 소리 언어로서의 그것이 언제 소멸됐는 지는 알 수 없으나, 대략 기원전 2600 년 경 이 언어로 쓰여진 첫 문학 텍스트가 존재 했을 때 이미 둘 이상의 문학적인 셈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어족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 2350~2200 년 경을 제외한 1900 년 경 이전에 수메르 인의 문자 언어가 주로 쓰였고, 그 이후에는 대부분 문학과 제의적인 텍스트들로만 거의 머무를 뿐, 일상적인 편지와 행정 문서들에는 자신의 문자를 받아들인 아카디아 인의 셈어

(Cooper 1973)가 주로 쓰였다. 수메르 인의 문학 작품들은 자주 아카디아어로 번역되어 기원전 2세기까지 계속 필사(筆寫)됐으며 때로는 심지어 개작(改作)까지 이루어졌다. 학자들은 *드라비다어와 알타이어와 시노-티벳어가 바로 이 수메르어에 연결됐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것은 증명되지 않은 가설일 뿐이다. 이미 기원전 세 번째 밀레니엄에 셈족으로부터 많은 말들을 빌려와, 그것을 글(문자)로 표현했던 수메르족은 자신의 생활터전을 토착 지역인 남부 메소포타미아를 넘어까지 확장시키지는 않았으나, 자신의 작은 집단에 걸맞지 않게 메소포타미아와 다른 고대 문명의 발전에 모든 측면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바로 수메르인들의 이러한 언어가 **썩기(설형, cuneiform) 문자**이다.



#### 4-2) 썩기(설형) 문자.

'썩기의'를 뜻하는 라틴어 'cuneus'로부터 온 'cuneiform'(독일어로는 Keilschrift)은 가장 널리 퍼진 그리고 역사적으로 주요한 고대 근동의 문자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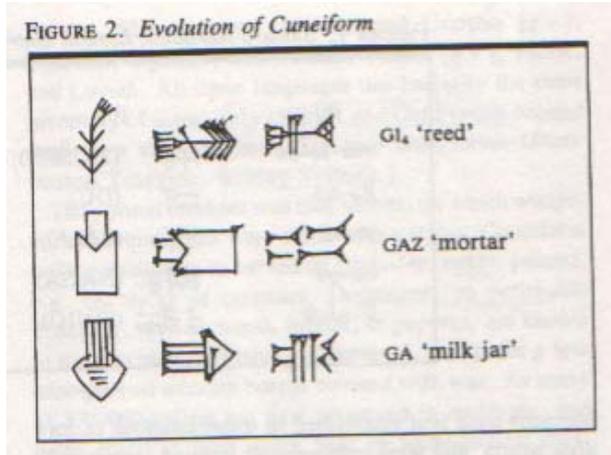
로서 18 세기 초엽에 이르러 그 현대적인 모습(designation)을 보여주게 된다. 설형(楔形) 문자의 역사는 기원전 3천년 전체를 포함하며, 그것의 오랜 발전과 지역의 확장은 연이어진 수많은 문화들과 언어들을 포함한다. 그리고 국제 문명의 매개자로서의 그 전체적인 의의는 페니키아어-히랍어-라틴어 알파벳 다음의, [한문을 제외한다면], 유일한 두번째 것이다.

// 기원전 2900 년 경부터 기원 후 1 세기까지 근동에서 사용됐던 췌기문자의 가장 이른 표본은 바그다드 남동쪽 대략 250 km 지점에 위치한 지금의 와르카(Warka)인 고대 우ruk(Uruk)에서 발견됐다. 췌기문자는 현재 *이라크*의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먼저 사용됐으나 마찬가지로 췌기문자 텍스트들은 *이란*의 남서쪽 수사(susa)와 그리고 *시리아*의 우가리트와 엘바(elba)와 에마르(Emar)와 그리고 *터키*의 보가즈코이(Boghazköy)와 *팔레스틴*의 메기도(Megiddo)와 그리고 *이집트*의 텔 엘-아마르나(Tell el-Amarna)에서도 발견된다. 이런 텍스트들의 대부분은 고립된 언어였던 수메르 인의 언어 또는 마찬가지로 앓수르-바빌로니아 인의 언어(Assyro-Babylonian)로도 알려진 셈족의 언어인 앓카디아어(Akkadian)로 쓰여졌다. 그러나 Eblaite, Elamite, Hurrian과 Urattian, Ugartian, Old Persian, Hittite, Palaic, 그리고 Luvian 등 다양한 언어군의 많은 다른 언어들은 수세기를 걸쳐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했다. 이런 모든 언어들은 근본적으로 동일한 부호체계를 사용한다. 단지 우가리트어와 고대 페르시아어만이 이로부터 자신의 부호체계를 만들어냈을 뿐이다.

정상적인 매체(medium)는 췌기모양의 상(像)이 철필로 그 위에 만들어지는 점토 판들이다. 그러나 췌기모양의 글이 돌에 새겨지거나 또는 드물게 예를들어 벽돌이나 도자기에 그려지기도 한다. 나무나 가죽이나 파피루스와 같이 소멸 가능한 재료들에 쓰여진 문서들이 존재했다고 알려지고는 있으나 밀랍이 덧 씌어진 나무판 몇 몇을 제외하고는 생존하지 못했다. 박물관들에는 지금 37만 5000 여개의 점토판들이 보존 돼 오고 있으며 그리고 매년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 새로운 점토 판들이 빛을 보고 있다.

가장 초기의 췌기부호들은 물리대상들을 그려내는 그림문자였다. 곡선들이 후에 곧은 철필의에 의해 직선으로 바뀌면서 그 모양들이 점점 단순해졌다. 이것은 인정된 단지 제한된 숫자의 췌기 꼴 각기 모든 것이 의미를 지녔던 신(新) 앓시리아 스크립트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보다 더 초기의 직접적인 단계에서

는 단지 그 부호의 일반적인 형태만이 의미있었으며 그리고 철필에 의한 획들의 수에는 일정한 범위가 있었다. 그려진 대상들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독자는 반드시 현대에 편집된 대부분의 텍스트들은 부호들의 시작 부분 위치가 처음보다 오른쪽으로 90도 회전됐다는 사실을 반드시 의식해야 한다.



기원전 2900~2350 년 경 초기 왕조 때의 가장 오래된 텍스트들은 예상 밖의 두 가지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 텍스트들이 구(句) 또는 절을 포함하는 '경우'(cases)들로 각기 나뉜다는 것이다. 자유로운 경우의 부호들 즉 어떤 구문론적인 연결(sequence)도 없는 부호들의 배열은 그 글들(scribes)이 문장 수준의 말(speech)을 나타낸다는 것을 암시한다. 예를들어 si gù ba-niin-ra(그는 거기에서 뿔 나팔 소리를 들었다)는 아래처럼 또는 아래와는 다른 배열로 쓰여질 수 있다:

si      gù 또는 gù      si  
ra ba                      ba ra

이러한 위의 예는 마찬가지로 두 번째 특징 곧 문맥을 보아 드러낼 수 있는 문장요소들이, 대부분은 결합된 형태소들(bound morphemes) 곧 여기에서는 장소를 나타내는 삽입사(infix, 挿入辭)인 '-ni-'와 3인칭임을 나타내는 '-n-'이, 생략됐다. 독자들은 생략된 바로 이 형태소들을 생각해내야만 한다. 기원전 24 세기 이후에는 각기 들어가야 할 자리에 형태소들이 제시되고 겨우 몇 되지 않는 음절문자(syllabogram)만이 생략된다. 기원전 19세기 경의 초창기의 고대 바빌로니아 때까지는 음절적인 글쓰기들은 어떤 경우에 마지막 자음들을 생략하는 경향이 있었다. é-ba(쌍, pair) 또는 ma-sá(상자, a basket)에 있어서의 é-ba-an과 ma-sá-ab처럼. //

#### 4-2-1) 그 기원과 글자(character).

설형문자의 기원은 기원전 4 번째 밀레니엄 말기까지 거슬러 올라 갈 수 있으

리라. 이 때 민족학과 언어학적인 유사성이 우리에게 현재 알려지지 않고 있는 수메르인들이 남부 메소포타미아와 그리고 갈데아(Chaldea)로 알려진 유프라테스 강 어귀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것으로부터 이들이 그 지역의 첫 번째 거주자들이라거나 이들이 자신들의 문자체계(스크립트)를 진짜 창조해 냈다는 것이 잇따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설형문자체계는 이 수메르 인들에게서 비로서 처음 확인된다. 고대 우르(ur)와 우룩(uruk)의 먼 선사 시대 층들에서의 발굴들은 선행하는 주민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를 드러내는 데에 실패했다. 우룩으로부터 출토된 점토 판들에 수메르 언어로 쓰여진 가장 이른 **그림문자**(pictographic) 기록들은 무덤 대석(臺石)위의 그림 의해서 확인되는 그리고 더불어 숫자들도 나타내는 일일용품들과 **개인 이름**들의 분명한 목록들이었다. 이러한 문자 단어들은 구체적인 대상들의 근본적인 관념(idea)들만을 단지 표현할 수 있었다. 숫자적인 관념들(notions)은 한 획(stroke)이나 원들을 반복하므로써 쉽게 나타낼 수 있었다. 그러나 **고유 명사**들의 표시는 상징화된 미숙한 문장(rebus, 紋章)에 필연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즉 그려진 대상의 근본적인 관념(notion)들 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숨어있는 **소리**(sound) 형태를 읽는자들의 마음에 불러일으키는 그림문자적 모양을 사용했다. **바로 이것이 순수 문자 낱말로부터 부분적인 음성 스크립트(phonetic script)에로의 전이를 가져왔다.** 그래서 예를들어 손의 그림은 수메르 인의 šu('손') 뿐만 아니라 음성적인 음절(syllable)을 요구된 맥락 안에서 나타내게 된다. 수메르어의 낱말들은 대부분 단음절적(monosyllabic, 單音節)이어서 부호들(signs)은 일반적으로 음절들을 가리켰으므로, 하나의 낱말로서 하나의 음절을 복합적으로 표현하는 음절 스크립트어(a word-syllabic script)였다. 따라서 **음성 기호들(phonetic symbols)의 발명은 수메르인들로 하여금 낱말-부호들에게 덧붙여지는 음성적인 요소들에 의해 문법적인 요소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 부호들로서의 낱말이 바로 표의문자(ideogram, 表意文字) 또는 표의기호(logograms)이다. 수메르 인들은 동일한 소리를 내는 많은 낱말들(homophonous)들을 지녔으므로 여러 표의기호들이 동일한 음가(音價)들을 산출하게 됐다. 이것들이 현대 음역에서는 예를들어 ba, bá, bà, ba<sub>4</sub>등으로 구분된다. 예를들어 '해'(sun)와 '날'(day)과 '밝음'(bright)와 같은 관련된 여러 관념(notion)들을 자주 나타내기 때문에 그 표의문자 하나는 하나 이상의 음성 값을 지니는, 다성(polyphone, 多聲)적인 특색을 보유할 수 있었다.

기원전 세 번째 밀레니엄 동안에 수메르인들의 이러한 글 쓰기는 흘림체로 변하기 시작했으나, 결국 그 그림문자들은 직선적인 모양으로 굳어지는 발전을 이

룩하게 된다. 돌이나 금속이나 나무도 종종 사용됐지만 필기도구로는 우선적으로 점토 판들(clay tablets)이었기 때문에, 직선적인 획들은 첨필(stylus, 尖筆)의 기울어진 모서리로 부드러운 점토가 눌러짐으로 인하여 썩기-모양의 외형을 띠게 됐으며, 흘림체의 굵은 선(線)들은 점점 쓰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낱말-부호들이 쓰여지는 정상적인 방향은 띄어쓰기 없는 왼쪽에서 오른쪽이었다. 위에서 아래로 행으로 내려쓰는 초기 방향으로부터의 이러한 변화는 그 부호들의 일방적인 전환점이었다.

#### 4-2-2) 확산과 발전.

이러한 발전이 완성되기 전에, 수메르 인의 문자 체계는 기원전 3000 년 경 중반에 메소포타미아로 진입한 셈족 침입자인 아카디아 인들(Akkadians)에 의해

ORIGINAL PICTOGRAPH	PICTOGRAPH IN POSITION OF LATER CUNEIFORM	EARLY BABYLONIAN	ASSYRIAN	ORIGINAL OR DERIVED MEANING
				BIRD
				FISH
				DONKEY
				OX
				SUN DAY
				GRAIN
				ORCHARD
				TO FLOW TO TILL
				BOOMERANG TO THROW TO THROW DOWN
				TO STAND TO GO

BY COURTESY OF ORIENTAL INSTITUTE  
TABLE SHOWING THE DEVELOPMENT OF CUNEIFORM SCRIPT FROM PICTOGRAPHS TO ASSYRIAN CHARACTERS

채용된다. 그 쓰기법(the script)을 전체적으로 자신들의 다른 언어에 채용함에 있어 아카디아 인들은 수메르 인들의 표의 문자들과 그리고 더 복잡한 관념들을 위한 표의문자들의 연결들을 보전하지만 그것들에 상응하는 자신들 아카디아 단어들로 발음한다--다시 말해 빌려 온 글에 자신들의 말을 덧 씌운다. 그러면서도 그 음가(phonetic values, 音價)들을 유지하면서도 단순한 류형들의 수메르 인들의 본디 발명들을 훨씬 넘어서서 그것들을 확장시킨다. 예를들어 ba 또는 ab와 같은 열린 또는 닫힌 음절들. 칸(kan), 물(mul), 밭(bat)

등의 수메르 인의 표의 문자(ideograms)들의 보다 복잡한 많은 음절 값(syllabic values)이 음성학적인 수준으로 변이되는 아카디아 인의 췌기 문자에서는 복잡하고 심각한 다(多) 음성어가 증가하기에 이른다. 예를들어 '해'(태양)를 나타내는 본디 그림문자가 'ud'(웃), 'tam'(탐), 'tú'(투), 'par'(빠르), 'lah'(라흐), 'his'(히스) 등의 여러 음절 값으로 읽혀진다. 이렇게 아카디아 인들은 새로운 복잡한 음가들을 그 표의문자들에게 덧 붙인다. 그래서 '땅' 또는 '산맥'을 나타내는, 본디 세 산 봉우리의 그림이었던 부호가 수메르 인의 음가 'kur' 뿐만 아니라 아카디아 인의 말 'mātu'(땅)와 'šadū'(산)으로부터 온 'mat'와 'šad' 음(절)가도 지니게 된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오는 혼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후기 아카디아어 이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ta-am'과 'tam'과 같은 등가(等價) '요소들'(graphies)이 아카디아 인의 췌기 문자의 오랜 역사를 두루 통해 나란히 존재한다.



초기 아카디아 어 (the Old Akkadian)라고 불리우는 메소포타미아에서의 췌기 문자의 최초 유형은 기원전 2350 년 경의 위대한 아카드 지배자 사르곤(Sargon)의 비문의 예(例)로 보여진다. 그 땅의 남동쪽 수메르에서는 기원전 2050 년 경 라가쉬의 구데아(Gudea of Lagash)에 의해 통일 될 때까지 독립된 도

시-국가들의 느슨한 연합이 특히 수메르 문화의 짧은 출현 속에서 계속 이어진다. 그런 다음 정치 권력은 아카디아 인들에게 결정적으로 넘어가, 기원전 1700 년 경 바빌로니아의 왕 함무라비(hammurabi)가 모든 남부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한 결과, 이제 바빌로니아는 메소포타미아 문화의 위대한 영향력있는 중심지로 된다. 함무라비 법전은 초기 바빌로니아 췌기문자로 쓰여진다. 그러나 변동이 심한 초기 바빌로니아 언어는 덜 영특한 후기로 닥아가는 동안 중기와 새로운(新) 바빌로니

아 유형의 언어로 변한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저 북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초라한 **아수르(Assur)**가 시작된다. 특히 **초기 아수르인의 췌기문자**는 중앙 소 아시아의 신민지들과 교역하는 앗시리아인들의 기록으로 대부분 남아 있으며(기원전 1950년 경의 소위 카파도기아Cappadocian 인의 점토 판), 중기 앗시리아 췌기문자는 광범위한 범전과 다른 문서들로 보존되고 있다. 그리고 후기(新) 앗시리아 시대는 앗시리아인의 위대한 권력의 시기였기에 그 글 쓰기는 기원전 650년 경 니느웨(Nineveh)에 있는 **앗스르바니플(Assurbanipal)** 도서관에 소장된 광범위한 기록들에서 절정을 이룬다.

메소포타미아 외부로의 췌기문자 글 쓰기 확장은 **이란 남서부 엘람(Elam)** 땅이 메소포타미아 문화와 접촉하여 그 글 쓰기 시스템을 채용했을 때인 세 번째 밀레니엄에 시작됐다. 엘람인들(Elamite)의 췌기문자는 **초기(old) 페르시아 언어**로 단순화된 **알파벳과 유사한 췌기문자** 창조를 위한 외부 모델을 인도-유로피언 페르시아인들에게 제공했을 때인, 기원전 첫 번째 밀레니엄까지 계속 이어진다.

메소포타미아 북쪽과 유프라테스 강 상류 근방의 **후리아인들(Hurrians)**은 기원전 2000년 경 아카디아인의 초기 췌기문자를 채용하여 그것을 그 당시에 중앙 소 아시아를 침범했던 인도-유로피언 **히타이트(Hittites)**인들에게 건네준다.

두 번째 밀레니엄 동안 바빌로니아의 앗티카 언어는 다소 왜곡된 야만적인 다양함 속에서 근동 전체 안에서의 상호 국제적인 성격을 띤 잡탕언어(lingua franca)로 변하여 췌기문자 글 쓰기를 문자 소통의 보편적인 매개자로 만들어 버린다. 이 시대의 정치는 거의 배타적으로 그러한 언어와 글쓰기 안에서 행해진다. **췌기문자는 때로 기원전 1400년 경의 시리아 해변 가나안 사람들(Canaanite)의 자음 쓰기법에서처럼 변용되거나** 또는 기원전 9세기에서 기원전 6세기의 아르메니아 산맥 안의 **할디(Haldi)**나 **우라루트(Urartu)** 왕국의 비문에서처럼 단순히 전달되기도 하며, 나아가서 그 언어는 후기(신) 앗시리아인의 다양한 췌기문자를 차용한 멀리 떨어진 후리아인들(Hurrian)과 관련되기도 한다. **아람어가 일반적인 세속 언어로 됐던 때인 기원전 7세기와 6세기 경의 앗시리아와 바빌로니아 왕국 몰락 후에 조차 오히려 퇴락했지만 다양한 후기 바빌로니아 어와 앗시리아 어는 거의 예수님 시대에까지 내려오는 동안 췌기 문자 언어로 살아 남는다.**

// 기원전 13-14세기 동안 시리아 해변 지금의 **라스 샴라(Ras Shamra)**인 **우가리트(Ugarit)** 쓰기법은 전통적인 점토와 침필에 근거한 체계를 사용했으나 자신의 언어를 나타냄에 있어 근본적으로 달랐다. 이 언어는 모음 a 또는 u 또는

i 가 잇따르는 무성 파열 후음 알렙(voiceless glottal stop aleph)을 나타내는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삼십개의 순수 자음 부호들로 구성된다. 그래서 **우가리트 인의 쓰기 법은 아람어와 페니키아 어와 기능적으로 유사하다.** 기원전 6 세기에는 전통적인 수메르-아카디아어(Sumero-Akkadian) 체계의 복잡성에 다르게 반응한 **초기 페르시아 어**가 여섯 개의 표의문자(logogram)와 보조부호들로 완성된 36 개의 단순한 새로운 음절 부호들로 쓰여진다.

#### 4-2-3) 그 체계

췌기 형태의 부호들은 세 가지 주요한 기능들을 지닌다:

4-2-3-1)음절문자들로서의 그것들은 낱말 하나 또는 그 낱말의 부분을 소리 요소(phoneme, 음소, 音素)의 수준에서 나타낸다.

4-2-3-2)표의문자들로서의 그것들은 사전적인 수준에서 전체 하나의 낱말을 나타낸다.

4-2-3-3) '한정사'(determinatives, 限定詞)와 '분류사'(classify, 分類詞)로서의 그것들은 자신이 한정하고 분류하는 단어에게 어떤 직접적인 음성학적 함축도 없이 일련의 의미들을 배정한다.

어떤 음절문자들(syllabograms, 여러 소리를 지닌 부호들, polyphonic signs)은 하나 이상의 여러 발음들을 지닐 수 있다. 그래서 동일한 음절문자가 ne, dè, bí, 또는 bil로 그 문맥에 따라서 읽힐 수 있다. 거꾸로 다른 부호들이, 음역(音譯)시 엑센트 또는 문자아래표시들에 의해 지시되는, 분명하게 동일한 소리로 읽혀질 수 있다. 때로 동음어는 특히 수메르 언어 음성체계에 관한 우리의 엄밀한 앎의 결여 탓이기도 하다. 표의문자(logograms)는 여러 다른 의미들을,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른 음소적인 함축들을 지닐 수 있다. 이러한 체계는 애매함을 분명한 수준으로 환원시키는 장치들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췌기 풀 부호의 낱말 하나는 텍스트의 언어와 글쓰는 관습과 전통들에 의거하여 음절적으로 또는 표의적으로 쓰여질 수 있다. 음절적으로 쓰여진 낱말들의 예들로는 수메르어의 경우에는 'še-er-ha-an'(장신구) 그리고 아카디아어의 경우에는 'ni-ik-nu-kà'(당신을 위해 우리가 그것을 훔쳤다)를 들 수 있다. 예를들어 아래 도식의 'sinig'에서처럼, 표의문자로 쓰여진 부호는 읽는 자의 언어에 근거하여 수메르어적인 šinik 또는 아카디아적인 binu로 읽혀질 수 있다.

### The Old Persian Cuneiform Script

		Old Persian			Elamite				Late Babylonian				
		-a	-i	-u	-a	-e	-i	-u	-a	-e	-i	-u	
velars	-	𐎠			𐎡	𐎢	𐎣	𐎤	𐎦	𐎧	𐎨	𐎩	-
	k-	𐎠		𐎡			𐎣	𐎤			𐎨	𐎩	k-
	x-												
	g-			𐎡			𐎣				𐎨		g-
	ŋ-												
palatals	c-												
	č-	-K		-e									
	š-												
dentals	t-			𐎠		𐎢	𐎣	𐎤		𐎧	𐎨	𐎩	t-
	θ-	𐎠											
	d-		𐎠	𐎡	𐎢			𐎤	𐎦			𐎩	d-
	n-	-k		𐎡	𐎢		𐎣	𐎤	𐎦		𐎨	𐎩	n-
labials	p-	𐎠			𐎢		𐎣	𐎤	𐎦		𐎨	𐎩	p-
	f-	𐎠											
	b-	-l			𐎢	-l		𐎣	𐎦	-l		𐎩	b-
	m-		𐎠	𐎡	𐎢	-l	𐎣	𐎤	𐎦	-l	𐎨	𐎩	m-
sibilants	s-	-k			𐎢				𐎦				s-
	z-	𐎠		𐎡	𐎢		𐎣	𐎤	𐎦		𐎨	𐎩	z-
	š-	-l			𐎢		𐎣	𐎤	𐎦		𐎨	𐎩	š-
	h-	-k	-l										
obstruents	q-	𐎠			𐎢		𐎣		𐎦		𐎨		q-
	g-				𐎢	𐎣	𐎤		𐎦	𐎧	𐎨		g-
	g-	𐎠			𐎢		𐎣	𐎤	𐎦		𐎨	𐎩	g-
	k-	-k			𐎢		𐎣	𐎤	𐎦		𐎨	𐎩	k-
	z-	-l											

따라서 어떤 텍스트들은 의심할 것도없이 고대에는 수메르어 또는 아카디아어로 무차별적으로 읽혀질 수 있다. 읽기와 의미에 있어서의 불확실함은 문맥에 의해 부분적으로 그리고 쓰기법 자체에 의해 부분적으로 분류사들과 음성학적인 지시자(indicator)들의 쓰임새를 통해 제거될 수 있다. 그래서 분류사로 쓰일 때 부호 giš는 자신들 잇따르는 낱말에게, 순수한 재료, 동물학적인 그리고 식물학적인 유형들, 지명 등 등, 나무들 또는 나무로 된 대상들의 집합을 배정한다. 여성적인 것을 것과 신성한 것들을 나타내는 것 등 인산의 소유들 또는 조건들을 지시하는 것도 있다. '음성학적인 지시자'는 주로 수메르어에서 사용된 하나의 음절문자이다. 이것은 하나의 표의문자에게 그것의 발음을 제공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덧붙혀진다. 이러한 부호들은 원리적으로 선택적이다. 그러나 전통은, 예를들어 ú+ NAGA+ ga+ MUŠEN에서처럼, 그것들의 사용을 상대적으로 협소한 범위 이내에서만 허용한다(단지 '읽혀'지는 부분들일 뿐인 음성학적인 보충어들은 더 하위의 경우이다). NAGA로 음역된 표의문자(어표, logography, 어표, 語標)는 그것이 큰 까마귀를 의미할 때는 uga로 읽혀진다. 새들의 사전적인 집합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분류사 MUŠEN이 보통 그 단어에 잇따른다. 그러나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의 발음을 특수하게 하여 애매함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음절문자 ú와 ga가 그 단어에 수반된다. 다른 분류사를 지니는 동일한 표의문자는 다른 읽기에서 다른 의미들을 지닌다. 채소의 경우에는 분류사 ga가 수반되어 'naga'(채소 재)를, 식물들의 경우에는 그 부호가 수반되어 'teme'(식물 한 그루, 특히 Salsola)를, 도시의 경우에는 그 부호가 수반되어 'ereš'(어떤 지명)을, 그리고 신성한 것들의 분류사가 수반되어 'nidabe'(여신)을 뜻하게 된다. 아카디아어에서는 음성학적인 보충어들이 덜 나타나나 더 다양하다.

비록 췌기 풀 부호들이 수메르어와 아카디아어에서 동일하지만, 그 부호들은 다른 길들로 사용된다. 수메르어는 고유명사들과 차용어(借用語)들과 결합된 음소들을 나타내기 위해 음절문자를 사용하나, 본질적으로는 표의문자적이다. 전적으로 음절문자들로 쓰여진 수메르어 텍스트들의 보기들은, 아마 교육적인 의도나 그 글쓰기의 표준체계와의 친숙하지 못함 때문에, 이차적이며 그리고 상대적으로 드물다. 그러나 아카디아어는 주로 음절문자들을 사용한다. 그리고 편리한 축약을 위해 표의문자들을 남겨둔다. 기교적이거나 반복적인 텍스트들에서의 표의문자들의 그 숫자가 아주 높을(high) 수 있다. 예를들어 전형적인 편지에서는 부호들의 단지 3~5% 만이 표의문자들일 수 있다. 그러나 예언의 긴, 반복적인 목록에서의

표의문자들은 전체 부호 숫자들의 80% 이상을 차지할 수 있다. 후리아어와 히타이트어 등 다른 언어들은 음절적인 췌기문자를 사용한다. 히타이트인들은 음절적으로 쓰여진 아카디아인의 단어들을 표의문자들로 사용한다(아카디어 문자들, Akkadograms).

#### 4-2-4)쓰기법과 음성학.

더 오래된 텍스트에서의 음절문자들은 은연중에 차이나는(underdifferentiated) 길로 자음들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단일한 부호가 동일한 조건에서 유성마찰음과 무성 파열음(stop)을 나타낸다 그리고 강한 파열음(emphatic plosive)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즉 동일한 부호가 'da'와 'ta'와 'ḏa'를 나타낸다. 언어의 음소 목록과 관련하여 이러한 순수하게 그래픽적인 단순화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어떤 결론도 불가능하다. 수메르어의 논증 가능한 소리 규칙의 존재는 이런 글쓰기 실천을 위해 충분한 것처럼 보인다. 기원전 2400 년 경의 엠파라(Ebla) 텍스트들에서만 특히 자음 'l'이 선택적으로 생략된다. 대안적인 글쓰기들은 그것이 어떤 음성학적인 의의도 지니지 않는 그래픽 특성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비슷한 숙고가 'r'를 나타내기 위해 신호-'l'들을 종종 사용하는 것에 적용될 수 있다. 보다 더 최근의 텍스트들에서는 글쓰기가 충분히 음성학적인 모습을 띠는 것처럼 보인다. 아카디아어의 경우에는 비교 어원론에 의해서 관리될 수 있었다. 그러나 세 가지 예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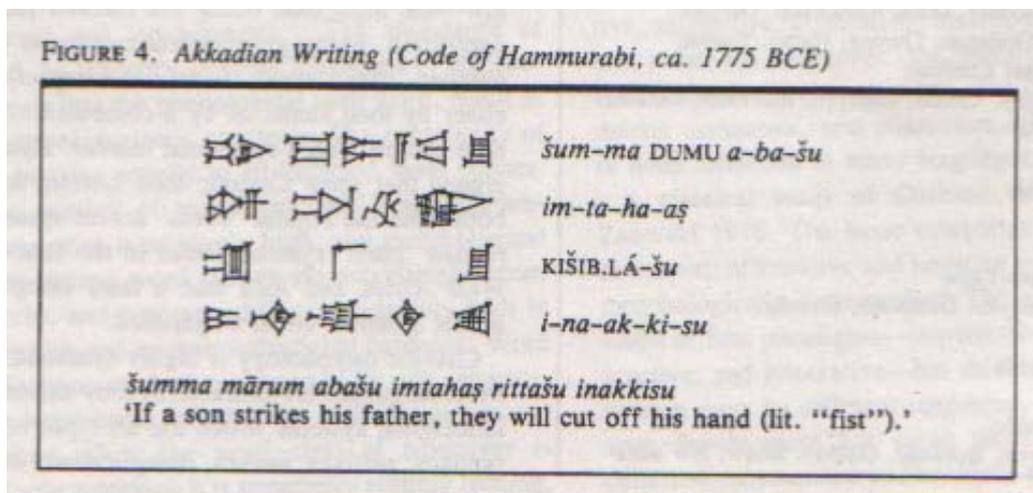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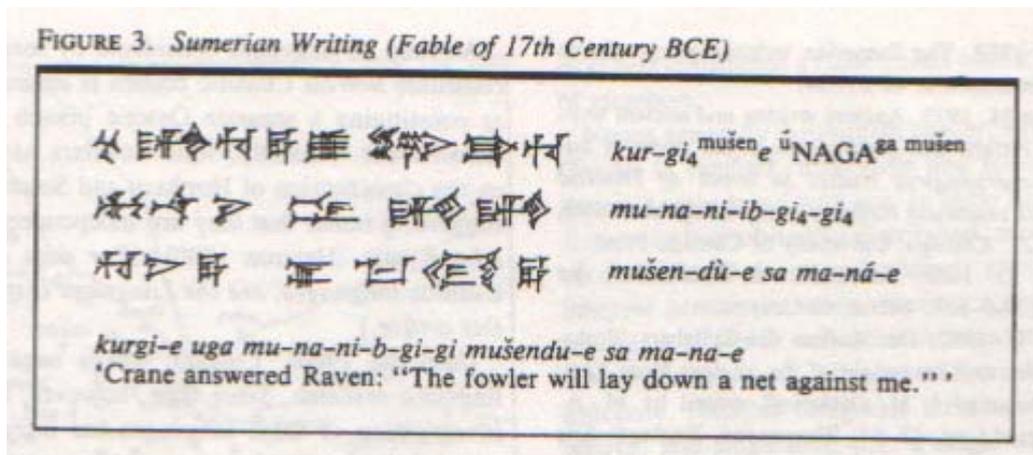
4-2-4-1)아카디아 텍스트들에서의 췌어족의 후두음(larygeals, 喉頭音) 손실은 그 언어적 상황에서는 적절하게 반성될 수 없다. 아마 수메르인의 음소 목록의 부재, 그리고 그것들을 나타내는 전통적인 부호들의 연이은 결여 때문에. 후두 자음들은 단순히 글쓰기에서 생략될 것이다.

4-2-4-2)두번째 예외는 음절어 체계의 내재적 제한들로부터 결과한다. 처음과 마지막 자음 군은 직접 표시될 수 없으며 그리고 그 쓰기는 어두(語頭)나 어중(語中)에 삽입되는 모음들을 덧붙여야만 한다는 것. 그래서 이론적인 \*/pras/는 pa-ra-as로 쓰여질 것이다. 드문경우이기는 해도, 특히 초기에, C<sub>1</sub> C<sub>2</sub>는 심지어 그 중간 위치에서조차 C<sub>2</sub>로 쓰여진다.

4-2-4-3)마지막으로 아카디아어의 경우에는 몇몇의 경우에 그리고 수메르어에서의 그 쓰기들은 형태음소적인(morphophonemic)표시들을 사용한다. 예를들어 수메르어의 접속법/회구법 동사 접두사는 교체형(alloporphs) 'ha-', 'he-', 그리고

'hu-'와 더불어 모음조화에 예속된다. 초기에 'ha-'는 u를 지니는 음절들 앞에 쓰였으리라. 보다 후의 텍스트들에서는 꾸준히 'hu-'가 쓰인다.

글쓰기 범례는 아래 도식 3과 4에서 주어진다. 분류사들과 음성학적인 보충어들은 위첨자로 썼으며 엑센트와 아래첨자로 쓰인 것들은 동일한 소리의 신호들과 구분된 것들이다. 그리고 수메르어 사본에 나타난 하이픈을 통해 형태소들을 분리시켰다.



#### 4-2-5) 수메르어의 독해(Decipherment, 解讀).

췌기 풀 글쓰기의 존재는 보다 더 매력있는 그리고 결코 완전히 잊혀져 본 적이 없는 이집트 상형문자(hieroglyphs)와는 대조적으로 서구 학계에서 잊혀졌다가 17 세기에 이르러서야 겨우 유럽 여행자들에 의해서 재 발견됐다. 1802 년

G.F.Grotesfend는 아카디아어-엘람어-페르시아어 세 언어로 쓰인 비문을 읽는 데 성공했다. 아카디아어를 포함한 급진전된 독해 과정은 1857 년에 완결된다. 그 해 H.C.Rawlinson과 Edward Hincks와 W.H.Fox Talbot와 Jules Oppert는 런던에 소재하는 아시아왕립사회(Royal Asiatic Society)에 동일한 텍스트의 독자적인 밀봉된 번역들을 제출한다. 개봉된 네 가지 번역들은 본질적으로 일치했다. 현재 연구에서의 썸기 풀 부호들의 의미들과 음성학적 형태들의 규정은 글쓰기 훈련을 위해 사용되는 자국어 낱말 목록들에 철저히 근거한다. 만 여 개의 낱말들이 부호 모양별로 또는 주제별로 배열돼 있는 수메르-아카디아 2 개 어 사전 모음집들은 학교연습으로부터 재구성됐다. 대부분 완성된 형태로 기재된 사전목록들은 아래 도식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여러 행을 포함한다: a)일련의 기본 음절문자들에 의한 수메르어 단어들의 음성학적인 기술들; b)편리하게 작은 대문자로 옮겨써진 그에 상응하는 어표(logography, 語標); 그리고 c)음절적으로 쓰여진 아카디아어 번역.

FIGURE 1. *Sumero-Akkadian Lexical Ent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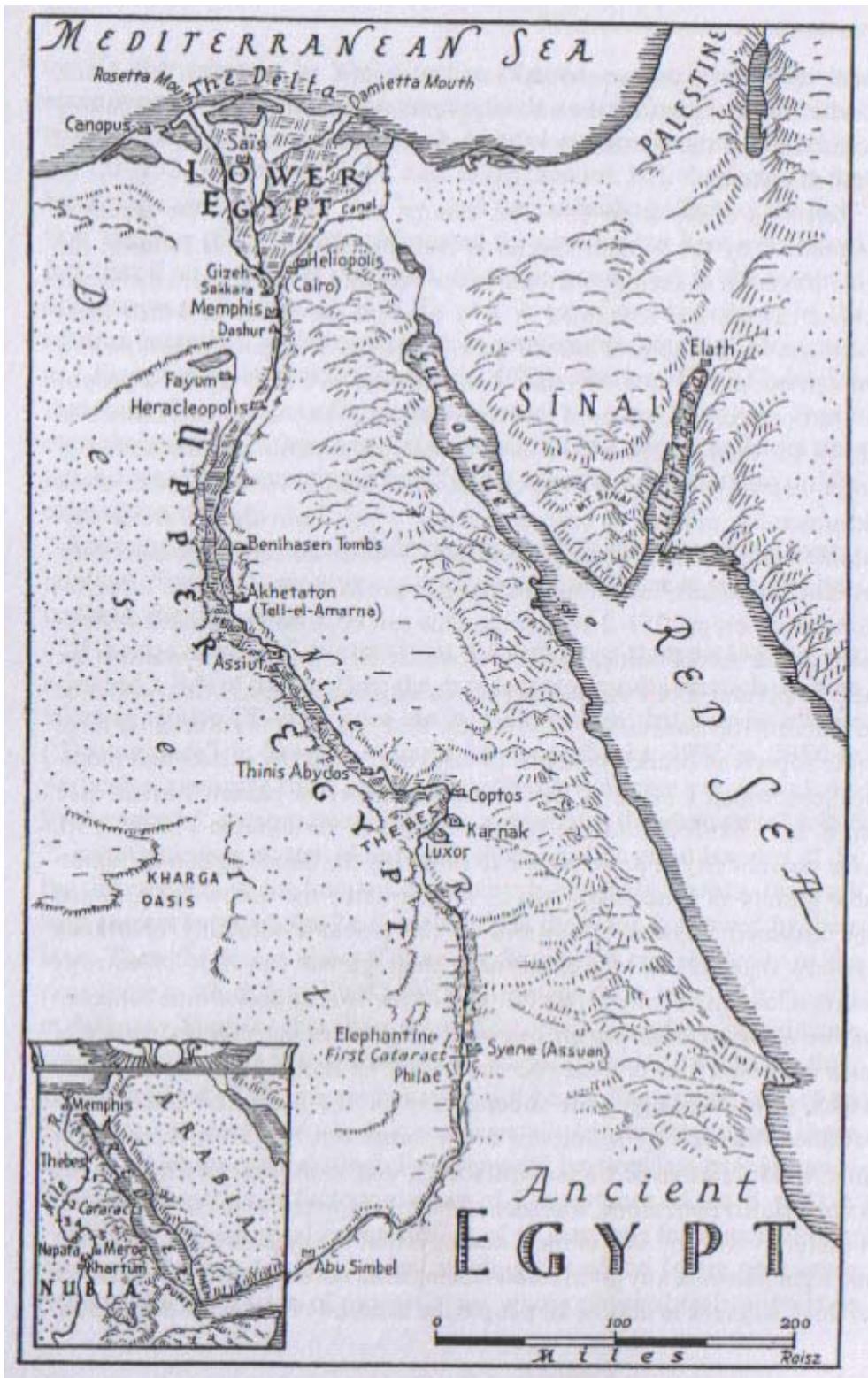
(a)	(b)	(c)
<i>mu-še-en</i>	𒄩 (MUŠEN)	<i>iš-ṣu-ru</i> 'bird'
<i>gu-up</i>	𒄪 (DU)	<i>ú-zu-uz-zu</i> 'to stand up'
<i>pe-eš</i>	𒄫 (ŠAxA)	<i>e-ru-ú</i> 'to be pregnant'
<i>na-qa</i>	𒄬 (NAGA)	<i>uh-hu-lu</i> 'vegetable ashes'
<i>ši-ni-ik</i>	𒄭 (ŠINIG)	<i>bi-i-nu</i> 'tamarisk tree'

'c' 행의 아카디아어 낱말들의 의미들은 밀접히 관련된 썸어족의 언어와의 비교에 의해서 제시되며 그리고 텍스트 상호 분석에 의해 검증된다. 음절문자들의 음성학적인 형태들(shape)은 처음에 외래어의 음역들을 통해 확정됐으며 연이어 썸어 소리와의 상호 대조에 의해 순화됐다. 예를들어 모두 /kalbu/'dog'를 나타내는 ka-al-bu와 kal-bu와 같은 흔한 대안적 철자들이 그 증거다. 동일한 음절문자들은 수메르어 낱말들의 음소적 형식들을 제공하는 하는데 쓰여진다. 그러나 소리들의 이런 상호 대조 제시에 있어서의 왜곡은 수메르어의 음소 목록의 덜 엄

밀한 규정에 기인한다. //

'한정사'(determinatives, 限定詞)와 '분류사'(classify, 分類詞) 그리고 음성학적인 부호들을 포함하고 있는 표의문자(ideogram)들을 지니는 썩기문자의 주요 유형은 이집트와 상형문자적인(hieroglyphic) 히타이트어와 미노아-미케네어(Minoan-Mycenaean)와 원시-엘람어(Proto-Elamite)와 원시-인도어(Proto-Indic)와 중국어처럼 음절어(a word-syllabic) 체계이다. 이것들 가운데 수메르어 시스템이 가장 오래된 것처럼 보인다. 어느 정도에서 이 수메르어가 다른 언어의 발원시켰는지 또는 다른 언어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규정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글이 공통의 단일한 언어로부터 시작됐는지 아니면 여러 언어를 자신의 근원으로 시작됐는지에 관한 문제와 결부되는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페니키아인의 자음 쓰기법(script)는 우가리트어와 고대 페르시아어가 썩기 풀이라는 외면적인 비슷함만을 유지하면서 그것에 근거하여 구성된 새로운 위상학(topological)적인 패턴을 제공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5) 상형문자(hieroglyphs, 象形文字)



### 5-1)이집트 언어

이집트 언어는 초기 역사 시대부터 기원후 1000 년에 간혹 이르는 나일 계곡(Nile valley)의 말(speech)이다. 이집트어는 셈어와 Berber와 Cushitic과 Chad(Chad는 Hausa를 포함한다)가 그 한 가지인 아프로-아시아 언어 군의 한 가지를 이룬다. 인칭 대명사들과 동사접미어의 비교에 의해 논증되듯이 이들 언어들 사이의 관계는 확실하다. 세부적인 사항들이 여전히 논구되고 있지만 말이다.

아프로-아시아 어족의 가지들 중 단지 이집트어와 셈어만이 아주 고대로부터의 기록들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심지어 기원전 3000 년 경에서조차 이 두 언어들은 많이 구분된다. 비슷한 점들 중에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성(genders, 性)과 단수와 복수와 쌍수(dual, 雙數) 라는 세 수의 문법적 소유가 있다. 양자의 어형론은, 영어의 to fall과 to fell 또는 drink와 drunken과 drench처럼, 모음 패턴과 부가어(affix)가 덧붙여지는 자음어간들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이집트어는 앓카디아어의 permansive와 서부 셈어의 완료에 관련되는 동사접미형(고대완료형)지녔다. 마찬가지로 이집트어 특유의 접미사들로 형성되는 일련의 다른 동사형들도 소유했다.

// 이집트어는 셈어와 Berber어와의 밀접한 연관을 보여주는, 아프로-아시아 언어 군의 독립된 한 가지를 나타낸다. 기원전 3000 년부터 기원후 1300 년에 이르는 사 천년 이상의 생성역사를 지니는 이집트어는 통시적이고 유형학적인 탐구를 위한 이상적인 영역을 제공한다.

Gardiner(1957)의 그것은 상형문자 연구를 위해 아주 폭 넓게 사용되는 소책자이며, Callender(1975)는 고전언어의 문법에 생성적/변형적 접근을 시도했다. Edel(1955-64)는 고대왕국 언어에 관한 문헌학적인 색인작업을 했으며, Černý & Groll(1984)는 후기 이집트어의 구조적 분석을 제공한다. Erman & Grapow(1926-53)의 그것은 여전히 이집트어 표준사전이며, Crum(1929-39)은 **콕트어(Coptic)**의 훨씬 더 많은 상세한 문헌학적 소책자를 제공하고, Westendorf(1965-67)의 그것은 어원 재구성을 위한 중요한 도구이다. Polotsky(1971, 1976)는 이집트학 대부분의 동시대 언어학적 탐구가 거기에서 시작하는 이집트 문법의 현대표준이론을 제시한다. 동사와 명사체계에 대해서는 Loprieno(1986)와 Osing(1976)을 각기 참조하면 된다.

### 5-1-1)이집트어의 역사

이집트어의 역사는 전기와 후기 등 두 주요 국면으로 나뉠 수 있다. 그리고 이 국면들 각 각은 주로 글쓰는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단계로 더 나뉜다.

**고대 이집트어**는 기원후 2세기까지의 종교적 텍스트들에서 생존하는 기원전 3000년부터 기원전 1300년 까지의 문자언어를 지시한다. 이 문자언어는 어떤 정관사도 지니지 않으며 동사-주어-목적어 어순을 지니는 종합적인 문법구조 선호에 의해 특징지워진다. 이 언어는 아래와 같은 주요 단계로 나뉜다.

ㄱ)고대 이집트어: 고대왕국과 그리고 첫 그 중간시기(기원전 3000-2000년).

ㄴ)중기 이집트어: 중기왕국부터 18 대 왕조의 끝까지(기원전 2000-1300년).

고전 문학언어인 이 시기는 규칙적인 정서법(orthography, 正書法)을 지닌 데 있어 고대 이집트어와 다르다.

ㄷ)후 중기 이집트어: 기원전 1300 년 이후의 보다 더 형식적인(formal) 텍스트들의 언어.

**그리스와 로마 시대**(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후 2세기 까지의 프톨레미 이집트어)시대의 그 언어는 일련의 상형문자부호들을 정교하게 정리한다.

**후기 이집트어**(기원전 1300년부터 기원후 1300년까지)는 제 19 왕조부터 기독교 시대까지의 문학언어를 지시한다. 이 시기는 아래와 같은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ㄴ)후기 이집트어: 기원전 1300-700년까지.

ㄹ)민용(demotic)어: 기원전 7세기부터 기원후 5세기까지. 이 시기의 언어는 그

것의 그래픽 시스템에 있어 근본적으로 후 중기(late) 이집트어와 다르다.

ㅁ)콥트어(Coptic): 기원후 4세기부터 14세기까지. 기독교 이집트의 알파벳 문자언어.

말하여진(그리고 마찬가지로 점점 쓰여진) 언어로서의 콥트어는 9 세기부터 **아랍어**에게 자리를 내어주나, 현재까지 콥트 교회의 예배 언어로서 생존한다. 후기

이집트어는 예를들어 정관사와 그리고 주어-동사-목적어 삼입적인(periphrastic) 패턴과 같은 분석적인 특징을 지니면서 발전한다.

고대 이집트 사회 전개의 밑 바닥에 깔린 정치 사회적인 모델의 중앙집권적인 본성때문에 콥트 이전의 이집트어에는 방언적인 차이들이 있다는 증거가 거의 없다. 그러나 고대 이집트어의 기원인 것들 아마 하부 이집트의 메피스(Memphis)에, 그리고 후기 이집트어의 그 기원인 것들은 상부 이집트 테베스(Thebes)에 위치할 것이다. 콥트어는 다양한 방언들을 보여준다. //

4000 년 넘게 추적할 수 있는 풍부한 문서들이 있는 것에서 보아 알 수 있듯, 이집트어는 알려진 어떤 언어 보다 더 긴 기록 역사를 지닌다. 읽기에 충분한 길이를 지닌 가장 오래된 비문(inscription, 碑文)은 약 2500 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가장 최근의 콥트어 작문들(compositions)은 그리스도 이후 약 14세기까지 내려 온다. 이하 다섯 주요 시기로 구분될 수 있으리라.

**고대 이집트어:** 기원전 3000 년부터의 1, 2 왕조의 많은 비문들이 알려졌으나, 아주 짧은 이것들 대부분은 주로 이름들이나 칭호들이며 일반적으로 읽혀질 수 있다. 이 시기의 더 긴 비문들은 단지 부분적으로만 독해될 수 있다. 제 3 왕조 무렵부터 글쓰기 관습(conventions)들이 확립됐으며 고대 이집트어의 실재 역사가 시작된다. 이 고대 이집트 언어에 관한 얇은 주요 채원들은 제 3 왕조 말기부터 시작된 전기적(biographic, 傳記的) 텍스트들과 제 4 왕조부터 6 왕조까지의 왕의 법령(royal decree)과 제 5 와 6 왕조의 피라밋 텍스트들이다. 왕의 사후 평안함을 비는 주술적인 철자들인 피라밋 텍스트들의 언어는 아주 고체(archaic) 적 특징을 포함하여 그 자체 독특함을 보여준다. 몇몇 글월들은 제 1 왕조 이전에 작성됐다고 믿어진다.

**중기 이집트어:** 중기 이집트어는 고대 이집트어의 고전적인 시기이다. 고대 이집트어로부터 발전하여 기원전 2200 년 경 구어체(spoken) 언어에 근거한 이 중기 이집트어는 1379 년 경의 이크나톤(Ikhnaton) 지배 시까지 모든 의도를 위해 사용됐다. 이 기간 동안의 그 언어의 연속적인 발전은 후기 이집트어에서만 표준이 되었던 특별한 경우의 형식에 의해서 숙고된다. Westcar 파피루스 전설은 그런 영향을 많이 보여준다. 다른 예(例)는 벽에 그려진 노동자들은 후기 이집트어

로 말하고 있지만 그 비문들의 나머지는 중기 이집트어인 El Kab의 귀족 Paheri의 무덤에서 발견된다. 실천적인 의도에서 후기 이집트어에 자리를 물려줌에도 중기 이집트어는 계속하여 대부분의 기념 비문들과 몇몇 문학 작품에 있어 기독교시대까지 이어진다. 기원전 196년의 **로제타 석**(Rosetta stone)의 텍스트는 이 고전 언어의 글로 쓰려는 시도였다.

**후기 이집트어:** 후기 이집트어의 공식적인 쓰임새는 이교도 이크나톤 왕의 지배 시에 만들어진 개혁 언어들 중의 하나로 시작됐다. 고대와 중기 이집트어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언어인 반면 이 후기 이집트어는 충격적인 차이들을 보여준다. 콥트어까지 계속된 실천인 정관사와 부정관사의 사용과 그리고 오래된 동사형들이 바뀌어지면서 많은 음성학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새로운 낱말들이 많이 나타났다. 텍스트들은 주로 수고(manuscript, 手稿)이지만 마찬가지로 몇몇 비문들도 알려졌다. 비록 후기어는 그 시대의 말해진 언어(구어체)에 훨씬 더 가깝지만 보다 더 오래된 쓰여진 언어(문어체)의 모든 쓰임새를 대신한 것은 아니다.

**민용(demotic, 民用)어:** Saite 시기에 시작하여 로마 시대까지 계속된 이집트 민용어는 몇몇 문학적인 텍스트들을 포함하여, 다른 문서들과 그리고 공식적인 행위들을 위해 쓰여진 일상(ordinary)어이다. 이 시기 중 로마 시대 때는 마찬가지로 그리스어도 쓰였다. 사원과 무덤에서 또는 왕(조의 법)령을 위해 쓰여진 것들과 같은 동시대의 상형문자 텍스트들은 말해진(spoken, 구어체)언어를 나타내는, 민용어의 영향을 더 또는 덜 받은 일종의 중기 이집트어로 쓰였고, 별로 많지 않은 몇몇 비문들은 상형문자들로 쓰였다. 문학작품과 몇몇 종교적인 텍스트들을 포함하여 일상적인 민용어 문서들은 데모틱 스크립트(demotic script)로 쓰였다. 로제타 석의 가운데 부분은 민용어(데모틱) 철자들로 된 민용어 비문의 좋은 예이다. 이집트 민용어는 후기 이집트어와 콥트어 사이의 중간자적 위치에 있지만 일반적으로 후기 이집트어에 더 가깝다. 민용어 스크립트는 읽기 어렵다. 독해 할 때 더 이른 이집트어와 콥트어와의 비교에 많이 의존해야만한다. 콥트어의 그것들과 관련되 방언 구분들의 일정한 흔적이 민용어 텍스트들에서 발견된다.

**콥트어(Coptic, 기원전 3세기부터):** 로마와 비잔틴 기간 동안에는 세속적인 쓰임새 뿐만 아니라 정부의도들을 위해서도 이집트에서는 그리스어가 대부분 공통의 쓰여진(written, 文어체)언어였다. 텍스트들이 이집트에서 그러나 오래된 상

형문자 전통을 단절시키면서 기원전 2 세기 초엽에 그리스 문자(letters)들로 쓰여진다. 이것들은 대부분 점성술과 마법과 주문 그리고 이와 비슷한 것들이다. 기원전 3 세기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기독교 문학은 민용어로부터 취해진 일곱 철자들로 보충된 그리스 문자(letters)들로 쓰여진다. 바로 이 언어가 **구어체**의, 그리고 그리스어 'αἴγυπτος, Aigyptos'(Egypt)로부터 온 'Coptic'(콥트어)로 알려진다. 민용어와 콥트어 사이의 언어적 구조의 차이와는 별도로 어휘와 일반적인 억양(tone)에서도 아주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 하나로부터 다른 하나로 옮겨감은 이교주의로부터 기독교로의 변화와 그리고 그리스어에서 빌려 온 교회적인 것들로 대부분 바뀌어지는 더 오래된 사제(priestly, 司祭)적 단어들과 표현들을 반영한다.

살아있는 언어이기를 콥트어가 언제 멈추었는지 그 정확한 날짜는 알려지지 않았다. 11 세기에 이르러 그 콥트어는 쇠퇴하기 시작하여 오늘-날 이집트의 말(speech)이 된 아랍어에게 점점 길을 내주게 된다. 1672년과 1673년에 이집트를 방문했던 여행가 P.Vansleb은 콥트어로 여전히 말하고 있는 어떤 사람을 발견하는 것에 놀라워했다. 역사가 Maqrizi가 콥트어는 여전히 상부 이집트에서 여자와 어린이들에 의해 말해지고 있다고 15세기에 언급한 것처럼, 마크리즈의 시대와 반스랩 시대 사이 즉 16 세기에 콥트어는 죽었다고 일반적으로 상정된다. 콥트어를 읽을(read)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콥트어 몇몇 구(句)들을 말(speak)할 수 있었던 테베스(Thebes) 근방의 몇몇 농부가 1963-37년에 발견됐다. Bohairic 방언은 여전히 콥트 교회의 예배 언어인데, 그 발음은 현대 그리스어 철자들의 음가에 근거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언은 언어의 역사를 위해서는 어떤 가치도 지니고 있지 않다.

**형태학:** 고대 이집트어에서 콥트어로의 동사체계의 발전은 아마 이집트의 긴 언어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특징일 것이다. 고대 완료형 이외에도 고대 이집트어는 중기 이집트어를 통해 사용된 주요 동사형들이 담지하고 있는 일련의 접미어의 변화를 지녔다. 마찬가지로 'he hears'(그가 듣는다) 대신에 'he is upon hearing'(듣고 있는 그)와 같은 동사적 명사를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다. 후기 이집트어까지 이런 동사구들이 숫자적으로나 쓰임새에 있어서나 모두 증가했는데, 콥트어에서 이것들이 완성된 세트의 동사형들(현재, 미래, 완료, 접속법, 회구법, 사역형(causative, 使役形))로 발전하는 동안 단지 오래된 접미어 변화들의 굳어진 조각들만이 남을 뿐이었다. 흥미롭게도 아프리카-아시아어-원형(proto-Afro-Asiatic)으로부터 상속됐던 고대 완료형은 콥트어에서 제한적으로(as the

qualitative, 질적으로) 살아 남은 반면, 이집트어 내부에서 생겨난 접미어 변화들은 사라졌다.

**음성학:** 이집트어의 더 이른 국면들에서의 자음들의 음성학적인 값(phonetic value, 음가)에 관한 공정하고 정확하게 연역될 수 있으리라. 그러나 모음들에 관해서는 그 어떤 것도 알려진 것이 없다. 모음들이 규칙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쓰였던 유일한 국면으로서의 곱트어는 고대의 모음찍기(vocalization)의 재구성을 위한 주요한 정보 재원이다. 오래된 동사형들의 대부분은 곱트어에서 발견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재구성은 범위에 있어 한정돼있다.

### // 5-1-1-2) 글쓰기 체계

고대 이집트어의 근본적인 그래픽 체계는 상형문자쓰기(Hieroglyphic)이다. 이 상형문자 쓰기법은 실재들(realia)을 나타내는 일련의 부호(signs)들로 구성된다. 고대 왕국에서는 그와같은 기호(symbols)들이 약 천 개 정도 있었으며, 고전문학에서는 대략 760 개 정도, 그리고 프톨레미아 이집트어에서는 극적으로 증가하여 수 천개 있었다. 그 체계는 **음성학적인 원리와 표의문자(ideographic)원리를 결합시킨다.** 낱말들은, 음성학적인 구조를 지니는 **표음문자(phonograms)**라고 불리우는, 단자음적인 또는 복자음적인 또는 삼중자음적인 부호들의 연이어짐과 더불어 시작한다. 모음적인(그리고 자주 반모음적인) 음소(phoneme, 音素)은 표기되지 않은 채 표현된다. 표음문자들의 연이어짐에는 상징적으로(iconically) 낱말의 의미 영역을 가리키는 한정사들(determinatives)이라고 불리우는 의미소들(semagrams, 意味素)그룹 중의 하나가 보통 잇따른다. 특히 후기 국면에서는 낱말 하나에 의미소가 하나 이상 있을 것이다. 공통적인 용법을 갖는 몇몇 낱말들-대명사들과 전치사과 'dd'(to say, 말하다)와 같은 몇몇 항목들-은 단지 음성학적으로만 쓰였다. 그러나 기본적인 많은 항목들은 자신들의 의미론적 지시들을 나타내거나 기호화하거나 (상징화들을 통해, through rebuses)불리일으키는 의미소들에 의해 표현된다. 그리고 이집트어 쓰기법은 일련의 24 개의 알파벳적인(즉 단자음적인) 부호들을 보여준다. 이러한 일련의 부호들은 그 언어의 자음적인 음소와 반모음적인 음소 목록에 상응한다. 그렇지만 그 이집트어 글쓰기는 곱트어 시대가 되기 전까지는 결코 진짜 알파벳 체계로 발전하지 않는다. 지시와 지시체(signifiant and signifié) 사이의 관계에 잠재적으로 내재하여 증가하는, 이런 글쓰기 체계 안의 기호 의식은 프톨레미시대의 이집트어에서의 암호적인 쓰임새로 그 해결책을 마련한다.

주로 기념 의도하에서 사용된 상형문자체계는 묶고 구분하는 부호들을 지닌 단순한 흘림체를 나타내는 기원전 2600 년부터 기원전 3 세기까지의 **Hieratic(히에라틱)** 흘림체와 그리고 히에라틱 부호-그룹들의 단순화되어 짧아진 것 같은 것을 이끌어들이에 의해서 글쓰기 관습들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기원전 7 세기부터 기원후 5 세기에 이르는 **Demotic(도메틱)** 흘림체로 나뉜다. *이집트어 글쓰기 체계의-그리고 단지 다양한 흘림체들 안에서만 채용된-기본 방향은 오른 쪽에서 왼쪽이다.* 그러나 비명(epigraphic, 碑銘)에 쓰이는 상형문자들은 이 순서를 균형 때문에 그 방향 거꾸로 할 수 있다.

상형문자에 근거한 그 체계 대신에, 그리이스의 것으로부터 유래한 그리고 그리이스의 그것에 외부적인 음소들을 지시하기 위한 7 개 데모틱(demotic) 부호들이 덧붙혀진 알파벳을 지닌 콥트어 글쓰기가 들어선다. 그런데 *콥트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여졌다.* //

## 5-2)상형문자(hieroglyphs)



발전 해 왔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름들과 몇몇 칭호들을 제외하면 가장 오래된 비문들은 읽혀질 수 없다. 많은 경우에 보다 후기의 것들과 비슷한 개별 상형문자들이 사용됐다. 그러나 그 비문 전체의 의미는 애매모호하다. 초기의 이러한 글쓰기는 보다 후기의 경우에서와 같은 완성된 소리들을 나타내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이 시기의 사람 이름들과 그리고 여전히 이 시기의 용법을 반영하고 있었던 보다 후기로부터의 도식(formulas)에 의해 예시될 수 있으리라. 왕조 이름 Wedymuw는 wdy(후에 d로 읽힘)을 나타내는 과 그리고 물을 나타내는, mw로 읽히는(모음은 쓰여지지 않았다) 을 가진, 로 단순히 쓰였다. 보다 후기의 글쓰기는 wdy의 w와 그리고 아마 마찬가지로 y를 가리킴에 있어 더 충분했으며 그리고 자음 n을 위해 물결 선 하나 를 남겨두면서 mw를 위해 물결 선 세 개 를 사용했다. 왕실 이름들 후의 더 늦은 시기에 두루 일정하게 사용됐던 도식   (살아 번영하고 건강할지어다!)은 모든 시기에 그 낱말 안의 모든 자음들을 나타내는('nx -- '은 아랍어 ayin과 같다) '살다'의 부호 과 그리고 '번영하다'를 나타내는 에 해당되는( ? 은후음 파열음이다) 부호 과 그리고 s를 위한 부호 와 함께(snb는 '건강해져라'를 뜻한다) 쓰인다. 이런 글쓰기들의 축약 본성은 초기 상형문자가 소리들의 일정하게 나타내는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글쓰기 체계는 그러한 축약성을 지닌 만큼 기억을 돕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오래된 시기에서조차도 상형문자 글쓰기의 근본적인 원리는 작동됐다.

ㄱ) 상형문자는 그려진 본디 대상 또는 행동을 나타내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은 '해'(태양)를 나타낼 것이고 자신의 손을 자신의 입에 대고 있는 사람 은 '먹다'(eat)를 나타낼 것이다.

ㄴ) 상형문자는 그 그림에 의해 암시되는 다른 낱말을 나타내는 데에 사용됐을 것이다. 은 '날'(day) 또는 그 태양-신 Re(Ra)을 나타낼 것이고 그리고 은 마치 그 사람이 스스로 어떤 말을 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손을 입에 갖다 대는 것처럼 '침묵하자'(be silent)를 나타내는 데에 쓰였을 것이다.

ㄷ) 상형문자는 동일하거나 또는 거의 동일한 자음들을 지닌 어떤 낱말이나 어떤 낱말의 부분을 음성학적으로 나타내는 데에 쓰였을 것이다. 그 자음들은 반드시 동일한 순서로 있어야만 한다. 자음 ḥğ을 지녔던 '전곤(mace, 戰棍)'은 마찬가지로

가지로 ḥg '밝아지다'(be bright)를 나타내는 데에 쓰였을 것이고 □pr(집, house)은 pry(나가다, go out)를 나타냈을 것이다.

기원전 2700 년 경의 제 3 왕조까지 이러한 원리들은 그 언어의 보다 더 규칙적인 표현 속에서 확립됐다. 그리고 약 3000 년 동안 사용된 글쓰기 체계 하나가 확립됐다. 그 과정에 어떤 의식적인 간섭(direction)이 반드시 있었을 것임에도 철자들을 이끌어 들이는 일정한 논리적 체계는 절대 있지 않았으나, 어떻게 부호들이 사용되느냐의 용법(usage)에 관한 일반적인 동의가 생겨났다. 중기 이집트어의 스펠링(spelling, 철자)이 가장 일관적이었다. 그리고 이에 잇따르는 묘사는 우선적으로 이 중기 이집트어에 근거를 두었다.

셈어와 마찬가지로 이집트어는 어간들이 보통 자음들로 구성되는, 접미사와 접두사와 같은 수 많은 다른 모음 패턴과 결부되는 언어였다. '얼굴'에 해당되는 낱말은 \* ḥar와 같은 것이었으나, '그의 얼굴'은 \* ḥarif와 더 같은 것이었다. 자음들만이 동일한 어근의 다른 용법에 있어 동일했을 뿐이므로, 그 어근을 위한 상형문자는 바로 그 자음들과 연합됐다. 'face'는 단지 두 개의 자음 ḥr 만을 나타냈다. 그 부호가 비슷하게 소리나는 낱말을 위해 사용됐을 때만 자음들을 옆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집을 나타내는 부호는 par, pur, pir, pra, pru, pri, 또는 모음없는 pr 대신에 사용될 수 있다. 그 결과 **이집트 상형문자는 글쓰기 모음들을 가리키는 어떤 길도 지니지 않게됐다.** (현대학자들은 고대 이집트어 발음에는 없었던, 이집트어 발음하는 '관습'적인 길을 지니고 있다)

Hieroglyph Cursive Phonetic      Hieroglyph Cursive Phonetic

	f\ a		4 1
	5 e		2 kh
	4 i		3 kh
	/ o		J// s
	/// y		3 sh
	8 w		3 k
	v b		13 q
	~ p		4 t
	3 m		14 te
	~ n		4 to
	X n(i)		7 z
	w r		.

이집

트어 글쓰기의 어느 예에서든 대부분의 부호들은 자음들을 나타내지 관념(idea)들을 나타내지 않는다. 작은 수의 부호들이 단일한 자음들을 나타내게 됐다. 빨달린 살무사 ~은 f, 손☞은 d, 빵 덩어리△는 t, 부엉이☞은 m 등 등 이었다. w를 위한 ☞ 또는 9 처럼, 몇 몇의 경우에는 동일한 자음을 위한 여러 부호들이 있었다. 24 개 각기 자음들을 대신하는 부호가 최소한 한 개 있었으므로, 이집트인들

은 후에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 발전된 것과 같은, 잠재적인 알파벳들을 이런 부호들 덕분에 갖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인들은 이런 사실의 장점을 결코 취하지 않고 단지 상형문자들이 사용될 수 있는 한 여기에서 개괄된 복잡한 방식으로 글쓰기를 계속해 나갔다. 그러나 그 체계 내에서는 그런 부호를 지니는 많은 단어들이 쓰여졌으며 그래서 (자음들에 관련되는 한) 알파벳적으로 철자들을 적을 수 있었다(spelled).

단일한 자음들을 나타내는 부호들이 여러 길로 사용됐다. 어떤 경우에는 낱말의 첫 글자가 '빨달린 살무사' ft로부터의 f, '입' r<sup>2</sup>로부터의 r와 같은 방식으로 취해졌다. 분디 <sup>2</sup>gyt인 코브라 <sup>3</sup>은 ġ로 사용됐다. 이것에서도, 많은 다른 것들에서처럼, 절대적인 일관성은 없었다. 어떤 쓰기법은 을 ġ로 사용하는 반면 다른 쓰기법은 선례를 따랐다(followed suit). 초기 상형문자 글쓰기의 음성학적 원리는 자음들의 완전한 확인(identity)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둘 또는 세 자음들을 나타내게 되는 몇몇 부호들에 의해서 예시된다. 그러나 무슨 자음이 무시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 패턴은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단지 후음 파열음(<sup>2</sup>), y, w 와 여성 접미사 '-t'만이 생략됐을 것이다.

약 78 개의 상형문자들이 일반적으로 두개 자음들을 각기 나타내는 데에 쓰이게 됐다. 집 □은 pr를, 눈 은 '-t'가 생략된 yrt'눈, eye'으로부터 온 pr를 나타냈다. bh와 hw을 위한 것처럼 몇몇의 경우에는 어떤 부호는 하나 이상의 결합을 나타내거나 또는 mr를 위한 <sup>2</sup>과 처럼 여러부호가 동일한 소리들을 나타냈다. 결국 가능한 576 결합들로부터의 약 76 개의 다른 결합들이 음성학적 부호들로 보통 사용되어 글로 쓰였다.

낱말 하나 안에서 모든 자음들을 나타내는 어떤 상형문자는 셋 또는 그 이상의 자음들까지 나타냈을 것이다. ... '날'(day) <sup>2</sup>은 hrw였다. ... 단지 몇 몇의 부호들만이 세 자음들을 위한 일반적인 음성부호들로 사용됐다. 이것들 중 가장 공통의 것은 단지 음성(학적, phonetic)부호들로서만 사용된 trw <sup>2</sup>였다. ...

이집트어 스펠링은 보통 선명하지만 자주 둔한(clumsy)방식으로 위 요소들 모두 연결시켰다. 일상적으로 낱말들은 부호들의 연결과 더불어 쓰여지면서 어떤 낱말들은 일반적인 관념(idea)을 나타내게 됐고 심지어 어떤 낱말들은 대상이나 행위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낱말들은 그 소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소리를 제공하는 부호는 여러 다른 음가들(sound values)지닐 것이므로 읽는 자로 하여금 어느 것이 의미되는 지를 확실히 알도록 하기 위해 다른 부호들이 덧붙혀졌다. [예를 통한 설명은 부호들의 부재 때문에 생략함] .....

제한된 수의 상형문자들이 규칙적인 음(성학적인) 가치(phonetic values)들을 지니므로, 다른 상형문자들은 낱말들이 어떤 류형 또는 부류에 속하는지를 가리키기 위해 규칙적으로 사용된다. 바로 이것들이 한정자들(determinative)이라고 알려졌다. [마찬가지로 위 단락에서와 같은 이유로 예를 통한 설명을 생략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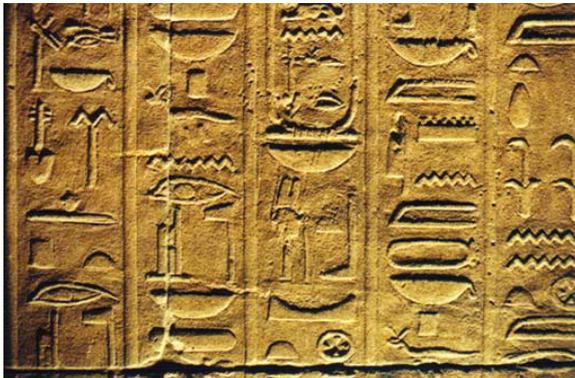
명사 복수들을 쓰기 위한 많은 길들이 있었다. 이런 길들 중의 하나는 낱말 또는 낱말 부호를 세 번 반복하는 것이었다. ... prw 𐎠𐎠𐎠'집들'. 다른 길은 스트로크(strokes) ' |'를 세 개 덧붙히는 것이었다. 𐎠 prw. 그 이외에도 문제의 스트로크는 pry'나가다, go out'나 다른 어떤 낱말로가 아니라 그것이 그려내고 있는 것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어미도 음성학적으로 쓰여질 수 있다 그러나 복수의 스트로크들을 스펠링에 덧붙히는 것이 관습이었다. 복수 어미는 w였으므로 복수 스트로크들은 w로 끝나는 낱말에 자주 덧붙혀졌다. 심지어 𐎠𐎠 nfrw '짧은 나이'('나쁜 새'의 쓰임새임에 유의) 어떤 복수도 의도되지 않았을 때 조차 말이다. 세 겹으로 쓰는 것도 동일한 길에서 사용될 수 있다: 𐎠𐎠 hfrw '아름다움'(beauty). 동일한 자음들을 지니는 위 두 낱말들은 알려지지 않는 다른 모음 패턴들을 의심의 여지없이 지닌다. 이것들은 이집트어의 글쓰기가 단지 자음들 만을 지니는 순수한 알파벳 글쓰기 보다 더 선명하다는 사실을 예시한다. 마찬가지로 복수 스트로크들은량을 가리키는 낱말들에서 하나의 한정사로서 사용될 수 있다. ...

스펠링 체계 안에서의 상형문자의 연합에 근거하여, 파생되는 값의 이런 류형의 많은 다른 예들이 주어질 수 있다. 예를들어 감탄사 '오!'(oh!)는 적절한 한정사와 더불어 𐎠𐎠로 쓰여졌다. 그리고 나서 이런 그룹의 부호들은 한정사를 지니지 않는 낱말들에서 동일한 파열 후음 자음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됐다. 늦은 중기 이집트어 글쓰기에서 ?nn '우리'(we)를 나타내는 𐎠𐎠에서처럼.

여기에서 언급된 쓰임새를 토대로하여, 상형문자는 표의문자(logograms)(마찬가지로 이데오그램들(ideograms, 표의문자) 또는 낱말부호들로)와 한정사들과 표음문자(phonograms)(음성부호, phonetic signs)로 분류 돼 왔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형태소들(morphemes)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묘사 돼 왔다. 이런 분류는 편리(convenient)하긴 하나, 특정한 낱말의 경우 그것이 어느 분류에 속하는가를 자주 결정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런 부정확함은 일련의 범주적 현대 분석으로 자신을 용납하지 않는, 이집트어 글쓰기의 본성에 기인한다.

이집트어는 자주 낱말을 단위(unit)로 쓴다. 그리고 오래된 음성학적 스펠링은 소리변화가 문제의 자음들을 바꾼 후에도 심지어 보통 유지된다. ... 고대와 중기 이집트에서는 이런 종류의 최소한의 글쓰기가 있었으나, 후기 이집트어 스펠링에는 언어적인 변화를 보상하기 위해 때론 풍부하게 부호들이 잘못 더해졌다. ....

일정성(uniformity)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상형문자 스펠링에는 허용가능한 많은 영역 다양성이 있었다는 것은 [생략된] 그러한 예들로부터 쉽게 보여진다. 규칙적인 체계에 덧붙여 여러 특별한 유형의 스펠링(spelling, 철자법)이 더해졌다. 이것들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집단 글쓰기'(group writing)이다. 집단 글쓰기에서의 각기 자음은 보통 두 개의 자음을 가리키는 하나의 부호 또는 부호들의 집단(그룹)과 더불어 쓰여진다. 이런 스펠링으로는 어떤 텍스트도 쓰여지지 않았지만 고대 이집트어 시기부터 종 종 개별낱말들로서 사용됐다. 후기 이집트어에서는 주로 그것이 외래 이름들과 그리고 다른 차용어(loan words, 借用語)들을 쓰기 위해 사용됐다. .... 이러한 글쓰기는 음절적이며 그래서 모음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한 시도들이 있어 왔으나, 그렇다는 것이 증명되지는 않았다. NBC와 같은 영어 축약어들의 발음에서처럼, 상형문자의 이름들을 사용하여



낱말들을 스펠링하는 것이 이집트어의 길이였다. 다른 모음들을 지니는 몇몇 이름들을 연상시키면서 말이다. 그래서 그 낱말의 모음들과 부호들에는 부분적인 대응이 있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제 19 번째와 제 20 번째 왕조의 종교적인 비문들에 사용된 밀스런 글쓰기에서와 같은 암호 스크립트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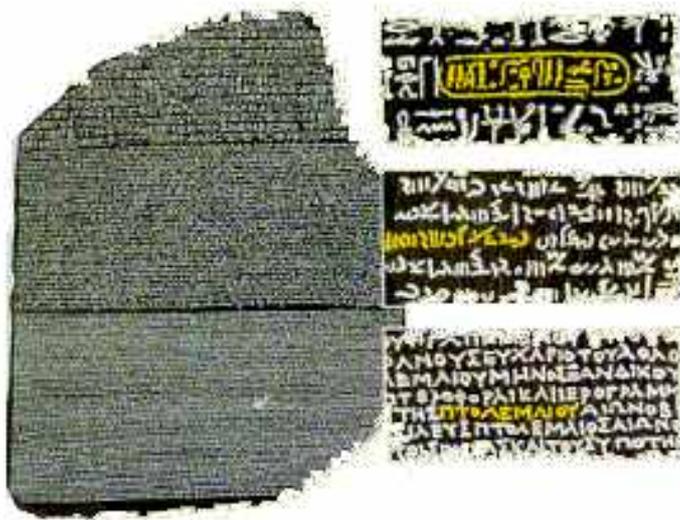
**부호들의 순서:** 상형문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지는 동안 수평선(가로질러

읽기) 또는 수직선(내려 읽기)이 그려진다. 상형문자 도형(figures)들은 항상 그 선의 시작 쪽에 향해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는 비문에서는 부호들이 오른쪽으로 향해 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 갈때는 그 반대이다. 공간을

말끔하고 균형적으로 채우기 위해 상형문자들이 선택되어 배열된다. ....

**독해:** 문제의 그림이 신비적인 기호들로 구성됐다고 믿었기 때문에, 상형문자 비문들을 해독하려는 1800 년 이전의 시도들은 완전한 실패였다. 그러한 중세적 개념은 상형문자 이집트어와 데모틱어와 그리고 그리이스어 등 세 가지 언어로 쓰인 비문 **로제타 석**(Rosseta stone, 石)의 1799 년 발견 후 조차 심지어 서서히 죽어갔다. 프랑스 학자 A.I. Silverstre de Sacy와 스웨덴 외교관 Jean David Akerbald는 1802 년에 데모틱 텍스트들을 그리이스어와 비교함에 의해서 그 텍스트 안에서 많은 고유명사들을 확인한다. 마찬가지로 아커발트는 몇 몇의 데모틱 부호들에게 음가들을 올바르게 배정했다.

18 세기에 여러 학자들은 비문 안에서 발견된 달걀모양의 것(ovals)또는 꽃 장식 테두리(cartouches)는 고유명사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었다. 로제타 석은 모두 재빨리 프톨레미(prolemy)로 확인된 동일한 이름을 포함하 여섯 꽃 장식 테두리가 있었다. 이것과 그리고 다른 비문에서 발견됐던 꽃 장식 테두리를 영국물리학자 토마스 영(Thomas Young)은 연구하여, 그 음가들중 p, t, i, n과 l 다섯을 상형문자에 올바르게 배정한다. 그는 자신의 논문을 1819 년에 완성하여 1824 년 판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에 공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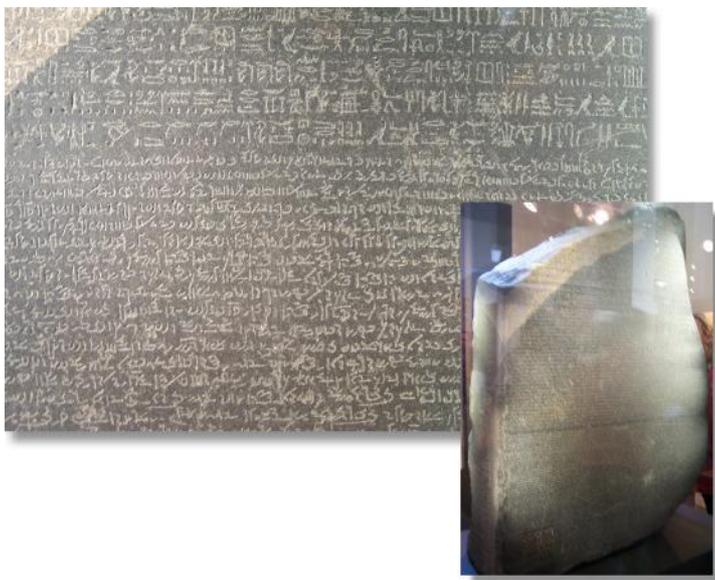
고유명사들과 몇 몇 고립된 문자들 뿐만 아니라 긴 글월들과 연결된 텍스트들을 현실적으로 읽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사람은 프랑스 학자 Jean François Champollion이었다. 그는 로제타 석을 포괄적으로 연구하여 하나씩 하나씩 다른 버전의 부호들을 비교, 등가어(equivalent) 목록을 준비

했다. 샹폴레옹은 demotic 글쓰기가 자신이 다른 문서들로부터 알고 있던 hieratic 글쓰기로부터 발전했으며 그리고 이 히에라틱 글쓰기는 hieroglyphic로부터 발전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름 클레오파트라를 민용문자(demotic)로 확

인한 그는 그것을 거꾸로 히에라틱으로 그리고 나서 히에로글리프로 옮겨 썼다. 후에 그는 그리이스어와 히에로글리프 두 언어로 쓰여진 오벨리스크(obelisk) 비문의 복사본을 확보하여 거기에서 자신에 재구성했던 거의 그대로 쓰여진 클레오파트라를 발견했다. p, t, o, l와 e를 공통으로 지닌 이름들 Ptolemy와 Cleopatra를 비교하면서 그는 t에 해당되는 두 개를 포함하여 그러한 글자들(letter)에 해당하는 상형문자들 뿐만 아니라 이 두 꽃 장식 테두리(cartouches)에서 사용된 다른 상형문자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가 상형문자들로 배정했던 음가(values)들 중 모두가 현재의 읽의 관점에서 볼 때 정확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음가들은 미래의 연구를 위한 든든한 토대를 제공하기에 아주 충분했다.

해독(解讀)된 이름들이 그리이스어와 모라어 등 외래어였으므로, 상플레옹은 히에로글리프들이 음성학적인 길에서 규칙적으로 고대 이집트 언어로 사용되어 쓰였는지에 대해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다. 1822년 9월 그는 Rameses와 Tuthmosis 이름들을 지닌 장식 테두리를 포함하고 있던 보다 더 오랜 시기의 비문 복사본을 전달 받았다. 자신의 부족한 알파벳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여 기교적으로 곱트어와 로제타 석에 관한 자신의 앎을 적용, 성공적으로 그는 그것들을 해독했다. 그런후 그는 자신이 그 고대 언어 자체에 관한 열쇠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집트어 텍스트들을 고유 명사들에서 발견된 음가들로 지금 읽는 데에 사용될 수 있었다는 것을 그는 1822년 9월 22일 M. Dacier에로의 편지에서 알렸다.

### 5-2-1)로제타 석(Rostta stone).



로제타 석은 그것의 해독이 우리를 상형문자의 이해로 이끌었던 비문들을 담고있는 고대 이집트 돌이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약 30 마일(48 Km) 떨어진, 도시 로제타 또는 라시드(Rachid) 근방, 나일강 서쪽 델타 지역 왼쪽 뚝에서 발견된 후 지금 영국 런던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불규칙한 모양을 띤 검은 현무암으로 된 그것은 길이 3피트 9인치(114 cm), 폭 2피트 4.5인치(71 cm)이다.

라시드 라는 현대의 도시는 알렉산드리아가 상업적인 쇠퇴를 겪고 있었던 때인 기원후 9 세기, 이집트를 정복한 아랍인들에 의해 건설됐으나, 인도에로의 해상항로 발견후 로제타는 점점 그 중요성을 잃고 있었다. 1960 년대 약 2만 5천명 정도의 로제타 거주자들은 이집트인들 만큼이나 많은 그리이스인들을 포함한다.

성(聖) Julien 요새(要塞)를 보수(補修)하고 있던 프랑스 인 Bouchard 또는 Boussard에 의해 1799 년 8 월에 발견된 로제타 돌은 1801 년 이집트에서의 프랑스 항복과 더불어 영국의 손에 건네진다. 프톨레미 4 세의 9 번째 치세(治世)인 기원전 197-196에 프톨레미 4 세가 Epiphanes(에피파네스)에게 이집트 왕관을 넘겨주는 기념식을 기록하고 있는 이 비문(inscription) 사제권(司祭權)에 근거하여 프톨레미에 의해 베풀어진 선형을 요약하고 있는 그 칙령으로서, 종교지도자들의 일반적인 모임 후에 멤피스(Memphis)의 사제들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서, 나타난다. 이 비문은 두 개 언어의 세 가지 스크립트(쓰기법, scripts)로 쓰여 있어, 그 때까지 해독되지 않았던 이집트 상형문자들의 번역에 있어서의 열쇠를 제공했다. 그 상형문자 비문의 해독은 대부분 Thomas Young(토마스 영)과 Jean François Champollion(장 프랑스와즈 샹폴레옹)의 작업이었다. 왕의 이름들이 꽃장식 테두리(cartouches)로 알려진 달걀모양의 오발즈(ovals) 내에 쓰여졌다는 것을 발견한 토마스 영은 프톨레미와 클레오파트라와 그리고 외래 명사들이 오리지널 그룹과 비교될 수 있는 음가들로 아마 써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라고 상정하고서, 모두 13 개의 이름 부호들 중 6 개에게는 정확한 음가를 그리고 세 개에게는 부분적으로 바른 음가를 부여했다. 마찬가지로 그는 이러한 그림 스크립트로 된 새들과 동물들이 향해 있는 방향을 음미함에 의해 상형문자 부호들이 읽혀지는 길을 1814 년에 발견했다. 이집트 문헌학에로의 그의 주요한 기여는 1824 년 프리타니커 백과사전에 공표됐다.

토마스 영이 떠났던 그 곳에서 출발한 샹폴레옹은 1821-22 년에 히에라틱과 히에로글리프 해독에 관한 회고록(memoirs)를 발간하고, 이것들과 등가의 그리이스어를 지닌 부호들 전체 목록을 확정했다. 샹폴레옹은 몇몇 부호들은 알파벳적이며 몇몇은 음절적이며 그리고 몇몇은 앞에서 표현된 전체 관념 또는 대상을 나타내고 있는 한정사들이라는 것을 인식한 이집트어 첫 문헌학자였다. 마찬가지로 그는 그 상형문자 텍스트는 그리이스어의 번역이지 알려진 것처럼 그 거꾸로가 아니라는 것도 확정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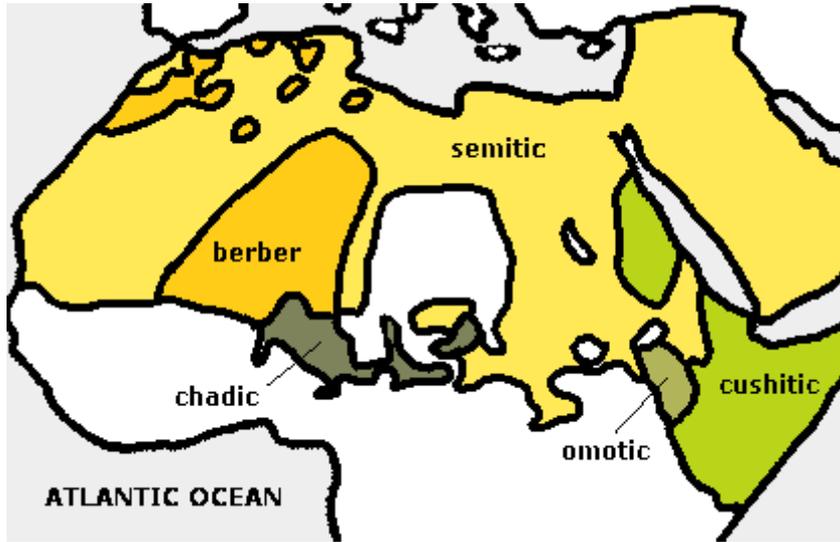
상폴레옹과 토마스 영 이 두 사람의 작업이 미래의 모든 이집트 상형문자 텍스트들의 번역을 위한 토대를 만들었다.

## 6)햄-셈 어족(Hamito-semitic language): 아프로- 아시아어족

### 6-1)아프로-아시아어족(afro-asiatic language family).

//Afro-Asiatic languages(아프로-아시아 언어들)은 Semitic, Berber, Cushitic, Egyptian, and Chadic 등의 하위(branches) 언어들을 포함한다. 이 어군의 약 250 여개 하위 언어들(member)들 중 대부분은 Chadic(120-150 여 개의 언어들)와 Cushitic(약 50 여 개)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fro-)-A(siatc)언어들은 오늘날 중동과 북 아프리카를 차지하고 있다. 개관을 위해서는 D.Cohen(1968)을 참조하자.

과거 40 년 동안 학자들은 셈어(Semitic)와 햄어(Hamitic)로의 두 겹 구분을 거부 해 왔다. 본디 헤미틱(햄어)은 Berber, Cushtic, Egyptian, 그리고 Chadic 일부 그리고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지금은 AA로 간주되지 않는) 다른 아프리카 언어들 때로는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됐다. '햄어' 라는 용어는 이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비록 그 어족 전체가 때로 (드물게는 'Semito-Hemito'로) 여전히 '햄어-셈어'로 지시되기는 해도 말이다. 그 전체를 위한 새로운 이름들 곧 Afrasia와 Erythraic과 Lisamic 등은 거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남서부 에 디오피아의 Omotic 언어는 주(主) AA의 다른 종(從) 언어를 구성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전통계학에 근거한 가정은 이제 정확치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언어들 은 새롭게 된 서쪽 Cushitic로 다시 분류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주로 수단에서 말해지는 북 Cushitic Beja 어를 AA의 다른 주요한 독립된 종(가지, branch, 從) 언어로 분류하려는 시도들 역시 인정받지 못한다. 가지 언어 Berber 는 때로 'Libyco-Berber' 또는 'Berber-Libyan'이라고 불리우나, 이런 용법은 정당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소위 리비아 비문(inscriptions)들의 언어는 Berber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Berber에 기껏해야 부분적인 연결을 보여주는 카나리아(Canary) 섬의 소멸된 Cuanche처럼 빈약하게 입증된다.



AA의 주요한 다섯 가지(하위 언어)들은 똑 같이 병행한다는 것에 대한 넓은 합의가 있지만, 그 하위 썸어는 Berber와 더 가까울 것이다. 이것들 양자(兩者)는 다소 더 먼

Cushitic에 연관되면서 말이다. 결과하는 그룹은 결국 이집트어에 근접한다. 여태까지 부분적으로만 설명됐던 Chadic은 AA의 가장 먼 가지라고 임시방편적으로 숙고될 수 있을 것이다.

햄-셈어(아프로-아시아 언어)은 그것의 썸어 가지들이 인접 아시아지역으로 넓어지는 동안 북 아프리카 모든 지역을 덮는다. 그것은 다섯 가지들로 구성된다. ㄱ)카나리아 섬과 사하라의 Tuareg에 이르는, 이집트를 제외한 북 아프리카 모두에서 이전에 말해졌던 Berber어는 지금은 모로코와 알제리와 사하라 사막 일부로 대부분 한정된다. 리비아어로 알려졌던, 고대 베르베르 족의 비문들은 카르타고의 페니키아인들의 그것들로부터 아마 파생됐을 알파벳들로 쓰여진 채 발견된다. 이런 알파벳은 여전히 사용 중에 있다. ㄴ)그리스어로부터 파생된 알파벳으로 쓰여진 콥트어라고 말해지는 것의 후기 형태 속에서 알려졌던, 그리고 상형문자 비문들로부터도 알려졌던 고대 이집트어. 이집트 고대어는 지금 소멸됐다. ㄷ) 북아프리카를 지금 점령하고 있는 아랍어를 포함하는 썸어와 그리고 에디오피아인들의 썸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 아시아의 언어들. 에디오피아 썸어는 보통 Tigre와 Tigrinya 등의 북쪽 언어와 Amharic와 Gurge방언들과 Gafat와 그리고 남부 에디오피아 Harar의 무슬림 중심지의 언어 Harari 등의 남쪽 언어로 구분된다. ㄹ)에디오피아와와 그 인근 지역에서 말해지는 Chushitic. Chustic은 다섯 언어그룹으로 구성된다: ㄹ-1)Beja, ㄹ-2)Agau 그룹, ㄹ-3)동부 Chushitic(Galla, Somali, Afar, 동부Sidamo, Konso, Arbore, Geleba), ㄹ-4)서부 Chushitic(Kaffa 그룹), ㄹ-5)남부 Chushitic(Tanganyika의 Mbugu와 Mbulunge). ㄹ) 북 나이지

리아와 그 주위 지역의 **Chad** 언어들. 이 차드어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단지 임시적으로만 설정될 수 있을 큰 그룹인 Hausa어이다.

//아프리카-아시아 어족에 관한, 또는 심지어 Berber 혹은 Cushitic 혹은 Chadic에 관한 비교문법은 현재까지 없다. 가장 중요한 일반적인 개괄은 여전히 Diakonoff(1965)이다. M.Cohen(1947)의 개척적인 작업과는 별도의, 포괄적인 첫 사전은 Diakonoff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편찬됐었지만 여전히 1988년 후반 기에도 출간됐다. **셈어**, 특히 아카디아어와 고전 아랍어가 가장 오래됐다 (archaic). 즉 AA 원형(proto-AA stage)에 가깝다. **Berber** 족의 하위 가지인 Tuareg 가장 오래된 것으로 그리고 **Cushitic** 족의 Beja와 Afra-Saho가 오래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집트어**는 고어체들(archaisms)을 많이 갖었지만 그것의 동사 체계는 철저히 재 구성됐다. 비록 이런 해석은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지만 말이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Chadic 언어는 혁신적인 것처럼 보인다.//

햄-셈 족의 말(speech)이 지니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ㄱ)억양(tone)의 부재. 그러나 차드어 일부 또는 모두는 이웃 언어들에 의한 억양체계들을 획득했다. ㄴ)문법적인 성(gender)--Shilh(Berber): 남성 idilli, 여성 t-idilli-t(검음); Hausa(Chad): yazo(he came), tazo(she came). ㄷ)접미어와 내재적인 특히 -a의 변화와 부분적인 반복을 포함한 명사 복수 형성에 있어서의 다양화. Shilh(Berber): iliwi, pl. ilawan(thorn); Logone(Chad): ngun, pl. ngwaren(belly). Hebrew(Semitic): 'ir, pl.'

// AA에 공통인 주요 형태론적 요소들은 인칭대명사들이다-아래 도표 참조. 즉 인칭대명사 독립형들과 접미형들이 직접목적어 또는 소유격으로서 사용되며 그리고 동사 어근의 앞과 끝에 붙는다는 (접두되고 접미된다는)것. 두드러지게 일정한 형식을 지니는 이런 대명사들은 1850년 경 이후로 아프로-아시아 어족의 존재의 주요한 증거들이라고 생각돼왔다.

Afro-Asiatic 인칭대명사의 요소들				
	나	우리	당신의(남성)	당신의(여성)
Akkadian	anāku		-ka	-ki
Arabic		naḥnu		
Berber	nəkk	nəkunn	-k	
Beja		hanan	-ka	-ki
Egyptian	<sup>?</sup> i-n-k	<sup>?</sup> i-n-n	-k	-č
Hausa			-ka	-ki

Proto-AA는 추상명사의 어미이기도 하며 단수 어미이기도 한 -at를 여성 명사 접미 어미로 지니며, 최소한도 주격 -u, 소유격 -i, 비(非) 목적격(absolute) -a을 명사의 공유된 격 형태소들로 지닌다. 명사의 다른 공통적 요소들에는 복수형 -ū/-Vw, -ān, -āt과 그리고 예들들어 -a-와 같은 모음교체를 통해 내적으로 복수를 나타내는 것과 그리고 명사 접두어 mV와 그리고 형용사적 접미어 -ī가 있다. 동사체계는 주로 접미적 인칭대명사 형태소와 더불어 상태와 조건을 나타내는 소위 '접미적'(suffixal) 변화와 그리고 모음교체의 다른 패턴들을 지니면서/또는 다양한 시제/상(sapect, 相)을 나타내는 어미들을 지니는 '접두적'(prefixal) 변화(conjugation) 사이의 근본적인 형태론적 대립이 있다. 그래서 접미적 변화에서 우리는 일인칭 단수의 경우 아카디아어 -āku, Berber의 경우 -Vg, 이집트어의 경우 -k-w-y를 지니며, 접두적 변화에서 우리는 Proto-AA의 경우 1인칭 단수 \*a-, 2인칭 단수 \*tV-(여성의 경우 -i), 3인칭 남성 \*yV-, 3인칭 여성 \*tV-, 1인칭 복수 \*nV-, 2인칭 복수 \*tV-, 3인칭 복수 \*yV-, 그리고 2인칭과 3인칭 복수에서 특수 복수형과 여성접미사들을 지닌다. 나아가서, 모음교체의 다른 패턴들과 더불어 우리는 예들들어 아카디아어 i-prus(he split), i-parras(he splits), 소말리아어 ya-qaan(he knows), yi-qiin(he knew) 등을 지닌다. Proto-AA(원시 아프리카아시아어)는 사역형 s-, 재귀형과 중간태 t-, 수동태 n-, 그리고 강조를 위한 중복을 포함한다.

유형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초기와 중기국면의 모든 AA의 가장 특징적인 특색은 내재적인 변화(모음교체, ablaut)가 극단적으로 폭넓게 사용되는 것과 함께하는 보통 셋 또는 두 자음으로 된 자음어근이다. 음성학적인 수준에서의 유형적인

특징은 일련의 소위 음성학적으로 인두음(咽頭音, pharyngeal)화 되는, 연구개음화되는, 후음(喉音)화되는 강조된 자음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후두음(喉頭音, laryngeal)적 그리고 인두음적 음소들의 발생이다. **모음체계**는 아마 길이의 구분을 지녔을 i a u 등 세 모음으로 한정됐을 것이다.

Nubian 또는 Merotic과 같은 다른 언어 또는 언어군들과 AA 사이의 관계를 증명하려는 시도들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인도유럽어를 포함하는 Nostratic와 연합된다는 것 그리고 예를들어 Teda와 같은 Nilosaharan와 생성적인 고리를 아마 지닐 것이라는 것이 현재 유력한 폭넓은 그 관계의 유일한 가정들이다. (Andrzej Zaborski)//

## 6-2)셈어(Semitic language)

셈어족에 속하는 언어들의 분류와 분포 지도에 대해서는 4~5 쪽을 보자.

/팔레스타인과 페니키아와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와 바빌로니아와 앗시리아와 아라비아, 즉 지중해에서 다른 쪽의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에 그리고 아르메니아 산들로부터 아라비아 남부해안에 이르는 나라들의 토착어였던 서부 아시아의 대 언어 군인 셈어는 아라비아로부터 압시니아(abssinia, 에디오피아의 옛날 이름)를 넘어 그리고 페니키아 식민지들을 통해 예를들어 카르타고 해안에 이르기까지 지중해 사람들의 뱃전과 많은 섬들을 넘어 확장된다. 초기에는 이 셈어군(family, 群)의 언어들과 나라들을 위한 포괄적인 지시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셈어들로 말하는 거의 모든 민족(nation)은 셈(**Shem**)의 후손들이라는 창세기 10장 21 절의 사실에 근거하여 셈어(Semites 또는 Semitic language) 라는 이름이 지금<sup>3</sup>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므로, 여기에서도 그 이름이 취해질 것이다. 셈어라는 이름은 Eichhorn의 Repertorium für bibl. u. morgenl. Literatur(1781, p. 161)에서 Schlözer에 의해 처음 사용된다 그리고 바로 이 셈(Shem)으로부터 *히브리인* 뿐만 아니라 *아랍인*과 *아랍인들이* 갈라져 나온다(창세기 10장 21절 이하).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의 언어가 지금 셈어족라고 불리우는 것에 결정적으로 (entscheiden, decidedly) 속하기는 하지만, **헵**(창세기 VV.<sup>6:15ff</sup>)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가나안* 사람들(Canaanites, 페니키아인들)이 셈으로부터 갈라져 나오는 것은 아니다. *앗수르 인*(Aššur, 창세기 10<sup>23</sup>)들이 **Shem(셈)**의 아들들 중에 포함되는 것처럼, *바빌로니아* 인들과 *앗시리아* 인들(Assyrians)의 언어도 마찬가지로 오래 전에 마찬가지로 셈어임이 보여졌다./

셈어들로 말했던(spoke) 사람들 대부분이 Shem 또는 Sem(Gen. x-xi)을 조상으로 지니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1781 년에 독일 역사가 A.L.Schlözer에 의해 ‘semitic’ 이라고 이름 붙혀진 ‘semitic’ language(셈어)들은 셈 족속들이 거기로부터 확산됐던 아라비아와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에서 기원전 첫

---

<sup>3</sup> 1909년 W.Gesenius에 의해 첫 출간한 뒤, 1995년 E.Kautzsch에 의해 증보발행된 책 28 판, Hebräische Grammatik을 중심으로 지금 나는 번역하고 있다.

번째 밀레니엄(천년)과 더불어 시작하여 에디오피아와 그리고 그 후에는 이집트와 북 아프리카로 퍼지게 된다. 다양한 셈어들의 역사적으로 입증된 특징들로부터 자신의 일반적인 구조가 파생될 수 있는 ‘원시-셈’(proto-semitic)어로 셈어는 올라간다. 아마 원시-셈어는 **하나의 단일한 언어로 사용된 적이 없이 단지 다양한 방언들만을 지녔을 것이다.** 어떤 개별 셈어도 원시-셈어 유형을 대표한다고 말해 질 수 없다. 음성학에 있어서 하나의 언어가 아마 비명(epigraphic, 碑銘)에서 보여지는 남부 아랍어의 경우에서처럼 원시-셈어 유형에 가장 가까울 수는 있을 경우에도 형태학적인 어떤 특색에 있어서는 다른 언어들이 그 원시-셈어를 대표한다고 간주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셈어들은 공통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므로 이 원시-셈어를 말했던 자들의 위치 문제가 중요하다. Kurdistan과 메소포타미아와 그리고 고대 아무르(Amurru) 지역의 북 시리아 그리고 아라비아와 아프리카 등이 그 위치로 간주돼 왔다. 그러나 위치문제에 있어 확정된 어떤 답도 주어질 수 없다. 가장 그럴듯한(likeliest)지역들은 아라비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들이긴 해도 말이다.

셈어는 **햄-셈어(Hamito-Semitic)**라는 더 큰 언어 그룹의 한 부분이다. 햄-셈어 족에 속하는 언어 군들은 Semitic, 고대 이집트어, 북 아프리카에서 말해지는 Berber, 에디오피아에서 말해지는 비(非)-셈어인 Cushitic이다. 이런 구성 언어들 발생적 관련성은 음성학과 형태학(morphology)과 어휘들로 볼 때 명백하다. 다양한 셈어들 사이의 관계가 다양한 게르만어들 또는 로만스어들 또는 슬라브어들의 그것들로 비교될 수 있는 동안, 햄-셈어는 인도-유럽어의 역할을 더 또는 덜할 것이다.

셈어들은 북 셈어과 남 셈어로 분류된다. 북 셈어는 결국 아카디아어 만을 자신의 대표언어로 지니는 북동 셈어와 그리고 **Canaanite(Hebrew, Moabite, Phoenician)**와 Ugaritic와 Amorite와 Aramaic을 포함하는 북서 셈어로 나뉘며, 남 셈어는 남 아랍어와 에디오피아어를 포함하는 남동 셈어와 그리고 **아랍어(Arabic)**를 자신의 대표로 지니는 남서 셈어로 나뉜다. 이들 언어 중에서 아랍어와 현대 남부 아랍어와 히브리어와 그리고 제한된 정도에서의 아랍어들이 여전히 말해지고 있다. 흥미있는 점은 거의 모든 셈어들이 자신들의 말 살이가 끝난 오랜 후에도 문어 언어로서 사용되면서 자신의 글 살이를 계속 누려왔다는 것이다. 셈어의 일반적인 특색들은 다양한 언어들 개관 후에 논의 될 것이다.

**6-2-1)아카디아어 또는 앗시리아-바빌로니아어(Akkadian or Assyro-Babylonian).**

이 언어는 확인된(attested) 셈어들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Akkadian** 이라는 이름은 Mesopotamia의 고대 수도인 Akkad(6, 48쪽 지도 참조)에서 온다. 이 언어로 된 문서들은 기원전 2500년부터 기독교 시대 시작까지 걸쳐 있다. 다양한 발전의 기간들이 있다. 이 중 **고대 아카디아어**는 기원전 2500부터 기원전 1950년까지의 문서 언어이다. 이 기간 동안에 아카디아인들은 수메르인들과 나란히(side by side) 살았다. 고대 아카디아어 말기를 향하면서 그 언어는 바빌로니아 방언과 앓시리아(Assyrian)방언으로 나뉜다. 사람들은 **바빌로니아 방언**을 고대 바빌로니아어(기원전 1950~1530년 경)와 중기 바빌로니아어(기원전 1530~1000년 경)와 **신(new, 新)-바빌로니아어**(1000년~기원전 625년 경)와 후기 바빌로니아어(기원전 625년 이후)로 나눌 수 있으리라. 이 마지막 시기의말해지는 (구어체)언어는 아람어(**Aramaic**)였던 반면 문학(Literaray, 문어체)언어는 후기 바빌로니아어였다. **앗시리아어**(8, 48쪽 참조)는 고대 앓시리아어(기원전 1950~1750년 경)와 바빌로니아어의 강한 영향을 받았던 중기 앓시리아어(기원전 1500~1000년 경)과 **신-앗시리아어**(기원전 1000~기원전600년경) 등의 언어학적인 다양한 국면으로 나뉜다.

비문들은 메소포타미아의 문학과 역사와 종교와 주술과 법률과 학문과 상업의 중요한 문서를 나타낸다. 바빌로니아의 문화적 명성 때문에 아카디아어 역시 Cappadocia와 Elam과 **Canaan**(Tell el Amaran letters)와 Hittite제국(Bogazkoy)와 Mianni(Nuzi) 등의 이웃 지역들에서 사용됐다. 마찬가지로 아카디아어는 한때 근동의 국제 언어였다.





## 6-2-2)Canaanite(가나안어).

페니키아와 시리아 일부인 팔레스타인(Palestine)의 고대 낱말인 *Canaan*(가나안)으로부터 Canaanite 라는 이름이 왔다. 직접적인 재원들을 통해 알려져 가나안사람들의 언어로 간주되고 있는 것들은 Hebrew와 Moabite와 Phoenician이다. 가장 오래된 시기의 가나안어는 Tell el Amarna letters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려진다.

### ///Canaan(heb. këna'an)—Canaanites.

현대의 레바논과 시리아 일부와 요르단의 팔레스타인 서부 대부분을 포괄하는 지중해 동쪽 해안에 연이어지는 땅을 나타내는 Cannanites(가나안 사람들)이라는, 지질학적 용어로부터 파생된 민족학적 아이콘(ethnicon)은 첫째 고대 그 지역의 토착민 그리고 토착민과 동화된 거주민들을, 둘째로 거기에서 특징있게 말해지는 관련 셈어들의 그룹을 가리킨다. 가나안을 이스라엘 인들(israelites)에 의해 확보된 땅과 실제로 동일하게 여기는 것은 구약의 중심적인 주제이다.

지질학적 이름인 'Canaan'은 북서 셈어 알파벳 텍스트(Ug, Heb, Phoen-Pun)들에서는 Kn'n 이라는 스펠링을 지닌다. *맛소라 모음찍기*에서는 두번째 음절에 강세가 놓여지는 këna'an이며 70 인역 구약 희랍어 번역과 *별게이트*(Vulgate, 불가타) 라틴어 성서에서는 Channan 이라고 음역된다. *아카디아어* 로는 ḫ로 표현되는 인두(咽頭) 자음이 나타날 경우에는 Ki-na-aḫ-num(비 유대인, gentelic) 이라고 그러나 인두자음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Ki-na-a-nim 이라는 음절적인 이름으로 쓰여져 발견된다. *이집트어* 스펠링들 K-i-n-'-nw와 K-3-n-'-3은 일관되게 그 인두자음을 나타낸다. 두 번째 밀레리엄의 지역적인 서부 *아카디아어* 텍스트들은 알파벳적으로 쓰여진 예들의 마지막 -n이 아마 접사적인 형태소일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짧아지는(reduced) 어근 Kinahḫ를 지니는 그 이름을 입증해준다.

'가나안'이라는 낱말의 어원론은 애매하다. 만약 그것이 서부 셈어에서 나온 것이라면 아마 affirmative -n을 지니는 어근 kn' (to bend, to bow)로부터 파생됐을 것이다. 석양(Occident, 夕陽)이라는 '가나안'의 의미는 그러한 파생을 근거로 하여 주장된 것이다(Astour 1965: 348). E.A.Speiser(1936)는 Nuzi로부터의 췌기문자 텍스트로 된 푸르게-염색된 옷을 가리키는 그리고 아마 아카디아어 uqnû와 그리스어 kyanos와 관련되는 지중해 사람들의 용어를 Hurrian이 채용한 것을 나타내는 단어일 Kinahḫ라는 임시적인 낱말로부터의 어원론을 구성한다. 그러나 아마 qinahḫ 라는 스펠링을 지녔을 그 Hurrian 단어는 Speiser(1967: 166-67)가 제안한 것

과는 전혀다른 역사를 지닌 것으로 보여졌다. 세번째 밀레니엄의 시리아-팔레스타인으로부터 온 많아진 지질학적 이름들의 증거는 ‘가나안’을 위한 후리아어 어원론의 그럴듯함을 감소시킨다.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지니는 의미는 아마 셈어 사전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Astour 1988)..

‘Canaan’은 쉐기문자 텍스트들 안에서 지질학적인 어떤 이름으로 맨 먼저 포착된다. ‘Canaanite’라는 민족학적 아이콘(ethnicon)은 Mari로부터의 텍스트들에서 발견된다(Dossin 1973; Sasson 1984; <sup>10</sup>ki-na-aḥ-num). Alalah로부터은 15세기 전 기적(傳記的)인 텍스트는 “가나안 땅의 Ammia”(ANET, 557; 아카디아어 ki-na-nim)이라고 언급한다. Ammia는 현대 Tripoli 근방의 Ammium과 동일시된다. Alalah로부터 온 후기 쉐기문자 텍스트도 가나안(Canaan)을 언급한다. 쉐기 알파벳으로 쓰여진, Ugarit로부터 온 경제적인 텍스트(UT 311.7; KTU 4.96.7)는 가나안 사람(kn’ny, Canaanite)을 상인들의 목록에 포함시킨다. 이것은 우가리트 사람들은 자신들을 가나안 사람들의 범주에 포함시키지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so Rainey 1965). Amarna 편지는 Tyre(EA 148.46)와 Byblos(EA 109.46; 131.61; 137.76)와 다른 연안 도시들 그리고 갈릴리의 Hinnatūni(HANNAHON[PLACE], Josh 19:14)를 포함하는 이집트 속주(province)로 가나안을 지시한다. Elbe[ARET 3:31 r. II 13:42 III 6; VII 6; 769 II 1; ARET 4:23 v. VIII 4]로부터의 세번째 밀레니엄 쉐기문자 텍스트들 안에서 발견된 신성(divinity, 神性)의 이름은 지리학적인 이름 가나안을 포함하는 것으로 Pettinato(1979: 103)에 의해 단언됐으나, 그 텍스트들의 연이은 연구는 이런 해석을 지탱해주지 않는다[contra Stolz, TRE 17: 540]

이집트 텍스트 안에서의 가나안 사람들에 관한 가장 이른 언급은 기원전 15세기 후반 Amenhotep(그리스어 Amenophis) II 세의 아시아 전쟁으로부터의 전리품 목록 안에서 발견된다. Merneptah의 기원전 13 세기 ‘이스라엘 비석’은 피정복지 목록에 가나안을 기입한다.

이집트는 시리아-팔레스틴을 Amurru와 Upi와 **Canaan**(Weinstein 1981; Upi의 역사에 관해서는 Pitard 1987: 49-80, 특히 pp.59-60; Wright 1988; Dever 1987; Leonard 1989를 보라) 등의 세 속주로 다스렸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된다(Helck 1971: 246-55). 가장 북쪽 속주인 아무루는 Kadesh에서의 이집트 패전 후에 히타이트 지배 하에 들어간다. 이 기간 후의 이집트의 텍스트들은 가나안과 우피에 의해 둘러싸인 지역을 Hurru 라는 일반적인 지시어를 가지고 때로 가리킨다. 해상 민족들의 침입후에 ‘Canaan’은 보다 제한된 의미에서 남부 팔

레스타인을 가리키는 데에 사용되며 그리고 ‘가나안의 도시’라는 표현은 특히 Gaza를 지시할 수 있다(Alt 1944: 4-6; RLA 5: 353). 가장 늦은 이집트인의 가나안 지시(reference, 指示)인 Philistia로부터 가나안으로 보낸(so Weippert, 1974: 429)외교관의 22 번째 왕조의 비문은 종종 다양한 해석에 직면한다.

‘Canaan’이라는 낱말은 그리이스 재원(자료)에서는 때로(PW 3: 2109) 그리고 70인 역에서는 자주(예를들어 창세기 9:22, 25; Jdt 5:9-10; 1 Macc 9:37)Chanaan 이라고 음역된다. ‘Canaan’은 신약에서 두 번(Acts 7:11; 13:9) 음역된다. 그러나 더 자주 가나안은 그리이스어로는 ‘Phoenicia’와 그리고 이에 관련된 민족학적 아이콘(ethnicon), ‘Phoenician’이라는 지시에 의해 가리켜진다. 페니키아와 가나안 이 두 용어들이 그리이스 인에 의해 등가(equivalence)로 쓰였음은 Beirut 화폐 주조국으로부터 온 3 세기 화폐들의 전설에 의해 확정된다: 페니키아어 텍스트 l’dk’š bkn’n(가나안에 있는 Laodicea)는 그리이스어 Laodikeia he en Phoinikē (페니키아에 있는 라오디케아)에 상응한다(참고문헌을 지닌 RLA 5: 354). 이러한 같음은 ethnicon Chananaia를 한 번(마태 15:22) 사용한 신약성서에 반영된다. 드문 단어 Syrophoinikissa는 비교 논의(Mark 7:26)에서 사용된다.

Byblos 출신 Philo의 Phoenician History에 있는 어려운 한 글월은 Chnâ를 이름 ‘phoenican’과 처음으로 동일시 한다(Attridge and Oden 1981: 60-61 and n. 144) . 기원 후 2 세기의 Herodianus Grammaticus(Lentz 1868: 913)와 비잔티움의 Stephanus(s.v. Chnâ)는 페니키아 사람들은 전에 Chnâ로 불리웠다고 지적한다. 두 번째 밀레니엄의 아카디아 텍스트들에 쓰여진, 이름 Canaan의 짧아진 Kinahh는 그리이스어로는 Chnâ로 나타내어졌으리라.

구약에서의 그 지질학적인 이름 ‘Canaan’의 분포는 성서 텍스트들에 나타나있는 이 낱말의 의미 어떤 척도를 제공한다. 낱말 ‘Canaan’은 MT에 80 번 나타난다. 대부분 그것은 ‘가나안의 땅’(‘eres këna’an)이라는 구문으로 자주(이러한 발생의 64x 또는 80 퍼센트) 나타난다. 이러한 구문은 창세기에서는 아주 빈번하나, 출애굽기(6:4, 16:35)와 레위기(14:34, 18:3, 25:38)와 민수기(12x(번))와 신명기(한번)에서도 나타난다. 신명기적 역사에서의 ‘Canaan’ 이라는 낱말은 여호수와와 사사기에 ‘가나안의 땅’ 이라는 구문으로 아주 자주 제한된다. 이렇게 그 우선적인 역사는 그 낱말의 쓰임새의 88%를 보고한다.

‘가나안’이라는 낱말은 문헌-비평 분석에 의해 J(여호와적)와 E(엘로힘적)와 P(사제적) (문서)재원들에게 배정된 글월들에서 발견된다. 모세오경 토라를 보라.

성서 안에서 족장들에게 한 땅의 약속(즉 창세기 12-50; 대부분 P에게 배정되는 글월들)이라는 그 주제를 끌어들이고 발전시키는 모세 오경에서의 그리고 그 땅 약속의 이행으로서 간주되는 정복과 정착 이야기 속에서 집중되는 낱말 가나안은 약속과 이행이라는 주제에 그 낱말이 어떻게 밀접하게 묶어지는 지를 보여준다 (Clements 1967; Lohfink 1967). 예를들어 그래서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의 모든 땅’이 주어질 것이라는 아브라함에로의 신성한 약속은 Brueggemann(1977: 21)에 의해서 모세 오경 안에서의 족장적인 약속 주제의 ‘집중적인 구’(focal verse, 句)라고 불려졌다(마찬가지로 Clines 1978: 36). 사사기에서의 가나안 정착이 더 이상 주제로 되지 않음과 더불어 ‘가나안의 땅’이라는 용어는 우선적인(주요한, Primary) 역사로부터 사라진다 ..... ///

///그러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의 언어들에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점들을 공유하고 있는 것들로 확인될 수 있으리라: \*qattila와 \*haqtilla가 소위 ‘intensive’(강조)와 사역(causative, 使役) 변화의 완료형에 있어 각각 \*qittila와 \*hiqtilla로 변하는 북서 셈어의 공통 특징(히브리어의 Pi‘il과 Hip‘il); 본디 1인칭 대명사 단수 \*‘anākū가 처음에는 \*ā > \*ō의 무조건적인 변화를 지니는 \*‘anōkū(Canaanite shift, 가나안 어들의 변이) 그리고 나서 이화됨이 없이(dissimilation, 異化) \*‘anōkī로의 변화, 그리고 접미어 변화 속에서 1인칭 단수의 표시로서의 \*-tū의 \*-tū에로의 부수적인 (concomitant, 附隨的)변화(즉 \*qabartū → \*qabertī(나는 과 묻었다); 히브리어 qābartī 비교); 일인칭 복수 교체형(allomorph, 異形)의 일반화, 본디 독립 대명사와 그 접미 변화에만 고유한 것이 이제는 소유 접미어와 마찬가지로 사역 접미어로서(즉 히브리어 sūsēnū(우리의 말, our horse)과 šēmārānū(그가 우리를 보호하다)에서 처럼, 각각 명사와 동사에 붙는 접미어로서). 아카디아어로 쓰인 Amarna 편지들에서의 Canaanite 증거와는 별도로, 기원전 첫 번째 밀레니엄의 전 반부에 기록되기 시작하는 가나안 사람들의 다양한 언어들 모두는 페니키아인들에 의해 발전된 22개의 자음 알파벳을 통해 오른 쪽에서 왼 쪽으로 쓰여진다.

이집트의 Amarna(고대 Akhetaten) 쪽에서 발견된 아카디아어 텍스트들 중에는 시리아에 있는 이집트 지배하(vassal)의 도시들의 장들(mayors, 長)로부터 온 많은 편지들이 있다. Byblos와 Gezer와 Jerusalem과 Shechem 등의 이러한 도시들로부터 온 편지들 중 몇몇의 언어들(몇몇 토속 어구(語句)들을 지닌) 대부분 아카디아 어휘들이지만 형태론과 구문론은 토속 북서 셈어 방언들로 간주되는 일종의 짬뽕언어(Creole)이다. 위에서 언급된 하나 이상의 진단적인 혁신들의 현재는

가나안 사람의 방언들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ru-šu-nu /rōšunū/(우리의 머리)(EA 264: 18, 불확실한 출처; 히브리어 rō(ʾ)š-ēnû, vs. 아카디아어 rēš-ni를 비교하자); a-nu-ki /ʾanōkī/, ‘나, I’(EA 287:66, 69, 예루살렘으로부터; 히브리어 ʾanōkī vs. 아카디아어 anāku를 비교하자) 그리고 (‘I’를 위한 -ti를 지닌; ibid.: 53) mu-še-er-ti, ‘내가 보냈다, I sent’; ḥi-iḥ-bi-e[hiḥbi’e] < /hiḥbi’a/, ‘그가 감추었다, he concealed’(EA 256:7, piḥilu/Pella; 히브리어 hiḥbī를 참조하자).///

6-2-2-1)Moabite.—기원전 8 세기까지 날짜가 매겨지는 단일한 비문이 모압어에는 있다. 이것은 이스라엘 왕과 맺고 있는 자신의 관계에 대한 사해(dead sea, 死海) 남동부의 모압 왕 Mesha의 기록이다.

6-2-2-2)Phoenician.—이 언어는 Tyre와 Sidon과 Byblos와 이웃 마을들의 페니키아인들의 도시들에서 고대에 유포되어 있었다. 페니키아 자체의 비문들은 상대적으로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가장 이른 해독될 수 있는 비문들은 기원전 10 세기 경부터의 Byblos 왕들의 것들이다. 페니키아 자체로부터 온 자료들의 량(bulk)은 대부분 기원전 5 세기에서 기원전 2 세기까지의 왕가의 비석들(stelae)이다. 많은 비문들이 고대 페니키아인들의 식민지들 Malta와 Cartage와 같은 쪽의 그리고 아나톨리아의 Karetepe와 같은 북 아프리카 해안의 다른 쪽 지중해 해변 지점들에서 발견됐다. 북 아프리카 해안의 페니키아 언어는 Punic(포에니 어) 라고 불리우며 기원전 5 세기에서 기원전 2 세기까지 다다른다.

정보의 다른 중요한 재원은 이집트어와 아카디아어와 히브리어와 같은 다른 언어 스크립트로 페니키아 낱말들이 옮겨 써진 것들이다. 아주 풍부한 외부 재원은 예를들어 Punic(포에니 어)를 담고 있는 그리스어와 라틴어 이 양자의 고전 문학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재원들 중 가장 이른 것들 중에는 아마도 기원전 9 세기 경, ‘페니키아 알파벳’과 함께 그리인들이 넘겨 받았던 그 알파벳 문자들의 이름들일 것이다. 사본에 들어 있는 한 페니키아 인의 대화가 기원전 2 세기 경 Plautus의 Poenulus에서 발견된다. 페니키아 알파벳은 모음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런 재원들은 특히 그 언어의 모음찍기(vocalization)의 구성에 도움이 된다.

///페니키아어는 Byblos와 Tyre와 Sidon과 다른 도시들 그리고 이들 주위 지역들과 식민지들의 페니키아 도시-국가들의 언어이다. 다양한 도시들의 방언들이

어느 정도에서 서로 차이나는 반면에 가장 이른 증거를 보여주는 Byblos 방언은 ‘표준’이라고도 불리울수도 있을, 다른 것들과 분리된 페니키아어의 한 가지로 간

**UGARITIC AND PHOENICIAN ALPHABETS COMPARED TO ACCADIAN AND SINAI SIGNS**

Accadian	Ugaritic	Phoenician	Sinai	Accadian	Ugaritic	Phoenician	Sinai
a	'a	'a	'a	šu	d		
bi	b	b	b	na	n	n	n
gi	g	g	g	šu	z		
ha	h			ša	s	s	
da	d	d	d	ha	'	'	'
he	h	h	h	pa	p	p	p
wa	w	w	w	ša	š	š	š
za	z	z	z	qa	q	q	q
ha	h	h	h	ra	r	r	r
tî	t	t		tî	t	š	š
ya	y	y	y	ga	g		
ka	k	k	k	ti	t	t	t
ša	š			e	'i,e		
lu	l	l	l	u	'u,o		
ma	m	m	m	se	š		<i>Beta</i>

주되기에 충분한 특성을 보여준다. 비블로스 텍스트들은 기원전 10세기부터 기원후 1세기까지의 포착한다. 페니키아 자체와 시리아와 지중해로부터

의 표준 페니키아 스크립트들은 기원전 9세기부터 기원전 2세기에 사용됐다. Tyrian 식민지인 카르타고(페니키아어 \*qart ḥadašt, 새로운 도시)와 그 식민지들의 페니키아 방언인 Punic은 기원전 5 세기부터 확인된다. 기원전 146 년 카르타고의 함락 이후 비문들은 Neo-Punic(신 포에니어)로 지시된다.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포함, 첫 밀레니엄 시대에 다른 말하는 자들(speaker)에 의해 차용(borrowed, 借用)된 곧은 모양의(linear) 22 개 알파벳의 근원이 바로 이 페니키아어(Phoenician)이다.///

The place of early Greek letter forms in the development of Phoenician letter forms

Phoen. names	PHOENICIAN				GREEK		PHOENICIAN			Greek names
	Shipitbaal I (Byblos) (= DR No. 7) c. 900	Cyprus Stele (= DR No. 30) c. 900-875	Nora Stone (Sardinia) (= DR No. 40) 9th cent.	Kilamuva (Zincirli) (= DR No. 24) c. 825	Dipylon jug (Athens) c. 740	Lefkandi, Pithekoussai c. 750-25	Limassol (Cyprus) (= DR No. 31) c. 750-25	Karatepe (= DR No. 26) c. 720	Ipsambul c. 590	
ʔalf	K 𐤀	𐤀 𐤀	𐤀	𐤀	𐤀	ΑΑΑ	𐤀	𐤀	𐤀 𐤀	alpha
bēt	𐤁	𐤁 𐤁	𐤁	𐤁			𐤁	𐤁	𐤁 𐤁	bēta
gaml	𐤂	𐤂	𐤂	𐤂 𐤂			𐤂	𐤂		gamma
delt	𐤃	𐤃	𐤃	𐤃	𐤃	Δ	𐤃	𐤃	𐤃	delta
hē	𐤄	𐤄	𐤄	𐤄	𐤄	ΕΕ	𐤄	𐤄	𐤄	ei
wau	𐤅	𐤅		𐤅		Υ		𐤅	𐤅	[wau]
zai	𐤆	𐤆		𐤆		Ζ	𐤆			zēta
hēt	𐤇			𐤇	𐤇	Η	𐤇	𐤇	𐤇 𐤇	[h]ēta
tēt	𐤈						𐤈	𐤈		thēta
yōd	𐤉	𐤉	𐤉	𐤉	𐤉	Ι	𐤉	𐤉	𐤉 𐤉	iōta
kaf	𐤊		𐤊	𐤊		Κ	𐤊	𐤊	𐤊	kappa
lamd	𐤋	𐤋	𐤋	𐤋	𐤋	Λ	𐤋	𐤋	𐤋	lambda
mēm	𐤌	𐤌	𐤌	𐤌	𐤌	Μ	𐤌	𐤌	𐤌	mū
nūn	𐤍	𐤍	𐤍	𐤍	𐤍	Ν	𐤍	𐤍	𐤍	nū
semk				𐤎			𐤎	𐤎	𐤎 𐤎	xei
ʿain	𐤏	𐤏	𐤏	𐤏	𐤏	Ο	𐤏	𐤏	𐤏	ou
pē	𐤐	𐤐	𐤐		𐤐	Π	𐤐	𐤐	𐤐	pei
šādē			𐤑	𐤑		Ρ	𐤑	𐤑	𐤑 𐤑	san
qōf	𐤒	𐤒		𐤒			𐤒	𐤒	𐤒	qoppa
rōš	𐤓	𐤓	𐤓	𐤓	𐤓	Ρ	𐤓	𐤓	𐤓	rhō
šin	𐤔	𐤔	𐤔	𐤔	𐤔	Σ	𐤔	𐤔	𐤔	sigma
tau	𐤕	𐤕	𐤕	𐤕	𐤕	Τ	𐤕	𐤕	𐤕	tau

All signs are drawn from right to left.

Phoenician forms are based on Friedrich Röllig, 1970: end table.

Table of Phoenician and Greek letterforms from Powell 1996. The character names are taken from Theodore Nödeke's reconstruction are shown in the first column.

### 6-2-2-3)Hebrew.

/히브리어(Hebrew Language)라는 이름은 구약 정경을 형성하는 이스라엘사람들의 신성한 글쓰기 언어를 보통 가리킨다. 마찬가지로 그것은 성서 이후 시기의 유대 글쓰기들의 신 히브리어와 대조되어 고대 히브리어(Ancient Hebrew)라고도 불리운다. 히브리어라는 이름(לְשׁוֹן עִבְרִית γλώσσα τῶν Ἑβραίων, ἑβραϊστί)은 구약성서 자체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대신에 우리는 이사야서 19장 18절에서 ‘가나안의 언어<sup>4</sup>’와 2K 18<sup>26,28</sup>(cf. Is 36<sup>11,13</sup>) Neh 13<sup>24</sup>에서 ‘유대 언어로’(לְשׁוֹן יְהוּדִית) 라는 용어를 발견한다. 마지막 인용된 글월에서의 그것은 학개와 느헤미야와 에스터의 책에서처럼 이미 그 전체 국가에 Jew, Jewish 라는 이름이 점차적으로 확장되는 (바빌론 유수 이후의 후기 용법에 일치한다.

이름 Hebrew(עִבְרִית Ἑβραῖοι)와 Isralelites(יִשְׂרָאֵלִיּוֹת) 사이의 구분은 오히려 후자가 종교적인 의의를 마찬가지로 지니고 그 백성 자신들에 의해 사용된 명예로운 국가 이름인 반면 전자는 그 국가가 그것에 의해 외국인에 의해 알려지는 덜 의의있는 이름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구약에서의 Hebrews는 자신들을 외국인들과 대조할 때 사용되거나(창세기 40장15절, 출애굽기 2장6절이하와 3장18절 등, Jon 1<sup>9</sup>) 또는 그것이 Isralelites이 아닌 자들의 입에 놓이게 되거나(창세기 39장 14절과 17절 그리고 41장 12절) 또는 마지막으로 그것이 다른 국가들과 대립적으로 사용될 때(창세기 14장 13절 43장32절, 출애굽기 2장11절과 13절 그리고 21장2절)만 단지 말해진다. 사무엘상 13장3절과 7절에서의 그 텍스트는 분명히 그 원형이 손상됐다. Josepus같은 그리이스와 라틴 저자들에서는 Ἑβραῖοι, Hebraei 등만의 이름이 나타난다. 그 이름의 Graeco-Roman 형식은 히브리어 עִבְרִית에서 직접 파생된 것이 아니라 팔레스틴 아람어 ‘ebrāyā(the Hebrew)로부터 파생된것 것이다. 이방인들의 많은 설명들 중에서 파생접미어 ‘ִי’와 더불어 다른 쪽의 나라 라는 뜻을 지닌 עֵבֶר로부터 파생된 것이 עִבְרִית 이라는 것만이 문헌학적 가능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그 이름은‘eber 즉 Jordan(혹은 다른 사람들에 따르면 유프라테스 강)의 다른 쪽 지역에거주했던 자들로서의 Isralelites을

---

<sup>4</sup> 현대의 히브리어 형식이 가나안에서 실제로 발전했다는 것은 서쪽을 표현하는 yām(sea)과 남쪽을 표현하는 nègeb(본디 dryness, 후에는 팔레스타인 남쪽을 나타내는 고유명사로서)의 쓰임새와 같은 그러한 사실로부터 나타난다.

가리켰으므로, 요르단 또는 유프라테스 이 쪽 국가에 의해 사용됐을 때만 근원적으로 적절할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문제의 그 강을 건넌 후에 그것은 아브라함자손들에 의해서 오래동안-확립된 이름으로 보유됐다고 그리고 (위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떤 한계이내에서 그들 사이에서 자연스러워졌다고 우리는 반드시 상정해야만 한다. 족장 이름에 붙는(patronymic) Eber에게 이 이름을 지시하면서 히브리 계보학자들은 그것에 훨씬 더 많은 포괄적인 의의를 배정했다. (Nu 24<sup>24</sup>에서는 아니지만) 창세기 10<sup>21</sup>에서의 **Shem**은 Eber의 모든 아이들의 그 아버지라고 불리우므로 그리고 후자에게 마찬가지로 창세기 11장 14절 이하와 15장 25절 이하에 따르면 아람 족속과 아랍 족속이 속하므로, 이방(gentile 異邦)적인 'ibri 형식에 있어서는 곧장 배타적으로 Israelites에게만 한정되는 까닭에 그 이름은 나라들과 국가들의 두드러게 큰 그룹을 근원적으로 반드시 포함해야만 한다. 그 이름의 어원론적인 의의가 그러한 경우에 강조되서는 안된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기원전 1400 년 경의 Tell-el-Amarna 편지들에서 팔레스틴과 그 이웃의 약탈자들과 상인으로서 나타나는 Ḥabiri를 'Ibriyyîm과 언어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동일화시키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만 할 것이다.

ἑβραϊστί 라는 용어는 Sirach의 아들 Jusus에로의 서문(기원전 130 년경)에서 그리고 신약성서 계시록 9장 11절에서 고대 히브리인(old Hebrew)을 지시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다른 한 편으로 그것은 Jn 5<sup>2</sup>, 19<sup>13, 17</sup>에서 마찬가지로 아마도 계시록 16장 16절과 Jn 19<sup>20</sup>에서도 그리스어에 대립되는 것으로서의 팔레스틴의 (아람어) 토속어였던 것을 지시하는 데에 봉사한다. 사도행전 21장40절 22장2절 26장14절의 ἑβραῖο διάλεκτος 라는 표현의 의미는 의심스럽다(Kautzsch, Gramm. des Bibl.-Aram., p.19f.를 참조하자). 마찬가지로 요세푸스(Josephus)도 고대 히브리어와 그리고 자신의 시대의 아람어 토속어 이 양자에 Hebrew 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 히브리어는 Lingua profana 즉 아람어 세속어에 대립되는 신성한 책들의 언어로서의 구약의 유대-아람어 버전들의 신성한 언어(the sacred language)로 불리운다./

HEBREW NAME	PHOENICIAN SCRIPT OF 8TH CENT B.C. BAAL LEBANON-KARATEPE	OLD GREEK SCRIPT OF 8TH CENT B.C.	HEBREW CURSIVE OF ca. 600 B.C.	GREEK NAME	MODERN GREEK SCRIPT	MODERN ROMAN SCRIPT
ALEPH	𐤀	Α	𐤀	ALPHA	Α	A
BETH	𐤁	Β	𐤁	BETA	Β	B
GIMEL	𐤂	Γ	𐤂	GAMMA	Γ	G
DALETH	𐤃	Δ	𐤃	DELTA	Δ	D
HE	𐤄	Ε	𐤄	EPSILON	Ε	E
WAW	𐤅	Ϝ	𐤅			V
ZAYIN	𐤆	Ζ	𐤆	ZETA	Ζ	Z
HETH	𐤇	Η	𐤇	ETA	Η	H
TETH	𐤈	Θ	𐤈	THETA	Θ	
YOD	𐤉	Ι	𐤉	IOTA	Ι	I
KAPH	𐤊	Κ	𐤊	KAPPA	Κ	K
LAMED	𐤋	Λ	𐤋	LAMBDA	Λ	L
MEM	𐤌	Μ	𐤌	MU	Μ	M
NUN	𐤍	Ν	𐤍	NU	Ν	N
SAMEKH	𐤎	Ξ	𐤎	XI	Ξ	
AYIN	𐤏	Ο	𐤏	OMICRON	Ο	O
PE	𐤐	Π	𐤐	PI	Π	P
TSADHE	𐤑	Ϟ	𐤑			
QOPH	𐤒	Φ	𐤒			Q
RESH	𐤓	Ρ	𐤓	RHO	Ρ	R
SHIN	𐤔	Σ	𐤔	SIGMA	Σ	S
TAW	𐤕	Τ	𐤕	TAU	Τ	T

SINAITIC SCRIPT	DESCRIPTION OF SIGN	CANANITE SCRIPT OF 13TH CENT B.C.	CANANITE SCRIPT OF ca. 1000 B.C.	SOUTH ARAB SCRIPT OF IRON AGE	MODERN HEBREW SCRIPT	PHONETIC VALUE
𐤀	OX-HEAD	𐤀	𐤀	𐤀	א	a
𐤁	HOUSE	𐤁	𐤁	𐤁	ב	b
𐤂		𐤂	𐤂	𐤂	ג	g
𐤃	FISH	𐤃	𐤃	𐤃	ד	d
𐤄	MAN PRAYING	𐤄	𐤄	𐤄	ה	h
𐤅		𐤅	𐤅	𐤅	ו	w
𐤆		𐤆	𐤆	𐤆	ז	z
𐤇	?	𐤇	𐤇	𐤇	ח	h
𐤈	FENCE?	𐤈	𐤈	𐤈	ט	t
𐤉	DOUBLE LOOP	𐤉	𐤉	𐤉	י	y
𐤊		𐤊	𐤊	𐤊	כ	k
𐤋	PALM OF HAND	𐤋	𐤋	𐤋	ל	l
𐤌	"OX-GOAD"	𐤌	𐤌	𐤌	מ	m
𐤍	WATER	𐤍	𐤍	𐤍	נ	n
𐤎	SERPENT	𐤎	𐤎	𐤎	ס	s
𐤏		𐤏	𐤏	𐤏	ע	c
𐤐	EYE	𐤐	𐤐	𐤐	פ	p
𐤑		𐤑	𐤑	𐤑	צ	s
𐤒	THROW STICK	𐤒	𐤒	𐤒	ק	q
𐤓		𐤓	𐤓	𐤓	ר	r
𐤔	BLOSSOM	𐤔	𐤔	𐤔	ש	s
𐤕	?	𐤕	𐤕	𐤕	ת	t
𐤖	HUMAN HEAD	𐤖	𐤖	𐤖	י	y
𐤗	BOW	𐤗	𐤗	𐤗	כ	k
𐤘	?	𐤘	𐤘	𐤘	ל	l
𐤙	MARK OF CROSS	𐤙	𐤙	𐤙	מ	m

///여태까지 가장 잘 알려진 가나안 사람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는 기원전 10세기 말에 비명(epigraphic, 碑銘)에서 처음으로 포착(입증) 된다. 그러나 성서 텍스트의 부분들 특히 고대 시(poetry, 詩)는 기원전 12세기 만큼 이른 시작을 지닐 것이다. 이런 이른 성서 자료에 의해 표현되는, **원시-히브리어**라고 이름 붙혀질수 있을 방언 또는 방언들은 대부분의 더 늦은 히브리어 텍스트들이 잃어버린 많은 특색을 드러낸다. **고전 히브리어**라는 용어는 군주제 시작부터 바빌론 유수까지 쓰여진 성서와 비명의 텍스트들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반면 많은 언어적인 발전을 보여주는 바빌론 유수 이후 텍스트들은 고전 말기 히브리어(Late Classical Hebrew)로 지시될 수 있으리라. 비문 유적들은 유대어(Judean)라고도 불리우는 남부 방언과 이스라엘어(Israelean)라고도 불리우는 북부 방언등 최소한도 성서 시대 동안의 주요한 히브리어 두 방언들의 증거를 제공한다. 방언적 특색들은 의심할 것도 없이 본디 성서 텍스트에 잘 주어져 있었으나, 이러한 특색들을 중성화시키려는 경향을 지닌 편집적 조화로 인하여(editoral harmonizing)상대적으로 형식이 일정한 언어, 아마 예루살렘의 공식적인 표준 방언이 유래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몇 다양한 방언들이 특히 읍과 전도서와 같은 어떤 책들에 남아있다.

아마 히브리어는 이 시대가 끝나기(the turn of) 한 세기 또는 그 이상 이전에 대부분의 지역에서 **말해진(spoken, 구어체)**언어이기를 중지하고 대신 아람어로 히브리어 구어체 언어로 들어섰을 것이다.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후 5세기까지의 **중기 히브리어** 기간은 꿈란 히브리어와 사마리아 히브리어 그리고 그것들 각각이 구분되는 방언 또는 여러 방언들로 표현된 미슈나 히브리어에서 발견된다. 꿈란 히브리어는 비록 자주 토속적인 요소들이 나타나기는 해도 대부분 고전 말기 언어를 재 생산하려는 정교한 시도인 문어적인 방언이다. 다른 한편으로 미슈나 히브리어는 직접적으로는 고전히브리어까지 뿐만 아니라, 최소한도 대부분의 성서 방언인 표준 예루살렘 방언의 계통도 잊지 않는다. 오히려 미슈나 히브리어는 아마 분리된 히브리어 방언적 기질을 연속적으로 표현하고있는 초기 북쪽 히브리어에 연결된 토속어의 쓰여진 버전일 것이다. 중기 히브리어는 **쓰여진(written)** 언어로 이어지면서 폭넓은 문어의 다양함을 창조하기위해 성서히브리어와 미슈나히브리어 이 양쪽을 이끌어들이는 저술가들에 의해 애용된다.

지난 마지막 세기에 **말해진 (일상, 구어체)** 언어로 다시 살아난 **현대 히브리어**는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의 언어로 변영하고 있다.///



### 6-2-3)아람어(Aramaic) .

[위 사진: aramaic\_Bar-rakib.] 아람인(Aramaeans)들은 14 세기의 쉼기문자 텍스트에서 aḥlamē, 그 이후에는 aḥlamī armaya로 나타난다. 그들은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시리아-팔레스타인과 북 아라비아까지 자신들의 정복을 확장한다. 아람어(Aramaic)는 정복된 나라들의 다양한 언어들에 갈아치우면서 기원전 8 세기 시작무렵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공식언어 뿐만 아니라 근동의 상호국제적인 언어로 됐다. 그 언어의 최대 확장 시기는 기원전 4 세기부터 그것이 아람어에 의해 갈아치워졌던 기원후 7세기까지였다. 기독교 시대의 시작 이전까지는 **코이노이아(common)아람어**라고 불리워졌던 언어는 두드러진 방언적 다양함들이 있지 않았다. 그 후에 그 언어는 서부 아람어와 동부 아람어로 나뉘었다. 코이노이아 아람어의 문서들은 종류상 다양하다. 다마스쿠스와 Aleppo 사이의 Hamah 왕들 그리고 Aleppo 북쪽 Zingirli에서 발견된 Samal 왕들의 그런 것과 같은, 시리아의 속국들의 비문들은 기원전 9세기부터 기원전 8 세기까지 날짜가 매겨진다. 이집트의 Elephantine(Aswan)의 유대 식민지의 비문들은 기원전 7 세기부터 기원전 4

세기까지 그 날짜가 메겨진다. 성서의 아람어 부분들(에스라 4장 8절~6장 18절; 7장12절~16절; 다니엘서 2장 4절~7장 28절, 그리고 격리된 문장들)은 기원전 4세기부터 기원전 2세기까지 날짜가 메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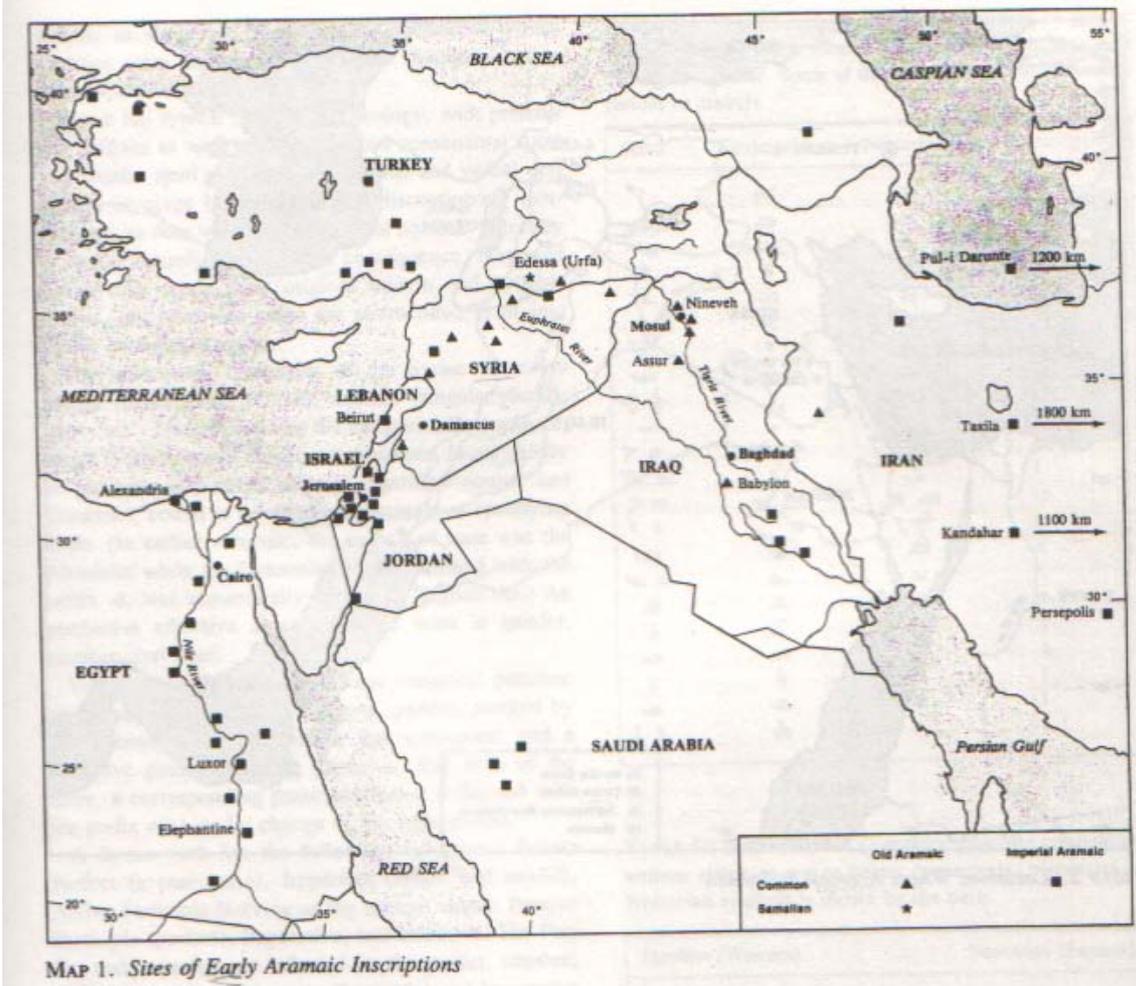
서부 아람어 방언들은 Judeo-Aramaic, Samaritan, Palestinian-Christian, Nabataean, Palmyrene와 Western Neo-Aramaic이다. 유대-아람어는 사해 문서들 중에서 발견된 아람어 작품들과 그리고 팔레스타인 Targums 즉 구약성서의 아람어 번역들과 그리고 기원후 5세기에 편찬된 팔레스타인 탈무드(Palestinian Talmud)와 그리고 몇몇 비문들의 언어이다. 사마르티아-아람어는 기원후 4세기의 모세 오경의 번역과 그리고 몇몇 다른 기도들과 종교적인 작품들에 의해서 대표된다. 팔레스타인-기독교 아람어는 신구약 성서의 번역부분과 기원후 8세기와 9세기 팔레스타인의 기독교인 Melchites에 의해 번역된 몇몇 종교적인 텍스트들의 방언이다. 나바타이아 아람어는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후 4세기까지의 시나이, 북 아라비아, Transjordanian을 통한 caravan의 길들에서 발견된 비문들에 있는, Petraea 아랍 그리고 팔레스타인 동부에 이르는 Hauran의 아랍인들에 의해 사용된 아람어 방언이다. 팔미레네 아람어는 주로 기원후 첫 삼세기로부터 그 날짜가 메겨지는, 다마스쿠스(Damascus)북 동쪽에 이르는 Palmyra의 비문들의 방언이다. 서부 아람어는 Ma'lūla (기독교)와 그리고 Baḡ'a와 Ġuba'dīn(무슬림) 마을들의 레바논과 Anti-Lebanon의 산악지대들에서 여전히 말해진다.

동부 아람어는 Syriac와 그리고 Babylonian Talmud의 Aramaic과 그리고 동부 Neo-Aramaic을 포함한다. 시리아 아람어는 2세기 말경 기독교의 중심지였던 (현대 Urfa) Edessa의 언어이다. 기원후 5세기 이후로 신학적인 차이때문에 시리아 아람어로 말하는 기독교인들은 페르시아 영향 하의 Nestorians 또는 East-Syrians 그리고 비잔틴 영향 하의 Jacobites 또는 West-Syrians로 나뉜다. 이 두 그룹들은 발음 차이들에 의해서 언어학적으로 구분됐다. 시리아 문학의 가장 위대한 시기는 3세기와 7세기 사이였다. 기원후 6세기 경에 편찬된 바빌로니아 탈무드의 아람어는 동부 아람어 그룹의 중요한 다른 방언이다. Mandaic 아람어는 메소포타미아 하류의 (Sabaeans라고 불리우는) 그노스틱 분파(gnostic sect)의 방언이다. 동부 아람어 방언은 Urmia 호수와 (네스토리아 인들, 때로는 앗시리아 인들에 의해 불리웠던) Van 호수 사이 지역에서 그리고 Tur Abdin(Jacobites)의 관할구에서 그리고 Mosul의 북쪽지역에서 여전히 말해지고 있다.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선교사들은 모술 방언을 문어언어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했다.

///모든 아람어 방언들은 다른 것들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언어학적인 새로움들

을 공유한다: ‘아들’과 ‘딸’과 ‘둘’ 등의 경우 \*r에로의 아마 모음적인 \*ṛ이었을 것의 변화(예를들어 아들의 경우 \*bṛ > \*bir, Testen 1985); 가나안 언어들의 \*-nū와는 반대로, 모든 환경에서 일인칭 복수의 접미사로서의 \*nā의 일반화; 새로운 사역-재귀 변화의 발생, \*hittaqtal (vs. 초기 셈어 \*(v)štaqtala); 그리고 (히브리어 Nip'al에서 처럼) 수동형 n-어근의 손실. 현대 말해지고 있는 언어들 중 제외한 모든 아람어 방언들은 비록 그 언어의 형식들 중에 많은 고서체의 다양한 스크립트가 있긴 해도, 페니키아 인들로부터 빌려온 22 개 알파벳으로 오른 쪽에서 왼쪽으로 쓰여진다.

그 언어의 가장 초기 국면의 것으로 알려진 **고대 아람어**는 기원전 9 세기 중반부터 기원전 6 세기까지 그것들 중에서 어떤 것은 아주 긴, 북 시리아의 Tell Fakariya로부터의 2 개 언어적인 앓카디아-아람어 비석과 더불어 시작하는, 작은 수의 비문들에서 입증된다. 이런 비문들 대부분은 어떤 표준 방언을 보여주기 보다는 오히려 방언적인 다양성을 가리키면서 서로에 관련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언어적인 특색들을 드러낸다.



아람어는 기원전 6~4세기 페르시아 제국의 공식언어가 되면서 언어의 사용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공식적 또는 제국 아람어라고 불리우는 표준방언을 생산해내는 발전을 이룬다. 어떤 것은 이집트에서 쓰여지고 어떤 것은 예를들어 페르시아에서 쓰여졌던 많은 수의, Official 또는 **Imperial Aramaic**과 피루스 텍스트들이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에서 발견됐다. **에스라** 서의 성서 아람어도 이러한 제국언어 시기에 놓여질 수 있을 것이다. 페르시아 붕괴 후 아람어 텍스트 그룹들 사이의 방언적인 다양함이 다시 한 때 두드러지게 된다.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후 2세기의 기간은 중기 아람어(**Middle Aramaic**)라고 집단적으로 명칭불려지는 많은 수의 아람어 텍스트들을 생산한다. 시리아와 Transjordan으로부터의 이 시기의 비문의 방언들은 Nabatean, Palmyrene, Hatran, 그리고 old syriac이다. 표준 문어 아람어(Standard Literary Aramaic) 라고 용어화됐던 쓰여진(Written, 문어체) 방언이 **다니엘** 성서의 아람어에서 그리고 콤란으로부터의

많은 아람어 텍스트들에서 그리고 Onqelos와 Jonathan **Targums**의 아람어에서 확인

된다(attested). 이 시기의 다른 팔레스타인 아람어 텍스트들은 Bar Kokhba 편지들과 무덤 비문들과 *미슈나*에서 인용된 낱말들과 구(句)들과 기독교 신약성서이다. 분산된 텍스트들도 예를들어 이집트와 저 멀리 떨어진 아프카니스탄에서 발견됐다.

기원 후 3 세기부터 우리는 세 가지 주요한 후기 아람어(**late Aramaic**) 가지들을 구분할 수 있리라. ㄱ) Late Western Aramaic은 쉬나고계(유대 회당)와 장례 비문들과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 탈무드**와 **미드라쉬**와 **타르쿰**들의 언어인 **Galilean**(또는

TABLE 2a. *Traditional Order of Consonants in Syriac Scripts.* Variant forms used at the ends of words appear to the left in the table. Some of the sounds occur only in certain periods or dialects

Serto	Estrangelo	Nestorian	Transcription
~	~	~	ʔ, zero
~	~	~	b, b
~	~	~	g, g
~	~	~	d, d
~	~	~	h
~	~	~	w
~	~	~	z
~	~	~	h
~	~	~	t
~	~	~	y
~	~	~	k, k
~	~	~	l
~	~	~	m
~	~	~	n
~	~	~	s
~	~	~	c
~	~	~	p, p
~	~	~	s
~	~	~	q
~	~	~	r
~	~	~	ʕ
~	~	~	t, 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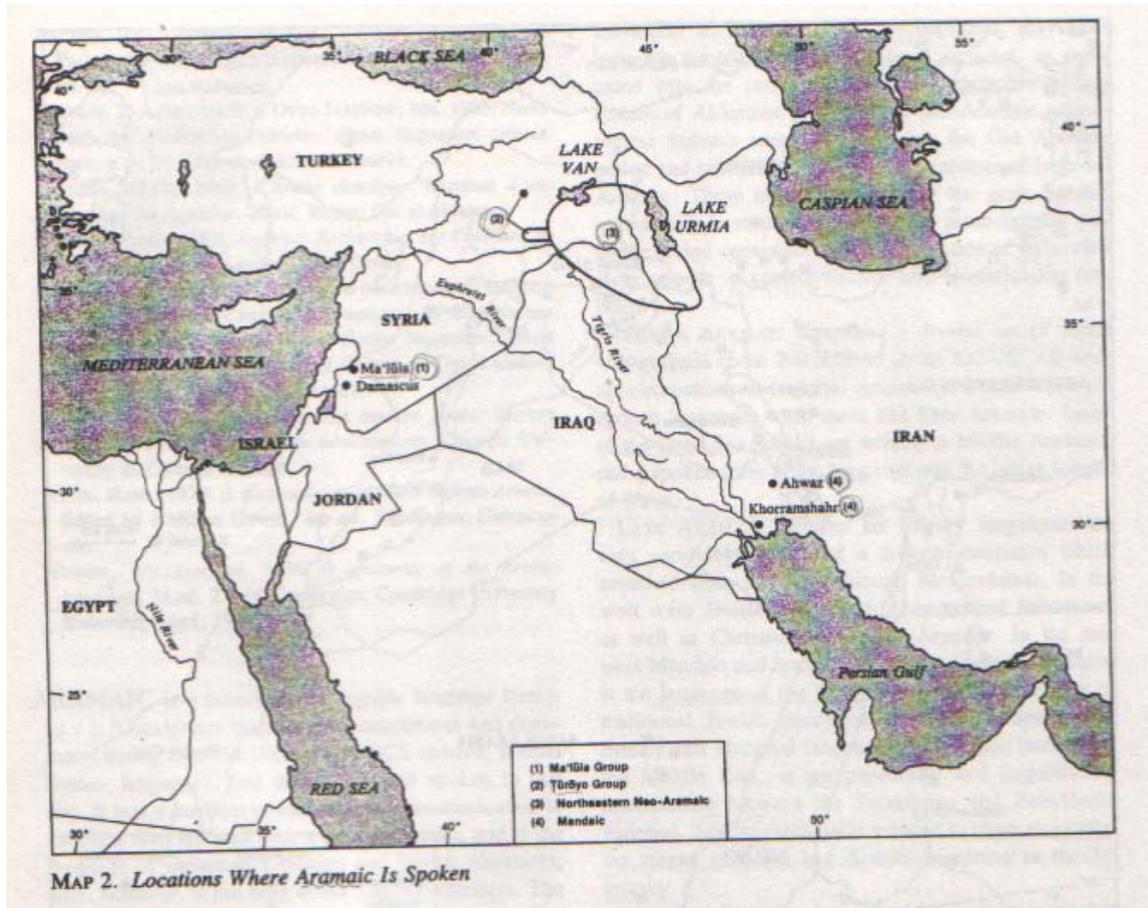
Jewish) Aramaic, 그리고 Judean 또는 Christian Palestinian Aramaic(소위 Syro-

Palestinian or Palestinian Syriac), 그리고 Samaritan Aramaic을 포함한다. ㄴ) Late Eastern Aramaic은 **바빌로니아 탈무드** 언어인 **Babylonian Aramaic**과 그리고 남부 바빌로니아의 **gnostic Mandaean**의 언어인 **Mandaic**과 그리고 기원후 4~7세기로부터 온 사발에 쓰여진 주문적인 실제 주문 방언을 포함

TABLE 2b. *Syriac Vowel Diacritics.* Jacobite symbols are written either above or below consonants; placement of Nestorian symbols is shown by the dash.

Jacobite (Western)	Nestorian (Eastern)
ⲓ i	ⲓ i
ⲉ e	ⲉ e
ⲁ a	ⲁ a
ⲟ (< ā)	ⲟ ā
ⲡ u	ⲡ u, 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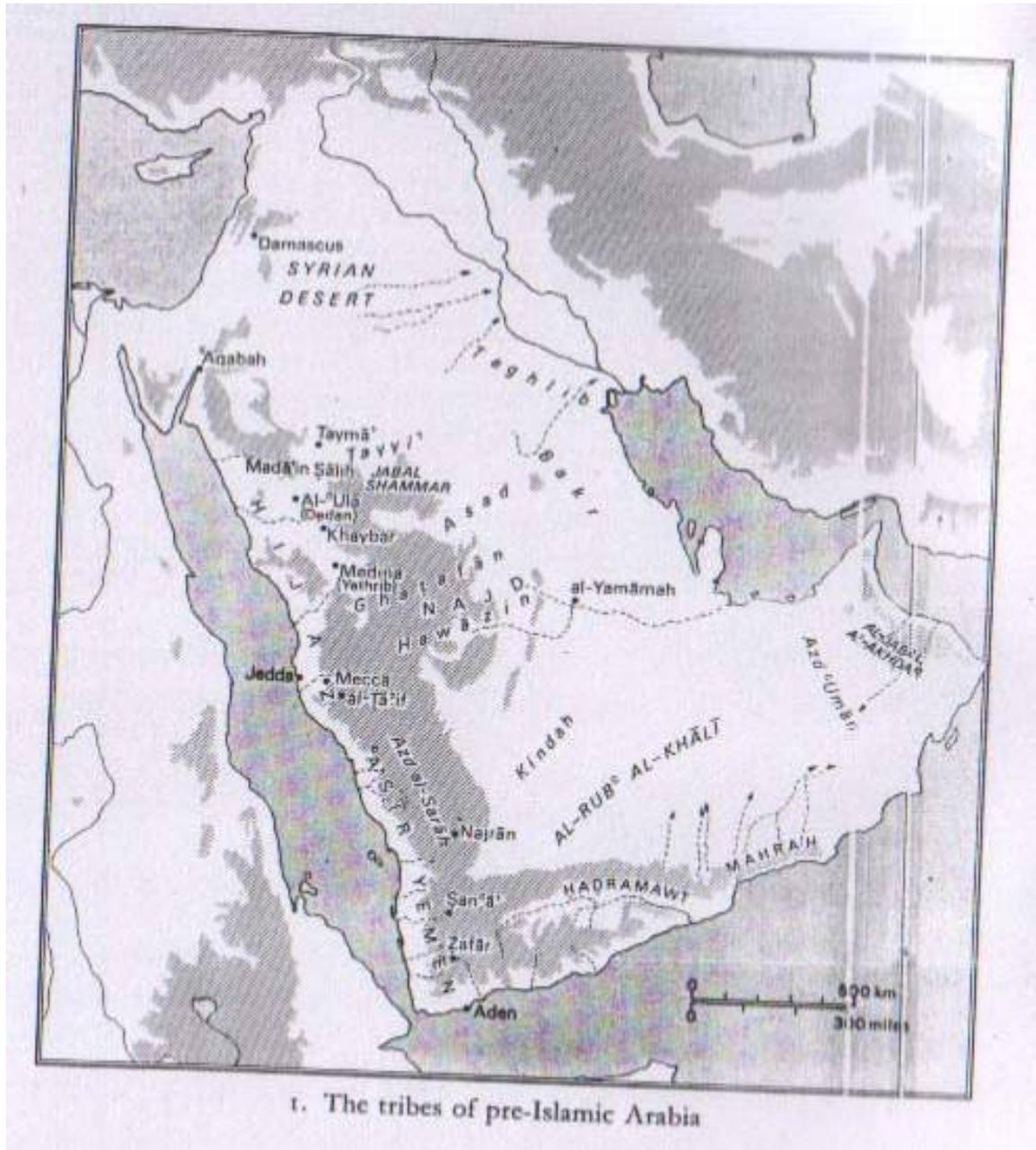
한다. ㄷ)고대 시리아어(old syriac)에 근거를 둔 그리고 서부와 동부 아람 양자에서 발견되는 특색들을 드러내주는 **문어적인 시리아어(literary Syriac)**는 기원후 4~13세기까지의 방대한 기독교 문헌의 언어이다. 동부(Nestorian)와 서부(Jacobite) 방언이 인정된다. 기원후 7세기 이슬람의 확장과 더불어 말해진(spoken, 일상) 언어로서의 시리아는 쇠퇴하기 시작한다.



**Modern Aramaic Language**는 근동의 다양한 부분들이 공동체 좁은 지역에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최근인 이주의 결과로서 [구]소련과 스웨덴과 미국과 같은 나라들에서도 계속 [일상언어로서] 말해지고 있다. 신-아람어 방언들의 주요 네 가지 방언들이 알려져있다: 단지 다마스쿠스(Damascus)의 북동 세 마을(기독교마을 Ma'lūla와 그리고 무슬림 마을 Jubb'dān과 Baḥ'a)들에서만 말해지는 *Western*; 남동 터키의 마을들에서 말해지는 *Turoyo*(여러 방언들)dhk Mlahsō로 이루어진 *Central*; 본디 Kurdistan과 그 근방이었지만 지금은 넓게 흩어진 수십만의 사람들에게 의해 말해지고 있는 자주 의의있게 나뉘어진 방언들의 큰 그룹인 *Eastern*(마찬가지로

비록 고전 시리아어와 직접 관련되지는 않았지만 NeoSyraic이라고도 불리운다); 그리고 서부 이란의 Ahwāz에 사는 소수 Mandaicans에 의해 말해지는 Neo-Mandaic.

#### 6-2-4)남부 아랍어(South Arabic)



*Epigraphic South Arabic*(남부 비석 아랍어). 이 언어는 현대 예멘과 Hadhrmaut와 Aden Protectorate 지역에서 발견되는 약 5000 여개의 돌 비석에 의해 표현된다. 남부 아라비아의 Himyar 부족은 이슬람 시대 전에 중요 했으므로 ‘Himyarite’ 라는

이름이 마찬가지로 남부 비석 아랍어 대신에 사용된다. 남부 아랍에는 Sabaean과 Minaean 이라는 주요 두 방언들이 있다. Qatabanita-Awsanite 방언과 Hadhramaut 방언은 Minaean과 관련된다. Minaean과 Sabaean 사이의 주요한 차이는 사역형 그리고 3인칭 독립 인칭대명사와 접미 인칭대명사의 형태소의 용법에 있다. 이런 요소들은 Sabaean 그룹의 경우 h인 반면 Minaean 그룹의 경우 s이다. Minaean 비문들은 마찬가지로 El'Öla와 Tebuk 이웃에 있는 북 Hegaz에서 발견됐다. 마찬가지로 에디오피아의 Aksum과 Yeha 지역에서도 발견된 Sabaean 비문들은 Ma'in과 Saba와 Qataban과 Hadhrmaut이 가장 중요한 'Arabia Felix'의 고대 왕국들의 정치 문화 종교적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대부분의 고대 Minaean 비문들은 아마 후기 Sabaean 기원전 8세기부터 있을 것이다.

*Morden South Arabic.* Hadhramaut와 Oman 사이의 남부 아라비아의 어떤 지역들에서 말해지는 비-아랍 방언들이 있다. 편리하게 '현대 남부 아라비아어' 라고 불리우는 이들 방언들은 (Mahra에서 말해지는)Mahri, (Mahri와 가까운)Botahari와 Harsusi, (마찬가지로 Qarawi, Ehkili라고도 불리우는) Mahri의 동쪽 Shahari, (Shahari와 가까운)아라비아 해안의 다섯 섬들의 그룹인 Kuria Muria, 그리고 (Aden 만의 Socotra의 섬에서 말해지는) Sokotri이다. 이것들이 남부 비석 아랍어에 대해 맺는 관계는 확정되야 할 것으로 남아있다. 현대 남부 아라비아(arabic) 방언은 아랍(arabic) 방언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으므로, 그것들은 어휘에 있어 쉽게 그것들에 의해 두드러지게 영향을 받는다.

///중앙 셈어의 아랍어(Arabian) 가지는 그것의 선조 비문 방언들과 그것의 말해진 일상 후손들과 나란히 고전 아랍어(arabic)를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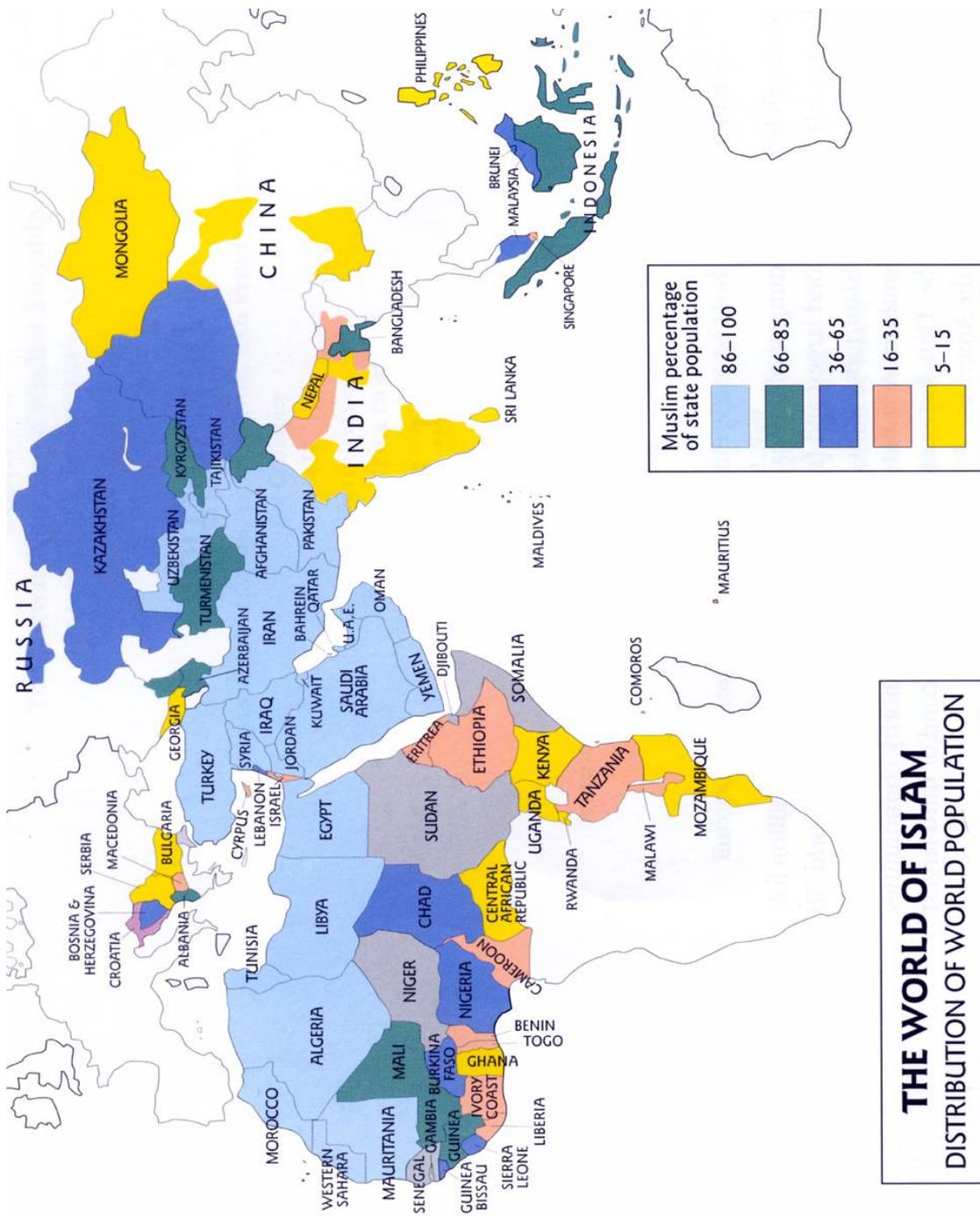
이슬람 이전의 고대 남부 아라비아어로부터 파생됐던 알파벳 스크립트로 쓰여진 그리고 후의 고전 아랍어와 언어학적으로 흡사함을 드러내는 비문들은 *Old(또는 Early) North Arabic*이라고 용어화된다. 여러 방언들이 구분된다: 서 아라비아 중앙 북쪽 아라비아(특히 Midian)에서 발견되는 기원전 6세기부터 기원후 4세기에 걸치는 1,000 graffiti를 포함하는 *Thamūdic*, 그리고 Tayma의 오아시스 주위에서 발견되는 특수한 스크립트로 쓰여진, 초기 하위-가지(Taymanite를 포함); (북서 아라비아) 고대 Dedān, al-'Ulā의 오아시스로부터 기원전 5 또는 6 세기의 후기 *Kihyānite*와 *Dedānite* 스크립트들; Dura Europos 만큼이나 떨어져 있는 Damascus의 동쪽 지역에서 그리고 현대의 Saudi Arabia의 남쪽에서 먼 북쪽에 이르는 지역에서 발견되며 15,000 개 넘게 graffiti가 포착되는 그리고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후



IPA	Latin	Name	Final	Medial	Initial	Isolated	IPA	Latin	Name	Final	Medial	Initial	Isolated
[ʔ]	t̤	tā'	طاء	ط	ط	ط	[ʔ]	'(a)	'alif	ا	—	—	ا
[z]	z	zā'	ظاء	ظ	ظ	ظ	[b]	b	bā'	باء	ب	ب	ب
[ʕ]	'	'ayn	عين	ع	ع	ع	[t]	t	tā'	تاء	ت	ت	ت
[ɣ]	ġ	ġayn	غين	غ	غ	غ	[θ]	t̤	tā'	ثاء	ث	ث	ث
[f]	f	fā'	فاء	ف	ف	ف	[dʒ]	ġ	ġīm	جيم	ج	ج	ج
[q]	q	qāf	قاف	ق	ق	ق	[ħ]	h	hā'	حاء	ح	ح	ح
[k]	k	kāf	كاف	ك	ك	ك	[x]	h	hā'	خاء	خ	خ	خ
[l]	l	lām	لام	ل	ل	ل	[d]	d	dāl	دال	د	—	—
[m]	m	mīm	ميم	م	م	م	[ð]	d̤	dāl	ذال	ذ	—	—
[n]	n	nūn	نون	ن	ن	ن	[r]	r	rā'	راء	ر	—	—
[h]	h	hā'	هاء	ه	ه	ه	[z]	z	zāy	زاي	ز	—	—
[w]	w	wāw	واو	و	—	و	[s]	s	sīn	سين	س	س	س
[j]	y	yā'	ياء	ي	ي	ي	[ʃ]	š	šīn	شين	ش	ش	ش
		hamza	همزة	ء	—	—	[s]	ṣ	ṣād	صاد	ص	ص	ص
							[d]	ḍ	ḍād	ضاد	ض	ض	ض

TABLE 1. Arabic Consonants

	Labial	Interdental	Alveolar	Palatal	Velar	Uvular	Pharyngeal	Glottal
<b>Occlusives</b>								
<b>Voiceless</b>								
Plain			t		k	q		ʔ
Emphatic			t̤					
<b>Voiced</b>								
Plain	b		d	j	g			
Emphatic			d̤					
<b>Fricatives</b>								
<b>Voiceless</b>								
Plain	f	θ	s	š	x		ħ	h
Emphatic		θ̤	ʃ					
<b>Voiced</b>								
Plain		ð	z		ɣ		ʕ	
Emphatic		ð̤	(z)					
<b>Nasals</b>	m		n					
<b>Lateral</b>			l					
<b>Vibrant</b>			r					
<b>Semivowels</b>	w			y				



### 6-2-5)셈어 쓰기법(Script)

췌기문자 스크립트와 북 셈어 스크립트와 남 셈어 스크립트 등, 셈어에서 사용 되는 세 가지 스크립트(쓰기법)이 있다. 췌기문자는 아카디아(Akkadian)에서 사용 됐다. 그 발명은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인들의 것이었으며, 바로 이 수메르인들로부터 앓시라인들과 바빌로니아인들이 문제의 그 스크립트를 취했던 것처럼 보인다. 시작할 때의 기호들(symbols)은 회화(pictorial, 繪畵)적이다. 보다 후에 그 기호 들은 낱말-부호들(word-signs) 또는 표의문자들(ideograms)로서 마찬가지로 추상적 인 관념(ideas)들을 나타내는 데에 사용됐다. 예를들어 해 그림(solar disc)은 ‘날’(day)과 ‘시간’(time)의 관념을 가리키게 됐다. 더 나아간 발전이 이루어지자 그 낱말-부호들은 그림들로서의 자신들의 어떤 의미와도 관련이 없이 낱말들의 음 (성학적인 값, phonetic value)가(音價)를 나타내게 됐다.

그래서 음절이 그러나 알파벳 체계에 다다름이 없이 생산됐다.

췌기문자 부호들은 마찬가지로 Ugaritic에서도 사용됐다. 우가리트어의 경우에는 특별한 췌기문자 알파벳이 Sumerian-Assyrian-Babylonian에 의존함이 없이 발전됐다. 그러한 기호들은 모음들(‘a, ‘i-, ‘e, ‘u-, ‘o)을 지니는(with) 세 가지 alephs을 예외 로 한 단지 자음들만을 나타냈다.

북 셈어 스크립트는 Canaanite와 Aramaic 이라는 두 가지 주요 가지들을 지닌다. 가나아니트 가지의 후손들이 ‘Early Heberw’와 ‘Phoenician’이다. Moabite 비석 스크 립트는 밀접하게 초기 히브리어 쓰기에 관련된다. 초기 히브리어 쓰기법의 한 후 손이 Samaritan 알파벳이다.

아랍어로 쓰여진 가장 이른 문서는 기원전 9세기부터이다. 기원전 첫 번째 밀 레니엄 후반부에 아랍어는 근동전체의 가장 널리 퍼진 쓰기법이 됐다. 아랍어 알 파벳의 셈어 후손들은 현대 히브리어 쓰기법으로 발전된 네모꼴 히브리어(Square Hebrew)와 (Naskhi와 Kufic 이라는 두 주요 가지들을 지니는) Nabaraean-Sinaitic-Arabic과 Palmyrene와 Syriac-Nestorian과 Mandaean이다.

이러한 모든 알파벳들은 단지 자음들만을 표현한다. 시리아어와 아랍어와 히브 리어의 모음 기호들은 아마 기원후 8 세기에 도입됐을 것이다.

남 셈어 스크립트. 남 셈어 알파벳은 남부 비석 아랍어와 Thamudenic과 Lihyanite와 Safaitic의 북 아랍 비문들에서 사용됐다. 남부 아랍 알파벳은 기원전 첫 번째 밀레니엄에 Ethiopia로 변했다(passed into, 4쪽 지도 참조). 그러나 남부 아

랍 알파벳은 자음적인 반면에 에디오피아 알파벳은 음절적이다. 즉 에디오피아 알파벳에는 모음과 함께하는(with) 자음을 위한 단일한 기호가 있다. 남부 셈어 알파벳의 기원의 문제와 에디오피아적 모음들의 발명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 어떤 쓰기법의 체계도 한 언어의 소리들의 미묘한 다양한 차이(shade)를 완벽하게 재 생산할 수 있었던 적은 한번도 없었다. 더구나 셈족들(Semites)의 글쓰기(Writing)는 놀라운 근본적인 하나의 결합, 즉 실로 그 언어의 실체를 실로 형성하는 자음들만이 실제적인 글자들(letters)로 쓰여진 반면 모음들의 경우에는 더 길게 소리나는 것만이 어떤 대표적인 자음들에 의해서 가리켜진다는 결합을 지닌다. 에디오피아 인의(Ethiopic) 본디 글쓰기는 후에 자음들에 작게 첨가함에 의해 또는 자음들의 모양을 다르게 변화시킴에 의해 모음들을 표현했으며, Assyrio-Babylonian 쉼기문자 쓰기법은 끝까지 비슷한 방식으로 모음들을 가리킨다. 후에야 비로서 작은 특별한 부호들(marks)(점들 또는 자음들 위 또는 아래의 점들 또는 스트로크(strokes))이 모든 모음-소리들을 눈에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발명됐다. 그러나 이것들은 능숙하게 읽는 자에게는 불필요(superfluous)한 것이며 그래서 자주 셈어 수고(manuscripts, 手稿)들과 인쇄된 텍스트들에는 그 전체 모음부호가 생략된다.

나아가서 셈어 글쓰기는 거의 변화없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된다. Sabaean(Himyaritic)글쓰기는 종종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심지어 선택적으로 양 방향(boustrophedon)에서 진행되기도 하나, 대체적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아간다. 에티오피아어의 글쓰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의 방향이 하나의 규칙으로 된다. 그러나 아주 적은 몇몇 오래된 비문들은 그 반대 방향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쉼기문자의 글쓰기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이것은 의심할 것도 없이 비-셈어 사람들로부터 빌려온 것이다. 약 기원전 400년 경 배타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의 방향만을 채용한 그리스어도 본디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 내려갔다. 선택적으로 양 방향 각 각에서 시작하는 boustrophēdon 글쓰기는 초기 그리스어와 초기 Sabaean와 기원후 첫 3 세기의 Saba-비문들에서 이루어졌다(Lidzbaski, Ephemeris, i. 116f를 참조하자).

앗시리오-바빌로니아 쉼기문자를 예외로하면, 다양한 모든 셈어 글쓰기는 비록 어떤 측면에서는 폭넓게 다르더라도, 동일한 근원적인 알파벳으로부터 파생됐다. 근원적인 이 알파벳은 약 기원전 850년 경의 Moab 왕 Mēša'의(열왕기하 3장 4

절 이하 참조) 비석(stele)에서 사용된 철자들(characters)에 의해서 아주 충실하게 현존 기념물에 그리고 고대 페니키아어의 비문들(inscriptions)이 **Měša'** 보다 더 이르게 거기에 기록된 Baal 사원으로 온 청동 사발들에 주어져 있다. 그 종류에 있어 유일무이한 모압왕 메사의 비석 기념물은 독일인 선교사 F.A.Klein에 의해 그 지점에서 1868년 8월에 처음 보여졌다. 그러나 후에 그것은 아랍인들에 의해 조각들로 쪼개졌기 때문에 단지 그 비문(inscription)의 미완성 복사본 만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조각들 대부분은 지금 프랑스 루브르(Louvre) 박물관에 있다. 그 발견의 역사와 그 돌에 관련된 초기 문헌을 위해서는 Lidzbarski의 Nordsemitische Epigraphik[ i. ppl 103f., 415f., 그리고 (Me 아래의) p. 39 ff. 참고문헌]을 보라. Smend와 Socin(Freiburg in Baden, 1886)에 의한 그 비문의 유용한 재 생산과 번역은 후에 Nordlander(Die Inschrift des König Mesa von Moab, Lpz. 1896)등의 다음 사람들에 의해 개정되고 보완됐다: Socin and Holziger, 'Zur Mesainschrift'(Berichte der K. Sächsischen Gesell. d. Wiss., DEc. 1897); Lidzbarski, 'Eine Nachprüfung der Mesainschrift'(Ephemeris, i. I, p. 1 ff.; Alisemitische Texte, pt. I, Giessen, 1907 안의 텍스트); J. Halévy, Revue Sémitique, 1900, pp. 236 ff., 289 ff., 1901. p. 297 ff.; M.J.Lagrange, Revue biblique internationale, 1901, p. 522 ff.; F. Prätorius in ZDMG. 1905, p. 33 ff., 1906, p.402. 그러나 그것의 진본임은 A.Löwy(Die Echtheit der Moabit. Inschr. im Louvre, Wien, 1903)과 G.Jahn(Das Buch DAniel, Lpz. 1904, p. 122 ff. 마찬가지로 ZDMG. 1905, p. 723ff와 743ff)에 의해서 공격받았다. 그러나 E.König(ZDMG. 1905, pp. 233ff. 그리고 743 ff.)에 의해서 보여진 것처럼 그 공격은 정당화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Driver(Notes on the Hebrew Text of the Books of Samuel, Oxford, 1890, p. lxxxv ff.)와 Cooke(op. cit., p. 1 ff.)을 참조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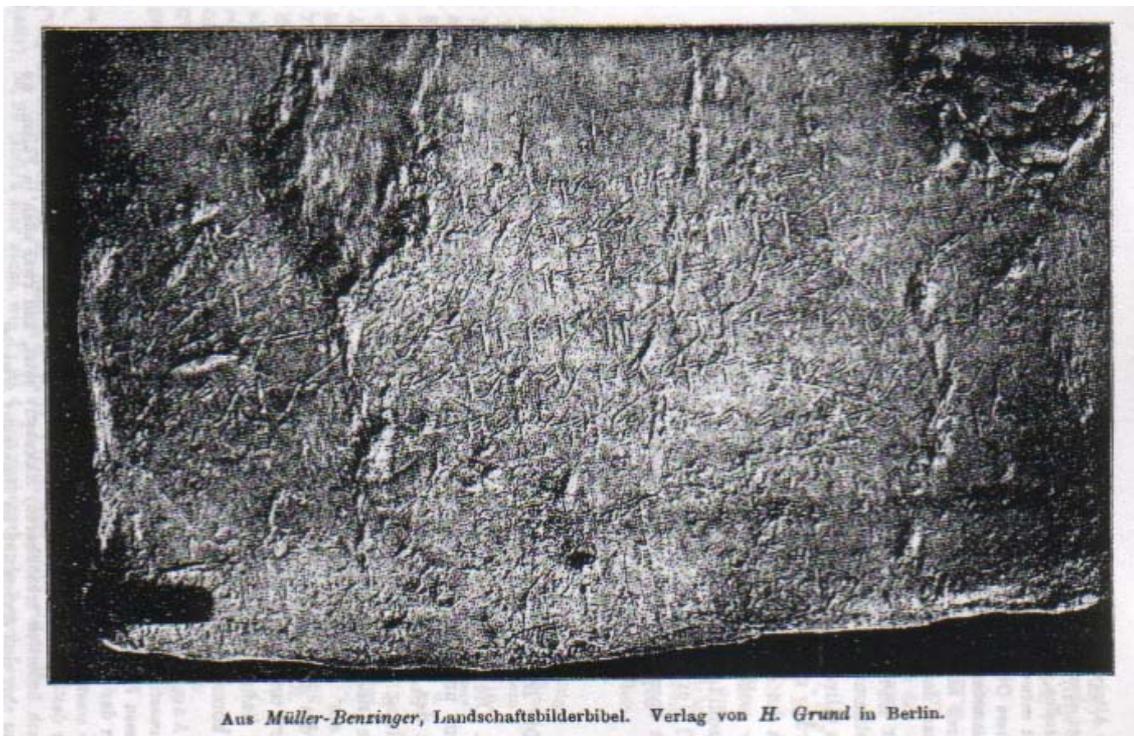
가장 오래된 기념물인 Siloam 비문(inscription)에 나타난 것과 같은 고대 히브리어 글쓰기도 본질적으로 동일한 철자(character)를 보여준다. 고대 그리스어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모든 유럽 알파벳들이 고대 페니키아인들의 글쓰기의 후손들이다. 히브리어 글자들이(letters)지니는 숫자 값과 이름들과 순서는 페니키아 인들을 통해 그리스인들에게로 건네졌다. 그리스 인들의 알파벳들 중 A에서 Y까지는 고대 셈어에서 차용된 것들이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로마의 그것들과 마찬가지로 Old Italic alphabets 결국 이것으로부터 또는 그리스어로부터 파생된 모든 알파벳들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페니키아 인들이 가져온 그것들—페니키아인들이 사용하던 알파벳들 또는 페니키아인들의 알파벳 또는 페니키아 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소리글자 알파벳들—에 의존한다.



15 ff를 보라. 발견된 이후 수많은 기념물들로부터 셈어 철자(characters)들, 특히 페니키아어의 철자들에 관한 우리의 앎은 두드러지게 확장됐으며 보다 더 정확해졌다. Lidzbarski의 ‘Handbuch der Nordsemitischen Epigraphik, i. p. 4 ff.’ 안에 있는 모든 그러나 1616년부터 1896년까지의 철저한 참고문헌을 참조하자. 그리고 셈어 알파벳의 기원에 관해서는 위의 책 p. 173 ff., 그리고 Ephemeres, i, pp. 109 ff., 그리고 그의 ‘Altsemitische Texte’, Kanaanäische Inschriften(Moabite, Old-Hebrew, Phoenician, Punic), Giesses, 1907을 보라. 좌측은 히브리어 알파벳에 관한 최선의 도표이다.

FORM.	NAME.	PRONUNCIATION.	NUMERICAL VALUE.
א	'Ālēph	' <i>spiritus lenis</i>	1
ב	Bēth	b ( <i>bh</i> , but see § 6 n)	2
ג	Gimēl ( <i>Giml</i> )	g ( <i>gh</i> , " " " )	3
ד	Dālēth	d ( <i>dh</i> , " " " )	4
ה	Hē	h	5
ו	Wāw ( <i>Wāu</i> )	w ( <i>u</i> ) <sup>1</sup>	6
ז	Zāyīn	z, as in English (soft <i>s</i> )	7
ח	Hēth	h, a strong guttural	8
ט	Tēth	t, emphatic <i>t</i>	9
י	Yōd	y ( <i>i</i> ) <sup>1</sup>	10
כ, final ך	Kaph	k ( <i>kh</i> , but see § 6 n)	20
ל	Lāmēd	l	30
מ, final ם	Mēm	m	40
נ, final ן	Nūn	n	50
ס	Sāmēkh	s	60
ע	'Āyīn	' a peculiar guttural (see below)	70
פ, final ף	Pē	p ( <i>f</i> , see § 6 n)	80
צ, final ץ	Ṣādē	ṣ, emphatic <i>s</i>	90
ק	Qōf	q, a strong <i>k</i> <sup>2</sup> formed at the back of the palate	100
ר	Rēš	r	200
שׁ	Śīn	ś	} 300
	Śīn <sup>3</sup>	š, pronounced <i>sh</i>	
ת	Tāw ( <i>Tāu</i> )	t ( <i>th</i> , but see § 6 n)	400

페니키아 비문들은 별도로 하고 그리고 구약성서를 예외로 하면, 고대 히브리어 유물 또는 고대 가나안 사람들의 문헌은 단지 아주 적은 수만이 보존되어 오고 있다. 이런 후자(가나안사람들의 유물) 중에 1)사해 동쪽에서 약 12 마일 떨어진 Reuben 지파의 고대 영토, 더 이른 때에는 Gadites이 그 후에는 Moabites가 거주했던 Dibôn(지금의 Dibôn)의 도시 폐허들 속에서 발견된, 서른 네 줄로 된 그러나 불행히도 많이 손상된 *비문 안의 Moabite 왕 Mēša'* (약 850 년 경)는 이스라엘(열왕기하 3장 4절 이하)과의 전쟁과 자신의 건물들과 다른 문제들을 기록한다. 고대 히브리어 유물들 중의 하나인 2)아마 기원전 8 세기 여섯 줄로 된 비문은 1880 년 6월에 Virgin's Spring과 예루살렘 Pool of Siloam 사이의 tunnel에서 발견됐



다.

(윗 사진: 실로암 비문). 불행히도 날짜가 기록되지 않았지만(not dated)언어학적으로 그리고 고서체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 터널 뚫기에 관련되는 비문의 복사본(facsimile)이 이 문법의 시작에 주어진다. 마찬가지로 Lidzbarski, Nordsemitische Epigraphik, i. 105, 163, 439(참고문헌, p. 56 ff.; facsimile, vol. ii, plate xxi, i)을 보라. Socin(ZDPV. xxii. p.61 ff. 그리고 Freiburg에서 따로 출간된 것 i. B. 1899)에 의한 그것의 새로운 묘사에 관해서는 Liszbarski, Ephemeris, i. 53 ff. 그리고 310 f. (text in Altsemit. Texte, p. 9f.). 그 여섯 줄들은 결코 달성되지 않았던 어떤 비문의 연속이

라는 A.Fischer(ZDMG. 1902, p. 800 f.)의 견해에 대한 반대에 대해서는 Lidzbarski, *Ephemeris*, ii, 71을 보라. 그 비문은 1890년 이동 도중에 깨져 6 또는 7 조각 나버렸으나 후에 잘 복구되어 지금은 콘스탄티노플의 Imperial Museum에 있다. 만약 결코 의심될 수 없을 것처럼 **הַשֵּׁל** 라는 이름(이사야 8장6절)이 그 Vrgin's Spring으로부터 그 터널을 통해(그래서 Stade, *GESch. Isr. i. 594*) 물의 퍼냄을 지시한다면, 후자(터널) 그래서 그 비문은 이미 약 기원전 736년 경에 존재했을 것이다[*Cooke, op. cit.*, p. 15 ff 참조할 것]. ㄷ)약 40여 개의 **매장된 돌-인장(seal, 印章)** 중 어떤 것들은 바빌론의 유수 이전의 것이지만 고유명사들을 제외하면 거의 지니고 있는 것이 없다[M.A. Levy, *Siegel u. Gemmen, &c., Bresl. 1869, p. 33 ff.*; Stade, *ZAW. 1897, p. 501 ff.*(1896년에 출간된 네 개의 고대-셈어 인장들); *Ephemeris*, i. 10 ff.; W.Nowack, *Lehrb. d. hebr. ARchäol.*(Freib. 1894), i. 262 f.; I.Benzinger, *hebr. Archäol.*<sup>2</sup> (Tübingen, 1907), pp. 80, 225 ff., 벤징어의 이 기고문은 **לשמע עבד ירבעם** 라고 새겨진, Megiddo의 언덕 성체로부터 1904년에 발굴된 아름다운 인장을 포함하고 있다(*Cooke, p. 362* 참조). ㄹ)*Maccabaeen* 군주 Simon과 그 후계자들의 화폐(석방 2년째부터, 기원전 140-139년) 그리고 *Vespasian* 과 *Hadrian* 시대 때의 주조된 화폐.

구약에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바로 윗 단락에서 설명된 비(non, 非)-성서적 유물들에서 발견되는 것으로서의, 고대 히브리어의 일련의 전체 글(Writings)들에 있어서의 그 언어는 자음의 형성으로부터 판단컨대 그것의 일반적인 철자(character, 특성)에 관련되는 한 그리고 발전의 동일한 과정에서의 모양에 있어서의 다소간의 변화와 그리고 스타일의 차이를 별도로 하면 그대로 유지된다. 이런 형태로 초기 시대에 그 언어는 문어언어로서 고정됐을 것이다. 그리고 구약에 포함된 책들은 신성한 글들로서 전달됐다는 사실이 그 모양의 꾸준한 이런 일정(uniformity, 一定)함에 반드시 기여했음에 틀림없다.

이런 고대 히브리어에 가나안 사람들 또는 페니키아 사람들의 어계(stock, 語系)가 다른 모든 셈어들보다 가장 근접해 있다. **כְּנַעַן**는 팔레스타인의 가나안 부족들과 그리고 우리가 페니키아인들이라고 부르는 시리아 해변에 그리고 레바논 가까이에 거주하는 자들이 양자(兩者)에 공통인 토착민의 이름이다. 반면에 그들은 스스로를 자신들의 화폐에서 **כְּנַעַן** 이라고 부른다. 마찬가지로 카르타고 사람들도 스스로를 그렇게 부른다. 페니키아인들과 가나안사람들의 어계가 고대 히브리어와 가장 가깝다는 것은 구약에 나타나는 모양(형식)과 의미를 지닌 사람들과 지역들에 관한 많은 가나안 이름들로부터 부분적으로 분명해진다—예를들어 **כְּנַעַן**

קָרְיַת מְלִיכָהּ 등 등. 기원전 약 1400 년 경 Tell-el-Amarna의 썰기문자 표들의 앓 시리아 낱말로 나타나는 ‘Canaanite glosses’(가나안 사람들의 광택)에 대해서는 H.Winekler의 ‘Die Thontafeln con Tell-el-Amarna,’ in Keilinschr. Bibliothek, vol. v, Berlin, 1896 f.와 비교하라[Transcription과 Translation]. 그리고 J.A.Kudtson(Die El-Amarna-Tafeln, Lpz. 1907 f.)와 H.Zimmern,(ZA. 1891, p. 154ff.와 KAT.<sup>3</sup>, p. 651 ff.)와도 비교할 것. 나아가서 페니키아인들과 가나안사람들의 어계가 **고대 히브리어**와 가장 가깝다는 것은 페니키아 사람들과 포에니 사람들의 언어들의 많은 유물들로부터 부분적으로 분명해진다.

**포에니어**와 **페니키아어**을 우리는 Gesenius, Judas, Bourgade, Davis, de Vogüe, Levy, P.Schröde, v. Maltzan, Euting에 의해서 모아졌던 많은 비문들과 화폐들에서 그러나 특히 the Corpus Inscriptionum Semiticarum(Paris, 1881 ff.)의 제 1 부에서 그들의 독특한 글쓰기와 더불어 발견한다. 비문들 중에서는 예를들어 희생제물의 두 가지 목록과 같은 단지 몇 몇의 공문서(public documents, 公文書)들이 발견됐다. 여태까지의 대부분의 것은 묘비명(epitaphs, 墓碑銘)들과 봉헌표들이었다. 이것들 중 특별히 중요한 것은 1885 년에 발견되어 지금은 프랑스 Louvre 박물관에 소장돼있는 시돈(sidon)의 왕 Ešmúnazar의 석관(sarcophagus, 石棺)에 새겨진 비문이다. Lidzbarski(Nordsem. Epigr., i. 23 ff.)문헌목록을 보고, 이 비문에 대해서는 i. 97 ff., 141 f. 417, ii. plate iv, 2 그리고 Cooke, p. 30 ff.를 보라. 이것들에 그리스와 라틴 저술가에서 그리고 Plautus(Poenulus 5, 1-3)의 포에니어 텍스트들에서 분산되어 나타나는 낱말들이 더해질 수 있으리라. 플라투트스의 포에니어 텍스트는 Gildemeister의 ‘Ritschl’s editon of Plautus, Lips. 1884, tom. ii, fasc. 5’에서 가장 잘 다루어진다. 이러한 기념물들로부터 우리는 토속적인 정서법(orthography, 正書法)을 배우며, 그리스어와 라틴어 필사본들에서는 발음과 모음찍기를 배운다. 이 두 가지 것은 함께 우리에게 그 언어에 관한 어느 정도의 선명한 관념과 그 언어가 히브리어에 대해 맺고 있는 관계를 제공한다.

페니키아어(포에니어)의 다음과 같은 낱말들이 비문들에 나타난다: 예를들어 טיר(Tyre, 튀레) צידון(sidon, 시돈) עת(time, 시간) מלך(king, 왕) בת(daughter, 딸) בן(son, 아들) אדם(man, 남자) אל(God, 신)....

페니키아어의 정서법과 변화에 있어 히브리어와 다른 점은 모음문자들의 거의 대부분의 탈락[קול 대신에 קל(소리), בית 대신에 בת(집)]; 심지어 절대형에 있어서 조차 어미 א(ó)뿐만 아니라 א(ath)로 끝나는 여성명사[שא(페니키아어), שֵׁשׁר(히브리어 관계대명사)]. 무엇보다 두드러진 것은 i가 규칙적으로 û로 발음되는 특히 포

에니어와의 발음차이이다[예를들어 שָׁלוֹם(sālūs, three)]. 그리고 i와 o는 자주 y의 애매하게 무더진 소리로 나타난다[예를들어 יַיִן(ynnynnu, ecce eum)]. 문법에 있어서의 독특한 것들을 취합해 놓은 Gesenius의 ‘Monumenta Phoenicia’(p. 430 ff.)와 B.Stade의 ‘Erneute Prüfung des zwischen dem Phönice. und Hebr. bestehenden Verwandtschaftsgrades, in the Morgenländ. Forschungen, Lpz. 1875, p. 169 ff.’와 Paul Schröder의 ‘Die phöniz. Sprache, Halle, 1869’를 참조하라

## 6-2-6) 셈어의 일반적인 특징들

### 6-2-6-1) 문법적인 구조

/ 다른 언어 군 특히 인도-게르만어와 비교되는 것으로서의 셈어 군의 문법적인 구조는 집단적으로 셈어들이 지니는 많은 특성들 중 여럿을 단일한 다른 언어가 지니고 있기는 해도 그러한 특성들을 드러낸다. 그 특성들은 다음과 같다. ㄱ) 이러한 언어들의 실체를 사실 형성하는 자음들 중에서 독특한 **후음(gutturals)**들이 **다른 정도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동일한 어근-의미의 다양한 전이(modification, 轉移)를 표현하기 위해 **모음들은 동일한 자음 틀 이내에서 커다란 변화를 일으킨다.** ㄴ) 단어-어근들(word-stem)은 거의 변동없이 **세 개의 글자(triliteral)** 즉 **세 개의 자음들**로 이루어져있다. ㄷ) **동사**는 독특하게 규제되는 쓰임새를 지니면서 **두 개의 시제-형식(tense-forms)** 곧 완료와 미완료를 지닌다. ㄹ) **명사**는 단지 **두 개의 성(gender)**, 곧 남성과 여성만을 지닌다. 그리고 격-관계들을(case-relation)가리키기 위해 독특한 방편들이 채용된다. ㄹ) 모든 다른 소유 대명사들과 동사의 대명사 목적어와 마찬가지로 인칭 대명사의 주격과 호격 이외의 격들 곧 **사격(oblique, 斜格)**이 격 지배 단어(접미어들)에 직접 들러붙음에 의해서 가리켜진다. ㅂ) 많은 고유 명사들은 예외지만 **명사와 동사 이 양자로 이루어진 복합어들이 거의 없다.** ㅅ) 구문론적 관계들의 표현에 있어 아주 단순하다. 예를들어 작은 수의 불변화사(particles)와 미문(periodic, 美文)적인 구조없이 구들의 **단순한 동격(co-ordination)**이 많이 나타난다. 그러나 고전 **아랍어**와 **시리아어**는 마지막 언급한 점에 관련해서는 중요한 예외를 형성한다. /

### 6-2-6-1) 음성학(Phonology)

원시-셈어의 자음소(consonant phonemes, 子音素)들은 순음(labial, 脣音) b, p, m ; 치음(dentals, 齒音) d, t, ṭ, 측음(lateral, 側音) (?) ḏ ; 혀끝을 위 아래 앞니 사이에 대고 발음하는 마찰음(interdentals) ḏ, ṭ, ṭ ; 치찰음(sibilants) z, s, š, ṣ, 측음(lateral)(?) ṣ ;

연구개음들(velars) g, k, q, 마찰음(spirants, [fricative]) ġ, ħ ; 유음(liquids, 流音) l, m, r ; 후두음(laryngeals, 喉頭音)과 인두음(pharyngeals, 咽頭音) ‘, ‘, h, ħ ; 반모음 w, y .

보여질 수 있는 것처럼, 입술음(순음)들은 풍부하지 않다. 그것들은 b, m, p이다. 히브리어-아람어에서의 f 는 p의 변이된(variant) 음가이다. 모음 뒤의 p는 실로 마찰음(spirant) f 이다. 남부 셈어에서는 본디 p는 모든 위치에서 f 로 된다. 에디오피아 인은 두번째로 ( f 이외의) p와 성문화된(glottalized) p를 발전시켰다. 원시-셈어에는 v가 없다.

혀끝을 위 아래 앞니 사이에 대고 발음하는 마찰음(interdentals) d̪, ʈ, ɟ 는 단지 아랍어와 남부 아랍어에만 있다. 다른 언어에서는 그러한 마찰음이 치음들(dentals) d, t, ʈ 로되거나 또는 치찰음(sibilants) z, s, š, ʂ 으로 된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아랍어 방언에는 나타난다. 고대 interdentals(혀끝 앞니 마찰음)의 상호대응은 아래 표와 같다.

proto-semitic	Akkadian	Hebrew	Aramaic	Ethiopic
d̪	z	z	d	z
ʈ	š	š	t	s
ɟ	ʂ	ʂ	ʈ	ʂ

본디 일련의 후두음 ‘, ‘, h, ħ은 단지 몇몇 아랍어 방언들과 고대 히브리어와 아랍어와 남부아랍어와 북 에디오피아어에서만 단지 보존된다.

북확실하게 발음되는 음소들은 d̪와 ʈ이다. 아마 측음들일 이것들은 히브리어(š)와 Geez(d̪)와 남부 아랍어(d̪, s₂) 그리고 아랍어(d̪)이다.

이런 상호대응들은 아래 도표와 같다.

원시-셈어	Akkadian	Hebrew	Aramaic	Ethiopic	South Arabic	Arabic
d̪	ʂ	ʂ	‘(q)	d̪	d̪	d̪
š	š	š	s	š	s₂	š

셈어의 특징은 유성음과 무성음과 2차적 연구개조음(emphatic, 軟口蓋調音)—연구개조음 대부분은 무성음이다)의 삼중적 체계이다. 그래서 d-t-ʈ ; g-k-q ; z-s-š. 에디오피아어 b-p-p는 2차적인 발전이다.

2차적 연구개조음의 발음과 관련하여 두 개의 유형이 있다: 아랍어의 2차적연

구개조음-연구개음화(velaized)(t, q, s)와 그리고 에디오피아어의 후음화된 2차적연구개조음(t', k', s'). 어느 것이 원시-셈어의 본디 발음이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

// 자음체계는 풍부하며 그리고 똑똑하게 들리는(plain) 무성음과 유성음과 ‘이차적 연구개조음’(emphatic, 軟口蓋調音) 등의 삼중으로 보통 구성된다. 음역(transcription)될 때 연구개조음은 글자 아래 점(underdot, ‘. ’)또는 연구개음(velar)일 경우에는 ‘q’로 표시된다. 연구개조음적 자음들은 측음(lateral)이 부재할 때 아랍어에서는 인두음(pharyngeals, 咽頭音, ‘, ‘, h, h)화 되나 현대 남부 아라비아어와 에디오피아어에서는 다른 길들로 후음화(glottalized, 喉音化)된다. 히브리어의 s는 ‘tz’로 나타내진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 히브리어 이차적연구개조음은 무성자음으로 동화된다. 죽은 언어의 경우에는 단지 추측할 수 있을 뿐이지만 후음화된 조음(articulation, 調音)은 일반적으로 Proto-Semitic을 위해 재구성된다.

인두음화(pharyngelized realization, 咽頭音化)는 자주 주위 모음들 심지어는 자음들의 조음(調音)을 변화시킨다. 이것은 전체 단어를 덮는 그리고 현대 동부 아랍어와 아랍 방언들에서 발견되는 ‘동조화’(synharmonism, 同調化)를 일으킨다. ‘후’조음(back articulation, 後調音)은 아래 예들에서처럼 둥근 윗 첨자(superscript)로 표시한다. *아카디아어*는 보통 어근 하나 당 하나의 연구개조음적 자음 만을 참아내며, *히브리어*는 하나의 연구개조음이 주어질 때 분명한(plain) 무성 자음을 허락하지는 않지만 마찬가지로 하나의 연구개조음 현상을 허용한다. 전형적인 셈어 소리들은 마찬가지로 소위 인두음들 ?ʕ h x을 포함한다.

전통적인 성서 히브리어와 Outer South Ethiopic 언어에서는 **마찰음화**(Spirantization)가 일어난다. 모음뒤의 겹치지않는 파열음(postvocalic nongeminate stops, 破裂音)들은 마찰음으로 바뀐다.//

/// 아래는 원시-셈어의 자음들을 고유 가능한 음성학적 특징들에 따라 배열한 것이다. 전통적인 기호들은 괄호 안에 나타난다. Faber(1985년, 1989년)를 참조할 것.

방식 위치	stops			affricates			fricatives			approx- imants	nasals
	유성	무성	empha- tic	유성	무성	empha- tic	voiced	voicel- ess	연구개 조음	유성음	
bilabial	b	p								w	m
inter- dental							ð	θ	θ' (θ)		
dental	d	t	t' (t)							r	n
alveolar central				d_z(z)	t_s(s)	t_s'(s)		s(š)			
alveolar lateral						(t)_l (ð)		ʃ (ś)		l	
palatal										y	
velar	g	k	k'				ɣ (ǵ)	x (ħ)			
pharyn- geal							ʕ	ħ			
glottal		ʔ						h			

Proto(원시)-셈어의 음성학적 가능 특징의 재구성

위 표에서의 ‘방식’(manner)은 혀의 특정 부위가 입 안의 어느 부분들에 접근하거나 닿으면서 조절되는 날 숨의 량이 자신의 경로를 통해 퍼져나가는 방식을 나타내며, ‘위치’(place)는 혀의 특정 부위가 입 안의 어느 부분에 접근하거나 닿는 조음점(調音點)의 위치를 말한다.

원시(proto)셈어의 **모음체계**는 a, i, u와 ā, ī, ū 라는 패턴의 음성패턴을 지닌다. 다양한 언어들이 다양한 모음들을 발전시킨다.

//셈어의 모음체계는 유형적으로 한정돼있다. 고전 셈어(Classic Semitic)는 모두 길거나(본디 단지 열린 음절에서만 길다) 짧은 \*a \*i \*u를 지녔다. 후에 그것의 이중모음(diphthongs)은 \*aw>o와 \*ay>e 등, 단일 모음들로 발전됐다.

아랍어에서의 억양(stress)는 마지막 음절을 포함하여 해당 단어의 상대적으로 긴 음절에 보통 놓인다. 마지막 음절이 길 때는(in the absence of non-final long syllable) 억양이 첫 음절에 놓인다. 성서 히브리어에서는 마지막 두 음절 중의 하

나가 **억양**을 받아들인다. 후기 발전에 의해 수정된, 본디 페널트적인[penultimate, 끝 음절인 울티마(ultima)의 바로 앞 음절] 억양이 재 구성된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사실들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확인된(attested) 셈어 억양-체계들의 불일치 때문에 원시(proto)-셈어 억양은 ‘자유롭다’, 즉 음절적으로 규제되지 않는다(unregulated) 라고 가정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 6-2-6-2)형태론과 구문론(Morphology and Syntax).

어근(**Root**): 어근의 의미는 *자음*들에 놓여 있는 반면, *모음*들은 근본 의미의 뉘앙스(shades)들을 표현하는 데에 봉사한다. 이것은 예를들어 love와 live와 leave가 다른 의미들을 지니는 영어와는 같지 않다. 셈어 ktb(write) 이라는 어근으로부터 kabata(he wrote), kātib(the writing one), kutiba(it was witten), kitāb(book) 등이 획득되는 과정에서 모음들은 그 어근의 근본 의미를 변화시킴이 없이 의미의 단지 뉘앙스(shade)들만을 표현한다. 셈어 어근은 주로 **세 개의 근본 철자들(radicals)**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현재 셈어 보다는 고대 셈어에 두 개의 근본철자들(biradicals)이 더 많이 있었을 거라는 표식(marks)들이 있다. 언어학적인 발전의 과정에서 많은 두 개의 근본철자들이 이차적인 세개의 근본철자들로 됐다. 그 언어 속에 여전히 보전되고 있는 고대의 **두개로된 근본철자들은** 'ab(father), dam(blood), yad(hand)등과 같은 많은 그러한 어휘들의 본질적인 요소들이 있다. 비슷한 방식으로 qām(stand)와 mad(d)(stretch) 류형의 두개의 근본철자로 된 많은 동사들은 아마 반모음 w, 또는 y(qawama)의 덧붙임이나 또는 마지막 근본철자의 반복을 통해서 단지 이차적인 세개로된 근본철자들로 됐을 것이다. 세개로된 근본철자들로 ‘밀려들어간’(squeezed)두개로된 근본철자의 전형적인 예는 두개로된 근본철자 yad(hand)로부터 온 아랍방언의 아랍축소명사 yudayy(small had) 또는 에디오피아어 ləbb(heart)의 명사유래동사(denominative) lab(b)(understand)이다. 덧붙여서 *자신의 근본 의미가 두개로된 근본철자들에 놓여있는 많은 어근들이 있다.* qrq(break)와 prs(break), prs(separate), pšr(dissolve).

/// **자음 어근(roots)**들이 부분적으로 자음과, 부분적으로 모음 접미사와 삽입사와 접미사 패턴들과 묶어지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맞물려 돌아가는’(interlocking) 체계가 여전히 셈어군의 각기 구성원에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모음 하나 또는 자음 하나를 임의적으로 나타내는 대문자 C를 사용하여, 고전 아랍어는 어근들을 šCrCb(drink)와 fCfCm(understand)처럼 연결한다. 아래 도표를 보라.

고전 아랍어 변화(classical Arabic Inflection)			
	패턴	(마시다, drink)	(이해하다, understand)
과거남성3인칭단수	CaCiCa	šariba(he drank)	fahima(he understood)
非과거남성3인칭단수	yaCCaCu	yašrabu(he drinks)	yafhamu(he understands)
능동분사	Ca:CaC-	šarib-(drinker)	fa:him-(an understanding one)
수동분사	maCCu:C-	mašru:b-(a drink)	mafhu:m-(understood)
동사적명사(동명사)	Cu/aCC-	šurb-(drinking)	fahm-(understanding)

명사들(Nouns)에는 남성과 여성이 있다. 후자 부류는 보통 \*-(a)t 라는 전형적인 어미를 지니며 그리고 여성들은 남성들로부터 파생됐을 것이다. 몸매 속하는 짝을 이루는 부분들과 그리고 몇몇 안되는 다른 단어들은 어떤 외부적 표식도 없는 여성들이다. 명사들은 단수와 복수를 지닌다. 쌍수는 단지 몇몇 언어들에서만 발생하며 그리고 쌍수 어미는 마찬가지로 짝을 이루는 것들의 복수를 위해 사용될 것이다. 쌍수와 복수는 어미들에 의해서 표시된다. 그러나 그 이외의 곳에서 흔적을 지니는 아랍어와 북 에디오피아어는 대부분의 경우에 예측될 수 없는, 패턴의 변화에 의해서 표시되는 ‘불규칙적인’(broken) 복수들이다. 아래의 아랍어를 보라:

ㄱ) fahm ‘understanding’, pl. afha:m-

ㄴ) mašrabat ‘drinking place’, pl. maša:rib-

단수명사는 어떤 때는 다른 의미들을 지니는 여러 ‘불규칙적인’ 복수들을 지닌다. 자주 명사의 복수는, 사전에 규정된 것처럼, 반대 성의 외부적 표시를 수반한다(‘drinking place’에서처럼). 이것이 양극성(polarity)이라고 불리운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아랍어에서만 일치규칙을 따르는 구문론적 귀결을 지닌다(아래 파생규칙의 ‘5’)를 보라). 히브리어  $nāš-iʿm tō^{w(o)}t$  (women-MASC.PL. good-FEM.PL)은 그 명사의 어울리지않는 남성복수어미에도 불구하고 여성복수 형용사를 지닌다. 즉 일치하는 단수  $iʿš-āʿ$ (woman)의 성(gender)을 따른다. 명사들은 숫자 19(19쪽 참조) 이후에 복수로 나타나며 그 이후에는 단수로 나타난다. 남부 에디오피아어는 단지 자연성(natural gender, 自然性)만을, 덧붙혀 축소형을 위한 여성형을 지닌다. Amharicdms은 본디 각기 명사를 위해 여성 복수형을 만드는 -očč를 일반화한다. Western Gurage의 tt-그룹에서의 대부분의 명사들은 성과 수 만드는 것을 잃어버렸

다. 그러나 일치요소들(예를들어 직시적(deictics, 直示的)인 것들, 대명사들 그리고 동사적 접사들)은 그 명사를 따른다.

**한정어(definiteness, 限定語)**은 대부분 중앙 셈어에서 발전된다. 그러나 심지어 거기에서조차 그것의 표현들은 다양하다: *아랍어* al-, *히브리어* ha-, 그리고 *아람어* -ā. 에디오피아어는 ‘위에서 언급된 것’(the above-mentioned)을 가리키는, 화법-지시적인(discourse-referential)관사를 보통 지닌다. 고전-셈어들 중의 하나(one)는 마찬가지로 명사의 ‘상태’(states)에 관해 말하는데, 가장 중요하는 것은 ‘상태 구문’(the construct state), 즉 소유격을 한정하는 것에 선행하는 형식이다. 바로 이것이 함축적인 정관사(implicitly definite)이다. 그것은 외부적으로 표시되는 한정어를 취하지 않지만 그것에 일치하는 형용사는 외부적인 표시를 지닌다. 선택적이고 (Alternative) 전치사적인 소유 구문 역시 존재한다.

/// **형용사들(adjectives)**은 형태론(어형론, morphologically)적으로 명사와 같다. 그리고 (경) 구개음(platal, 口蓋音) 접미어의 덧붙임에 의해 명사들로부터 아주 자유롭게 형성된다.

세 가지 세트의 **대명사(pronominal)** 형식들이 존재한다. 독립 대명사들은 주어와 술어로서 사용된다. 현대 히브리어를 제외하면 비록 동사들이 주어를 충분하게 표시하기는 해도 말이다. 소유 형식들은 명사 또는 전치사들에 덧붙혀진다 그리고 동사들의 목적어를 형성한다(and object forms to verbs.). ///

**명사들과 관사들:** 원시-셈어는 정관사를 갖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이차적으로 다양한 언어들에서 형성됐다. 그 관사는 *아랍어*에서의 al-, *히브리어*에서의 ha-(아마 \*hal-), *아람어*에서의 접미된 -ā, 등 등이다. *아카디아어*는 어떤 정관사도 지니지 않는다. *Geez 어*는 어떤 정관사도 지니지 않는 반면 다양한 *현대 에디오피아어*는 그 관사의 표현을 위해 다양한 요소들을 사용한다.

**격들** – 원시-셈어는 **주격(nominative)**어미 -u, 명사적용법의형용사 또는 **소유격(possessive)**어미 -i, 그리고 대부분 직접보어를 표현하기 위한 **관계 격(relational case)**어미 -a. 이런 격 어미들은 마찬가지로 복수에서도 그 흔적을 더듬어질 수 있다. 격 어미들은 아카디아어의 어느 시기와 고전 아랍어에서만 단지 완전하게 보존된다.

/// 고전 셈어는 -a 목적격, -u 주격, -i 소유격(마찬가지로 전치사와 더불어 사용된다) 등 세 가지 **격-표지(markers)**를 지닌다. 복수는 -u: 주격과 -i: 사격(oblique, 斜格, 주격과 호격 이외의 다른 격)을 지닌다. 다른 격의 표시는 접두어와 전치사들에 의해 행해진다—예를들어 \*la-(to), 또는 \*bi-(in, with(insr.)). *히브리어 전치사* 'et, *아랍어*와 Ge'ez어의 lä-, Amharic -n은 정관사 4격을 위해 사용된다.///

**성(gender, 性)**—셈어는 남성과 여성을 지닌다. 여성명사는 *히브리어* 명사의 독립형(absolute state)에서는 -ā로 되며 구어체의(spoken) *아랍어*에서는 -a로 되는 접미 형태소 **-(a)t**에 의해 특징지워진다. 이 여성 형태소는 대부분 일관되게 형용사와 더불어 사용된다. 몸의 부분들과 지리학적인 용어들과 그리고 이외 다른 것들과 같은 부류의 특별한 명사들은 여성 어미 -t 없이도 여성으로 다루어진다. 마찬가지로 여성을 가리키는 단어들은 아주 자주 여성 어미를 갖지 않는다(\*'umm, -mather)

**수(Number, 數)**—원시-셈어는 단수와 복수와 쌍수(dual, 雙數)라는 세 가지의 수들을 지닌다. 짝(쌍, in pairs)을 이루는 몸의 부분들을 위해 본디 사용됐던 쌍수는 아카디아어와 히브리어와 남부 아랍어에서 그리고 쌍수가 모든 명사들에게로 확장됐던 아랍어에서 보존되고 있다. 다른 언어들에서도 쌍수의 흔적은 발견된다. 복수(plurals, 複數)에는 외부적인(external) 것과 내부적인(internal) 것 등 두 종류가 있다. 외부적인 복수는 접미사가 붙은 형태소(suffixed morpheme, 接尾素)를 단수의 어간(base)에 덧붙임으로서 성립한다. 남성명사의 근본(basic)형은 덧붙여지는 자음 -n 또는 -m을 지니는 아마 -ū(또는 -ī, -ā)였을 것이고, 여성명사의 복수 형태소는 -āt이다: 아랍어 malik(왕, king)의 복수는 malik-ūna; 히브리어 melek(왕, king)의 복수는 melaḳim; 아랍어 여성 malik-āt, 히브리어 melāḳ-ōt. 내부적인 복수는 단수명사 어간(base)의 모음 변화로 성립한다. 그래서 예를들어 kitāb(책, book)의 복수는 단지 kutub(책들, books). 내부적인 복수는 단지 아랍어와 남부 아랍어 북 에디오피아에서만 보존된다. 다른 언어들에서는 그것의 흔적(traces)들이 보존된다.

**수사(Numerals, 數詞)** - 수사들의 용법에 있어 수수께끼같은 특색은 그 수의 여성형은 남성명사들과 함께 사용되는 반면 그 수의 남성 형은 여성 명사들과 함께 사용된다는 사실에 있다. 그래서 'arbā'ā 'aḥ-īm(four brothers)에서의 arbā'ā 'a은 그 여성형이며, 'arba' 'āḥāyōt(four sisters).

동사들 - 비록 몇 몇 두개로 된 근본철자들(qām)과 네개로 된 근본철자들(quadriradicals)(omani ḥarwas(stamp))이 있긴해도, 대부분의 동사들은 세개로 된 근본철자들(ktb)이다. 현대언어들은 전체 또는 부분적인 반복에 의해(1.2.1.2: *히브리어* gilgel(roll); 또는 1.2.3.3: Tigre어 t̄ll(envelop))또는 유음 n 또는 l 또는 r를 세개로 된 근본철자에 끼워넣음(*아랍어* zan‘aq(shout), root z‘p; *이집트어* ta‘arqal(be bent), root ‘ql; ḥalbat(hit) root ḥbt)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네개로 된 근본철자들을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완료에서의 세개의 근본철자로 된 동사의 기본 어간(basic stem)은 CaCaC-(C=자음)(*아랍어* qatala(he killed)) 그리고 마찬가지로 CaCiC- 그리고 CaCuC-(*아랍어* fariḥa(he was joyful), ḥasuna(he was(is) beautiful)) 라는 구조를 지닌다. *히브리어*에서는 본디 -i가 -e-로 되며 -u-는 -o-로 된다(그래서 kâbed(he was heavy), qâṭon(he was small)). CaCaC- 유형은 그것이 타동사이든 타동사가 아니든 기본적으로 행위(action)를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히브리어* kâtab(he wrote), *아랍어* kaḍaba(he lied)), CaCiC-와 CaCuC- 유형들은 완성된(*히브리어* kâbed(he was heavy), qâṭon(he was small)) 또는 미완성된(ḥâpeš(he found delightful, he was delighted with a thing, he wished)) 상태나 조건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런 원리에는 많은 예외가 있다.

상(aspects, 相) 또는 시제(tenses)—원시-셈어는 시제들이 아니라 상들은 지닌다. 상들에는 완성(완료, completed(perfect))된 행위와 미완성(미완료, uncompleted(imperfect))된 행위 상들이 있다. 단지 후에 이르러서야 완료(the perfect)는 과거(the past)를 표현하게 된 반면, 미완료(the imperfect)는 현재 또는 미래를 표현하게 됐다. 인칭들과 수들과 성들은 접미어들에 의해 완료 안에서 표현되며, 미완료의 경우에는 접두어와 접미어들에 의해 표현된다. *아카디아어*에서만 완성된 그리고 미완성된 행위들 모두가 접두어들을 지닌 형들에 의해 표현되는(ikšud(he has conquered), ikaš(š)ad(the conquer, he will conquer) 반면 지속(duration, the permansive)은 접미어붙은 형에 의해(kašd-ū(they are, were, will be conquering)) 표현된다. *에디오피아어*는 접미어가 붙은 형식의 동일한 음절 구조를 지니지만 다른 기능을 지닌다는 것에 유념하라: yĕnag(g)ĕr(he speak, he will speak), yĕngĕr(may he speak).

전형적인 시제 체계는 비-과거(non-past)와 과거를 포함한다. 아카디아어를 제외하면, 과거는 접미어들을 활용하여 변한다. 그러나 접미어 k는 중앙 셈어의 경우 접미어 i로 바뀌며 그리고 접미어 t는 남부 셈어의 경우 k로 바뀐다. 미래시제

는 복합어에 의해 만들어진다. 과거는 아카디아어의 경우 접두사들을 활용하여  
 변하나 히브리어와 그리고 다른 언어에서는 접두사를 활용한 흔적만이 남아있다.  
 히브리어는 능동분사형을 활용하여 현재시제를 발전시켰다. 현대 아랍어는 완전  
 히 고대 셈어 시제 체계를 잃어버렸던 것 대신에 역사적으로 분사형과 명사형  
 (nominal)에 근거한 복합한 동사 어형론을 지닌다. 예를들면:

ㄷ) °b - šadr -əytun<sub>i</sub> -la<sub>j</sub>  
 FUT-sending-you(PL)<sub>i</sub>-to + her<sub>j</sub>  
 ‘you(pl)<sub>i</sub> will send her<sub>j</sub>.’ (능동분사로부터 파생됨)

ㄹ) °sudr-étun<sub>i</sub> -lun<sub>j</sub>  
 sent-you(PL)<sub>i</sub>-to = by + them<sub>j</sub>  
 ‘They<sub>j</sub> sent you(pl)<sub>i</sub>.’ (수동분사로부터 파생됨)

동일한 접미사들이 본질적으로 위 두 구문들에서 반대로 기능한다는 것에 유념  
 하라.

셈어는 ‘가지다’(have) 라는 동사가 없는 것 대신에 ‘나에게 있다’(there is to  
 me)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에디오피어어를 제외하면 **현재 시제**는 **제로 계사**  
 (zero copula)에 의해 표현된다. 제로계사와 그리고 분절적으로(segmentally) 표  
 현된 에디오피어어의 계사는, 다른 동사들의 현재-미래 시제와는 대조적으로, 배  
 타적으로 현재시제만을 지니는 유일한 형식들이다. ///

**어간들(stems)**—셈어 동사의 중요한 특색은 기본 의미의 다양한 변화  
 (modification)을 표현하기 위한 파생된 **어간들의 형성**이다. 이런 어간들은 모음  
 변화(qāṭala against qatala)에 의해서, 두개로된 근본철자들의 자음중복  
 (gemination, qattala)에 의해서, 또는 접미 형태소에 의해서 형성된다. 다양한 언  
 어들에서의 파생 어간들 형성에 있어서의 다양함들이 숙고될 수 있다. 그러나 원  
 시-셈어를 위해 주어지는 기본패턴들은 주어질 수 없다. 아랍어의 예들이 주어질  
 수 있겠지만 그것이 셈어의 일반적인 패턴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기본 어간: qata’a(cut). **강조(intensive)**는 두개로된 근본철자들의 중복에 의해서  
 형성된다: qatta’a(cut to pieces); 그러나 이 형식은 마찬가지로 종종 **사역**  
 (causative, 使役)을 표현한다: ḥasuna(be pretty)로부터 온 ḥassana(embellish).  
**능동(conative, 能動)**의 의미는 첫 근본철자의 모음 a를 ā로 변하게 하므로서 형  
 성된다: kataba(write)에 대한 kātaba(correspond). **사역형**은 접미어 ‘a-가 붙으

므로서 형성된다: ḡalasa(sit down)으로부터 온 'a-ḡlasa(cause to sit down, seat). 다른 언어들은 ' , h 또는 s, š에 의해 사역을 표현한다. 기본어간의 **재귀-수동**은 접미어 t-가 붙어 형성된 강조나 능동으로부터, 접미어 st-가 붙어 형성된 사영형으로부터, 접미어 n 또는 삽입어(infix) t가 붙어 형성된다: qata'a로부터 온 in-qata'a(be cut), ḡama'a로부터 온 iḡ-ta-ma'a(come together, be united), qatta'a(cut to pieces)로부터 온 ta-qatta'a(be cut to pieces), 'aḥbara(inform)으로부터 온 ista-ḥbara(inquire, take information). **수동의** 의미의 경우 히브리어와 아랍어는 내부 모음의 변화에 의해 형성되지만 다른 언어들에서는 그렇지 않다: kataba(he write)에 대한 kubita(it was written). **상호**(reciprocal, 相互)의 의미는 기본 능동형에 ta-가 더해져 형성된다: ta-qātala(fight with one another).

/// 동사들은 현대 동부 아람어에서는 손실된, 주어를 위한 두 개의 변화(conjugation)를 지닌다—하나는 접두어와 접미어에 근거하며 다른 하나는 단지 접미어에만 근거한다(아카디아어에서는 상태를 나타내는데, 상태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 1인칭을 위한 성의 구분은 없다. 아래 표에서는 그러한 삽입어(affixes)들이 보여진다.

셈어의 주어 표지들					
인칭	표지들 성	접두어/접미어		접미어	
		단수	복수	단수	복수
1		'a-	ni-	-ku	-na
2	남성	ta	ta-....-u:	-ta	-tumu:
	여성	ta-....-i:	ta-....a:/na	-ti	-tin(n)a
3	남성	ya-	ya-....-u:	-a	-u:
	여성	ta-	ta-....-u:/na	-at	-a:

실로 **부사(adverb)**들은 거의 없다. 전치사구와 그리고 동사들이 부사의 기능을 수행한다.

고전 셈어의 경우 명사를 수식하는(qualifying)**형용사**는 그 명사 바로 뒤에 와서, 그 명사의 성과 수와 **격과** definiteness(한정사)에 있어 일치한다. 그래서 아

랍어에서는,

ㄱ) as -san -at-u            -l -masi:hi:yy -at -u  
the-year-FEM-NOM    the-Messianic-FEM-NOM  
'the Christian year'

술어적인 형용사들은 성과 수에 있어서만 그 명사와 일치한다. 아랍어에서는 인간이 아닌 것의 복수들은 일치규칙에 있어 여성명사로서 간주된다. 형용사들은 -iy-가 덧붙혀진 명사들로부터 쉽게 형성되지만, 자주 2격 구문(genitival constuctions)에 의해서 그 형용사의 한정하는 기능이 수행된다:

ㄴ) san -at -u            -s -salam-i            -l -qa:dim -at -u  
year-FEM-NOM    the-peace-GEN    the-coming-FEM-NOM  
'the forthcoming year of peace'

에디오피아어에서의 모든 **한정어(qualifiers)**들은 명사에 선행한다. 그리고 남부 에디오피아어들에는 일치들이 없다. 수사들은 보통 한정되는 명사 앞에 오나, 고전 셈어와 현대 히브리어에서의 수사들은 이상한 양극화(polarity) 패턴을 보여준다—즉 어형론적으로는 남성으로 나타나는 수사들이 여성 명사들과 함께-나타나거나(co-occur)또는 그 거꾸로가 된다. 고대 셈어와 현대 히브리어 이외의 다른 언어들 경우에는 일련의 수사들의 세트가 보통 일반화된다.

고전 셈어에서의 **어순**은 V[erb] S[ubject'] O[bject](동사+ 주어+ 목적어)이다. 그러나 **아카디아어**는 수메르 인의 영향 하에서의 주어+ 목적어+ 동사였다. 마찬가지로 주어+ 목적어+ 동사 어순은 Cushitic어의 영향을 받은 현대 **에디오피아어**에서 우세하다. 현대 에디오피아 셈어가 겪는 유형론(topological)적인 변화는 철저했다: 즉 종속절이 주절 앞에 오며 그리고 **종속관계**의 유형이 주절의 첫 낱말(즉 동사)에 의해 표시된다. **동격** 문장은 시제는 없지만 보통 연이어지는 지배 동사의 시제와 법(mood)을 함축하는 변화형인 'converbs'(합동사, 合動詞)을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어떤 **간접화법**(indirect speech)도 없다. 격을 표시하는 접두사는 전치사 뒤 요소가 보다 더 중한(heavier)역할을 수행하는 순환사(cricumfixes, 循環詞)을 생산한다. ///

### 6-2-6-3)파생어와 어휘(Derivation and Vocabulary).

‘불규칙적인’(broken) 복수들은 자유롭게(freely)형성된 것들보다 더 많이 ‘파생’된다. 더구나 파생은 동사체계의 기본 특색이다. 많은 **명사**들이 동사 어근들로부터 파생된다. 그래서 아랍어에서는:

- 스) šCrCb ‘drink’
  - šurb ‘drinking’
  - šarbat, šurbat ‘a drink’(cf. Eng. ‘sherber’)
  - šara:b, pl. ašribat ‘beverage’
  - šarra:b ‘drunkard’

나아가서, 많은 **동사형**들이 태와 사역과 다른 의미들을 표현하기 위해 동일한 어근 위에 지어질 수 있다.

- ㅇ) šariba ‘he drank’
  - šuriba ‘it was drunk’
  - šarraba ‘he gave to drink’
  - šaraba ‘he drank with someone’
  - tašrrabe ‘it soaked up’

- ㅈ) fahima ‘he understood’
  - fuhima ‘it was understood’
  - fahhama, afhama ‘he made someone understand’
  - tafahhama ‘he tried to understand’
  - tafa:hamu: ‘they understood each other’
  - ifrahama ‘he understood’
  - istahfama ‘he inquired’

위와 같이 파생되는 부류들이 극단적으로 중요하다. 각각은 모든 시제에서 나타나며 분사들과 파생명사들을 지니고 그리고 확장된 새로운 의미들을 갖어 올 수 있다.

이러한 파생 부류 각각의 생산성은 동일하지 않다. (이상적으로 제시된) 일반적인 패턴은 **세 가지 근본 유형**들을 포함한다. 첫째 유형은 기본이 되는 것으로서 šariba, fahima, 등 등 세 가지 하위 부류들 지닌다. 둘째 유형은 중간 근본철자들의 겹침이며(šarraba, fahham), 그리고 비록 아랍어에서는 그것이 사역 기능을 취하는 경향이 있긴해도, 반복상(iterativeness, 反復相)을 포함하여 다양한 기능들을 근원적으로 수행한다. 세째 유형은 첫 두 근본철자들 사이에 긴 모음을 지니며, 근본적으로 an applicative(실천적?)이다. 나아가서 **접두사**들은 많은 의미들을 제공한다: 첫째 유형에 덧붙여진 n-은 재귀수동의 의미를 부여하며, 어떤 류형이든 근본적인 것에 더해지는 \*t-는 수동/재귀/상호의 의미를 부여하고, 첫째 유형

에 덧붙혀진 \*ʿa/ha/ša는 일반적인 사역의 의미를 부여한다. 더 많은 연결들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응용과 의미는 반드시 사전에서 체크되어야만 한다. 덧붙혀서, 남-중앙 셈어는 ‘내적인 수동형’(internal passive)을 지닌다. 내적인 수동형이란 본디 어느 형에서든 파생될 수 있으며 그리고 u가 삽입됨(infixation)에 의해서 특징지워진다. ‘ㄱ) 등 등의 위 한글 자음 순서 매겨진 항목들의 ‘it was understood’와 ‘it was drunk’ 등을 보고 나서 šurriba(he was given to drink), ufhima(he was made to understand)와 비교하라. ///

공통 낱말들의 아래 짧은 목록은 관계의 밀접함을 예시 할 것이다.

Common Words						
영어	Akkadian	Hebrew	Aramaic	Arabic	Ethiopic	Ugaritic
brother	aḥu	ʾaḥ	ʾaḥā	ʾaḥ	ʾəḥ <sup>w</sup>	aḥ
master	bēlu	baʿal	baʿlā	baʿl	bāʿəl	bʿl
dog	kalbu	keḏel	kalbā	kalb	kalb	keb
fly	zumbu	zəḅūḅ	dabbāḅā	ḏubāb	zəmb(Amh.)	
seed	zēru	zəraʿ	zarʿā	zarʿ	zarēʿ	drʿ
head	rēšu	rō(ʾ)š	rēšā	raʿs	rēʿs	riš
eye	ēnu	ʾayin	ʾaynā	ʾayn	ʾayn	ʾn
tongue	lišānu	lašōn	liššānā	lisān	lēśān	lšn
tooth	šinnu	šen	šənanā	sinn	sənn	
sky	šamū	šāma-yim	šəmayyā	samāʿ	samāy	šm(y)m
night	līlātu	laylā	lelyā	layla	lelit	ll
water	mū	ma-yim	mayyā	māʿ	māy	my
house	bītu	bayit	baytā	bayt	bet	bt
peace	šalāmu	šālōm	šəlāmā	salām	salām	šlm
name	šumu	šem	šəmə	ims	səm	šm

#### 6-2-7) 참고문헌.

Brockelmann, C. Grundriss der vergleichenden Grammatik der semitischen Sprachen, 2 vol. (1908-1912).

**Marçais**, W. and **Cohen**, M. Précis de linguistique (1910), translation of **Brockelmann**, Semitische Sprachwissenschaft.

**Nöldeke**, Th. Die semitischen Sprachen (1899).

**Wright**, W. Lecture on the Comparative Grammar of the Semitic Languages (1890).

/// **Gray**, Louis H. 1934. Introduction to Semitic comparative Linguis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Moscatti**, Sabatino, et al. 1964. An introduction to the comparative grammar of the Semitic languages: Phonology and morphology. (Portalinguarum orientalium, n.s., 6.) Wiesbaden: Harrassowitz. ///

7)인도-아라어와 인도-이란어[Indo-Aryan(또는 Indic)와 Indo-Iranian].

7-1)인도-아라어(Indo-Aryan Language 또는 Indic).



// 인도-아라어 또는 인도어(Indic)는 인도-유럽어족 중 인도-이란어(Indo-Iranian) 집단의 하위 집단을 구성한다. 고대 인도-아라어, 즉 산스크리트어(Sanskrit)은 수많은 재원들에서 나타난다. 가장 이른 인도 문학 작품들은 베다 텍스트들이다. 이것들 중 가장 고대의 것인 리그베다(Rigveda)는 기원전 두 번째 밀레니엄 중반까지 날짜가 매겨진다. 후기 베다 중의 하나가 문법가 빠이니(Pāṇini, 약 기원전 5 세기)에 의해서 묘사된다. 보존된 가장 빠른 중기 인도아라어 문서들은 다양한 방언들로 쓰여진 아쇼카(Ashoka, 기원전 약 3 세기) 황제의 칙령들이다. 그리고 중기 인도아라어는 문학과 철학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봉사한다. 불교 경전과 Theravāda 붓디즘의 서적들은 팔리어(Pali)라고 불리우는 혼합 언어로 쓰였다. 자이나교(jaina) 경전은 Ardhamāgadhī로 쓰여지며 그리고 자이나

교도들도 마찬가지로 Śaurasenī와 Jania Mābārāṣṭrī를 자신들의 저서들에서 사용한다. 중기 인도아리아어의 다양함을 보여주는 문학 예(例)는 Mābārāṣṭrī이다. Apabhraṃśa라 불리우는 일련의 방언들은 가장 발전된 중기 인도아리아어를 나타낸다. 이러한 모든 다양함들이 **Prākritis**(Skt. prākṛita-, Pkt. pāia- (natural))라고 불리우며, saṃskṛta-(**Sanskrit**)라고 불리우는 세련된 교양언어와 대조된다.

현대의 인도아리아 언어들은 거칠게 다음처럼 하위 그룹지워질 수 있다: Assamese, **Bengali**, Oriya, Bhojpuri; Maithili; **Hindi**; Braj; Nepali; **Punjabi**; Rajasthanie 포괄되는 방언들; **Sindhi**; Gujarati, Marathi, Konkani; Kashmiri 그리고 다른 것들. 이것들은 인도 아대륙(subcontinent, 亞大陸)의 북쪽에서, Sinhala가 거기에서 말해지는 스리랑카(Sri Lanka)에서 그리고 남동아시아와 유럽과 서반구를 포함하는 이주(migration, 移住)지역에서 말해지는 것들이다. 유럽과 중동의 **집시(Gypsies)의 언어들인 Romany** 역시 인도-아리아어에 속한다 // / 집단적으로 ‘Romany’라고 불리우는 집시들의 언어는 아리아어족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것은 우리가 집시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들의 폭넓게 흩어진 거주지역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인도에서 갈라져나갔기 때문이다. 부분적으로는 자발적으로, 부분적으로는 무수한 침입들로 인하여 도망치거나 쫓겨, 인도에서 흩어져 나간 집시들! /. // 가장 초기의 인도 현대문학 문서들은 기원후 12세기 정도 날짜가 메겨질 수 있다(Bloch 1934, Turner 1966-69, Varma 1973-76, 그리고 Cardona 1987a, b 등을 참조하라). //

/ 아리아인 또는 인도-이란어족(The Aryan or Indo-Iranian Family)은 아래 도식처럼 간략하게 제시될 수 있다.

인도 아리아어들은 인도의 북부와 중앙 그리고 파키스탄에서 여전히 말해지고 있는 그리고 Ceylon의 Sinhalese 언어를 포함하고 있는 인도-유럽어군의 세덤(satem) 언어이다.

**분류**—기원전 14세기의 Mitanni 지역(북동 시리아)의 비문들은 인도이란어(**Indo-Iranian**)류형의 고유명사들을 포함한다. 반면에 인도-아리아어(**Indo-Aryan speech**)의 가장 오래된 표본은 가장 오래된 이란어를 아주 밀접하게 닮는다(112쪽 참조). 말(speech)의 두 오랜 형식들의 발전은 독자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다소 다른 노

선들을 따랐다. 이것은 두 자음들의 통어관계(nexus, 문장구성요소의 주어와 술어의 通語關係)에 있어 가장 잘 나타난다. 현대 이란어는 자주 그 통어관계를 거의 또는 전혀 바꾸지 않는 반면 현대 인도-아라어는 그 관계를 단순화시키는 것을 선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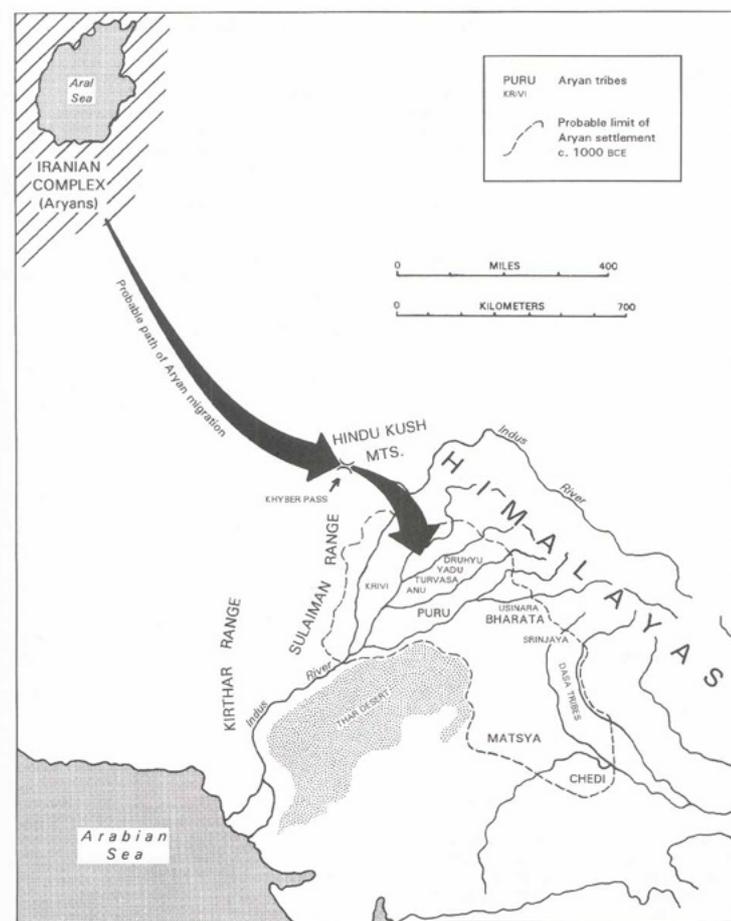
인도-아라어의 가장 초기의 방대한 문어적 기록은 리그베다(Rigveda)로 알려진 찬양모음집이다. 리그베다는 편잡(Punjab) 동쪽에서 그리고 윗쪽 the Gangetic Doab 에서 말해졌던 독특한 토속 방언을 나타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 후에 그것은 편잡과 현대 Allahabad 사이의 히말라야로부터 Vindhya 언덕까지, 산스크리트 지리학자들에게 Madhyadēśa 또는 중간땅(Midland), 마찬가지로 Ārayāvarta 또는 ‘Aryans(아라얀)의 고향’이라고 불리워지는 지역을 넘어 확장됐다. 거기에서 그것은 문어적인 문화를 꾸준히 받아였으며, 그리고 그것의 고대(archaic)방언의 정제된 형식이 기원전 4 세기 동안의 문법학자들의 노력들에 의해 고정된 결과 그 베다 언어는 동일한 트랙(track)의 민속 말(folk speech)과 Prākṛta(Prakrit)(자연스러운, 정제되지 않은) 이라는 명칭 아래서 함께 그룹지어질 수 있는 인도의 다른 부분의 많은 인도-아라얀 방언들과 대조되는 Saṃskṛta(Sanskrit)(세련된, 정제

The Aryan or Indo-Iranian Family			
Irano-Aryan		Indo-Aryan	
Avestan	Old Persian	Vedic	
조로아스터 또는 짜라투스트라의 추종자들의 서적언어	고대 페르시아 기원전 559-330 Achaemenian 왕조의 비문들에서 확인되는 언어	브라흐마나스(Brāhmaṇas)와 아라나카스(Āraṇyakas)와 우빠니샤드(Upaniṣads)를 포함한 베다의 언어	
	Middle Persian 또는 Pahlavī	Sanskrit	Prakrit
	아르사키드와 사산 왕조의 언어 그리고 조로아스터교도들의 언어를 포괄하는 언어	Mahābhārata와 māyāna 그리고 연이어지는 모든 텍스트들의 언어	힌디어와 우르두어와 방갈리어와 Onyā와 Gujarātī와 Marāthī 등 등의 현대 인도언어들이 이로부터궁극적으로 유래한 일상(spoken)언어.
	New or morden Persian(또는 Fārsī).		

된)의 이름을 받아들리게 된다. 산스크리트어는 종교와 교양문학의 언어가 되며 그래서 그것의 어머니 방언의 토착 땅인 그 Midland(중간땅)은 인도-아라얀 말(speech)의 진짜 순수한 집으로 인정받게 됐다.

**다양한 방언들**—Aśoka(기원전 269-232년 경) 시대에는 동과 서와 극 북서 지역에 세 가지 방언이 각각 최소한도 있었다. 문법가 Patañjali(기원전 150년)는 여러 방언들의 존재를 언급한다.

**베다 시대** 때, 그 **중간 땅** 주위의 서쪽과 남쪽과 동쪽 세 군데에서의 인도-아라



Map 5 Indo-Aryan South Asia, c. 1000 BCE

얀 방언들은 중간 땅의 그 언어에게 자기들이 관련되는 것보다 더 밀접하게 서로 모두에게 관련되어 말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인도 언어 역사 초기에는, G.A.Grierson에 의해 상정된 도식에 따르면, 하나는 중간 땅의 그 언어요 다른 하나는 외부 밴드(Outer Band)를 형성하는 방언들의 언어인 두 세트의 인도-아라얀 방언들이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중간 땅의 사람들은

동쪽 편잡과 그들이 거기에서 바다에 도달한 Gujarat, Rajputana, 그리고 Oudh를 정복했다. 따라서 이들 모두 지역들에서 혼합된 형태의 말(speech)이 발견된다. 각자의 토대는 외부 밴드의 것이었지만 그 몸은 중간 땅의 그것이다. 그러나 그 중간 땅으로부터 이런 트랙의 바깥 경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중간 땅 언어의 영향은 점점 약해짐과 동시에 바깥 본디 언어의 트랙들이 점점 더 우세하게 됐다. 이와

동일한 길에서 외부 밴드(Outer band)의 언어들도 점점 더 멀리 Maratha 지역을 넘어 Orissa와 Bengal과 모든 것의 마지막, Assam까지 다그쳐 퍼지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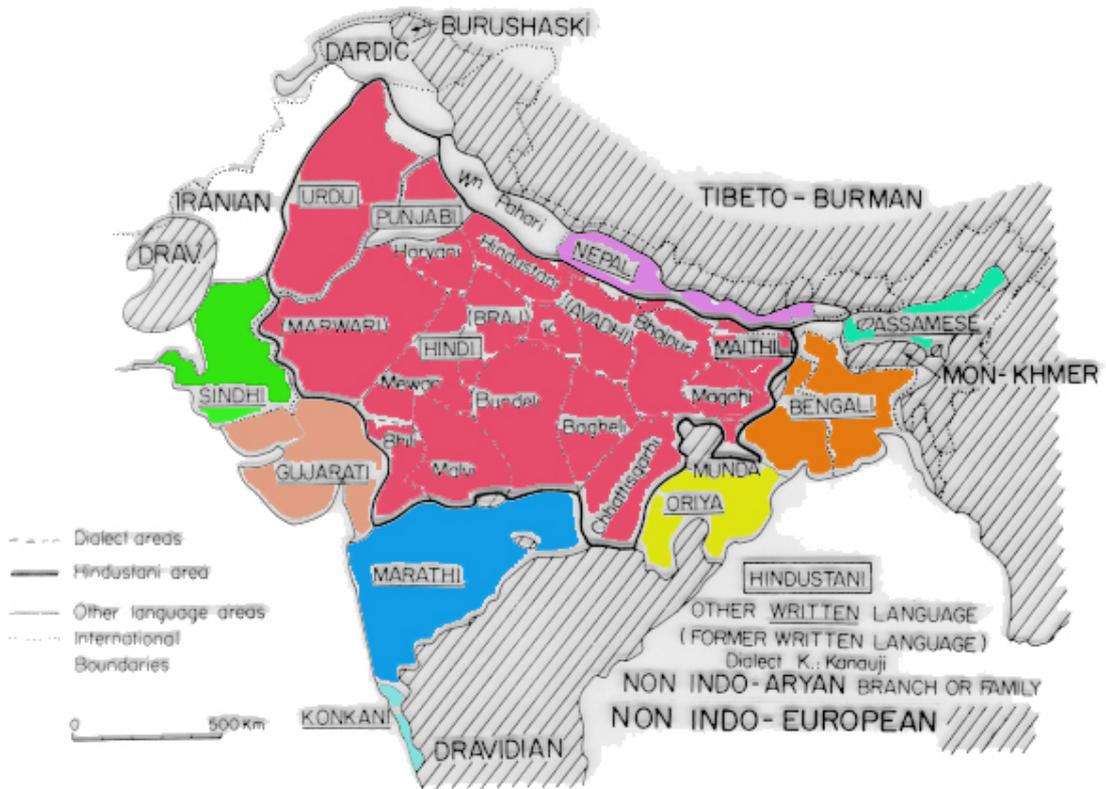
현대에서는 **중간 땅 인도-아라얀 언어(western Hindi)**는 Gangetic Doab와 그 북쪽과 남쪽에 직접 닿은 지역을 확보하고 있다. 그것 주위 세 쪽에는 (중앙 편잡의) Panjabi와 Gujarati와 (Rajasthani와 그 인근지역의)Rajasthani와 (Oudh와 그 남쪽지역의)eastern Hindi 등의 혼합 밴드가 있다. 다시 이것들을 넘어서서, 바깥(Outer)언어들(Kashmiri의 Dardic basis와 더불어, Kashmiri), (서쪽 편잡의)Lahnda와 Sindhi(여기의 그 밴드는 Gujarati에 의해 끊어진다)와 Marathi와 (Orissa의) Oriya와 Bihari와 Bengali와 Assamese이 있다. 중간 땅의 북쪽 히말라야의 Pahari 언어는 Rajputana로부터 최근에 수입되고 있는 매개 밴드에 속하는 반면 Kohistani는 Sivat와 Indus Kohistans의 혼합 방언들을 포함한다. 그래서 그 중간땅 언어는 **말**을 매개하는 형태의 둥근 펜스 안에서 닫혀진다.

#### 7-1-1) 인도 언어들.

인도 반도의 주요 언어들 1951년 9월 1일 수정된 헌법 8 번째 별표(schedule)에 언급된 것에 따르면 14 개 어이다. 이것들은 다음과 같다: Hindi, Urdu, Panjabi(1961년, Pahari까지 합쳐 토탈 171,909,108 명의 말하는 사람); Telugu(37,668,132); Bengali(83,974,908); Marathi(33,288,274); Tamil(30,562,706); Gujarati(20,548,799), Kanarese(Kannada)(17,415,827); Malayalam(17,015,782); Oriya(15,732,697); Assamese(6,804,223); Kashmiri(1,998,641); 그리고 Sanskrit. 인도 헌법에 따르면 Devanagari 쓰기법을 채용하는 **Hindi**가 공식언어로 확정됐을 때인 1965년까지 인도의 공식언어는 **영어**였다. 언어적인 토대에 근거하여 몇몇 나라(states, 주, 州)들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인도의 위임장이(commission) 1948년에 보고됐다. 연이어 Andhra 주(state, 州)는 Telugu어로 말하는 자들을 포함하여 1953년에 확정됐고, Malayalam어로 말하는 자들의 Kerala는 1956년에 확정됐다. Mysore는 마찬가지로 1956년에 Kanarese어로 말하는 자들을 연합하기 위해 재 조직된 반면, Marathi어로 말하는 자를 포함하 Maharashtra 주와 Gujarati어로 말하는 자들의 Gujarat는 1960년에 헌법이 제정됐다. 1966년에 편잡 주는 Punjabi Suba와 Hariāna의 새로운 주들을 형성하기 위해 언어학적인 라인들에 근거하여 재 조직됐다. 파키스탄에서는 우르두어(Urdu, 서 파키스탄)와 벥갈어(Bengali(동 파키스탄)가 주요 언어들이다. 영어는 공식적인 의도와 고등 교육을 위해 많이 사용된다. Lahnda(서 Panjabi 26,205,239 명의 말하는 사람; Sindhi(6,342,151); Pashto와 Balochi(마지막 이

두 언어는 모두 Iranian language이다)도 마찬가지로 서 파키스탄에서 말해진다.

위 모든 언어들은 인도-유럽어와 드라비다어(Dravidian) 라는 커다란 두 어군에 귀속된다. 인도-유럽어군의 인도-이란어 가지의 인도-아리아(Aryan) 집단에 속하는 것들을 적은 몇몇 구성원들도 포함하여 모아보면 다음과 같은 목록이 작성된다: ㄱ)북서 집단: Lahnda와 Sindhi; ㄴ)남부 집단: Marathi와 관련 방언들; ㄷ)동부집단: Bengali, Oriya, Assamese, Bihari(Bhojpuri와 Maithili와 Magahi를 포함하여, 토탈 37,218,574명의 말하는 사람들); ㄹ)동-중부 집단: Eastern Hindi와 방언들; ㅁ)중부집단: Hindi, 문학 Urdu어, Eastern Panjabi, Gujarati, Rajasthani(15,086,180명의 말하는 사람들); Bhili 방언들(2,439,611); ㅂ)북 또는 Pahari집단: 동부Pahari(Nepali)(1,021,102);



Garhwali와 Kumaoni(1,840,211); 서부Pahari; ㅅ)외부 인도어 집단: Sinhalese; 그리고 서 아시아와 유럽의 gypsy 방언들.

먼 북서 지역의 Dardic 집단도 마찬가지로 인도어 유형의 인도-유럽 언어들이며 Kashmiri와 Shina(1,558)를 포함한다. 이런 말(tongues)들은 모두 때로 산스크리트어라고 묘사된다. 그것들의 유사함(affinities)들이 어느 정도 산스크리트를 지시함으로써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현대 인도어를 위한 가장 큰 고전 재원인 이 산스크리트어는 드라비다어에게도 [말, 글들을] 빌려주었다. 그리스어와

라틴어에 대해 산스크리트어가 맺는 밀접한 관계가 1786 년에 William Jones 경에 의해 대담하게 진술됐다. S.K.Chatterji는 산스크리트를 ‘인도의 위대한 아래어이며 우리의 서구와의 위대한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연결’이라고 불렀다.

남 인도의 네 가지 큰 문어적(literary) **드라비다어**는 Tamil과 Telugu와 Kanarese와 Malayalam이다. 이 이외에도 Tulu(1,501,431 명의 말하는 사람들)와 Kodagu(Coori)(7,9172)와 Gondi(1,501,431)와 Brahui(366,021)와 같은 비문어적적인 많은 드라비다어들이 있다. Baluchista에 있는 Brahui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남부에 있다.

인도의 다른 언어들 대부분은 Munda와 Tibeto-Burmann와 같은 덜 의의있는 두어군에 배당된다. 때로 Austroasistic 또는 Austric이라고도 불리우는 Munda어는 몇몇 사람들에 의하여 남동 아시아의 Non-Khmer와 관련있다고 생각됐다. 이것들은 어떤 다른 소위 원주민의(aboriginal)언어들보다 훨씬 많은(3,688,513) 사람들에 의해 말해지고 있는 Khasi와 Santali를 포함한다. 관련된 다른 언어들은 Nundari(737,937)와 Savara 또는 Sora(265,721)이다. Manipuri(Assam)과 Newari(Nepal)은, Bodo 집단의 Lushai와 Garo와 같은 다수의 다른 언어들과 나란히, Tibeto-Burman 어군에 속한다고 말해져 왔다.

Hindus의 신성하고 고전적인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는 모든 인도에 걸쳐 인정되는 Nagari 또는 **Devanagari** 스크립트(Script, 쓰기법)으로 쓰여진다. **Hindi**와 **Marthi**도 데브나가리 스크립트로 쓰여지며, **Gujarati**와 **Bengali**와 Assamese는 데브나가리의 수정된 형식들로 쓰여진다. 심지어 남부의 **드라비다어**까지도 데브나가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형식 하에서 쓰여진다. Urdu는 *Persi-Arabic* 스크립트를 사용한다. **우르두어**와 고급 힌디(high Hindi)는 다른 고전 전통들에 두개의 토탈적으로 다른 스크립트에 의해 나뉘어 그러나 하나의 형식을 지닌 말(speech)(**Hindustani**)에 토대를 둔다고 말해져왔다. 만약 힌두스타니어 라는 이름이 여전히 사용될 수 있다면, 그것은 ‘북쪽의 아래어로 말하는 자들의 상호지역을 아주 자연스레 연결시켜준다. 이것은 일 종의 인도 링구아(lingua Indica)이다’(S.K.Chatterji, Language and Linguistic Problem, Oxford Pamphlet on Indian Affairs, no. 11, 1943).

### Primary vowels

	Short		Long		Diphthongs							
	Initial	Diacritic	Initial	Diacritic	Initial	Diacritic						
Unrounded low central	अ	a	प	pa	आ	ā	पा	pā				
Unrounded high front	इ	i	पि	pi	ई	ī	पी	pī				
Rounded high back	उ	u	पु	pu	ऊ	ū	पू	pū				
Syllabic variant	ऋ	ṛ	पृ	pṛ	ऌ	ḷ	प्लृ	plṛ				
<b>Secondary vowels</b>												
Unrounded front					ए	e	पे	pe	ऐ	ai	पै	pai
Rounded back					ओ	o	पो	po	औ	au	पौ	pau

### Occlusives

	Voiceless plosives		Voiced plosives		Nasals					
	unaspirated	aspirated	unaspirated	aspirated						
Velar	क	ka	ख	kha	ग	ga	घ	gha	ङ	ṅa
Palatal	च	ca	छ	cha	ज	ja	झ	jha	ञ	ña
Retroflex	ट	ṭa	ठ	ṭha	ड	ḍa	ढ	ḍha	ण	ṇa
Dental	त	ta	थ	tha	द	da	ध	dha	न	na
Labial	प	pa	फ	pha	ब	ba	भ	bha	म	ma

### Sonorants and fricatives

	Palatal	Retroflex	Dental	Labial
Sonorants	य	रा	ल	व
Sibilants	श	ष	स	

### Other letters

ह	ha	ळ	la
---	----	---	----

데브나가리 쓰기법의 알파벳(上)

언어는 항상 문화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집단화의 색인(index)이어 왔다. 그리고 1947년 이후로 언어적 구분은 정치적인 커다란 중요함을 획득한다. 1961년의 인구조사는 872개의 언어들과 주요 방언들의 목록을 만들었다. 인도에서 나타나는 네 개의 주요한 언어 그룹들은 Indo-Aryan과 Dravidian과 Tibeto-Burman과 Munda이다. 인도 국민들 중 문화적으로 진전된 층들은 주로 인도-아라어와 드라비다어로 말하는 반면 티벳-버마어와 문다어 그룹들은 인도문화발전의 주된 흐름으로 벗어나 있는 부족 원주민들에 의해 거의 배타적으로 말해졌다. 그러나 언어 그룹들과 문화 그룹들 사이의 완전한 일치는 있지 않다. 많은 부족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토속 부족어를 잃어버리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더 진전된 자신들의 이웃들의 언어로 새롭게 말한다. 이런 과정의 결과 동일한 언어들에 폭넓게 다양한 문화 수준들의 인구들에 의해서 새롭게 말해진다. 예를들어 Andhra Pradesh에서의 Telugu는 시원적(archaic, 始原的)인 시골 문화 패턴을 지속시키는 농부들과, 그리고 심지어 인도의 어떤 원주민 만큼이나 원시적인 반유목민적 식량 조달자들과, 그리고 고도로 현란한 브라흐마니 전통의 도시인들의 언어이다. 1968년의 공식언어수정 결정 경과 후의 연방국가의 계획언어는 Hindi이나, 영어도 계속하여 공식적으로 쓰이고 있다.

### 7-1-2)인도-아라어 음성학

인도-아라어는 자신이 그것과 함께 새로운 요소들을 공유하는 인도-이란어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다. 인도-아라어를 따로 놓게 하는 음성학적인 특색 하나는 산스끄리트에서는 이미 치음(dentals, 齒音)과 대조되는 t, .th, .d, dh, ṅ과 같은 **반전(retroflex, 反轉) 자음**들의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음성학적인 발전들은 MIA(중기 인도-마야어)를 특징지운다. 선행모음을 짧게하면서 콧소리나는(nasal offglide, 鼻音) -m으로 발전했던 -m 이외의 다른 낱말-마지막 자음들이 생략된다. 예를들어 Skt. putram(acc. sg.) ‘son’, putrāt(abl. sg.), putrāḥ(nom. pl.)의 Pali 등가어는 puttam, puttā이다. Interior cluster of heterorganic consonants는 일반적으로 동화나 어중문자삽입(epenthesis)을 통해서 제거된다—예를들어 Skt. rakta- ‘colored’는 Pali ratta-에 상응하며, sakthi- ‘high’는 ṣatthi-에 그리고 agni- ‘fire’는 aggi-에 그리고 pakva- ‘cooked, ripe’는 pakka-에 그리고 satya- ‘true’는 sacca-에 상응한다. 그리고 형태론에 있어서 Skt. rājñā ‘king’ (instr. sg.), rājñāḥ (gen. sg.)는 Ashokan raññā, rañño (western), lājīnā, lājīne (eastern)에 상응한다. raññ에서처럼, 긴 모음들은 clusters 앞에서 짧게 된다. 이것은 초기 인도-아라어에 부재했던 짧은 e o의 발전에 기인한

다. 더구나 word-internal single intervocalic 자음들은 특별한 발전을 겪는다:

- ㄱ) t와 th는 유성음화 된다: 고대 인도-아라어 *naṭa-* ‘actor’ > Pkt. *naṭa-*; *maṭha-* ‘monastery’ > *maḍha*.
- ㄴ) ḍ는 l와 l로 발전된다: *krīḍati* ‘play’ > *kīlai* (Pali *kīlati*).
- ㄷ) p b는 v로 변한다: *tāpa-* ‘heat’ > *tāva-*.
- ㄹ) 다른 비-기식음(non-aspirates, 非氣息音)들은 과정(stages)들에서 지워진다: *loka-* ‘world, people’ > *loa-*.
- ㄱ) 기식음들은 자신들의 폐쇄(occlusion)를 잃는다; *śākhā-* ‘branch’ > *sāhā*; *megha-* ‘cloud’ > *meha-*.
- 비) 비음(nasals, 鼻音)들도 모음의 비음화 가운데서 자신들의 폐쇄를 잃는다: *grāma-* ‘village’ > *Apabhraṃśa gāuṃ* (Pkt. *gāmo*, nom. sg.).

이런 발전들은 초기 인도-아라어에 부재했던 그러나, 이중모음 *au au*가 단모음화 될 때 (예를들어 중기 인도-아라어(MIA) *karai* ‘does, makes’ > Gujarati *kare* ‘may/should/will do, make’), 현대에 잘 일어나는 모음 연속(vowel sequences)에 기인했다. 비슷하게 MIA *cautha-*는 Guk. *cothū* ‘fourth’.

MIA에서 보여진 음성학적인 경향은 현대어로까지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자음 clusters가 잇따르는 단모음들은 단일한 자음들이 잇따르는 장모음들에 상응한다. 이 때 MIA 교체는 계속된다(continuing MIA alternations)—예를들어 Hindi *pakkā* ‘ripe’, *finiṣhe*, *ladḍu* ‘a sweet’ vs. Guj. *pāko*, *lāḍu*. 그리고 모음 사이의(intervocalic) 자음들의 파열음 질(stop quality)을 제거하는 경향은 계속 이어진다. intervocalic *ḍ ḍh*는 비록 어원론적인 스펠링들이 유지되기는 해도, 진동음(flaps)들 *r ṛh*로 발전한다. 예를들어 Hindi *sāḍī* (<Pkt. *sāriā-* ‘saree’), *būḍhā* ‘old man’ (< \**buḍḍha-*, cf. Pkt. *vuḍḍha-*).

### 7-1-3)인도-아라어 형태론.

중기 인도-아라어의 문법체계는 산스크리트와 비교할 때 복잡함들의 일반적인 감소에 의해 특징지워진다. 복수와 구분되는 범주로서의 쌍수(dual)는 제거된다. 형식적으로 구분되는 격들의 수는 일반적으로 감소된다. 그래서 초기 MIA(중기의 초기 인도-아라어)에서, 초기 소유격(genitives, 2격)에 상응하는 형식들은 의도(purpose, 意圖)의 표현을 제외하면 여격(dative, 3격)을 취한다: Pali *tesaṃ*, Pkt. *tānaṃ*은 Skt. *teṣāṃ* ‘those, them’ (gen. pl. mac.)뿐만 아니라 Skt. *tebhyaḥ* (dat. pl.)와도 등가이다. 이런 보기에서 보여질 수 있는 것처럼 대명사와 명사 변화 사이의 대조(Skt.

teṣāṃ puruṣāṇām ‘of these men’)는 점차적으로 사라져간다. 가장 초기의 인도-아라어에서의 몇몇 격 형식들은 앞뒤에 놓여지는 요소들과 연결되어 이미 사용될 수 있었으리라. 예를들어 Vedic diví 또는 diví á ‘in heaven’. 변화 격 형식들의 사용이 점차적으로 감소된다. 현대 인도-아라어는 후치사들과 함께 사용되는 다양한 명사 어간들의 직접적이며 사격(oblique)적인 형식체계들을 지닌다. 더구나 후치사들(postpositions)은 구(句)들을 따른다. Hindi의 예를들면:

ㄱ)baḍe ghar mē se nikal gayā.  
big house in(side) from come.out went  
‘He came out of the big house.’

여기에서 두개의 후치사들 ‘in’과 ‘from’은 거기에서 형용사(직접 형 baḍā)의 남성 단수 사격형이 불변화 명사 ‘house’와 더불어 발생하는 ‘big house’를 따른다. 마찬가지로 초기 격 체계의 나머지는 유지된다. Gujarati의 예를들면:

ㄴ)gher thī nikalī gayo.  
house from come.out went  
‘He left home.’

여기에서 후치사 ‘from’은 ghar-e와 교체되는 처소격(locative) 형 gher 후에 발생한다. 대명사의 체계는 보다 더 변화적인 격 형식들을 유지한다. 예를들어 Hindi māi ‘I’, mujhe ‘me’.

형식적인 세 성들(genders)의 체계는 남서 언어들에 보존된다. 그러나 동부 그룹에서는 그러한 대조들이 사라진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남성과 여성 이 두가지 성들이 문법적으로 구분된다.

MIA 동사 체계에서의 부정과거(aorist)와 미완료와 완료 사이의 구분은 점차적으로 사라진다. 몇몇을 예외로 하긴 하나, 시그마틱한(sigmatic)부정과거는 초기 MIA에서의 풍부한 과거 형이다. 그래서 Pali는 여러 과거 형성들을 지닌다. 그러나 풍성한 그것은 시그마틱한 것이며 그리고 현재에 근거한다(Skt.에서처럼 어근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다)—예를들어 3sg. ahoṣi ‘was’, agacchi ‘went’, 3pl. ahoṣum ‘were’, agacchiṣum ‘went’(cf. pres. sg. hoti, pl. honti; sg. gacchati, pl. gacchanti), Skt abhū abhūvan, agamat agaman (pres. asti santi, gacchati gacchanti). 후에 MIA에서는 동사적으로 변한 과거형(preterits)들이 분사형들을 선호하는 통에 사라진다: 예를들어,

ㄷ) mahārāo āado (Skt. mahārājah āgataḥ)  
'the king has arrived'

직접 목적어들을 취하는 동사의 **분사**는 그 목적어와 일치하는 성과 수를 보여 준다. 만약 어떤 목적어도 뚜렷히 지시되지 않는다면 그 분사는 중성 단수로 나타난다. 비록 초기 MIA가 수동중간태(**medio-passive**)형식들을 유지하지만, 능동태와의 그 대조는 사라진다—예를들어 Pali maññati 'thinks'. 그리고 vuccati 'is said' 류형의 수동태들은 능동어미들을 지닌다(3sg. -ti; contrast Skt. manyate, ucyate, 중간-수동태 -te와 더불어). 현대 인도-아라어들은 그러한 발전들을 반영한다. 대부분의 언어들에서는 타동사들의 완료 형들을 위해 능격(ergative, 能格, 타동사문의 목적어가 이것에 대응하는 자동사 문의 주어와 일치하는 경우의 격)적인 형성들을 지닌다. 예를들어 Gujarati에서의:

ㄷa) chokro paḍī gayo.  
boy fall went  
'The boy fell down.'

ㄷb) chokrī paḍī gayī  
girl fell went  
'The girl fell down.'

여기에서 동사구는 그 주어와의 일치를 보여준다. 그러나 Gujarati는 마찬가지로 그 동사구가 수와 성에 있어 그 목적어와 일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보여준다.

ㄷa) mē tamārā dīkrā-ne joyo.  
I your son-OBJ saw  
'I saw your son.'

ㄷb) mē tamārī dīkrī-ne joyī.  
I your daughter-OBJ saw  
'I saw your daughter.' // George Cardona.

## 7-2)드라비다어(Draavidian language)

### 7-2-1)드라비다인(Draavidian).

드라비다인 이라는 이름은 인도의 남부와 중부 사람들 그리고 드라비다어가 거기에서 말해진 실론(Ceylon)의 일부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이 용어는 순수하게 언어학적이다. 많은 다른 발생(genetic)적인 류형의 드라비다 언어로 그 사람들은 말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기원과 초기 역사는 애매하다. 그리고 어떤 인종적인 요소 또는 역사 이전의 문명이 이들이 인도에 처음으로 나타난 것과 결부될 수 없다. 기원전 2 번째 밀레니엄의 **아라인**의 침입 이전에 드라비다어로 말하는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북부 인도 대부분에 걸쳐 퍼져 있었다는 그리고 베다 찬양시에서 언급된 토착 인구들이 **드라비다인**들이었다는 이론이 한 때 폭 넓게 유행했으나 지금은 더 이상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많은 원시 산림 부족들 중 몇 몇과 마찬가지로 드라비다인들도 고도로 문명화된 인구들 중 몇 몇을 포함한다. 특별히 드라비아인의 문화 패턴을 말하는 것은 드라비다 인종 유형을 말하는 것 자체가 오도(misleading, 誤導)인 것처럼 그렇게 그 자체 적절하지 않다. 그렇지만 1947 년 인도의 독립 쟁취 후, 드라비다 인의 강한 느낌의 민족주의(nationalism)가 남부 인도 특히 Madras의 Tamil에서 발전했다. 이것은 힌두어를 모든-인도의 공식언어로 도입함에 대한 그리고 심지어 아라 문명의 한 생산으로 간주된 베다의 힌두이즘에 대한 극단적인 형식의 반대운동을 이끌었다. 언어적 원리에 따른 정치적 단위들의 재 조직은 우월하게 드라비다어로 말하는 4 개의 주, 즉 Madras, Andras Pradesh, Mysore, Kerala의 확정으로 끝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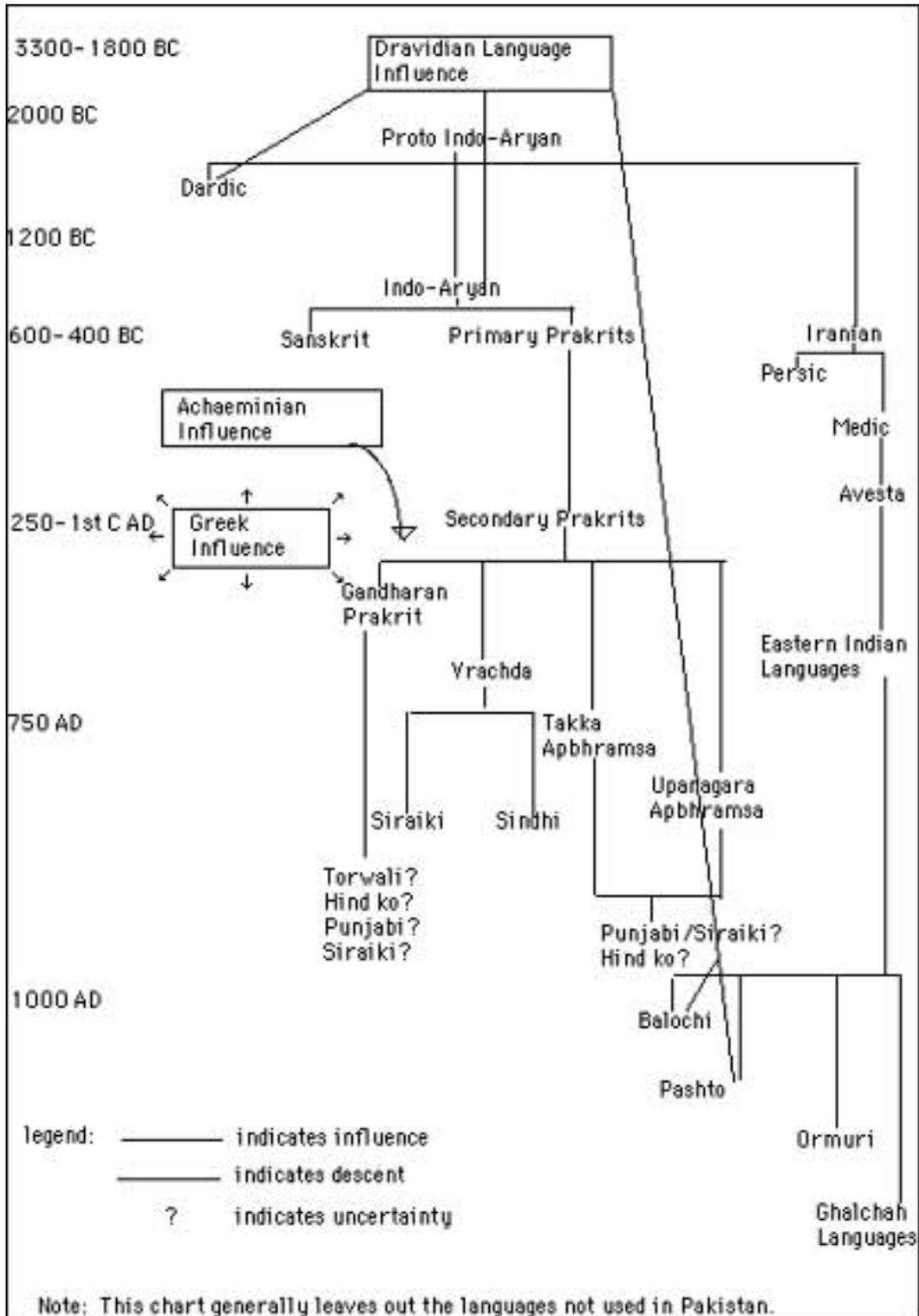
드라비다인의 일치된 종교는 없다. 문자 이전의 드라비다 부족 대부분은 혈연 조상 제사(cult)와 지방적인 신성들과 어머니 땅으로서의 그런 보편적인 여신들을 중심으로 하는 부족 종교들을 공언하는 반면 고등 카스트들은 브라흐마니의 힌두 이즘의 패턴을 따른다. 특수한 하나의 현상은 북쪽에 기원을 둔 채식주의적인 브라흐마니 신들 제사와 동물 희생 번제로 누그러뜨러지는 고기-먹는 토속 신성들 사이의 분리이다. 전자의 신들은 동료들을 가진다고 믿어지는 반면, 후자 그리고 특히 여성 신성들은 홀로라고 여겨진다. 두 유형의 신성에게 각기 다른 카스트들과 성직자 신분의 사제들이 속하지만 그럼에도 보편적인 판테온(pantheon)에 그 신성 양자(兩者)는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그 두 제사들은 [서로에] 보완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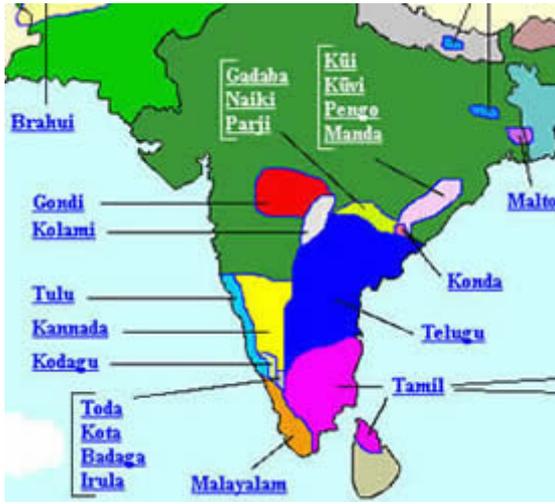
드라비다 말(speech)과 아라 말 사이의 구분은 Tamil이 기원전 11세기 초기에 정착했던 Ceylon에서도 정치적인 이슈로 된다. 약 900,000 명의 타밀어로 말하는

토착인들이 그 북동쪽 지역에 거주했고 그리고 보다 최근에 인도로부터 이주해온 거의 1,000,000 여 명에게는 그 언덕 지대의 농장 대부분이 제공됐다. 드라비다어로 말하는 작은 수의 인도인들이 마찬가지로 Malaya와 동부 아프리카와 다른 바다너머 지역에 정착했다(by C.v.F. -H.).

7-2-2)언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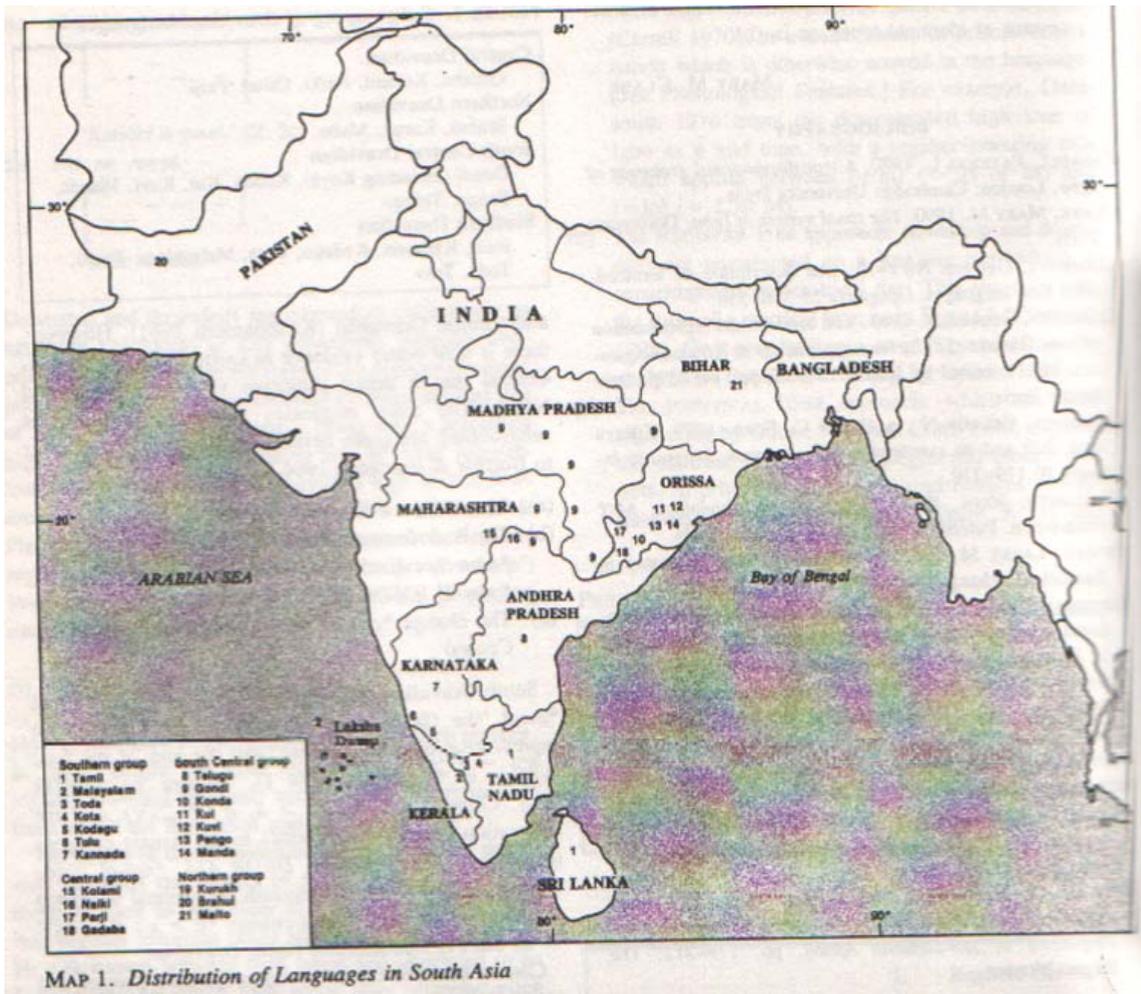
약 20 여 개의 드라비다 어군은 1960 년 대에 약 100,000,000 명의 말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드라비다어가 말해지는 지역은 북쪽 실론의





절반을 포함하여 약 100 마일 가량 아라비아 해의 한 지점으로부터 Kolhapur까지 서쪽 Ghats를 따라 아래로, 그런 다음 북동쪽 Hyderabad을 통해 그리고 더 나아가 동쪽 Bengal 만에 이르도록 주욱 불규칙하게 그어지는 선을 따라 북동쪽으로 확장된다. 드라비다어들은 Madhya Pradesh와 Orissa에 그리고 Rajmahal 언덕 겐지스 독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작은 부족

들에 의해 먼 북쪽에서 말해진다. 마찬가지로 드라비다어는 서 파키스탄 Baluchistan의 Brahui에 의해서도 말해진다. ...(브리타니카, VII, 654d)





른 낱자가 메겨지는 베다 텍스트들에서 발견된다. **이란어**의 가장 이른 무대는 기원전 6 세기 경의 Avestan에 의해서 주어지며, 그것의 가장 이른 문서들은 북동 방언들로 작성된 Zaraθuštra(Zorsaster)의 gāθās들과 남서 방언을 보여주는 Achaemenid 왕조의 고대 페르시아 문서들이다. 인도-이란어들은 문화와 행정을 담고 있는 것(vehicles, 매개체)들이다. 그래서 **현대 페르시아어(Fārsī)**가 이란의 공식 언어이다. 그리고 힌디(Hindi)는 인도 공화국의 공식 언어들 중의 하나이다. //

그것의 페르시아어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이란어는 고대 이란어와 산스끄리트어가 그 안에서 아라어 집단을 형성하는 인도-유럽어 속한다(96쪽 참조). 아라어와 이란어(Aryan and Iran) 라는 용어들은 공통의 근원을 지닌다. 고대 이란어가 산스끄리트어와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는 아래의 아베스탄(Avestan)어 음역을 산스끄리트어 음역으로 번역해 보면 판단할 수 있다.

ㄱ)아베스탄어: yō vō āpō vaṇuhīš yazāitē ahurānīš ahurahe vāhištābyō zaoθrābyō  
 ㄴ)산스끄리트어: yō vō āpō vasviṣ yajātē asurānīś asurasya vasiṣṭhabhyo hōtrābhyō

ㄷ)영어번역: he who worships you, the good waters, the Ahurian[daughters] of Ahura, with the best libations.

ㄹ)한글번역: 가장 좋은 술을 드려 아후라의 딸 아후리안, 좋은 물들, 당신에게 경배하는 그.

그리고 알바벳들에 의해 가리워지지 않은 본디 아베스탄 낱말들은 여전히 산스끄리트어에 더 가까울 것이다.

**이란어(Iranian)**를 **인도어(Indian)**와 구분시키는 주요한 음성학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ㄱ) 본디 s가 이란어에서는 h로 된다. ㄴ)이란어 유성 파열음(stops, 폐쇄음)들과 기식음(spirants, 氣息音)들은 각기 인도어 유성 기식음과 무성 기식음들에 상응한다. ㄷ)이란어는 인도어에 부재하는 z를 지닌다. ㄹ)이란어 이중모음 ai, au는 인도어에서는 ē, ō로 발견된다. 예들은 아래 표에서 보여진다. 이란어와 인도어 이 두 가지들은 후대로 내려갈수록 더 벌어진다.

Sanskrit	Avestan	Old Persian	Morden Persian
Sindhu(Indus)	Hindu	Hindu	Hind
Asua Medhās	Ahura Mazdāh	Ahuramazdā	Hurmuzd
bhūmi(earth)	būmi	būmī	būm
kratu(insight)	xratu	...	xirad
hasta-(hand)	zsta-	dasta-	dast
açva-(horse)	aspa-	asa-	asp

그 그룹의 주요한 가지인 고대와 중기와 현대 페르시아어로 유형화된 이란어들의 역사에 있어서의 연속적인 세 단계가 국가의 연속적인 흥망성쇠(vicissitudes)에 상응한다. *고대 페르시아어*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파괴된 Achaemenid(기원전 6-4세기) 왕조의 기념물들에서 사용됐다. *중기 페르시아어*는 Parthian 또는 Arsacid 시대(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후3세기)로부터 그리고 아랍의 정복과 지배에 의해 끝장 난 Sasanian 시대(약 기원전 224-651)로부터 더 풍부하게 알려진다. 기원후 9세기의 페르시아 르네상스와 더불어 *현대 페르시아어*는 나타난다. 그것은 그 이호로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여전히 살아 있다. 다른 이란어 관용법(idioms)들은 각 단계를 거치면서 페르시아의 관용법과 비슷하게 되어갔다.

**7-3-1)고대 이란 언어들.**—메디아(Median)어들 중에서는 페르시아어에 단지 차용된 것(loan words, 借用語)들만, 그리고 Herodotus로부터의 고유명사 몇 몇과 ‘개 dog’(spaka)라는 낱말이 알려진다. 고대 Saka-Scythian 언어(Scythian and Sarmatian) 집단들 중에서는 단지 고유명사들만이 그리이스인의 비문들에서 그리고 남 러시아에서 발견됐을 뿐이다. 그래서 실제로 알려진 유일한 고대 이란어들은 Avestan(아베스타어)와 Old Persian(고대 페르시아어)일 뿐이다.

**아베스타어**는 신성한 조로아스터 서적들의 언어이다. 초기 유럽 학자들에게 그것은 단지 그 **Avesta**의 주석만을 가리키는, Pahlavi 라고 불리우는 중기 페르시아어 형식으로 쓰여진 용어인 Zend 라고 부적절하게 불리웠다. 그 아베스타의 연대는 불분명하다. 그것의 두 부분들이 선명하게 구분되는데, 소위 Gathas는 고대 인도의 대부분의 오래된 찬양시(hymns)들과 더 또는 덜 동일한 언어무대이다. 이란의 그 예언가, Zoroaster에 의해 작성된 이런 시원적인(archaic)시들은 그의 종교 개

혁의 권위적인 문서들이다. the Avesta의 더 많은 부분, 소위 최근의 또는 젊은 Avesta는 다양한 고대 텍스트들의 모음집이며 점진적인 단순화와 문법형식의 느슨한 사용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현재 상태의 그것은 일리아드와 오딧세이를 묶어놓은 것의 크기이다. 기원전 4-6세기 그것의 경전화 시대에 아베스타어는 단지 사제들에게만 알려진 오랫동안 죽은 언어였다. 그것의 본디 집(home)은 불확실하다 그러나 반드시 의심없이 동부 이란에서 찾아져야만 한다. 그것은 **Bactria**어로 오랫동안 취해졌지만 그것을 고대 Khwarizm(Khiva)에 위치화시키려는 후대의 논의들이 진척됐다. 아베스타어 알파벳은 후기 **Pahlavi 스크립트**로부터 진화됐다. 그 이전에 아베스타어 텍스트들은 구전( orally, 口傳)으로 전달됐다.

**고대 페르시아어**는 Achaimenid 왕들의 **췌기문자** 비문들에서 사용됐다. 그 텍스트는 보통 Elamite와 Akkadian(Assyro-Babylonian)로의 번역을 수반한다. 가장 중요한 문서는 기원전 522-486년 지배했던 Darius 대왕의, Kermanshah 근방의 Bistum(Behistun) 바위에 새겨진 유명한 비문으로서, Henry Rawlinson 경에 의해 처음 읽혀진 뒤 1846년에 공표됐다.

**7-3-2)중세 이란어들.** – 이 용어는 기원후 3 세기부터 10세기까지의 이란 언어 상태를 묘사한다. 비록 페르시아어의 경우에는 중세에서 현대국면으로의 전이가 기원후 8 세기에 완성됐긴 해도 말이다. 중세 이란언어들은 **Parthian**과 **Middle Persian**과 Bactrian과 Khwarazmian과 Sogdian과 Saka.이다. 중세 페르시아어를 제외한 모두는 언어학적으로 고대 페르시아 보다는 Avestan에 더 가깝다.

**Parthian**은 Arsacid 시대의 공식언어이다. 기원전 1세기까지 날자가 메겨지는, 대부분 포도 배달 기록들인 2,000 개 이상의 파르티아어 오스트라카(ostraca)가 현재의 Ashkhabad 근방의 Arcacid 수도들 중의 하나인 Nisa로부터 발견됐다. 다른 곳에서의 파르티아어는 보다 후의 Sasanian 비문과 Manichaean 텍스트들에서 확인된다. 기원전 3 세기 후반부에 마니교도 선교사 Mar Ammo에 의해 작시된 일련의 파르티안 찬양(hymn)은 중세 이란어 기간의 최고 문학적인 성취들 중의 하나에 랭크된다.

Sasanians의 공식언어였던 **중세 페르시아어**는 마니교도들과 조로아스터교도들의 서적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산 사람들의 비문들에서도 발견된다. 비문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Parthian과 Greek의 병행 버전들을 지닌, 로마에 대한 전쟁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Shapur I세의 위대한 비문(약 기원전 262 년 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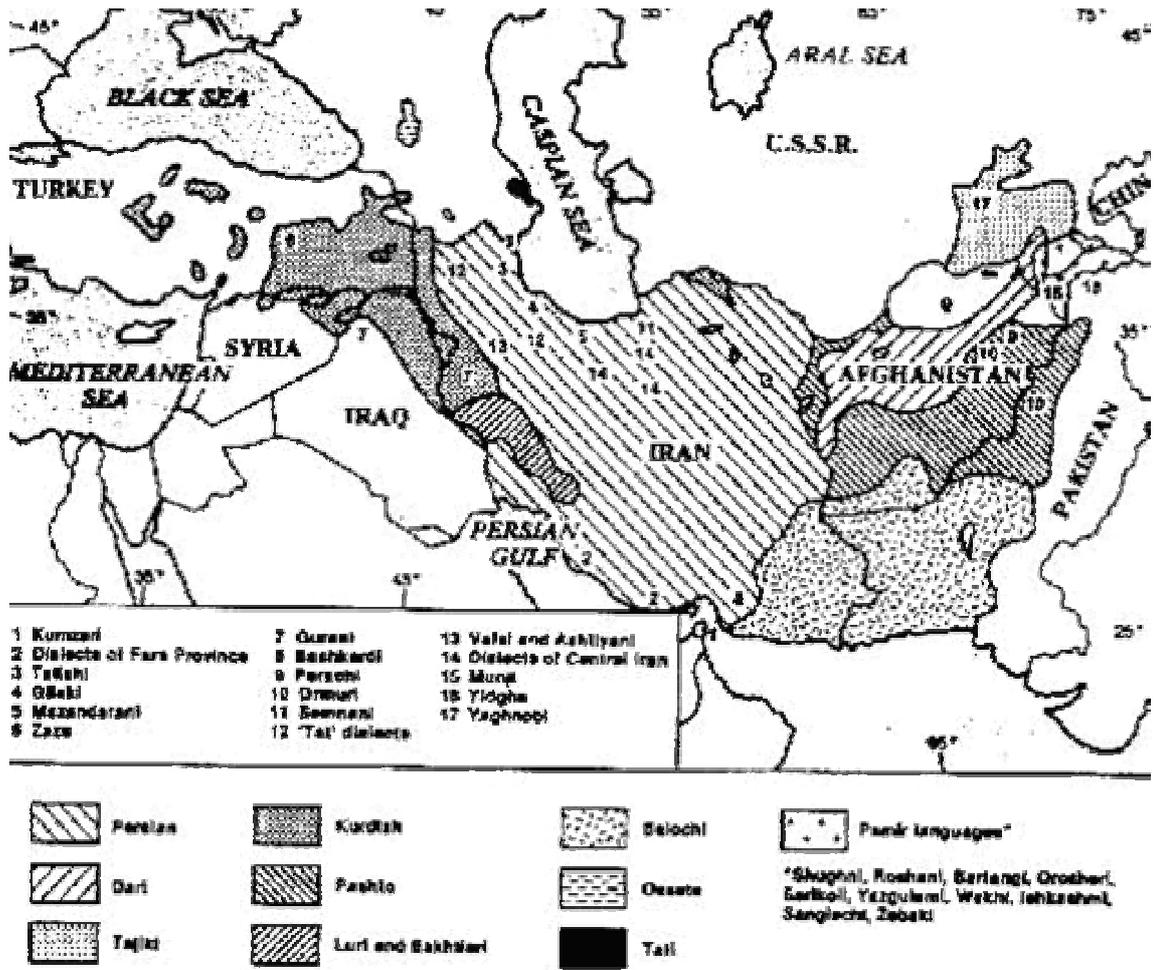
3세기에서 10세기 사이의 중세 페르시아어 *마니교도들의 문헌*은 쉽게 읽혀질 수 있는 **아람어 알파벳**으로 쓰여졌다는 장점을 파르티안과 Sogdian의 마니교 텍스트들과 함께 공유한다. 반면에 대부분 그 아베스타의 주석들이며 그리고 종교적인 주제들에 대한 고찰들인 조로아스터교도의 책들은 아주 애매한 *Pahlavi* 스크립트로 쓰여져있으며 그리고 **셈어 표의문자(ideograms)**로도 많이 남아있다. 팔라비 문헌의 양은 62만 8천 자(E.W.West)라고 헤아려졌다. 20세기 초엽에 중앙 아시아에서 발견된 마니교도들의 텍스트들은 숫자적으로는 훨씬 적지만 팔라비어로 쓰여진 책들에 빛을 많이 던져준다.

그리이스어 문자들로 기록된 *Bactrian*어의 첫 표본은 1957년 북 아프카니스탄에서 발견된, 기원전 2세기의 비문으로부터 온다.

*Samarkand*가 그 중심인 지역의 토속어인 *Sogdian*은 첫째, 세속(lay) 문서들과 붓디스트 텍스트들을 위해 사용된 것과 둘째, 기독교인의 문학을 위해 사용된 것과 세째, 마니교도인들의 문학을 위해 사용된 것 등 세 가지 구분된 셈어 알파벳으로 이용가능하다. 더구나 각기 위 집단은 방언들의 다양함을 통해 특징지워진다. *Sogdiana*와 *China*를 연결하는 길목들에 있는 식민지들에 정착하거나 여행하면서 *Sogdian* 장사꾼들과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기원후 4-10세기의 중앙아시아의 공통어(*lingua franca*)지위로 끌어 올린다. *Sogdian* 문학의 아주 많은 부분은 여전히 20세기 중반 그 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Saka*는 두 가지 다양함들 안에서 알려진다. 풍부하게 확인되는 그것들 중 하나는 한 때 *Chinese Turkistan*의 *Khotan* 왕국 언어였다 그래서 *Khotanese*로 알려진다. 단지 한 붓디스트 단편으로만 생존하고 있는 나머지 다른 하나는 마찬가지로 *Chinese Turkistan*인 *Tumshuq*와 연결된다. 음성학적으로 *Khotanese*와 아주 가까운 이란어는 현재 *Pamirs*에 있는 *Wakhi*이다. 대부분 붓디스트(Buddhist) 문서들이지만 세속적인 내용 몇 몇의 문서들을 포함하고 있는 발견된 많은 *Kohtanese* 문학은 *Pahlavi*에 생존하고 있는 문서들보다 거의 더 적지 않다. 그 언어에는 인도어적인 요소들이 침투해있다. 1960년 대 여전히 시작 단계에 있는 *Khotanese* 연구는 모든 이란어의 가지들을 어원론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심대한 결과를 가져 올 것처럼 보인다.

7-3-3)현대 언어들.— 소리를 단순화 하면서 형태론적으로 새로운 보조시제들을 사용하는 등, 모든 이란 언어들은 지금 어떤 분석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추세다. 여태까지의 이런 언어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광범위한 페르시아 문학과 학식있는 자들 중에서 발견되는 것으로서의 문어적인 페르시아어( literary Persian)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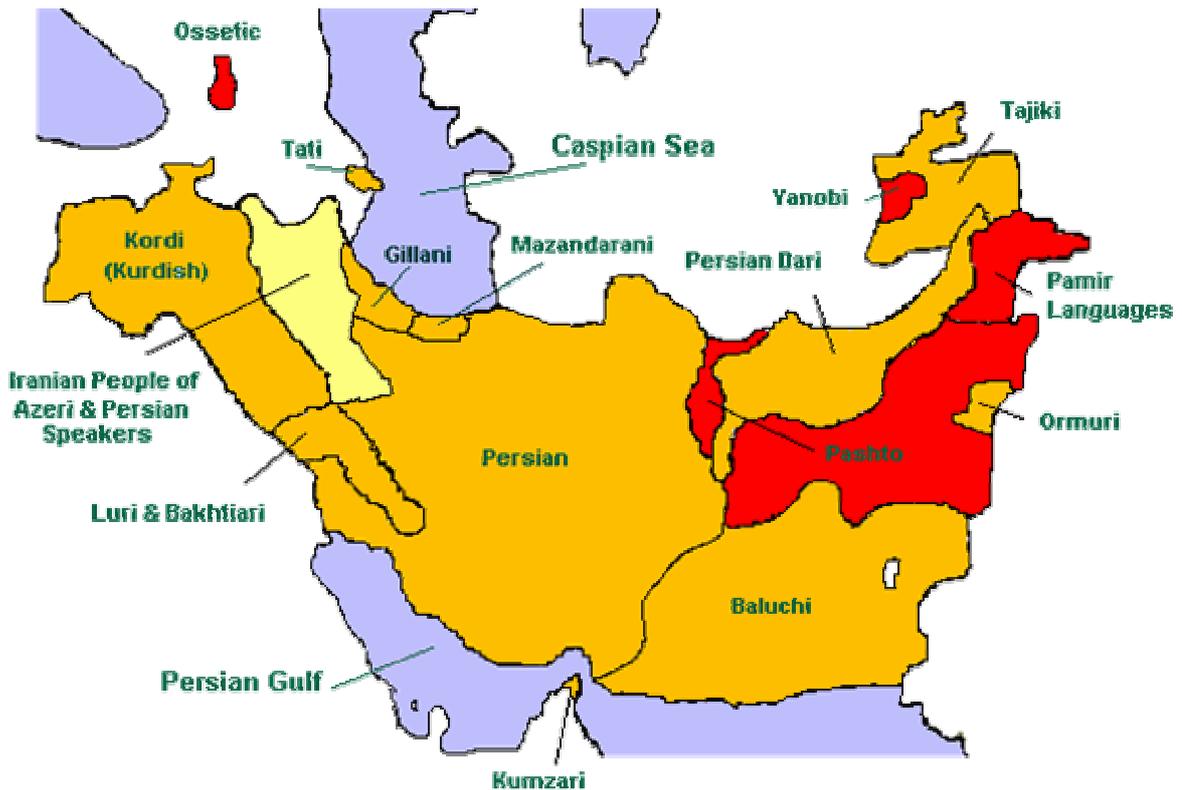
현대 페르시아어는 중세 페르시아어의 직접적인 후손이지만 Parthian과 흡사한 재원으로부터 많은 단어들을 빌려왔으며 그리고 수많은 아랍어와 터키어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게다가 아랍어 철자들(characters)로 쓰여진다. 비록 현대 페르시아어가 단일한 언어이기는 해도, 이란과 아프카니스탄과 인도와 러시아인 투르크스탄(Tadzhik S.S.R)에서 말해지는 국부적인 변형(variation)들이 도드라진다.

문어 페르시아어와 나란히 방언들이 대부분의 이란 도시와 마을들에서 사용된다. Fars, Luristan, Khurasan과 Kerman의 방언들이 그 문어 언어와 동일한 남부 그

룹에 속한다. 다른 한편으로 많은 다른 토속어들은 과거 북서 관용법들의 잔여물들을 나타낸다.

이런 토속어들이 카스피해 지역의 지방 방언(dialects)이요, (광대한 면적에 흩어져 있으며 그리고 산발적으로 북 시리아에서 발견되고 심지어 소 아시아 Ankara 와 가까운) Kurds의 언어요, Balochis의 언어요 그리고 Kashan과 Simnan 등의 것과 같은 격리된 그룹들의 방언(tongues)이다.

동부 그룹의 현대 이란 언어들 중에는 Afghan 언어와 Pasto 또는 Pushto와 (Shughni, wakhi, Munjani, 등의) Pamir 그룹의 방언과 (Sogdian의 현대 후손인) Yagnobi와 Ossetic어이다. Ordzhonikidze(Vladikavkaz)의 Caucasian 산들의 심장에서 말해지는 Ossetic어는 남 러시아에서 말해졌던 Saka의 한 때 강력했던 Sasmatian 그룹의 한 생존 언어이다.



*Iranian Speaking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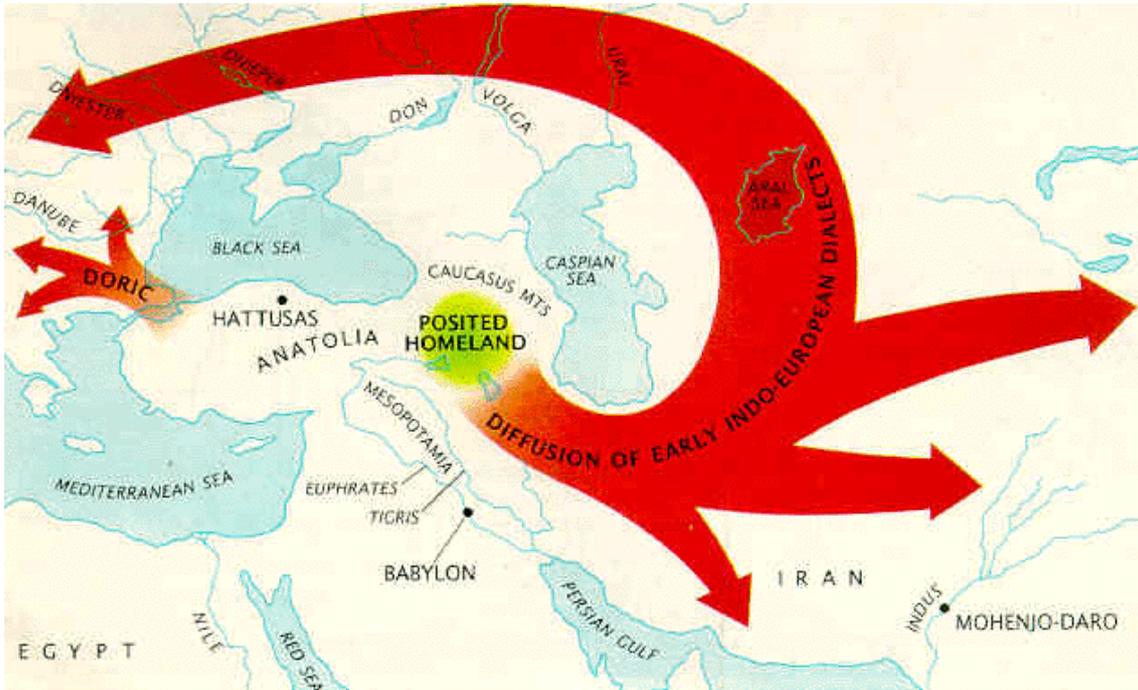
● Orange: Western-Iranian Languages ● Red: Eastern-Iranian Languages

8)인도 유럽어족(Indo-European Languages).



Indo-European 이라는 용어는 국민(People)이나 문명이 아니라 언어, 단지 언어만을 고유하게 지시한다. 주로 인도(india) 또는 유럽(Europe)—따라서 인도유럽어라는 이름—등의 고대 세계에서 발견된 많은 언어들에 적용되는 이 용어는 의사(physician)이며 물리학자(physicist)인 Thomas Young(1773-1829 년)에 의해서 만들어져 나타났다. Quarterly Review(1813년 10월) 제 10 권에 보낸 기고문에서 그는 새로운 조어(coinage, 造語)라는 어떤 언급도 없이 그 낱말을 사용한다. 그 단어는 특별히 언어의 한 군(family, 群)을 가리키기 위해 고안됐으나, 언어들에 가리키는 것으로서의 그 단어의 사용과 그리고 어느 주어진 시기에 문제의 언어들에 말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이런 언어들에 본디 말했던 자들에 의한 그 단어의 적용을 구분하는 것은 아주 힘들었다. 이 낱말에 상응하는 독일 용어는 ‘Indo-Germanic’이다. 게르만(독일) 학자들은 불행히도 마치 게르만인들(the Germans)만이 단지 진짜 ‘Indo-Germans’인 것처럼 썼다. 그러나 게르만인들의 이런 견해는 대담하게 1945 년 최근까지 유지됐으나 그 이후로는 거의 들려오지 않게 됐다. 몇몇 인도 유럽언어들은 고대에서는 소아시아에 존재했다. 그리고 인도 또는 유럽의 모든 언어가 어느 때든 그 정밀한 의미에서 그 레벨(Lebel)의 장점





가정 하에서만, 즉 빌려움이 아니라 물려받음(inheritance)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 공통의 어떤 음성학적이며 형태론적이고 구문론적이며 동사(즉 어휘)적인 특색들을 인도-유럽어들은 소유한다. 그래서 역사적인 증거들로부터 빌려온(차용한, borrowing, 借用)공통의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tobacco, coffee 또는 Potato 등의 공통 단어들과는 대조적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 \*ekuo-(만약 행위자라면 즉 만약 주어 용법이라면 -s를 덧붙힘) 단일한 재원으로부터 그것들을 파생시키는 것을 제외하면—여기에서 앞에 붙은 별표 ‘\*’는 그 단어는 단지 현실적으로 기록된 낱말들의 비교와 역사에 의해서만 알려진다는 것 나아가서 이런 기록된 단어들 모두는 공통의 의미 영어 ‘horse’로 알려진 털이 많은 네 발 달린 것을 나타낸다는 것을 가리킨다—, 산스크리트어 aśva-s, 페르시아어 aspa-, 그리스어 ἵππος, Illyrian Ecco, Tarentine ἵκκος(아마 Messapic), Gaulish Eppo, Irish ech, Welsh ebol, Gothic aiha, Latin eqqus, Umbrian ekvine(?) 이라는 사실을 결코 설명할 수 없다. 크고 무거운(heavy draught)말 또는 샤이어(shire) 산(産) 말 또는 아랍족속의 말 또는 스텝지방의 말 등의 동물학적인 분류에 관해서는 말해지지도 않으며 어떤 함축도 지녀지지 않는다. 그러나 \*ekuo-는 집에서 길러지며 그리고 완전무장한 전사가 타는 것은 아니지만 타기 위해 또는 전차를 끌기위해 또는 경주를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비록 그 해석에 있어서는 일치하지 않지만 어휘 뿐만 아니라 문법에 있어서의

이러한 표본은 기원전 3 번째 밀레니엄에 인도-유럽어 라는 이름이 거기에 편리하게(conventionally) 적용되는 언어 하나 또는 어떤이에 따르면 관련된 방언들의 집단이 존재했다는 것을 가리키는 그러한 많은 량의 증거들이 있다. 이 언어의 더 오래된 재원은 헵어와 셈어 그리고 아마 코카서스인의 언어(**Hamitic and Semitic and perhaps Caucasian language**)일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빙하기를 피해서 알프스 북쪽 어디엔가에 정착하려고 유럽 북쪽으로 이동했을 때 또는 아마 기후악화로 인하여 우리가 역사 시작기에 발견하는 지점들로 즉 **Indic(Sanskrit), Persian, Armenian, Phrygian, Thracian, Illyrian, Greek, Albanian, Italic, Celtic, Germanic, Baltic, Slavonic** 등으로 역사의 여명기 이전에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거칠게 이주했을 때에 연결됐을 곳은 고대 지중해 연안이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비록 인도-유럽어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가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어떤 추측들은 불가능한 지역을 자신있게 배제한다. 인도-유럽어는 산림이 우거진 스텝 지역이나 Baltic 지역이나 남부 스칸디나비아나 독일이나 발칸반도로부터 전개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원시(proto)-인도-유럽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익숙해졌던 동물군과 식물군(fauna and flora)의 자연을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기후조건들을 가리킨다는 것이 진실인 한, 언어학적 증거의 토대 위에서 중앙유럽일 것이라고 호의적으로 많이 말해졌다. 이 언어의 본디 고향을 규정하려고 했던 언어학적 고생물학의 인위적인 시도들은 더 이상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심지어 고고학적인 증거와 언어학적인 증거들을 연결하려는 노력도 아주 성공적이라고 여겨질 수는 없다. 인도-유럽어를 초기에 말하던 이런 자들의 물리적인 특징들은 기원전 3000-2500 년의 두개골들이 인도-유럽어를 말하는 사람들의 것들이라는 것이 보여질 수 있기 전까지는 무엇이든 인도유럽어적 사람들에 관해 주장될 수 없다--어떤 경우에서든 그 용어를 잘못 적용하는 것이다. 알프스 북쪽 글쓰기 역사에 관해 알려진 모든 것은 인도-유럽어 텍스트 한 장이라도 역사이전의 유럽피인 무덤이나 매장지에서 발견될 것 같지 않도록 만든다. 그러나 한 장도 있지 않는한 그리고 한 장이 있게 되기까지는 그 문제에 있어서의 추측이며 가정일 뿐이다.

**8-2)발견들과 해석의 문제.**—위에서 열거된 인도-유럽어의 목록은 20세기 초에 완성된 표준(canon)이다. 더 나아간 고대 인도-유럽어가 한번이라고 발견될 것이라고 상정되지도 않았으며 지금 상정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20 세기 첫 10 년에 Turkistan에서의 사라진 문명들의 연이어진 보고에 따라 베를린과 빠리에서 보내

진 탐험대들은 여태까지 알려지지 않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것의 두 주요한 다양함들이 보통 확인됐던 **Tocharish** 라고 불리워지는 인도-유럽어 수고 한 뭉치를 가지고 돌아왔다. 십여 년 후에는 새로운 놀라움이 제기됐다. 1912 년에 베를린의 앗시리아어 학자 Hugo Winckler는 고대 히타이트(Hittite) 제국의 고대 수도와 다른 쪽들로부터 썩어문자 텍스트 수 천 장을 획득했다. 빈클러의 사망 후에 그 텍스트들의 복사본을 재빨리 만들어, 그것들은 인도-유럽어 하나 이상의 증거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1917 년에 알렸던 Czech 앗시리아어 학자 F.Hrozhy에게 충실하게 그 텍스트는 건네졌다. 해석작업의 대부분은 E.Forrer, J.Friedrich, F.Sommer, A.Goetze, E.H.Sturtevant 등의 학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 언어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다시 일상적이고 포괄적이게 **Hittite(129쪽)** 라고 불리어진다. 인도유럽언어들 사이의 관계들과는 다소 다른, 마치 사촌언어 이기는 하지만 형제자매 언어는 아닌 것과 같은 관계를 인도유럽언어들과 맺고 있는 것으로 처음에는 상정됐다. 이런 견해를 유지하면서 그것에 **Indo-Hittites** 라는 이름을 붙였으나, 어떤 다른 인도유럽언어학자도 그 용어에 대한 평판을 유지하려들지 않았다. 따라서 Sturtevant에 의해 도입된 용어는 폐기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논쟁을 유발시켰던 다른 문제가 하나 있다. 모든 인도-유럽어들이 깔끔하게 두 구분된 범주들 중의 하나에, 즉 인도-유럽어 q 자음들을 **순음화**하는 것들(라틴어 quid, Oscan pid, Englisch what)과 인도-유럽어 k 자음들을 **치음화**(sibilized)하는 것들(Sanskrit śatam ‘hundred’) 중의 하나에 속한다는 것이 발견됐다. 이 두 하위 나뉘임들은 각 각 (백을 의미하는 단어의 라틴어 형과 페르시아 형으로부터) **centum 언어**와 **satem 언어(124, 125, 131쪽)**로 불리운다. 이것이 로만스 언어에서처럼 독립적인 발전인가 아니면 그것이 방언 이전의 인도-유럽어 그 자체의 고대 방언적인 틈(cleavage)인가 라는 투의 문제 제기가 있다. 다음의 이유 때문에 후자가 더 선호될 것처럼 보인다: ㄱ)일련의 두 분리 사이의 완전한 일치가 있다는 것, 곧 k-소리들을 치음화(sibilize)하는 그런 언어들은 q-소리들을 순음화(labialize)하지 않으며, q-소리들을 순음화하는 것들은 k-소리들을 구개음화(palatalize)하지 않는다는 것; ㄴ)이런 상황은 루마니아어가 그 안에서 순음화와 치음화 이 양자를 지니는 로만스 언어들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예를들어 iăpă ‘mare’ (Latin equa)와 čieru ‘sky’ (latin caelum); ㄷ) 인도 유럽어에서 Satem 언어는 전설(front, 前舌)모음들 앞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들에서 k-소리들을 치음화 한다는 것; ㄹ) 이런 이동은 인도-이란어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발전인 인도-유럽어 a( H로부터

터)의 산스끄리트에서의 ṛ(tigita-s ‘sharp’)에로 발전에 앞서는 한, 고대적인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

원시-인도-유럽어의 방언적인 상태에 관한 배타적 또는 도그마적으로 진술된 어떤 추측이든 타당성을 결여한다. 원시-인도-유럽어의 어떤 표본도 훨씬 더 적은 그것의 ‘방언’들의 표본들을 이용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다양한 인도-유럽어 말이 기록됐으며 보존됐는가를 규정했던 등어선(等語線, isoglosse, 언어적 특징으로 지역을 나누는 언어지도상의 선) 또는 특별한 방언적 특징들과는 아주 상관없는 역사적 조건들과 사건-심지어 그런 회심(conversion, 이전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언어를 선택하는 사건)들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어의 갑작스러운 애매한 출현 가능성 또는 사실; 이전의 언어들을 대신함에 있어 “ 쇠퇴하는 문명들의 ‘외부적 proretariats’ ”의 성공과 실패; 표준 문어(literary languages, 文語)들이 발전되는 다른 시기들 사이의 연대적인 차이들; 언어학적 기교와 장치의 다른 정도들의 단순화 등 이 모든 것들과 다른 요소들은 그것들 자체로는 어떤 직접적인 값도 지니지 않고 쓰여진 현실적인 기록들로하여금 원시-인도-유럽어의 방언적인 상황을 드러내도록 한다. 따라서 역사적인 기간들로부터 도출된 비유(analogies)들을 사용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예를들어 (비록 그것이 마찬가지로 초기 역사적인 조건들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고대 그리스 방언들의 그것과 같은 상황처럼 많은 방언들로 구성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인도-유럽어들은 그러나 그리스에서처럼 공통 표준인 것의 확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언어들의 보급에 고도로 영향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유목민의 ‘전달성’(conductivity od nomadism, Toynbee), 곧 존재하는 방언들의 먼 그리고 폭넓은 분포에 의해서 그렇게 간주될 수 있거나 또는 인도-유럽어들은, 라틴어나 로만스 언어들이 그랬던 것처럼, 풍속(manner)처럼 가까운 곳에(next) 분포되는 그리고 그런 다음에 분리된 방언들로서 발전되는 단지 동질적인 말(speech)로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이런 추측들 사이의 어딘 가에 진실이 놓여있을 수도 있으리라. 기록된 인도-유럽어들의 현실적이고 역사적인 분포 그리고 이것들 사이의 더 또는 덜 부분적이거나 완성된 어떤 등어선(isoglosses)의 잘-알려진 사실들 그리고 그것의 주변을 넘어서 하나의 언어학적인 지점(unity)의 지리학적인 중심으로부터 외부 확장과 식민지 언어 발전의 방해 사이의 고도로 그럴듯한 상호관계는 중심을 공유하는 분산 영역(concentric circles of dispersion)과 두번째와 세번째 물결에 의한 첫번째 것의 거의 전적인 말살과 동쪽에서 그리고 부분적으로 서쪽에서 세번째 물결에 의해 (Tocharich ‘breaker’를 제외하면) 위치와 상관없이(anywhere)말살된

두번째 것을 제안한다. 이런 물결들은 연대기적인 순서로 보면 아래와 같다: ㄱ) 원시-인도-유럽어 물결; ㄴ)centum 언어들의 물결; ㄷ)satem 특색들을 (부분적으로 독립적인 발전에 의해) 보여주는 언어들의 물결.

Hittite에 관한 놀라운 점은 충분한 히타이트어 텍스트의 발견이 해독이나 해석을 가능하게 하거나 히타이트어 관한 어떤 앎을 획득하게 할 수 있기 오래 전에 스위스 학자 Ferdinand de Saussure와 Dane H. Møller에 의해서 사실 그 존재가 요청됐던 원시-인도-유럽어 안의 (구분되는 것으로서의 H<sub>1</sub>, H<sub>2</sub>, H<sub>3</sub>과 같은) 그런 세 자음들을 인식하도록 결국 다그쳤던 (h, 중간에서는 h와 hh 라는 음소기호로 옮겨 써지는) 후두(laryngeal, 喉頭, 131쪽) 자음들의 현존이다. 결과는 인도-유럽어 모음 체계(특히 ē: ō: ə, ě: ǝ: nil의 선택과 ā, ǎ의 현존과 기능)의 크게 진전된 이론뿐만 아니라, (예를들어 \*α εν(τ)-λα로부터의 그리스어 ἄελλα “windstrom”, Gothic winds, Latin uentus, Hittite hwantas; Greek ὄνομα “name”, 그러나 Latin nōmen과 같은) 그리스어와 아르메니아의 소위 ‘어두음’(prothetic, 語頭音)적인 모음들에 관한, 그리고 기식 자음과 비기식(nonaspirated, 非 氣息)자음들의(예를들어 Greek πλατύς 그러나 산스크리트 prthivi) 또는 유성자음과 무성자음들의(예를들어 Latin uiuidus, Sanskrit jīvatha-s) 까다로운 선택들에 관한 타당한 설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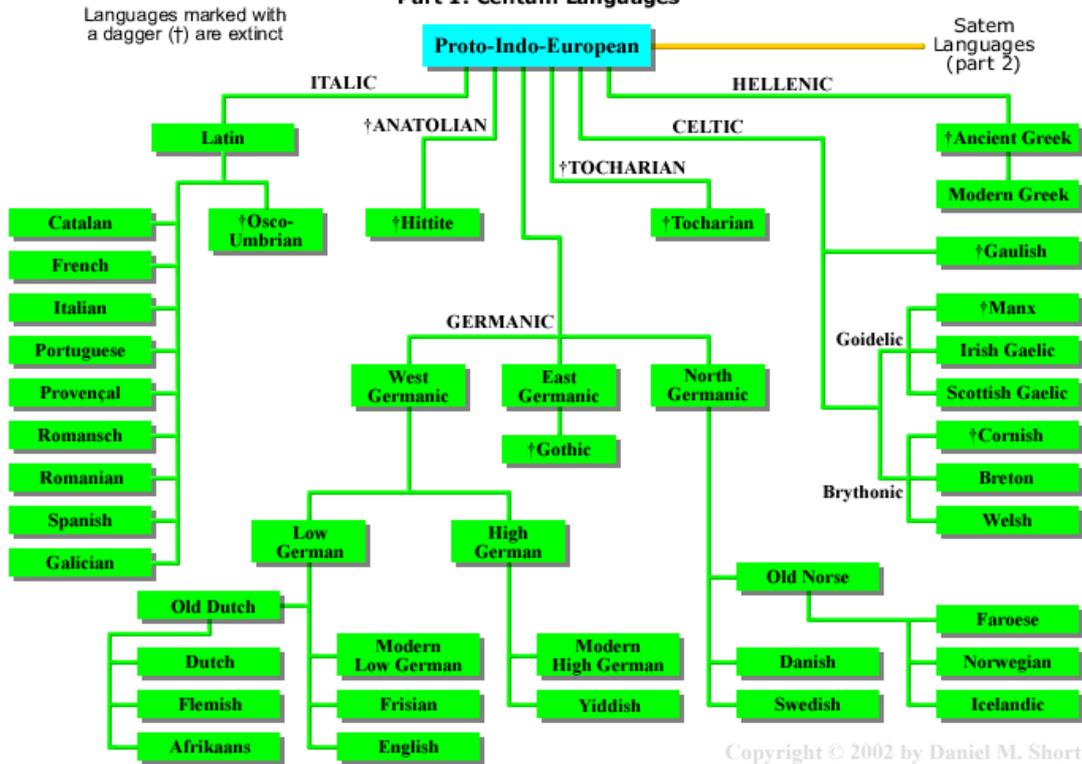
심지어 보다 더 중요한 결과는 토탈적인 갯 수의 음소들을 지녔다고 지금 믿게 하는 인도-유럽어 음성학적 체계의 토탈적인 재 구성이었다. 음소의 그 토탈적인 개수는 2의 제곱(power), viz. 2<sup>5</sup>; 곧 p b; t d; k g; qu gu; H<sub>1</sub> H<sub>2</sub> H<sub>3</sub>; s; r l; m n; j ŋ; ě; H<sub>1</sub> 또는 H<sub>2</sub> 또는 H<sub>3</sub> 또는 j ŋ r l m n과 묶어지는 ě; r; l m n; j ŋ; ě; r; l m n; j ŋ; ě; r; l m n.

//과거와 현재 유럽 언어 대부분을 포함하는 그리고 이란을 넘어 인도 아대륙(subcontinent, 亞大陸)의 북쪽 절반으로까지 확장하는 커다란 그리고 잘 규정된 발생적인 어군에게 지리학적인 이유에서 주어진 이름이 바로 인도-유럽어(Indo-European)이다.

라틴어와 그리스어와 현대 유럽 언어들에 오랫동안 친숙했던 유럽 학자들에게 18 세기에 산스크리트어의 소개는 언어학적인 관계 개념에 관한 혁명을 일으켰다. William Jones 경은 다른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19 세기 첫 10 년 동안 탐구했던 이런 언어들의 공통의 기원을 1786 년에 주장했다. 자신과 거의 동시대인인 Rasmus Rask와 더불어 처음으로 올바르게 인도유럽어군의 관계와 비슷함을 봤던 Franz Bopp에 의해서 1816년 비교문법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시작됐다. 양자 모두 소멸된, 두 개의 새로운 가지들 곧 Anatolian과 Tocharian이 20 세기에 더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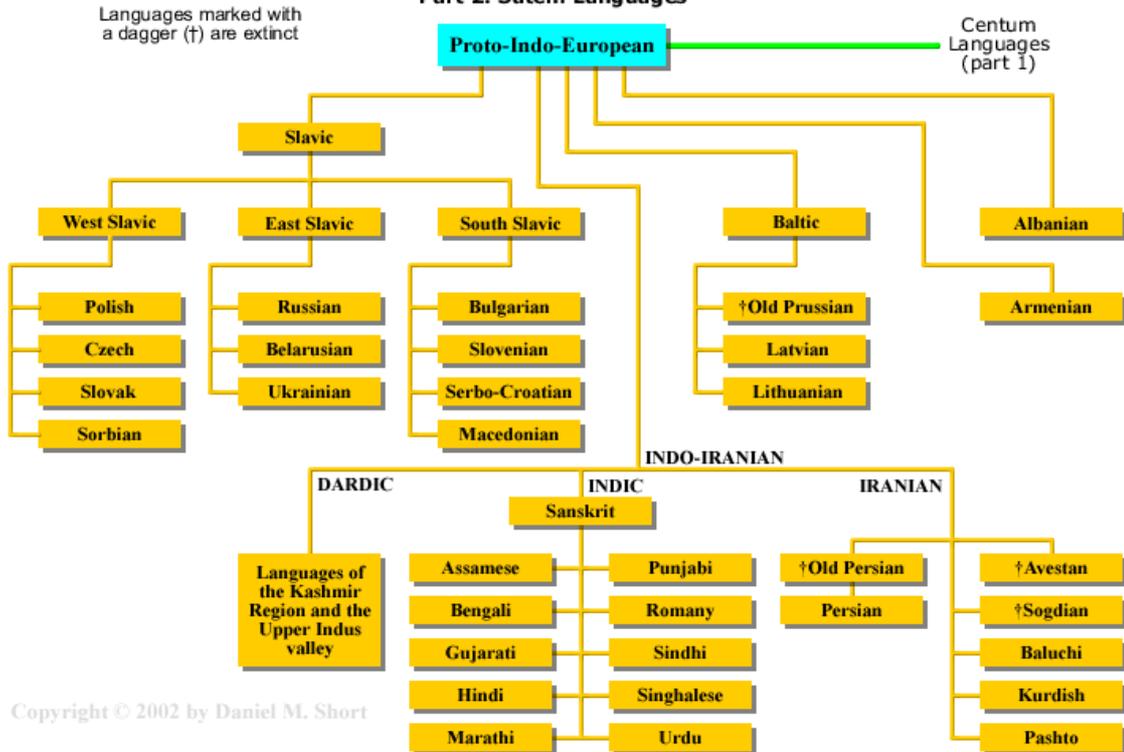
## Indo-European Language Tr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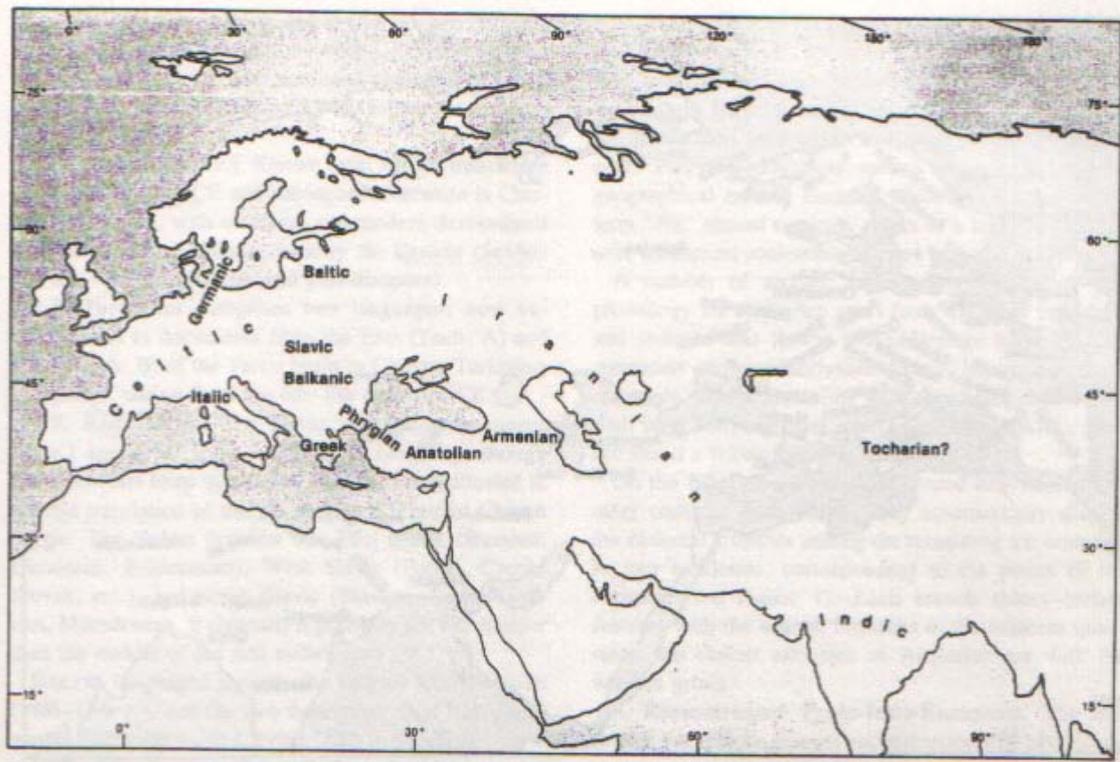
### Part 1: Centum Languages



## Indo-European Language Tree

### Part 2: Satem Langu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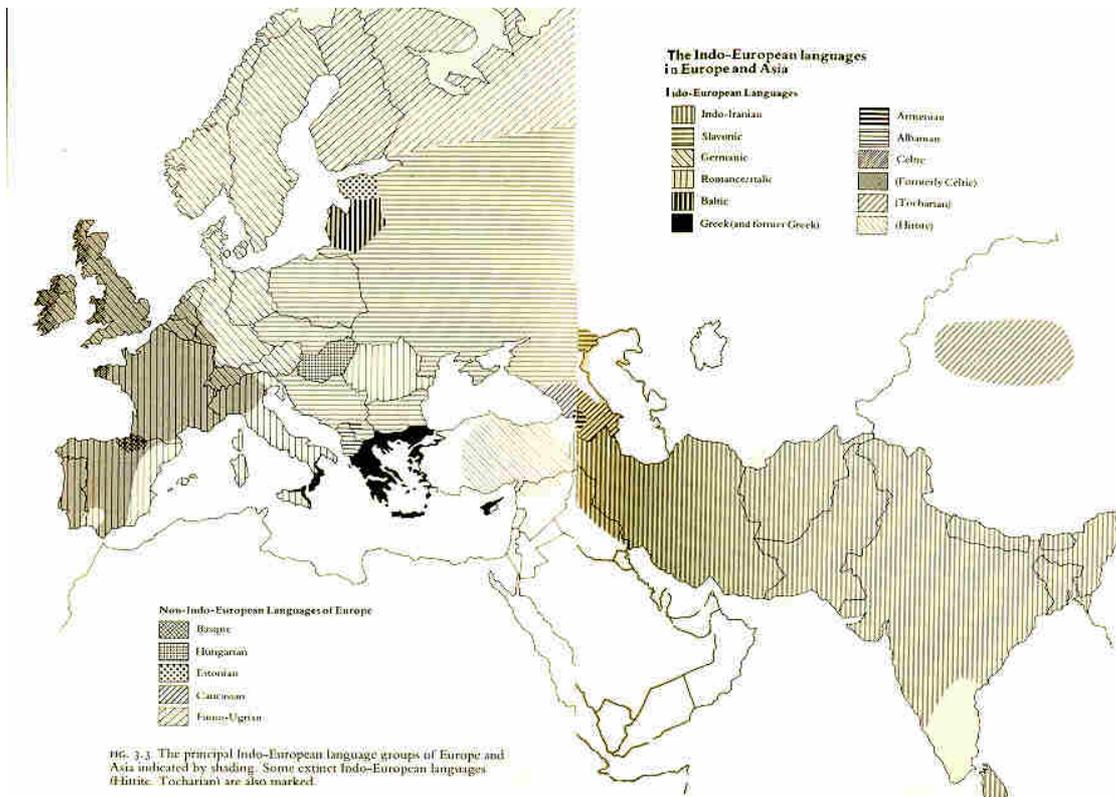




MAP 1. Distribution of Indo-European Languages in the First Millennium BCE



MAP 2. Distribution of Indo-European Languages in Modern Times (Old World)



### 8-3)가지들(branches).

인도 유럽어군의 주요 가지들은 주요언어들과 그것들의 입증과 더불어, 그것들의 가장 이른 역사적인 증거(attestation)의 순서에 따라 아래에 주어진다 (Kuryłowicz & Mayhofer 1968-86, Bednaczuk 1986-88)을 보라.

#### 8-3-1)Anatolian.

Hittite(122쪽) 제국의 수도였던, 중부 터키 Hattusas(지금의 Boğazkale 그 당시 Boğzköy 근방)에서의 발굴들은 점토판에 **췌기문자(Cuneiform, 71, 13쪽)스크립트**로 쓰여진, 히타이트 내 광범위한 문서들을 파냈다. 문헌학적으로 우리는 고대 히타이트어(약 기원전 1700-1500)과 중기 히타이트어(기원전 1500-1350)과 신-히타이트어(1350-1200) 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른 두 친족 언어 곧 Hattusas의 북서쪽에서 말해진 *Palaic*과 대부분의 남서 Anatolia에서 말해졌던 췌기문자 *Luvian*의 단편적인 유물들이 동일한 채원들에서 발견됐다. 북서쪽의 *Luvian* 형식은 **Trojans의 언어**일수도 있다.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방언은 (전에 hieroglyphic Hittite라고 불리웠던, )원주민의 그림문자 음절로 쓰여진 Hieroglyphic(29쪽) *Luvian*이다. 그것은 중기와 신-히타이트 시대로부터 그리고 북 시리아 지역의 수 많은 비문들(기원전 1000-750)로부터 입증됐다. 북서 Anatolia의 고전시대로부터 비문들이 Lycian(기원전 5-4세기)과 북쪽으로 더 나아가 서쪽 Lydian(기원전 6-4세기)에 있다. Lycian은 분명히 다양한 *Luvian*으로부터 발전됐다. 다른 아나톨리아어들은 아직 하위 그룹으로 구성될수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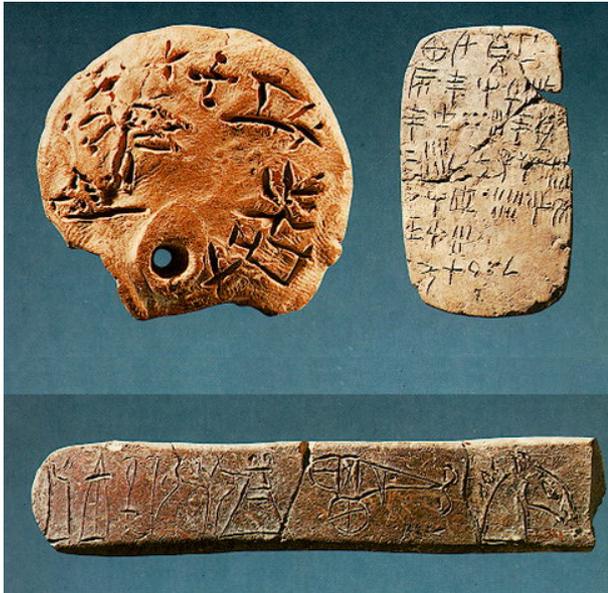
**8-3-2)Indo-Iranian(97쪽)**은 **Indic**(또는 Indo-Aryan)과 **Iranian** 그리고 세계 *Nuristan*(Kafiri) 등의 큰 고대 집단들을 포함한다. Nuristani는 먼 북 아프리카 스탠과 이웃 파키스탄과 인도에서 현대에 확인된다. 가장 초기의 인도어는 Anatolian 텍스트들(기원전 약 15세기)로된 단어들과 이름들로 구성된다.

베다 **산스크리트어**로된 확장된 인도 텍스트들은 그것의 가장 초기 부분들이 아마 기원전 두 번째 밀레니엄의 후반부 편잡에서 작성됐을 **리그베다**와 더불어 시작한다. 그것들은 다른 베다들과 Brāhmaṇas와 Sūtras 등을 통해 약 기원전 500년까지 계속 이어지며, 그 언어는 Pāṇini의 문법 속에서 **고전 산스크리트어**로 규범화 되어 오늘날까지 학식있는 문어(literary language 文語)로 사용된다. 기원전 5 세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광범위한 중기 인도 문서들(Pali와 Prakrits)를 지니게 된다. 아주 많은 현대 인도-아리아어들은 기원후 1000 년 경부터 포착되기 시작한

다.

남동부 유라시아에 폭 넓게 걸쳐있어 한 때 광범위하게 말해졌던 **Iranian**은 짜라투스투라에 의해 작성된 찬양시(gāthās, 112쪽)-**Gathic Avestan**로 맨 먼저 포착된다.이것들의 날짜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기원전 첫 번째 밀레니엄의 더 젊은 Avestan보다 더 오래됐다. **고대 페르시아어**는 기원전 6-4세기의 Achaemenid 왕들의 기념비적인 비문들로부터 알려진다. 고대 페르시아어는 중기 페르시아어와 현대 페르시아어(Farsi)의 조상이다. 많은 다른 중기 이란언어들은 Pahlavi와 Parthian과 Saka와 Sogdian 등은 Seleucus 시대부터 포착된다. 이슬람 시대에 이르러 우리는 많은 현대 이란언어 중 몇몇을 처음으로 확인한다.

8-3-3)Greek. 처음으로 확인된 문서들은 겨우 1952 년에서야 해독된 음절어



Linear B[? 윗 왼쪽: 크레타 (Crete) 섬 Knossos에서 발굴된 것으로 초기 크레타인의 ‘hieroglyphic’ 스크립트로 쓰여진 점토판으로서 아직도 해독이 안 된 윗 오른쪽 Linear A 보다 이르다?(이 부호는 인터넷 출처를 나타낸다: 서버 프로그램언어 PHP)]로 기원전 13 세기부터 쓰여진 Mycenaean Greek이다. **Alphabetic Greek**은 호메로스의 시들과 더불어 시작, 기원전 800

년 경부터 연속적으로 확인되어, **고전기**와 헬레니스틱 (코이네, **koiné**) 기간을 거쳐 중세(Byzantine)와 현대에로 주욱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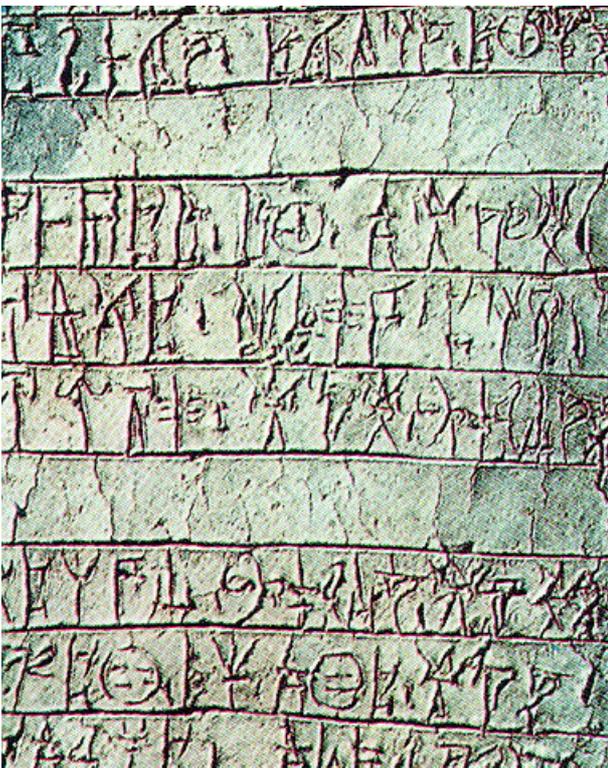
? **선형문자 B** — 1900 년에 고고학자 Arther Evans는 Crete의 Knossos에서 신비스러운 기호들이 새겨진 많은 점토판을 발견했다. 미노스 왕이 괴물 Minotaur를 감금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미궁(labyrinth, 迷宮)과 더불어 왕 미노스의 궁전을 발견했다고 믿으면서 비문(inscriptions, 碑文)들과 이 비문들이 제공하고 있는 언어들을 ‘Minoan’이라고 이름 붙혔다.

에반즈는 비록 제한된 성공만을 거두었지만 자신의 삶 나머지를 그 비문들 해

독에 바쳤다. 그는 그 비문들이 ‘*hieroglyphic*’(상형문자)와 Linear A와 Linear B라는 다른 세 가지 쓰기 체계들을 나타낸다는 것을 인식했다.

상형문자 스크립은 단지 인장석(seal stone, 印章石)에만 나타나지만 그래도 해독 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해독되지 않은 **Linear A**는 그 상형문자로부터 전개되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Linear B는 아마 Linear로부터 전개되어 나왔을 것이다. 비록 그 두 스크립트 사이의 관계가 불분명하지만 말이다.

에반즈는 선형문자(Linear, 線形文字) B의 짧은 선은 낱말을 나누는 것들이라고 여겼다. 마찬가지로 그는 그로하여금 그 스크립트는 주로 그림문자(*pictographic*)라고 믿게끔 한 많은 그림문자들과 그리고 계산체계를 해독했다. 마찬가지로 그는 선형문자 B와 그리고 해독됐던 **키프로스 스크립트**(Cypriot script) 사이의 많은 유사점(Parallels)들을 발견했다. 이것은 **선형문자 B**에 의해 나타내진 그 언어



가 그리스어의 고대 형식이었던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인정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선형문자 B는 그리스어와는 관련없는 언어인 미노아 사람들의 언어로 사용됐다고 확신하면서 말이다.

1939년에 선형문자 B가 새겨진 많은 점토판들이, 선형문자 B는 단지 Crete에서만 사용됐다고 생각했던 에반즈를 많이 놀래키면서, 그리스 본토 Pylos(좌측 그림)에서 발견됐다. Pylos의 Mycenaean쪽에서 발굴된 점토판들은 일련의 다른 신들의 계보를 기록한다. 이것은 필로스 궁전 파괴 때 우연히 불에 의

해 구원된 것이었다.

Micheal Ventris(1922-1956)는 결국 1953년에 선형문자 B를 해독해 낸 사람이었다. 그의 관심은 아더 에반즈에 의해 조직된 미노아 세계 전시회에 수학여행 온 1936년에 폭발했다. 이후 17년 동안 벤트리스는 선형문자 B를 이해하는데에 고군분투했다. 처음에 그는 선형문자 B가 그리스어라는 데에 회의심을 품

었다. 비록 심지어 해독된 많은 낱말들이 그리이스의 원시형식(archaic form)을 닮았었지만 말이다. 후에 초기 그리이스어 전문가 John Chadwick의 도움으로 벤 트리스는 이유있는 의구심을 넘어서서 선형문자 B가 실로 그리이스어를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아래 그림1은 음절(syllabary, 音節)적인 선형문자 B이며, 그림2 선형문자 (Linear, 線形文字) B의 어표(logograms, 語標)들은 전체 낱말들과 교역(traded, 交易)항목들을 주로 나타내고 있다. 선형문자 주로 교역행위들을 기록하는 데에 사용됐으므로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어표들 몇 몇은 나타내어지고 있는 물건들(things)을 닮았기에 그림문자(pictograms)들이라고 불리워질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어표들이 해독됐던 것은 아니다.

𐀀	𐀁	𐀂	𐀃	𐀄	𐀅	𐀆	𐀇	𐀈	𐀉	𐀊	𐀋	𐀌
a	da	ja	ka	ma	na	pa	qa	ra	sa	ta	wa	za
𐀍	𐀎	𐀏	𐀐	𐀑	𐀒	𐀓	𐀔	𐀕	𐀖	𐀗	𐀘	𐀙
e	de	je	ke	me	ne	pe	qe	re	se	te	we	ze
𐀚	𐀛		𐀜	𐀝	𐀞	𐀟	𐀠	𐀡	𐀢	𐀣	𐀤	
i	di		ki	mi	ni	pi	qi	ri	si	ti	wi	
𐀥	𐀦	𐀧	𐀨	𐀩	𐀪	𐀫	𐀬	𐀭	𐀮	𐀯	𐀰	𐀱
o	do	jo	ko	ma	no	po	qo	ro	so	to	wo	zo
𐀲	𐀳	𐀴	𐀵	𐀶	𐀷	𐀸		𐀹	𐀺	𐀻		
u	du	ju	ku	mu	nu	pu		ru	su	t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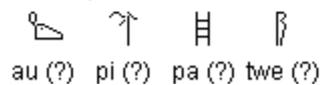
그림1: 음절적인 선형문자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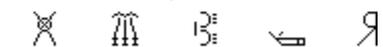
그림2: 어표로서의 선형문자 B

	A	E	I	O	U	A2	O2	U2
D								
J								
K								
M								
N								
P								
Q								
R								
S								
T								
W								
Z								

Other symbols



Unclassified symbols



**선형문자 A** - 선형문자 A를 선형문자 B와 구분시키는 특색은 다음과 같다: ㄱ) 선형문자 A는 기원전 약 1800 년 경부터 기원전 1450 년 사이에 사용됐다; ㄴ) 선형문자 A는 음절들을 나타내는 음성 기호들 60 개와 소리들과 구체적인 대상들 또는 추상적인 관념들을 나타내는 sematographic 기호들이 뒤섞인 스크립트이다. ㄷ) 많은 기호들이 선형문자 B에서 사용된 것들을 닮아 있으며 그리고 동일상 발음이 배정돼있다. ㄹ) 선형문자 A는 아마 교역의 기

록들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됐을 점토판들위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평 진행하며 쓰여졌다.

선형문자 A의 기호들을 어떻게 음역하느냐에 관한 일치는 있지 않다. 앞 쪽 좌측에서 보여지는 방법은 가능한 하나의 음역일 뿐이다.

**Cypriot syllabary – 기원**

키프로스 음절(Cypriot syllabary) 또는 Cypro-Minoan(키프로스-미노아) 글쓰기는 크레테의 선형문자 A 또는 가능하게 선형문자 B로부터 전개된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이것들의 정확한 기원들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말이다. 키프로스 음절문자는 기원전 약 800 – 200 년까지 사용됐다.

주목할만한 특색들로는 ㄱ) 보통 수평선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여진다. ㄴ) 낱말들은 분리(word breaks)되어 표시되지 않는다. 아래 키프로스 음절문자들은 해독되어야 한다(출처: <http://www.omniglot.com/writing/linearb.htm> 2005년10월23일) ?.

✳	┆	✳	↑	≠	∟	✳	⊥	Ω	V	✳	)	∅
a	ta	ga	ka	pa	la	ma	na	ra	sa	va	xa	ya
✳	↓		✳	⚡	8	✳	⊥	↑	≡	I	(	
e	te		ke	pe	le	me	ne	re	se	ve	xe	
✳	↑	⊥	∟	∟	∟	∟	∟	∟	∟	✳		
i	ti	ki	pi	li	mi	ni	ri	si	vi			
∟	⊥	∟	∟	+	⊕	∟	∟	∟	∟	∟	∟	∟
o	to	ko	po	lo	mo	no	ro	so	vo	zo	yo	
∟	⊥	✳	∟	∟	∟	∟	∟	∟	∟			
u	tu	ku	pu	lu	mu	nu	ru	su	vu			

8-3-4)Italic. *Old Latin*은 기원전 6 세기부터 기원전 3 세기까지 짧은 비문들에서 확인된다. 그로부터 계속하여 우리는 **classical Latin**의 풍부한 문서를 지니게 된다. *Oscan*과 *Umbrian* 등 다른 주요 Italic dialets은 기원전 4세기부터 기원전 1세기까지 비문들에서 확인된다. 라틴어는 정복에 의해서 퍼지면서 다른 Italic 방언들을 갈아치우다가 결국 남 중앙 유럽 큰 지역에서 우세하게 된다. Portugal에서 Rumania에 이르는(지도2 참조) 중세와 현대 **Romance(로만스)** 언

어들이 바로 이 말해진(구어체, *spoken*) 언어들의 후손이다.

8-3-5) **Celtic** 언어들은 Iberian 반도로부터 남부 독일과 Po 계곡과 Austria를 거쳐 Danube 평원들에 이르러 중앙 Anatolia의 Galatia까지의 유럽 큰 지역에서 기원전 첫 번째 밀레니엄에 말해졌다. 우리는 지리학적으로 *Continental Celtic*(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후 3세기, 소멸됨. Gaulish, Celtiberian 등 등)와 전에 그리고 지금 British Isles에서 말해졌고 말해지고 있는 언어들인 *Insular Celtic*을 구분한다. 반도 켈트어, 후자는 Ireland의 **Goedelic(Gaelic)**와 Britain의 **Brythonic(British)** 두 그룹을 형성한다. Goedelic, 전자는 Irish(Primitive 또는 Ogam, 기원후 400-600)와 Old Irish, 600-900와 Middle, 900-1200 그리고 현대(1200+), 마찬가지로 Scottish Gaelic(1200+), 그리고 소멸된 Manx를 포함하며, Brythonic은 Welsh(Old, 기원후 8-12세기; Middle, 기원후 약 12-14세기; 현대) 더하기 Breton(Old와 Modern)과 소멸된 Cornish를 포함한다.

8-3-6)**Germanic**. 가장 초기의 대표적인 광범위한 EastGermanic은 기원후 4세기 성서번역으로부터 알려진 (그러나 소멸된)*Gothic*이다. 북부 독일어는 몇몇 Runic 비문들(3rd c. CE+)과 Old Norse(약 기원후 9-16세기)와 East(Danish, Swedish)스칸디나비아 언어들로부터 확인된다. 가장 이른 주요한 서부 독일어 기념물들은 Old English(약 700 CE+)과 Old High German(약 900+)으로, 중세 후기와 현대 형식의 영어와 Frisian과 Dutch와 Low German과 High German과 더불어 쓰여져 있다.

#### 8-3-7)Armenian.

Classical Armenian은 기원후 5세기 성경 번역과 연이어진 문학, 그리고 여러 방언들로 말해진 중세와 현대 후손들, 특히 동부(Soviet)와 서부(Turkish와 diaspora 이후) 방언과 더불어 알려진다.

8-3-8)**Tocharian**은 Shinese Turkestan(Xinjiang) Tarim 호수의 동쪽(Toch. A)과 서쪽(Toch. B)으로부터의 기원후 6-8세기까지 날짜 메겨지는 문서들 안에서 발견된다.

### 8-3-9)Balto-Slavic.

슬라브어와 발트어는 비록 몇몇 학자들이 그것들을 따로 분리하기는 해도 단일한 하나의 인도유럽어 하위 그룹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Slavic은 고대 교회 슬라브어로 기원후 9 세기의 성서번역에서 처음으로 확인된다. 동 슬라브어(Russian, Ukrainian, Belorussian)와 서 슬라브어(Polish, Czech, Slovak 등)과 남 슬라브어(Slovene, Serbo-Croatian, Macedonian, Bulgarian)로 방언의 나뉘는 아마 기원후 첫 밀레니엄 중반부 보다 더 오래되지 않는 것 같다.

Baltic language들은 소멸된 Old Prussian(14-17세기)과 융성하는 동 발트 언어들 Lithuanian과 Latvian(16세기 이후)을 포함한다.

8-3-10)Albanian은 단지 15세기부터 북쪽 방언(Gheg)과 남쪽 방언(Tosk) 등 두 개의 방언으로만 알려진다. 몇몇 학자들은 Albanian을 역사 이전의 Eastern Balkan Language의 후손으로 본다.

분명히 인도유럽어이지만 그 기원에 있어 논쟁이 많은 다른 단편적으로 확인된(attested)언어들은 Phrygian(서 중앙 Anatolia, 기원전 8-5세기, 기원후1-2세기의 짧은 비문들)와 Messapic(이탈리아의 ‘발 뒤꿈치’(heel))이다. 양자는 때로 단지 지리학적인 이유만으로 연약하게 이해된 고대 발칸(Balkan) 언어들과 짝지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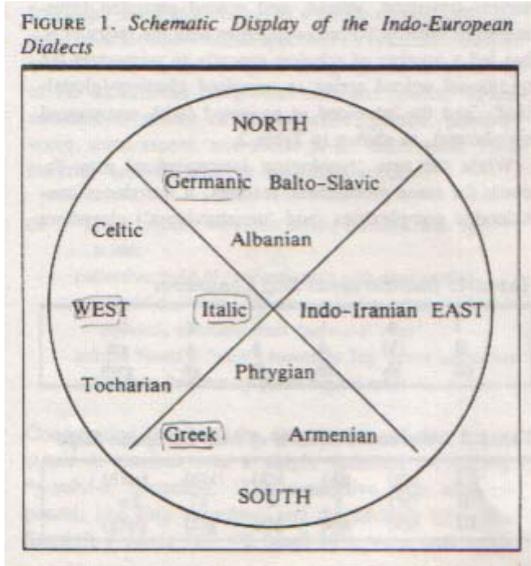
### 8-4)하위 그룹화(Subgrouping).

인도 유럽어의 열 또는 열 한 개 확인된 가지들은 큰 하위 그룹들로 배열되면서, 말하는 자들이 그것들의 역사적인 확인지역에 도달하기 오래 전의 한 기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원시 인도 유럽어 내부의 방언적 나뉘음을 반영한다. 인도유럽어들이 수 천년에 걸친 크고 작은 일련의 이주(migrations, 移住)들에 의해 유럽과 남서 아시아에서 역사적으로 자신들이 확보한 땅으로 가져와졌다는 것은 고고학적인 기록으로부터 선명해진다. 시베리아 스텝지대와 사해의 동쪽이, 설령 인도유럽어족의 궁극적인 ‘요람’은 아니라 하더라도, 기원전 다섯 번째 밀레니엄 중반부에 발칸을 향한 서쪽으로 그리고 넘어가 아나톨리아에로 그리고 남쪽으로 그런다음 이란과 인도를 향한 동쪽으로 움직이기 위한 의의있는 무대지역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주장한다. 인도 유럽어의 방언들의 단절이 이러 저러한 무대 지역

에서 생겨났을 것처럼 보인다. 원시인도유럽어는 의심할것도없이 유라시아의 드넓은 공정한 지리학적인 지역에 걸쳐 말해졌다. 우리가 재 구성하는 ‘원시인도유럽어’는 일천년 이상의 시간적 연속 속에서 말해진 언어를 확실히 지시한다. 형태론과 음성학에 있어서의 많은 시원적인 특색들은 Anatolian을 다른 가지들과 분리시켜서 그것이 가장 이른 것임을 가리킨다. 그러나 아나톨리아어는 원시인도유럽어로부터 여전히 파생되어 잔존한다. 그리고 추정적인 ‘Indo-Hittite’로부터 아나톨리아어와 인도유럽어를 파생시켜, 전자를 후자의 자매언어로 만들려는 주기

적인 노력은 동력(following)을 얻지 못한다.

공유된 많은 새로움들과 다른 공통 특색들을 토대로하여, 우리들은 캠퍼스의 점들에 상응하는 사분면(quadrants, 四分面, 왼쪽 그림) 안에 존속하는 열개 가지들 사이의 방언적인 유사성들을 도식적으로 나타낼 수 있으리라. 각 가지는 연해있는 사분면 안의 가장 가까운 가지들과 어떤 특색을 공유한다. 아나톨리아어의 가장 근접한 유사성은 서



부 그룹과 함께한다.

### 8-5) 재 구성된 원시-인도-유러피안(Proto-Indo-European).

다음의 단락들은 재구성된 원시인도유럽어를 음성학적으로 그리고 형태론적으로 논의한다. 세부사항을 위해서는 특히 Brugmann & Delbrück 1897-1916, Meillet 1937, Kuryłowicz & Mayrhofer 1968-1986, 그리고 Gamkrelidze & Ivanov 1984를 참조하라.

#### 8-5-1)음성학.

인도 유럽어의 음성학적인 체계 안에서는 (파열음과 치찰음)obstruents과 후두음(laryngeals)들과 모음들과 자음들로 구분된다. 파열(stop) 자음들의 폐 부유한 체계가 다섯 조음점들(points of articulation, 調音點) 곧 순음(labial)과 apico-dental(아피코-치음: 윗니 front를 혀의 apex(정점>apico)를 붙였다 떼어내면서

소리 냐)과 연구개음(velar)과 labio-velar(입술-연구개음: 입술을 둥글게하면서 혀의 뒤쪽을 입 천장 연구개 부위 가까이로 움직이는 가운데 나는 소리)과 그리고 조음(調音)의 세 방식(manner) 곧 무성음과 유성음과 기식유성음(voiced aspirated, 氣息有聲音)을 가지고 전통적으로 재구성됐다(아래 도표2 참조)

이런 풍부한 파열음들과 나란히 단지 하나의 단일한 계속음(continuant)— 이음(異音, allophonically)적으로 [z]로 유성음화되는 치찰음(sibilant)이 있다. 유성순음(labial, 脣音)은 부적절하게 드물다. 거의 모든 언어들은 tectals 또는 후설음(dorsals, 後舌音; 후음, gutturals, 喉音)에 있어서의 전설/후설(front/back)의 대조를 위한—서쪽 방언에서는 k vs. k<sup>w</sup>와 동쪽 방언에서는  $\hat{k}$  vs. k— 좋은 증거를 보여준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p t k k<sup>w</sup> 라는 단지 네 개의 조음점들만을 추측한다. 그러나 Luvian에서의 새로운 증거는 다른 논의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본디 세 가지 길의 대조  $\hat{k}$  k k<sup>w</sup>였던 전통적인 재구성을 지탱할수도 있으리라. 대부분의 서구 방언(라틴어 ‘hundred’로부터 온 소위 centum 언어, 122, 124, 125쪽)들은  $\hat{k}$  k > k로 합병하는[즉  $\hat{k}$  k를 k로 합병하는] 반면, 동부 그룹들은  $\hat{k}$  k<sup>w</sup>>k로 합병한다[ $\hat{k}$  k<sup>w</sup>을 k로 합병한다](Avestan satəm ‘hundred’에서 온 satum 해결). 후자의 경우, 전설 경구개음(front palatals, 前舌 硬口蓋音)들은 더 나아가서 처음에는 파찰음(affricates, 破擦音)들로 그 다음에는 치음들로 발전했다. 무성음과 유성음과 유성기식음 (voiced aspirated) 이라는 일련의 세 가지 것의 유형론(topological)적인 드뭄(‘unnaturalness’, rarity)은 b의 드뭄과 더불어 많은 학자들로 하여금, 아래 도표2에서 보여진 것처럼, 최근에 전통적인 일련의 유성음들을 후음화된 방출 무성음[unvoiced ejective(glottalized)]으로서 그리고 무성음을(기식화되지 않은 이음, allophones, 異音과 더불어) 기식화된 것으로서 재 해석하도록 이끌고 갔다.

도표1: 인도-유럽어 파열음들(Stop Consonants)					
I	p	t	$\hat{k}$	k	kw
II	(b)	d	$\hat{g}$	g	gw
III	bh	dh	$\hat{gh}$	gh	gwh

I	p(h)	t(h)	ḱ(h)	k(h)	kw(h)
II	(p')	t'	ḱ'	k'	kw'
III	b(h)	d(h)	ḡh	gh	gw(h)

몇몇 문제점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유형론적인 해석’은 아주 복잡함들( 그리고 ‘부자연스러움’)을 그 체계의 다른 곳에서 이끌어들이는다. 여전히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해결을 기다린다(Polomé 1982), Gamkrelidze & Ivanov 1984).

‘후두음’(laryngeal, 목청소리, 喉頭音) 이라는 용어는 논쟁적인 음가의 h- 같은 일련의 소리에 느슨하게 적용된다. 그것들은 여기에서 h<sub>1</sub> h<sub>2</sub> h<sub>3</sub> 이라고 표기된다. 같은 표기법(notations, 表記法)들은 a<sub>1</sub> a<sub>2</sub> a<sub>3</sub>과 E A O이다. (어떤 학자들은 단지 하나의 후음만을 추측하는 반면 다른 학자들은 넷 또는 그 보다 많은 후음들을 추측한다.) 두 개의 후두음 h<sub>2</sub> h<sub>3</sub>은 각기 a 또는 o에게 이웃 모음 e 색을 칠하는 속성을 그 원시-언어에서 지녔다. 더 후에 방언들이 분리되는 동안 또는 분리된 후에 후두음들은 환경과 방언에 의존하는 다른 음성학적이 귀결과 더불어 손실되는 경향을 보인다. 어떤 후두음이 충분한 모음 e 또는 색칠된(colored) a 또는 o 에 선행할 때 그리고 비-음절적인 것이 잇따를 때, 그 손실은 길어지는 보상에 의해 긴 모음 ē/ā/ō로 된다. 초기 역사적 방언들의 대부분의 긴모음들은 이런 재원으로부터 온다.

R로 기호화되는 ‘유성음’(sonants)들 이라는 용어 아래에 두 개의 비음(nasals, 鼻音) m n과 두 개의 유음(liquid, 流音) r l과 반모음 j(=y)와 u(=w)이 그룹지워질 수 있다. 이런 원시인도유럽어 단음(phones, 單音)들은 위에서처럼, 비-음절적인 것으로서 또는 (/m̥ n̥ r̥ l̥/ 더하기 /i u/로 옮겨써지는) 음절로서, 해당 문맥에 따라 기능할 수 있다. 그래서 ‘개’(dog) 라는 낱말의 경우 소유격(2격) 단수 -es 앞의 ḱun은 \*[ḱunés](Ved. súnas)로 그러나 inst. pl. 앞에서는 \*[ḱunbhís](Ved. śvábhis)로 나타난다. 비-음절적인 그리고 음절적인 다양함(variants)들의 인도유럽어의 상호 보충적인 분포는 갈라진(divergent) 반사음(reflexes, 反射音)들인 R와 R̥를 갖는 모든 인도유럽어 방언들에서 폐기된다.

원시인도유럽어 **모음들**은 e a o, 더하기 반모음  $\underset{\cdot}{j}$ (=y)와  $\underset{\cdot}{u}$ (=w)와 더불어 상호보충적인 혀의위치가높은 고모음(high vowels, 高母音) i u이다. 다섯 모든 모음들은 긴음과 짧은음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모음들은 형태-음성학적으로나 분포적으로 한 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인(primary) 단음(short 短音) a와 장음 ā의 경우 어떤 것들은 아주 자주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소수의 어근들에게만 단지 재구성될 수 있다. 기본적인  $\underset{\cdot}{i}$   $\underset{\cdot}{u}$ 도 비슷한 방식으로 드물다. 자주 자신들의 짧은 짝들과 **짧은(comparable)긴 모음들**은 후두음의 소실과 (i u를 포함) 선행하는 모음들의 보상적인 길어짐—이러한 길어짐은 개별 방언들의 역사에 고유하게 속한다— 후에만 단지 발견된다. //

히타이트어 텍스트 발견의 주요한 결과는 토탈적인 갯 수의 음소들을 지녔다고 지금 믿게 하는 인도-유럽어 음성학적 체계의 토탈적인 재 구성이었다. 음소의 그 토탈적인 개수는 2의 제곱(power), viz. 2<sup>5</sup>; 곧 p b; t d; k g; qu gu; H<sub>1</sub> H<sub>2</sub> H<sub>3</sub>; s; r l; m n;  $\underset{\cdot}{j}$   $\underset{\cdot}{u}$ ; ě; H<sub>1</sub> 또는 H<sub>2</sub> 또는 H<sub>3</sub> 또는  $\underset{\cdot}{j}$   $\underset{\cdot}{u}$  r l m n과 묶어지는 ě; r l m n; ǐ ŭ; ī ū.

// 단일한 인도유럽어 낱말의 **엑센트**는 Balto-Slavic과 Anatolian과 Germanic으로부터 마찬가지로 Vedic과 Greek으로부터 재 구성될 수 있다. 강세 없거나(atonic) 또는 전접(enclitic, 前接)적인 형식들과는 별도로 각기 인도유럽어 낱말들은 자신의 위치가 낱말 형성과 변화의 규칙에 의해 지배되는, 그리고 자신의 현재 또는 부재가 구문론적 규칙들의 한 기능인 단일한 엑센트를 지닌다. 전승 체계는 심지어 위에서 언급된 방언들에서조차 심오한 변화를 겪는다. 나머지 방언들은 그것을 더 새롭고 독립적인 엑센트 체계로 바꾸었다. //

#### 8-5-2)Morphophonemics(형태음소학).

인도유럽어는 모음교체(ablaut 또는 apophony)라고 용어화되는 형태론적 기능들을 표현하고 있는 모음 바꾸는(vocalic alternations) 선택 체계에 의해 도드라진다(profoundly marked). 기본형은 어떤 조건 하에서는 전적으로 사라져버리며 어떤 조건 하에서는 o로 나타날 수도 있는 모음 e이다. 이런 형들은 zero(제로)-등급과 o-등급과 e-등급(grade)을 각 각 드러낸다고 말해진다. 그래서 ‘knee’(무릎)에 해당되는 단어는 다음처럼 나타난다:

ㄱ) \*ĝenu: Hitt. genu, La. genu

ㄴ) \*ĝonu: Ved. jánu, **Gk. gónu**

ㄷ) \*ĝnu-: Ved. jñu-bádh ‘Kneeling’, Gk. dat. pl. peri gnusi ‘about the knees’

보다 더 광범위하게 제한 되지만 여전히 그 원시-언어를 위해 재구성될 수 있는 교체모음들 ē ō는 ‘길어진 등급’(lengthened grade)이라고 용어화된다. ‘knee’와 동족어(cognate, 同族語)인 Gk. gōnía ‘angle’ < \*ĝōnu와 비교해보라.

그 어근이 R로 기호화되는 ‘유성음’(sonants)들 중의 하나를 포함할 때, 제로-등급 형성은 규칙적으로 비-음절적인 것 앞에 모음적인 기능을 하는 그 유성음을 보여줄 것이다. \*bher- (Eng. bear), \*bhor- (Eng. bore), \*bhr̥- (Eng. born)을 비교하라. 긴모음을 지니는 표면상(apparent)의 어근들은 축약(contradiction)으로부터, 즉 긴 후두음 뒤에서 보상적으로 길어짐에 의해서 생겨났다. 모음교체 패턴들은 더 오래된 축약되지 않는 형식들에서 선명해진다:

ㄷ) dō- ‘give’ < \*doh<sub>3</sub>-, La. dō-num ‘gift’  
제로-등급 \*dh<sub>3</sub>- (to-), La. datus ‘given’

긴 ū와 ī는 마찬가지로 축약으로부터 생겨날 수 있다: 충분-등급(full-grade) puh- ‘purify’ (Ved. pávi-tram ‘sieve, 체로치다’는 La. pū-rus ‘pure’에서 축약된 제로-등급 puh-를 지닌다.

**독일어 강변화 동사**는 인도유럽어 모음교체를 선명하게 보존하다. 그러나 그것은 본디 체계의 범위와 특색에 관한 빈약한 반성을 제공할 뿐이다.

### 8-5-3) 형태론(Morphology)

특히 자신들의 초기 무대에서 인도유럽어들은 구문론적 유형의 부유하고 복잡한 형태론을 공유한다. 엑센트(accent, 강세)에 의해 강화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단어는 형태론적인 다양한 요소들과 과정들이 구문론적인 기능들의 우선적인 구현형(exponents, 具現形)들이 그러한 것들이었다. 이 어근에서의 비교 방법의 성공 대부분은 특별한 형태론 안에서의 언어들 사이의 일치의 엄밀함(precision)과 수로부터 온다. 다양한 방언들에서의 ‘dog’와 ‘slay’에 해당되는 낱말들의 부분적인 페러다임들인, 재구성된 것으로서의 아래 도표3을 비교하라.

	Hitt.	Gk.	Ved.	Lith.	OIr.	PIE
1격	kuwas	kúōn	ś(u)vá	šuō	cú	*k̂(u)uó
4격	kuwanan	kúna	śvānam	šuni	coin	*k̂uón-m̄
2격	kūnas	kunós	śunas	šuñs	con	*k̂un-és
		Hitt.	Ved.	PIE		
직설법3인칭단수현재		kuenzi	hánti	*gwhén-ti		
직설법3인칭복수현재		kunanzi	ghnánti	*gwhn-énti		
도표3: 인도유럽어 ‘개’와 ‘죽이다’의 부분적인 범형들						

인도유럽어 형태론의 세 영역들은 어형변화(Inflexion)와 파생(단어형성)과 복합(Compositon)이다. 문장 부분사들(sentential particles)과 접속사들과 (전동사(preverbs, 前動詞)들과 후치사들과 전치사들과 부정사(negations, 否定詞)들과 같은) 부사와 비슷한 형식들(quasi-adverbials, 類似副詞)을 포함한 제한된 부류들을 제외한 모든 단어들은 변한다(inflected). **낱말의 변화 구조는 어근(Root) 더하기 하나 또는 더 많은 접미어들(또는 단일한 삽입사(infix, 挿入辭)) 더하기 어미이다.** 어근은 접미사(들)에 의해 제공되는 더 나아간 문접적 의미들을 지니는 기본적인 사전적 의미론의 핵심(Kernel)이며, 이것에 붙는 문법적인 의미들이 류형적으로 그 단어의 말의 부분들을 규정한다. **어근(Root) 더하기 접미사는 파생의 영역이었던 어간(stem)을 구성했다.** 열린 세트의 어간들은 그 언어의 사전적 기본 재료를 구성했다. 각기 어간은 문장 안에서의 자신의 구문론적 기능을 특수화시키면서 그것의 범주들의 문법적인 의미를 배정하는 굴절(inflexion, 活用)영역인 단일한 어미를 받아들였다. 굴절 범주의 문법적인 의미들로는 명사에서의 격과 수 그리고 형용사의 성 그리고 한정동사의 인칭과 수와 태와 시제/상(tense/aspect)과 법(mood)이 있다. 그래서 어근 \*uéd-는 아래의 단어들을 형성했다:

ㄱ) \*uód-r̄ ‘water’, 중성명사 단수 주격/목적격 체로 어미와 함께.

collective \*uéd-ōr ‘water’, 마찬가지로 형용사 체로 어미와 함께 \*uēd-ó-s ‘wet’, 형용사 남성 주격 단수 \*ud-r-ó-s ‘aquatic’, 명사화된 \*úd-r-o-s ‘otter’

삽입된 \*unéd-ti ‘wets’, 능동직설타동사3인칭 (음성학적 규칙에 의해 \*unetsti)

**복합(Composition)**은 두 개의 사전적 어간들 또는 관념들(notions)을, 예를 들어 \*ṅ-udró-s ‘waterless’와 같이, 활용하는(inflected) 단일한 낱말로 결합하는 것을 포함한다. Eng. barefoot(맨발)와 같은 복합의 소유 유형과 Sanskrit dvádaśa ‘12’(‘2 [그리고] 10’)과 같은 복합의 부가 유형은(additive type) 그 원시-원어에서 잘 나타났다. 전자(the former, 前者) 유형은 특히 사람의 이름들에서 흔했다. 몇몇 인도유럽어들은 복합을 확장시켜 나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발전시켰지만 다른 인도유럽어들은 철저하게 그 복합에 제한을 가하거나 또는 제거시켰다.

생존하는 8 가지들 인도유럽어 대부분 형태론적 체계는 실제로 변경됐으며 실천적으로 활용 중에 있다. 명사에서의 격 체계는 자주, 성(gender, 性)체계에서처럼, 감소되거나 재 구성되거나 제거됐다. 쌍수(dual number, 雙數)는 사실상 제거됐다. 종합적인 형성을 넘어서서 분석적인 그것으로의 확장은 보조사들의 팽창들과 더불어 8 가지 모든 가지들에서 문서로 보여지고 있으며 그리고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그러한 모든 가지들에 편재하는 성향(trend, 性向) 또는 정향(drift, 定向)이다. 그러나 이것은 대부분의 다른 발생적인 어군(families, 語群)들에서 관찰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두드러지게 표시되는 불규칙성 또는 예측불가능성을 위한 절약(tolerance)에 의해 균형잡혀진다. //

#### 8-5-4) 공통의 특성

인도유럽어의 ‘어근’(roots, 이것들은 문법적인 추상들이다)은 자음+모음+자음(예를들어 \*H<sub>1</sub>es-, to be)패턴을 지니며 그리고 (모음 ě는 어근과 접미어 양자에서 손실되며 자음 ŋ는 모음화되는, 산스크리트어 yug-, 그리스어 ζυγ-, Latin에서와 같은 예를들어 \*jēŋ-eg처럼) 모음+자음 패턴의 접미사에 의해 공통으로 확장된다.

인도-유럽어들은 (어간stems들을 형성하기 위한) 낱말 형성의 굴절(inflectional)방법을 사용하며, (예를들어 동사의 능동과 수동형 또는 명사의 행위자와 당하는자와 같은) 기능과 관계를 지시하기 위한 더 나아간 형식들이 있다. 예를들어 모두 ‘yoke’( 멩에)를 의미하는 Sanskrit yugám, Latin iugum, Old English geoc; 또는 Greek ζεύχος(neuter), Latin iuxmentum(beast of burden), (‘to

yoke’, 끝나는 행동을 가리키는 그래서 라틴어에서는 현재시제로 되는, 비음 삼입어와 더불어) Latin iungere. **구문론**에는 어순(*word order*, 語順)이라는 관념이 있으며, 특히 명사들과 대명사들과 형용사들과 동사들의 체계를 구성하는 다른 어형론들(*accidence*)이라는 관념이 있다. 2격(*genitive*)은 영향 또는 행위의 영역을 가리키므로, 2 개의 개념이 서로에게 접촉 (*impinging*)할 때 2 격이 사용된다. 예를들어 (비록 그 교차(*intersection*)가-저자, 소유, 또는 아닌 무엇-이 문맥에 의해 반드시 선명해지더라도) *patris liber* “father’s book” 또는 *capitis damnare* “to condemn in the matter of a capital offense”, 즉 “condemn to death.”.

**Edward Llwyd**는 자신의 *Archaeologia Britannica*(1707)에서 비록 썩 체계적이지는 못하지만, Germanic, Celtic, Greek 그리고 Latin 낱말들을 비교한 첫 번째 사람이었다. 1786년에 Willan Jones 경은 Sanskrit와 Greek와 Latin과 Germanic 사이의 본질적인 역사적 관계에 관한 유명한 관찰을 행했으며, 1816년에 Franz Bopp은 부분적으로 파생언어들의 기록된 형식들 안에 있는 증거로부터 부분적으로 인도-유럽어의 동사체계는 재 구성될 수 있을 것임을 봤다. 그리고 일단 *sarpa* “serpert.”, *pitar* “father”, *asti* “he is”, *dvā* “two”, *trayas* “three” (cf. Latin *serpens*, *pater*, *est*, *duo*, *tres*)과 같은 것들이 서구세계에 알려지자마자 산스크리트어의 어휘 목록들이 급속하게 모아져 분류 정돈된 결과 많은 수의 규칙적인 참고목록(*correspondences*)들이 확정됐다. 이렇게 확정된 것들 중 어떤 것은 결코 의문시 되지 않았다. 사실 만약 현실적으로 있든 있지 않든 세롭게 발견된 아직 해독되지 아니한 어떤 것이 적절하게 아 프리오리 하게 적절한 인도유럽어로 나타나기만 한다면, 해독을 위하여 그 언어에 적용될 수 있을 많은 기준들(*criteria*)이 지금은 존재한다. 이런 기준들은 ㄱ) 동사 ‘to be’의 형식들(이것들은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다); ㄴ) 친족(*kinship*) 용어들; ㄷ) 수사들; ㄹ) 어형론(*accidence*), 특히 동사의 인칭어미들; 예를들어 Sanskrit *bháranti*, Greek *φέρουσι* (후에 *-ουσι*), Latin *ferunt*, Gothic *baírand* Old Church Slavonic *bértō*, 이 단어들은 모두 “they carry”를 의미한다; ㄹ) 대명사 형들; ㅂ) 종합적인 syntactic 기능; 예를들어 회구법의(온화한 명령 또는 자연스런 장래성).

항상 선명하게 ‘fox’(여우)와 구분되는 것은 아닌 ‘wolf’(늑대, 울프) 라는 이름, 하나의 낱말을 예시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울푸는 원시-인도-유럽어를 말하는 자들이 그 동물 자체와 친숙했다는 그래서 반드시 그것의 거주 지역에 살았을 것임을 암시하는(to suggest)규칙적으로 발전된 형들로 충분히 폭 넓게 분포된

낱말이다. 그래서 Sanskrit वृका-, Greek λύκος, Latin (Sabine?) lupus, Gothi wulfs, Old Church Slavonic vlōkō, Lithuanian vilkas. 그리스어 ἀλώπηξ (fox)는 아마 이태리어(라틴어) uulpes “fox”와 확실히 관련된다. 그러나 흥미로운 어떤 일탈(divergences)이 있다: Swedish와 Norwegian은 wolf에 해당되는 varg “the villian,” “criminal”을 사용하며, Irish는 fāel과 (현대 Irish) fael chū을 사용한다; “wolf”(fāel의 어원론은 알려져있지 않다)의 감각에서의 cū allaid(“wild dog”)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대 Irish macfīre(문자적으로 “son of the land”)를 비교하라

( 빈번히 Uncle Remus에서 처럼) 인간존재(human being)를 나타내기 위해 동물들의 이름들을 사용하는 것은 공통이었다. 그래서 우리들은 Sanskrit Vṛka-karman과 Vṛka-bandhu, Greek Λυκοῦργος, Λυκόφρων, Λύκος, Serbian Vuk와 Vukovoj, Old High German Wolf-arn, Wolf-bado, Wolfo, Gothic Wulfila, morden German Wölfflin과 영어 wolf(e)를 별명으로 지닌다. 이것은 거의 마치 그 wolf가 식용(食用) 동물일 것처럼 여겨지지 못하게 한다. 오히려 울프는 지도자 또는 토템(totem)으로 여겨진다. 이와 동일한 길에서 이탈리아 부족 Hirpini는 자신들의 이름을 Romulus와 Remus가 그녀-울프(she-wolf)의 젖을 먹고 자랐다는 전설, 현대 인도에서 꾸준히 우화로서 제공되는 이야기를 상기시키는 hripus “wolf”로부터 파생시켰다. werewolf(Gothic wáir “man”) 라는 관념은 사람을 wolf로 그리고 다시 거꾸로 울프를 사람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의지적 능력을 지니는 존재(being) 라는 관념이다. 동물들 또는 식물들과 나무들의 이름들의 단순한 목록으로부터 결론들을 이끌어내는 것은 분명히 잘못이다. 마찬가지로 이런 이름들이 단지 동물학적이거나 농경적인 목록 이상의 문맥 안 함축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필요하다.

#### //8-5-5)현재의 경향.

음성학과 형태론에 덧붙여 인도-유럽어학자들은 비교역사적인 구문론과 구문론적 재구성에 현실적인 관심을 지니고 있다. 인도유럽어들의 범위와 그것이 확인된 시간의 깊이와 그것들의 관찰 다양성과 구문론적 유형의 변화는 인도유럽어 학자들로 하여금 보편적인 구문론과 구문론적 변화에 관한 가정들을 위한 이상적인 검증(testing)의 토대를 구축하도록 이끈다.

역사적인 언어들의 사전들 이라는 어원론에로의 굉장한 도전이 남아있다(Buck 1949, Pokorny 1948-69, Watkins 1985를 보라). 문화에 관한 집중은 인도유럽어 민족학적이미론(ethnosemantics)를 두드러지게 한다(Benveniste 1969,

Gamkrelidze 1985 & Ivanov 1984).

마찬가지로 동사 학(verbal art)도 역사적이고 비교학적인 측면을 지닌다. 인도유럽어 시학은 천여년 넘게 확장된 예술적인 텍스트들의 엄청나게 부유한 전통을 탐구한다(polomé 1982).

인도유럽어와 Uralic과 Afro-Asiatic(또는 바로 Semitic-Hamitic)과 Kartvelian과 Altaic과 Dravidian과 다른 어군(families, 語群)들 또는 큰 어족(Phyla, 語族)을 연결하는 Nostratic과 같은 더 크고 더 포괄적인 ‘대-어군’(Macro-families)을 발전시키려는 시도와 더불어 몇몇 최근의 작업은 외연이 더 넓은(distant)비교를 행해 왔다. 아직 이러한 노력들은 사변적인 수준에 머무른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발생 언어학적인 관계의 타당한 가정들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기 전까지 더 나아간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언어학적인 탐구의 이런 모든 거리에서의 진보는 연구대상에서 인정된 복잡함의 정도에 비례하여 이루어져 왔으며 그리고 이루어질 것이다.

9) Sino-Tibetan Language (Southeast Asian Languages)





남동아시아는 언어들의 갯 수에 있어서 그리고 언어들 사이의 상호관계의 복잡함에 있어서 모두 세계의 위대한 언어 창고들 중의 하나이다. 단지 *Burma(Myanna)*만으로도 그 국경 이내에서 125 개와 140 개 사이의 언어들이 보고된다. 비록 *Vietnamese, Cambodian, Thai, Malay*와 *Burmes*같은 국가언어들은 수세기 오랜 전통을 지닌 문어(literary languages, 文語)들이지만, Karen과 Shan과 같은 다른 나라 언어들은 과거 백년 동안에 겨우 글쓰는 체계를 획득했을 뿐이다. 나머지 언어들 대부분이 20 세기 중반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차세계대전 이후로 서구와 일본학자들이 여태껏 무시돼오던 비문어(nonliterary languages, 非文語)들에 대해 증가하는 관심을 보여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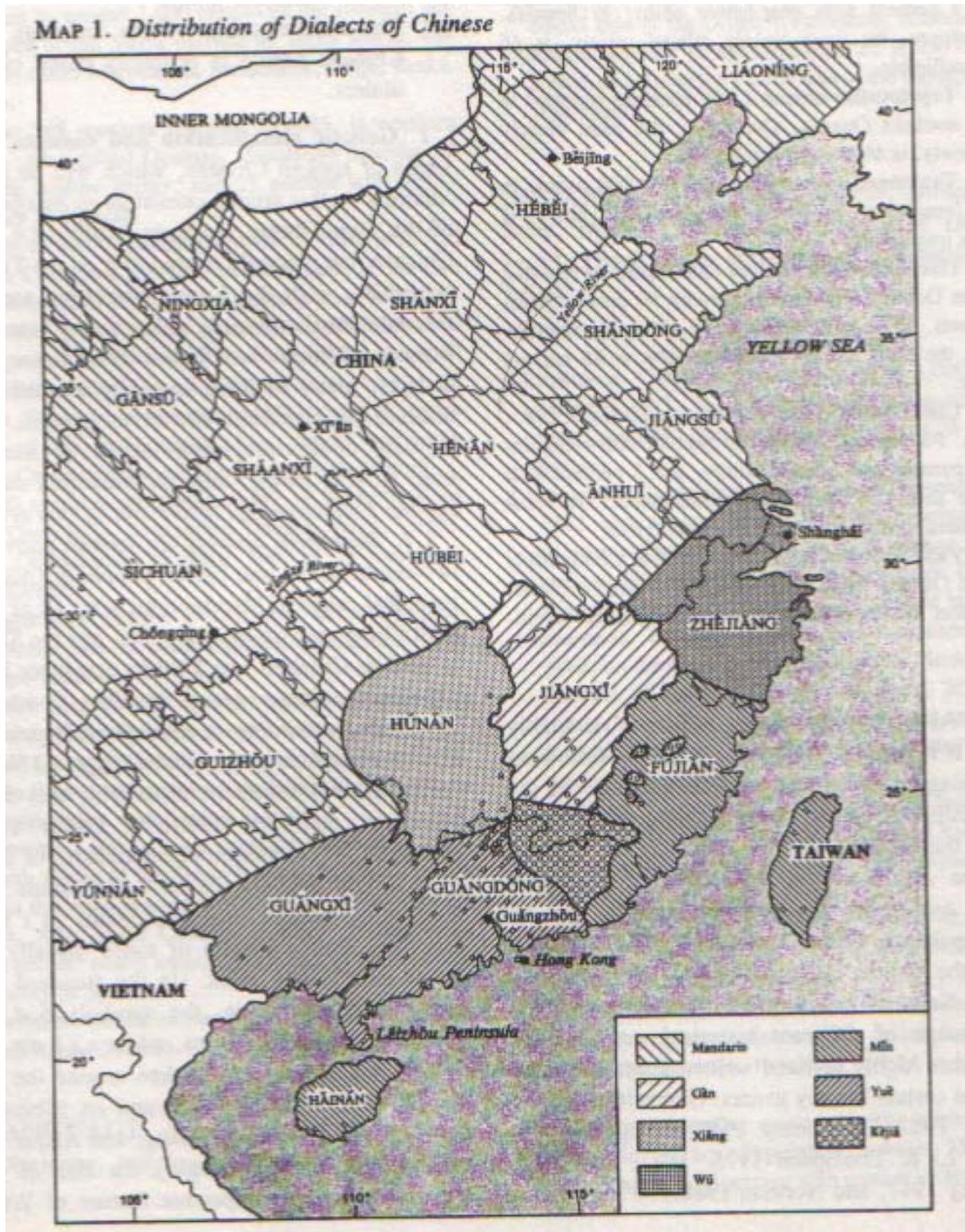
이 정도의 언어학적 차이는 남동아시아는 언급되지 않았던 수천년 동안 인도와 중국 그리고 이들 나라와 태평양 커다란 섬들 사이의 교차로였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동시에 차이나는 언어군들 사이의 오랜 접촉은드넓은 언어 지역에서 어떤 비슷한 특징을 유발시켰다. 발생적으로 교차하는 특징은 신분과 친척관계(k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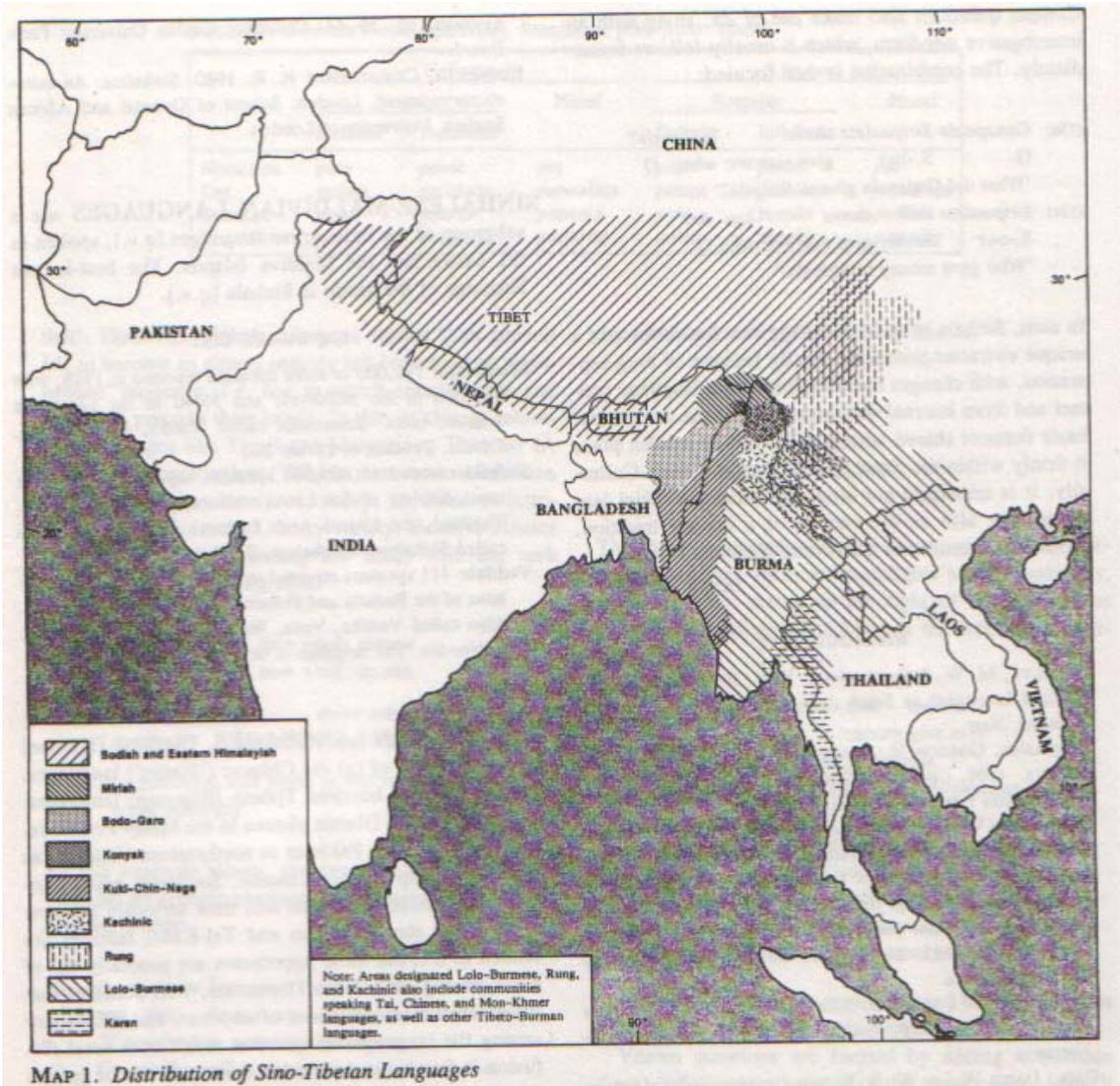
term)의 대명사들과 수 분류사들과 일련의 복잡한 동사(예를들어take-come-give(bring it to me)의 폭넓은 사용을 포함한다. 그 결과 심지어 Thai와 Cambodian과 같은 전혀 관련없는 언어들조차 어느 것이든 영어와의 상호번역 가능성 보다 훨씬 더 많은 자신들 상호간의 번역 가능성을 지닌다.

세 가지 주요한 언어학적 군(families, 群)들이 있다: ㄱ)Austronesian 또는 Malayo-Polynesian; ㄴ)Mon-Khmer; ㄷ)Sino-Tibetan. 잘-확인된 음성학적 상응들에 토대를 둔 현실적인 언어학적 재구성들은 단지 Austreonesian 군의 경우에서만 이루어졌다(번역중인 이 브리타니커는 1969년도 영어 판이다). Malay(Malaya)는 남동 아시아 본토 이 군의 주요한 대표언어이다. Mon-Khmer는 그 가장 협소한 의미에서 Mon(Burma)와 Cambodian 또는 Khmer(Cambodia)를 의미한다. Sino-Tibetan은 ㄱ)Tibeto-Burman ㄴ)Chinese ㄷ)Tai 라는 세 가지들을 지니는 것으로 무난하게(conservatively)묘사될 수 있다. Tibetan(Tibet)과 Burmese(Burma) 라는 두 개의 커다란 문어들에 따라 이름지어진 Tibeto-Burman도 마찬가지로 예를들어 Lushai, Garo, Bodo(Assam), Jingphaw, Kachin(Burma) 그리고 가능하게 Chins와 Nagas(Burma)와 Lolo(남서부중국) 같은 많은 비문어적인 언어들도 포함한다. Karen 언어들(Burma와 Thailand)도 마찬가지로 관련될 수 있으리라. 가장 잘 알려진 Tai 언어들은 Thai 또는 Siamese(Thailand), Lao(Laos), 그리고 Shan(Burma)이다. 마찬가지로 덜 알려진 많은 언어들도 다른 언어들과 마찬가지로 소멸된 Ahom(Assam), 그리고 Dioi, Tho, Nung, Lung-Chow, 그리고 Wu-ming(northern Vietnam과 southern China)을 포함하여 여기에 속한다.

어군들을 위에처럼 귀속시켜 구분하는 것은 대답 불가능한 많은 물음을 남겨놓는다. 어떤 이론은 Tibeto-Burman와 함께 짝을 이루게 하여 Chinese와 Tai를 Sino-Tibetan의 단일한 하위 어군으로 위치시킨다. 그러나 다른 이론에 따르면 Tai는 전혀 Chinese와 (또는 Tibeto-Burman)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Austronesian에 귀속된다. 훨씬 더한 동일한 종류의 혼동이 다른 남서아시아 언어들과 더불어 발견된다. Vietnamese는 지금 Mon-Khmer어에, 지금 Tai에 귀속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다른 언어들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질 않았다. 많이 논구된 Austroasiatic 전제는 Mon-Khmer와 Vietnamese와 Muong과 마찬가지로 Munda어(India)와 Khasi(Assam)와 Nicbarese(Nicobar Islands)와 Semang과 Sakai(Malaya와 southern Thailand)을 포함하려고 시도한다. Miao와 Yao(China)

가 때로 더해진다 그러나 다른 연구자들은 Tai 또는 Tibeto-Burman 귀속시키는 것을 선호한다.





Austroasiatic 전제는 미묘하게, 예를들어 Austroasiatic 더하기 Austronesian(그 “Austirc” 이론)과 Austroasiatic 더하기 Japanese와 Austric 더하기 Sino-Tibetan처럼, 다른연결들을 위한 출발점으로서의 매력을 지닌다. 다른 축에 근거하면, 미국 인디언 언어들과의 초대평양적 관계들도 마찬가지로 제안됐다. 예를들어 Sino-Tibetan는 Nadene(Athapascan 언어 더하기 Tlingit와 Haida).

우리는 남동 아시아의 언어작업에 계속 집중함에 의해서만 오직 이들 언어들의 관련성이 설득력있게 기술될 수 있는 단계에 다다르기를 원한다. 원시-오스크로네시안과 원시-인도-유럽어에 도달하는 데에 사용됐던 것과 엄밀하게 동일한 방법들에 따라서 Tibeto-Burman과 Mon-Khmer와 같은 그러한 어군들의 언어학

적인 재구성이 속히 필요하다. 원시-Karen과 Proto-Bodod와 Proto Lolo-Burmese, 그리고 Tibeto-Burman의 하위 가지들에 관한 진보가 이루어졌다. 자음들과 자음 군들 그리고 Proto Lolo-Burmese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공정하게 알려졌다.

// S[ino]-T[ibetan] 군은 위 지도 1에서 보여진 것처럼, 티벳 고원으로부터 말레이시아 반도까지에서 그리고 북 파키스탄으로부터 북동 베트남까지에서 말해지는, ㄱ) Chinese(‘Sinitic’)언어와 ㄴ) 수백의 T[ibeto-]B[urman] 언어들로 이루어졌다. 중국 학자들은 여전히 *Miao-Yao*와 *Tai-Kadai* 어군들은 시노(중국)-티벳어군과 관계될 가능성을 여전히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런 중국학자들의 전제들은 문제의 그 언어들 사이의 구조와 어휘의 광범위한 유사성은 공유된 발생적인 상속 보다는 남동 아시아의 지역적인 유포(diffusion)로부터 결과한 것으로 여기는 다른 시노-티벳어학자들 사이에서 일반적인 호응을 얻지 못한다(참고문헌을 위해서는 Shafer 1957-63을 참조하라).

### 9-1)역사.

아직은 두루 합쳐지지 않은 분리된 두 영역들을 시노-티벳어군은 포함한다. 글쓰기 체계에 관한 해석과 발음의 다양한 원주민의 움직임(works)에 관한 해석과 그리고 고대 시의 리듬도식에 관한 해석을 포함하는 2,500 년 동안의 중국어 음성학을 재구성하는 문제는 비교하는 작업들이 보다 더 표측적인 방법들에 의존하는 Tibeto-Burman 내의 그것들과 아주 다르다. 비교학적인 Tibeto-Burman은 (더 이상의 엄밀한 묘사가 우리의 현재 앎의 상태에서는 주어질 수 없는) 수백 언어들로 다룬다. 이것들 중 많은 것이 실제로 묘사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리고 아직도 아마 몇 몇은 발견조차 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다양한 Tibeto-Burman 하위 가지들 사이의 발생 관계들 위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완성된 도식들을 결여하고 있다(Shafer 1966-74와 Benedict 1972의 분류들은 폭 넓게 인용된다. 쓸모있는 요약은 위해서는 Hale 1982를 보라). 그러나 아래와 같은 그룹화들이 확정된 발생 단위들(units)이다(최근 논란거리인 ‘Rung’은 제외). ..... [이하 생략 중국어 요약은 각 장에서 ...]//

## 10) Ural-Altai Langu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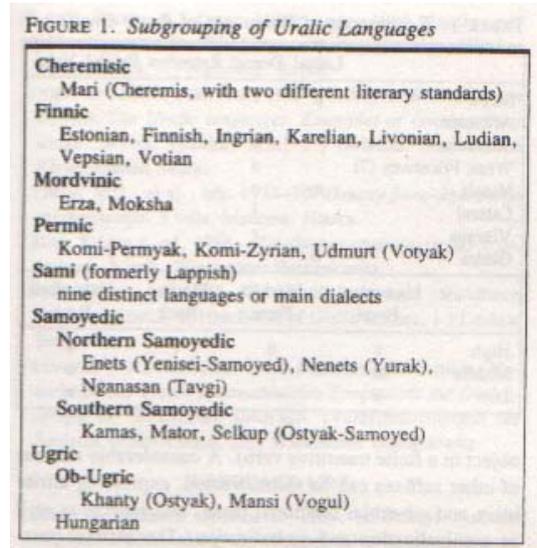
ㄱ) 북유럽과 북서시베리아에서 말해지는 Uralic 그룹(Finno-Ugric 언어와 Samoyedic 언어)과 ㄴ) 동부 폴란드에서 태평양에 이르는 지역에서 말해지는, 그리고 Altai 산맥으로부터 이름이 파생된 Altaic(Turkic, Mongolian, Tungus 언어) 그룹 등, 두 그룹으로 우랄-알타이 어족은 구성돼 있다. 그러나 두 그룹 사이의 관계가 몇몇 권위들에 의해서 논박된다.

10-1)분류(Classification).

U r a l	Finno-Ugric	Finnic우랄동쪽	Baltic Sea F.: Suomi(or Finnish proper), Karelian, Olonecian, Ingrian, Lüdic, Votic, Vepsä, Estonian, Livian.	
			Lappic(southwest, south, east dialects)	
	Volga F.: Cheremiss(or Mari-두 개 방언: Hill과 Moksha)			
	Samoyedic	North S.	Ugric우랄서쪽	Permian: Votyak(Udmurt)와 Zyrian(Komi).
				Vogul(Mańśi)와 Ostyak(Xanty)on the lower OB와 Hungarian(Magyar).
		South S.	Yurak(Néřeć)	
Tavgy(Nganasan)				
A l t a i c	Turkic	Central Asiatic	Yenişey-S. (Eřeć)	
			Ostyak-S.(많은 방언을 지닌 Selqup)	
			Sayan-S.(지금은 남부 시베리아 투르크화된, Kamassinic과 다른언어들)	
			Orkhon과 Uighur(또는 Old Turkic)	
		Southwest group	New Uighur	
			Chaghatai	
	Mongolian	Norhtwest group	City Özbek	
			Qyrghyz	
			(Turkey와 이전의 Ottoman제국의) Osmanli Turkish	
		South Siberian Turkic	(Qashqa'ı와 함께)Azarbaydjanian	
			Türkmen	
			Qomanian(1303의) Codex Cumanicus	
Tungus	North T.	Karaım		
		Kazan과 서부시베리안 Tataric		
	South T.	Bashkiric(Bashqort)		
		Noghay		
Mongolian	Literary Mongolian and the later East Mongolian languages	Qazaq-Qaraqalpaq		
		세 하위 나뉘들: Oyort, Abaqan[Xaqas]와 Tuva		
	West Mongolian or Kalmuck	Northeast Siberian or Yakut		
		Chuvash		
	Northern Nongolian or Buryat	중앙 Volga에 위치한 투르크와 몽골리안의 연결고리		
		Diaspora languages	Xalza	
	Tungus	North T.	Ordos	
			Tsakhar 등 등....	
		South T.	Kalmyk	
			Xal'maq	
Tungus	North T.	Northern Nongolian or Buryat		
		Diaspora languages		
	South T.	Monguor, Tunghisang, Dagur, Mogol		
		Northwestern 또는 Evenki(Yenisey 어귀로부터 Sakhalin섬까지의 많은 방언들)		
Tungus	North T.	Northeastern Tungus 또는 (북동시베리아에 있는) Lamut		
		Džürčēn(Nü-chēn)		
	South T.	Manchu		
		Goldi(Nanay)와 Olcha와 Orok		
Udehe(Udekhe)와 Orochi.				
이런 말투(tongues, 방언)들의 몇 몇 관계는 아직 완전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10-1-1)우랄어(Uralic Languages).

우랄어는, 이하(以下) 우랄언어지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서쪽의 북부와 중앙 유럽으로부터 동쪽의 서와 남 시베리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코카서스계** 인종 (Caucasoid)들과 **몽고계** 인종들(Mongoloid)에 의해 말해지는 약 30 개 언어와 주요 방언들을 포함하는 Eurasia 대 언어 군들 중의 하나를 구성한다. 참고문헌을 위해서는 Lytkin et al. 1974-76, Janhunen et al. 1975-80, Hajdú & Honti 1984, Veenker 1985, Hajdú & Domokos 1987, Rédei 1986-, Sinor 1987을 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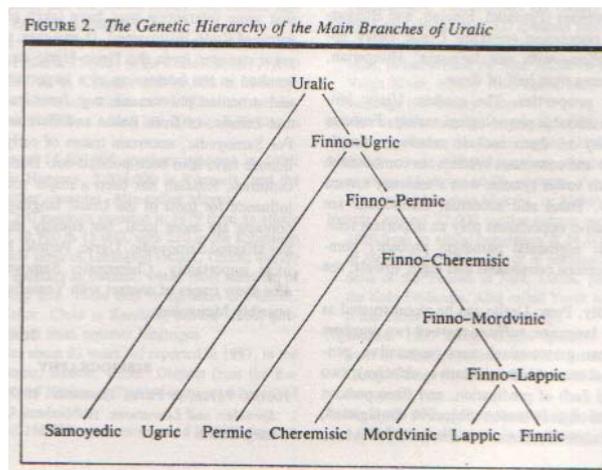


**내적인 나뉨(Internal division).** 언어학 적이고 지리학적인 기준(Criteria)는 좌측 도식에 보여진 우랄어 가지들의 구분들을 허용한다. 개별 우랄어들에 대한 세부 사항을 위해서는 이 기고문 끝에 있는 목록 들을 보라[나는 지금 시간이 없어 그 번역을 생략한다. 후에 보충하도록 ....]

**발생 계보(Genetic hierarchy).** Uralic 가지들 사이의 관계들은 여전히 논란거리 이다. 오히려 Finnic에 초점을 맞추는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지리학적인 거리 와 언어학적인 거리(distance) 사이에는 단순한 상호관련이 있다. 이런 견해는 언 어학적인 발전의 일곱 주요 단계를 추측한다(153쪽).

- i) Uralic은 Finno-Ugric과 Samoyedic으로 나뉜다.
- ii) Finno-Ugric는 Finno-Permic과 Ugric으로 나뉜다.
- iii) Finno-Permic은 Finno-Cheremistic과 Permic으로 나뉜다.
- iv) Finno-Cheremistic은 Finno-Mordvinic과 Cheremistic으로 나뉜다.
- v) Finno-Mordvinic은 Finno-Lappic과 Mordvinic으로 나뉜다.
- vi) Finno-Lappic은 Finnic과 Lappic으로 나뉜다.
- vii) Finnic은 개별 Finnic 어들로 나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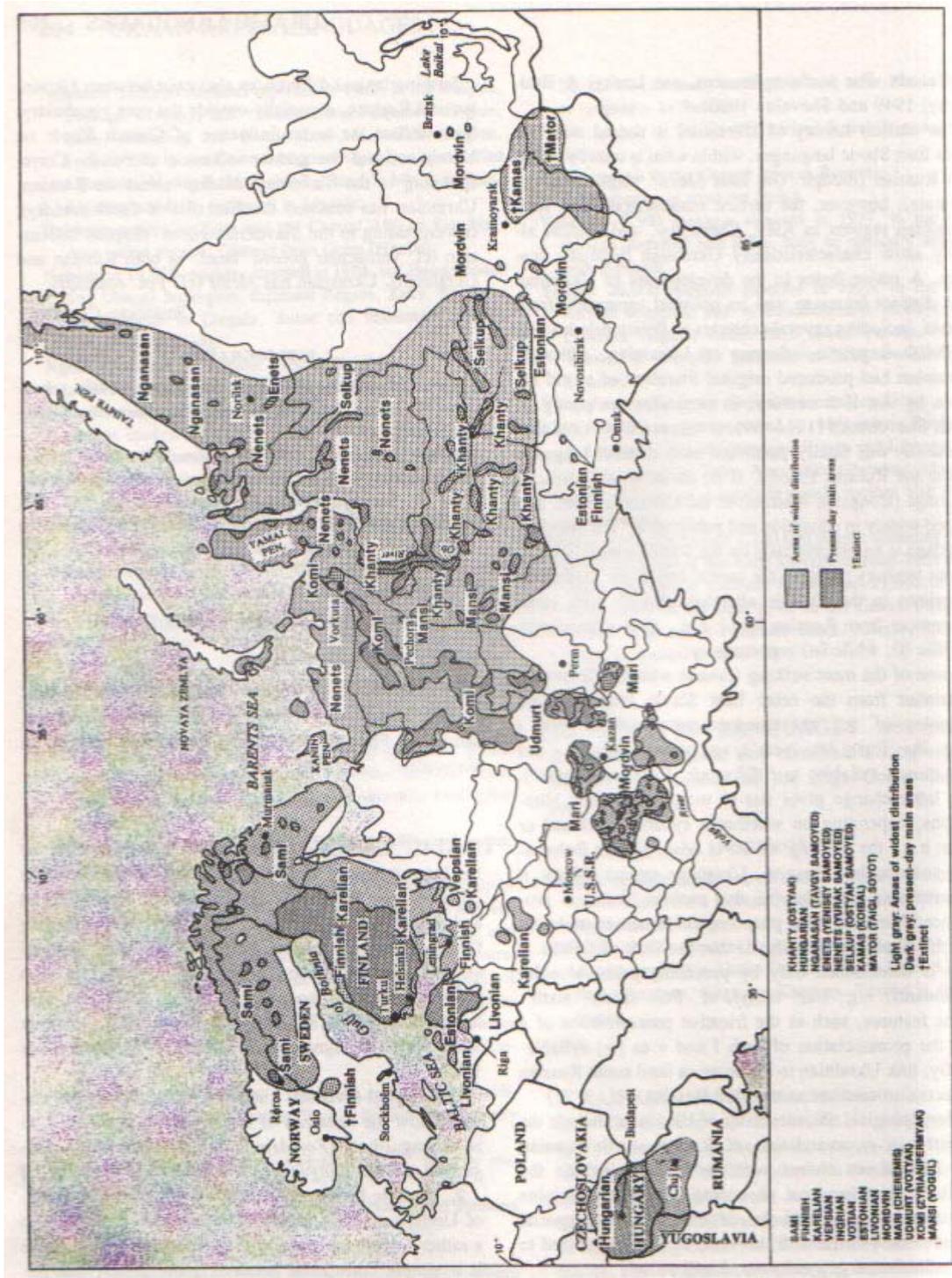
이렇게 획득되어, 우측 도식에서 보여지는 두 접의(binary)의 분류는 그 주변 언어들(Finno-Mordvinic과 Samoyedic)에 대립된 것으로서의 중심 언어들(Ugric과 Permic과 Cheremistic)을 특징지우는 혁신적인 경향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애매해진다.



**첫 분포(Primary diffusion).** 언어학적이며 고고학적인 압에 의하면, Uralic의 본디 영토는 거기에서 동(Samoyedic과 Ugric)과 서(Finno-Permic)로 뻗어나가는 Ural 지역이었다. 원시-우랄어(Proto-Uralic)로 말하는 사람들은 아마 물리적인 유형으로는 Caucasoid(코카서스 계)였을 것이고 신석시 시대의 문화적 발전 단계에 있었을 것이다. 우랄 언어의 현대 분포의 기원이 된 세부적인 이주(migration, 移住) 내용은 충분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그 분포는 기원전 8000-4000 년 사이일 것이다. Uralic의 첫 분포를 위한 초기 날짜 매김은 아마 Finno-Ugric과 Samoyedic 사이의 상대적으로 작은 약 150 여 개 낱말의 의존 가능한 사전적 비교(correspondence)에 의해 제안된다.

**외부적 관계들(External relations).** Uralic은 고등 수준의 어군(Phylum, 語群)들로서 다른 몇몇 Eurasian 언어들과 언어 군(family, 群)들에 발생학적으로 관련될 것이라고 다양하게 제안됐으나 증명되지는 않고 있다. 이런 유라시아 언어군들에는 Indo-European, Dravidian, Turkic, Mongolian, Tungus, Yukaghir, Chukotko-Kamchatkan, Eskimo-Aleut, **Gilyak, Korean, 그리고 Japanese** 등이 있다. 여러 군들을 'Ural-Altaic'과 'Nostratic'과 같은 더 큰 것으로 묶어야 한다는 제안은 흑간 인정되어졌다. 이와 같이 나열된 것들은 부분적으로 유형론적이고 부분적으로 사전적이다. 그러나 표준적인 탐구는 지역적인 분포의 결과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경향들의 결과로서 그것들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선호한다. 원시-우랄어는 외부적인 관계에 대한 탐구를 다그쳐 헛 수고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언어학적 재구성의 절대적인 한계에 직면한다.

**인구통계적인 자료(DEmographic Data).** Arctic과 Siberia의 Uralic 언어들 분 명히 수 백에서 수천에 이르는 상대적으로 작은 개별 인구들에 의해서 항상 말해



MAP 1. Distribution of Uralic Languages

져 왔다. 이런 언어들 중 몇몇은 오늘날(Kamas, Mator) 소멸된 반면 다른 것들은 소멸 직전이다(on the verge of, Enets, Nganasan, Sekup, Mansi, Khanty. 그러나 다양한 작은 언어들이지만 그 중핵적인(circumpolar) 문맥상 중요한 것들(Nenets와 그리고 Lappic의 어떤 다양함들)이 있다. 대조적으로 중앙과 동부 러시아의 언어(Erza, Moksh, Mari, Udmurt, Kome)들은 수 십만 명의 화자(speaker, 話者)들을 지녔다. 그리고 북부와 동부 유럽의 세 우랄어(Estonian, Finnish, 그리고 Hungarian)들은 백만명 이상의 말하는 자들을 지녔다. 오늘날 우랄어로 말하는 토탈 인구는 2천 5백만 명에 이른다. 이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을 Hungarian 언어 하나가 차지한다.

**지역적 접촉들.** 원시-우랄어(*Proto-Uralic*)에 관한 어떤 정확한 자료들도 이용될 수 없지만, 초기 인도-유럽어 형식과의 어떤 상호작용이 주어졌을 거라고 상정되어왔다. 어느 경우에서든 *인도유럽어*가 *Finno-Ugric* 무대에 더 강한 영향을 미쳐왔다. 이것은 많은 수의 사전적이고 구조적인 현상들에 예를들어 Iranian으로부터 Ugric과 Permic으로 또는 Baltic과 German으로부터 Finnic으로 차용(borrowing, 借用)됨에 기인한다. Samoyedic의 경우에는 초기 Tocharian 영향의 불확실한 흔적이 마찬가지로 지적됐다. 과거 몇 세기 동안에 러시아어는 대부분의 우랄 언어에게 adstrate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재원이었다. 다른 지역과의 접촉은 훨씬 더 지엽적이었지만 똑 같이 중요하다. Turkic은 Samoyedic, Ugric, Permic, Mordvinic과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Cheremistic에게 영향을 미쳤다. Samoyedic과 Ugric도 마찬가지로 Yeniseian, Tungus, 그리고 가능하게 Mongolian과의 접촉 흔적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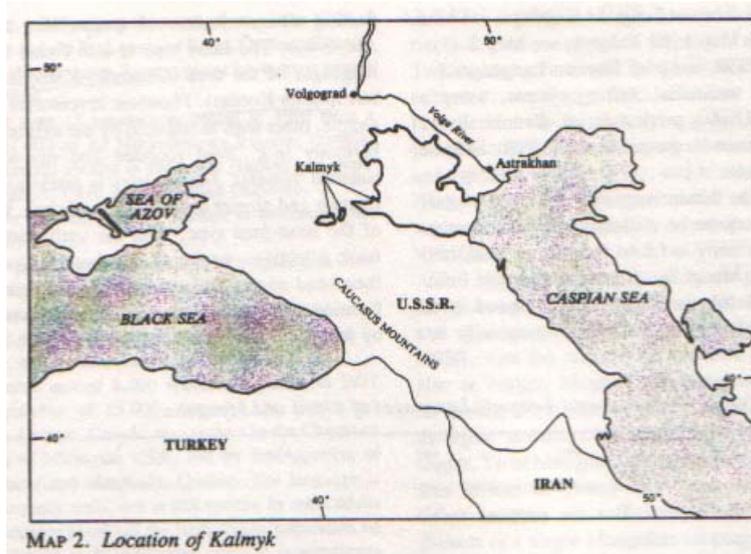
#### //10-1-2)알타이어(Altaic languages).

알타이어는 **Turkie**와 **Mongolian**과 **Tungusic** 군(families, 群)들을 묶어주는, 비록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폭넓게 인정되는 언어학적인 계(stock, 系)를 구성한다(참고문헌을 위해서는 Poppe 1965, Clauson 1956을 참조하라). 다른 언어들 또는 언어 군들을 알타이 어계(stock, 語系) 안에서 분류하자는 제안들이 있어왔다. 예를들어 **Korean**과 **Japanese**(Miller 1971)와 그리고 더 느슨하게는 *Ainu*(Patrie 1982)를 포함하자는 제안은 폭 넓게 현재 그 분위기를 형성해 가고 있다(is promoted). 그러나 이것들이 Uralic과의 특별하게 밀접한 발생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자는 제안에는 지금 우호적인 분위기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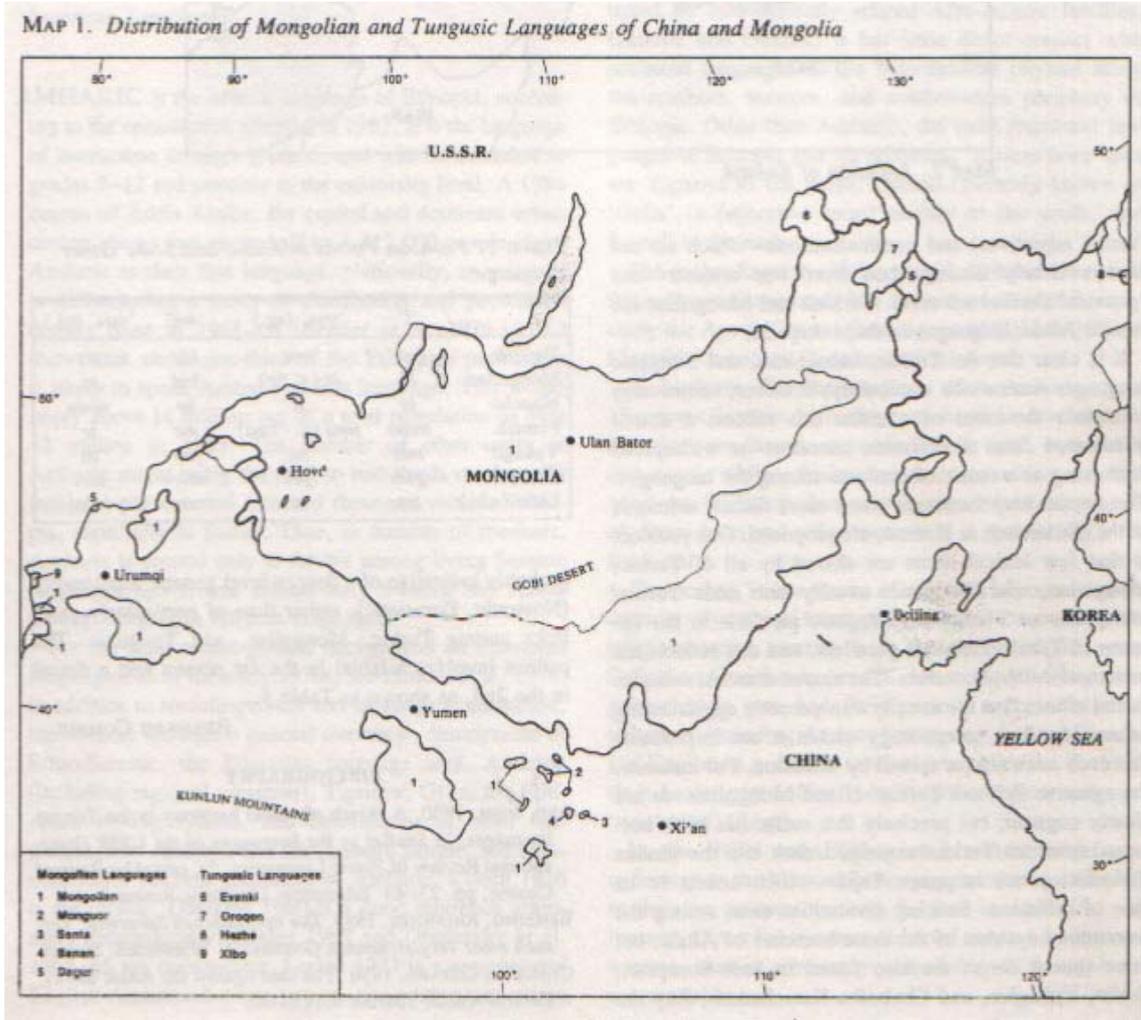
**Mongolian** 어군들(Poppe, 1955)은 주로 몽고민주공화국과 중국인접지역(내몽고)와 USSR(구 소련) 안이지만 중국어로 말하는자들이 대부분인 지역에서 주로 말해진다. 마찬가지로 아프카니스탄에 거주하는 외국인 Mogholi가 있으며, **Kalmyk**은 (Caspian Sea)카스피해 북서부에서 말해진다. Mohyoli, Bonan, Dagur, Tu 또는 Monguor, 그리고 Dongxiang 또는 Santa(이것들 중 마지막 네 가지는 중국에서 말해진다) 등과 같은 우랄어군의 대부분 다양한 구성원들은 선명하게 구분되는 언어들이다. 다른 다양한 것들은 결국 단일한 몽고어의 방언들로서 너끈하게 간주되며 그리고 중국에서도 그렇게 속고된다. USSR의 Buryat와 Kalmyk(후자는 Oirat의 고유한 하위 방언(subvariety)이다)는 구분된 언어 지위를 지니며 그리고, 몽고인민공화국의 몽고어와 마찬가지로, **Cyrillic 알파벳**으로 쓰여진다. 몽고어 그 자체는 알타이어군의 전형적인 구성원이다. ‘**Classical Mongolian**’은 13세기부터 확인되는 몽고인들(Mongols)의 쓰여진 언어이다. 그것은 여전히 중국 내 **몽고인들의 글쓰기 체계**로서 봉사하는 수직적인(위에서 아래로 내려 쓰는) **Uighur script**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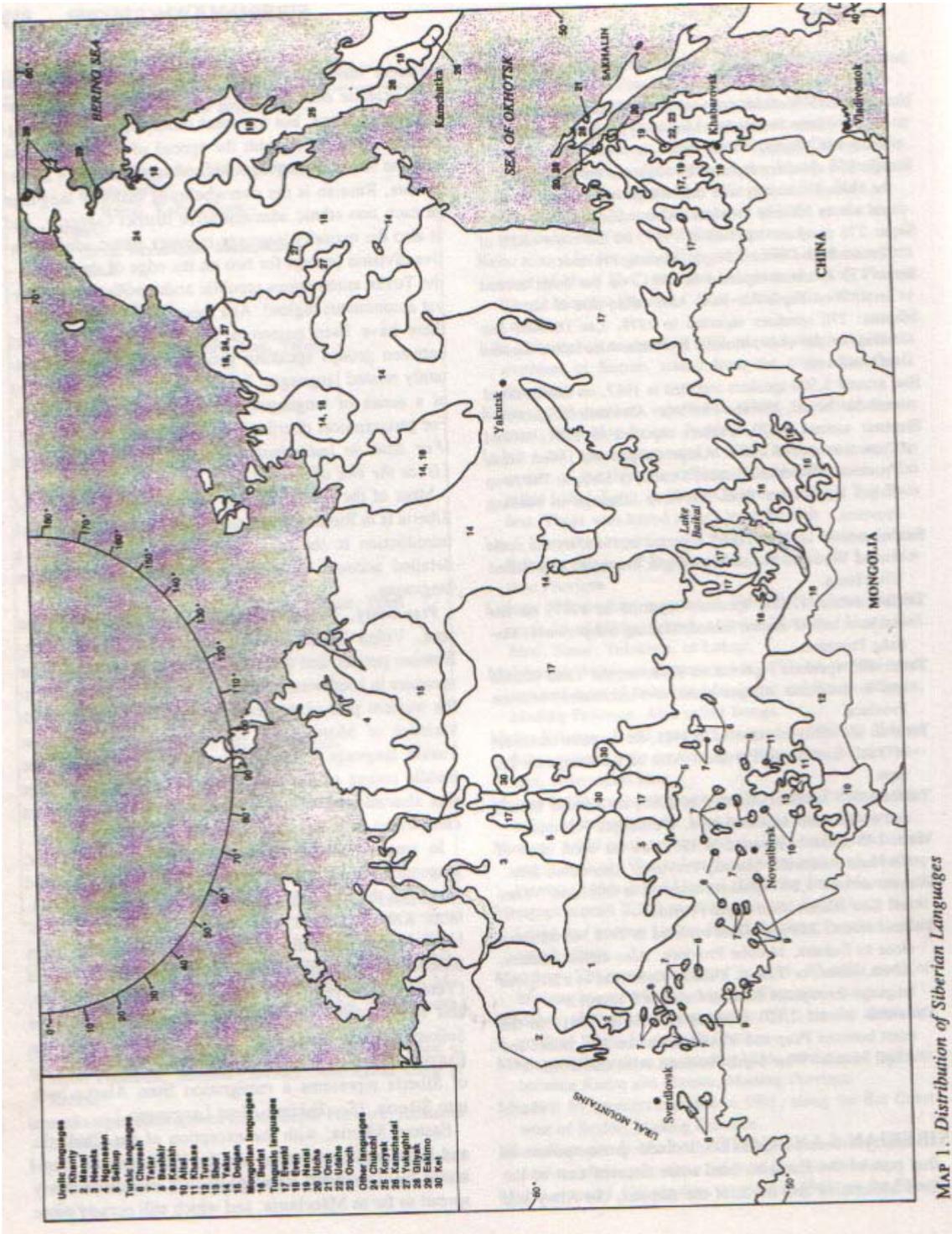
**Tungusic** 언어들은 동부 시베리아에서 말해진다(Benzig 1955). 통구스 어군은 북 통구스어와 남 통구스어 라는 두 가지들을 지닌다. 북쪽(Northern)가지는 Evenki(Tungus는 마찬가지로 아마, 비록 중국 내의 Ewenki와 Oroqen는 구분된 언어로서 간주되기는 해도, 중국 내의 이 두 가지 것으로서 지시되는 다양함들을 포함할 것이다)와 Even(Lamur)와 Negidal로 구성돼있다. 남부(Southern)가지는 결국 남서부(Southwestern)와 남동부(Southeastern)로 구분된다. 남서부가지는 소멸된 Juchen(Jurchen, Nuzhen)과 사실상 소멸된 **Manchu**를 포함한다. 1644년부터 1911년까지 중국을 지배했던 왕조의 언어인 만주어(Manchu)의 변이어(aberrant variety, 變異語)가 중국 내의 구분된 언어로서 간주되는 Xibo이다. 남동부 가지는 Nanai(Gold), Ulcha, 그리고 Oroq(Ulta)를 포함하는 Nanai 하위그룹과 Udehe와 Oroch를 포함하는 Udehe 하위그룹을 포함한다. 중국 내의 Hezhe라고 지시되는 그리고 자주 소련 학자들에 의해서 Nanai라고 불리우는 그 언어는 Udehe 하위그룹에 더 근접한 것처럼 보인다. 중국 내의 몽고어와 통구스어들의 위치들을 위해서는 159쪽 지도1을 참조할 것이며 그리고 구 소련(USSR) 내의 몽고어와 통구스어의 위치들을 위해서는 160쪽 지도 1을 참조해야 할 것이다.

**Manchu**는 **Uighur** 수직 스크립트에서 파생된, 전통적인 글쓰기 체계를 지닌다. Evenki와 Even과 Nanai는 USSR(러시아)에서 쓰여지는 언어들이며 **Cyrillic 알파벳**을 사용한다.//



MAP 2. Location of Kalmyk





MAP 1. Distribution of Siberian Languages

## 10-2) 우랄-알타이어의 소리 체계(the Phonetic System).

거의 예외없이 우랄-알타이어들은 **모음조화(vocalic harmony, 母音調和)** 법칙을 허용한다(recognise). [드문] 예외들은 존재한다. 그러나 **단일한 어떤 낱말 안에는 동일한 ‘음색’(timbre, 音色)의 모음들만 나타날 수 있다**는 일반 원리를 가지고 일관되게 설명된다. 만약 어떤 낱말의 기본(radical) 모음이 *o* 또는 *u* 라면 그 낱말 안의 다른 음절 모음은 반드시 *o* 또는 *u* 또는 *a*여야만 한다. 달리 말해서 동일한 낱말 안에 있는 모음들은 조음(articulation, 調音)의 방법에 있어 반드시 조화(harmonize)를 이루어야만 한다. 다른 한편으로 만약 어근(root, 語根) 모음이 *e* 또는 *i* 또는 *ö* 또는 *ü*라면 동일한 낱말의 다른 음절 모음은 반드시 전구개음(prepalatals, 前口蓋音) 또는 전설모음(anterior vowels, 前舌母音)이어야만, 즉 *e*와 *i*처럼 입의 앞 부분에서 조음점(調音點)이 형성되어야(articulated)만 한다.

그래서 *Finnish*의 경우 낱말들 *kesi*(hand), *kivi*(stone), *metsä*(forest)는 *kala*(fish), *sulka*(feather)에 대립된다. 동일한 것이 *Hungarian*, *három*(three), *olvadni*(to melt), *savanyú*(sour)에 대조되는 모음을 나타내고 있는 *repülni*(to fly), *lélek*(soul), *segíteni*(to help)에도 적용된다.

*Tungus*를 제외한 **알타이어**에서의 모음조화는 연구개음(velar, 軟口蓋音)(또는 후구개음, postpalatal, 後口蓋音)과 구개음(palatal, 口蓋音)(또는 전구개음, prepalatal, 前口蓋音)같은 두 대립(opposite) 소리 그룹들의 형성으로 이끌고 가는 현실적인 소리 조화(sound harmony)로 발전했다. 예를들어 *Turk.* *qalyan*(remained), *kälgän*(having come), *soq*-(to beat), *sök*-(to scold), *Siberian-Turk.* *oluryan*(sitting, living), *ölärgän*(having killed), *Kazan-TarTar* *qyl*-(to do), *kil*(to come) 등. *Jongolian*(*Xalxa*) *odon*(star), *ödön*(feather), *suma*(arrow), *sümä*(temple, palace), *uxa*-(to dig), *üxä*(to die). 광범위하지는 않지만(without being general), 소리조화(**sound harmony**)는 우랄-알타이 언어의 음성학적 구조의 중요한 요소이다.

**자음교체(consonantal Alternation).**—자음으로 끝나는 낱말의 어근 음절은 잇따르는 (열린 또는 닫힌) 음절의 본성에 따라 다양한 모음변화(mutation)에 종속된다. 그것은 특별히 *Lapp*, *Finnish*, 그리고 몇몇 몇 *Samoyedic* 언어와 같은 그런 우랄 방언(tongues)들의 특징이다. 다른 언어의 경우 그것은 단순한 흔적을 넘어서 발전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Finnish*어의 *kukka*(flower), 그러나 *kukan*(gen.)(of the flower); *kuto*-(to weave), 그러나 *kudon*(I weave);

repo(fox), 그러나 revon(gen.)(of a fox); onki(fishhook), 그러나 ongen(gen.)(of a fishhook); lintu(bird), 그러나 linnun(<lindun)(of the bird). Finnish와 무엇보다도 Lapp에서 그렇게 많고 다양한 자음교체들은 그것들의 현재형에서 그것들이 무엇이었던 것에 대한 어떤 암시도 주지 않는다. 아마 초기에는 어근 음절의 끝에 강 약 이라는 두 개의 악센트에 일치하여 그 정도에 따른 어떤 교체가 있었을 것이다—tt. kk. pp. 그리고 t. k. p. 마찬가지로 p. t. k. 와 β. δ. γ.; m. n. η와 β. δ. γ. 등의 사이의 대조를 생산했던 교체가 있었다. 이런 교체는 약한 md에 반대되는 강한 mt, bm에 반대되는 mp, γz에 반대되는 ks 자음들의 그룹으로까지 확장된다.

이런 교체인론(독일어의 *stufenwechsel*, 강도변화)은 G.J.Ramstedt가 부분적으로 그것을 발견했던 곳에서부터 그것을 **Altaic** 언어로까지 확장시킨 핀란드(finnish) 언어학자 E.N.Setälä에 의해 형성됐다. N.N.Poppe의 작업이후로 마찬가지로 그것은 Altaic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모음교체(Vocalic Alternation).**—마찬가지로 어떤 낱말이 취할 수 있는 접미사들에 따라서 그 어근 음절의 모음이 수정되거나 변할 수 있는 모음교체가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그래서 핀란드어의 *pala*(to burn)와 *polttä*(to burn)(trans.); Ostyak. *n'äləm*(tongue), 그리고 *n'ilməm*(my tongue). 이런 경우들은 현대 우랄-알타이 말(speech)에서는 드물다. 그리고 **우랄** 방언(tongues)들은 비록 마찬가지로 그 예들이 **Altaic**에서도 발견되지만 그 흔적들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다.

낱말의 끝과 시작을 규정하는 규칙들은 어떤 낱말도 하나 이상의 자음으로 시작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차용된 외래어가 그렇게 시작될 때 따라서 그 외래어의 시작은 단순화된다. Swedish 낱말 *stor*(big)는 Finnish에서 *suuri*가 된다. 이외의 다른 곳에서의 모음은 겹치는 자음 앞에 발음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놓인다. Slav 낱말 *stolū*는 Hungaian에서는 *asztal*이며 영어 *steam*은 Osmanli에서는 *istim* 이다. 등등.

엑센트는 위치와 질에 있어 다양하다. 대부분의 우랄-알타이어들은 규칙적으로 첫 음절에 강세(stress)를 둔다 그러나 Turkic와 몇몇 Tungus어들은 맨 마지막에 강세를 둔다. Samoyedic과 다른 Ostyak와 같은 것의 idioms(관용법)에서의 엑센트는 다양하다.

//10-2-1) 우랄어의 음성학적 속성들(Structual properties)

현대 우랄어는 두드러진 음성학적 다양성을 보여준다. 그것들 대부분에 공통 특색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음절구조와 자음체계 그리고 *구개음 조화(palatal harmony)*를 향한 경향을 지닌 상대적으로 부유한 모음체계들을 포함한다. 음색(Tonal, 音色)과 강세(accentual, 強勢)의 구분들은 거의 드물지만 양적인 대비(oppositaion, 對比)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시-우랄어의 분절적인 어형변화(segmental paradigm)는 아마 약 17 개 정도의 자음들과 8 개의 모음들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아래 도표를 참조하라. //

Proto-Uralic(원시-우랄어)의 재구성된 음소들					
	Labial	Dental	Retroflex	Palatal	Velar
Stops	p	t			k
Affricate			c		
Sibilants		s		ʃ	
Weak Fricatives(?)		d		j	x
Nasal	m	n		ɲ	ŋ
Lateral		l			
Vibrant		r			
Glides	w			y	
	Unmarked		Marked		Unmarked
	front			back	
High	i	ü	ĩ	u	
Middle	e			o	
Low	ä			a	

// 10-2-2)알타이어 유형론의 특색

류형론적으로(Typologically) 알타이어들은 비록 이것이 물론 발생적인 관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지만 [서로] 아주 비슷하다. *모음조화(Vowel harmony)*는 이 모든 세 가지들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Turkic과 Mohgolian에서의 모음조화는 전설/후설(front/back)대립에 근거하는 반면 Tungusic에서의 모음조화는 높/낮이

(higer/lower)모음대립에 근거한다(아마도 원래 혀 뿌리의 앞/뒤 (advanced/retracted tongue)조화를 반영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을 위해서는 Ard 1980을 보라). 후자 유형은 마찬가지로 그 지역의 몇몇 다른 언어들 (Chukotko-Kamchatkan, **Gilyak**, 그리고 **Middle Korean**)에서도 발견된다. 모음 조화 발생이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음소 목록들은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예를 들어 입술 둥근 전설 모음과 입술 둥글지 않는 닫히지않는(non-low)후설 모음처럼 말이다. //

### 10-3)우랄-알타이어의 형태론.

어떤 그룹의 언어도 **접두사들을 사용하지 않는다**. 예를들어 to, on, of, for 등의 전치사에 의해 영어에서 표현된 모든 문법적인 변화(modification)는 **접미사들**에 의해 결과지워진다. 나는 그집에 들어선다(I enter the house)는 Hungarian으로는 belépek a házba(ház “house”—ba, 접미사는 “into”를 뜻한다). Turkic에서도 동일하다. 예를들어 in Kazan Tatar: ber keşe urmanğa dej “a man went into the forest”(어떤 사람이 그 산림 속으로 갔다)(urman “forest”—ğa “into”). 낱말에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문법적 관계들은 따라서 언어마다 그 형식에 있어서 다를 수도 있지만 철저하게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접미사들에 의해 표현된다. 이런 접미사들은 후치사들에 의해서 강화(strengthened, 強化)될 수 있다. 그래서 헝가리어 egy fa alatt “under a tree” (egy “one, a”, fa “tree”, al-a-tt, locative, “under”).

소유격은 *Mongolian*을 제외하면 접미사들에 의해 형성된다. *Hungarian*은 szemem “my eye”(szem “eye” + euphonic e + m “my”); szemed “thine eye” (-d “the, thine”); szeme “his eye” (-e “his”); szemünk “our eye” (-ünk “our”). *Tungus*와 *Turkic*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식을 지닌다; 예를들어 Osmanli ev-im “my house” (ev “house”, -im “my”); ev-ij “thy house” (ij “thy”); ev-i “his house” (-i “his”); evimiz “our house” (-imiz “our”). *Mongolian*에는 존재하지 않는 소유 접미사의 이런 사용은 다양하다. Turkic에 있어서처럼 *Hungarian*에서도 그것은 복수형을 제외하면 다른 접미사들 앞 어근에 직접 더해진다. 반면 *Finnish*와 *Lapp* 등과 같은 다른 언어(tongues)들에서의 그것들은 다른 모든 접미사들 뒤에 온다. 헝가리어 a házamban “in my house”와 터어키어 (Osmanli) ev-im-de를 핀란드어 koda-ssa-ni(-ni “my”)와 통구스어(Evenki) oro-r-bo-s, 복수, 4격, 소유 2인칭 단수 “your(thine) reindeer”와 비교해 보라.

**Ural**과 **Altaic** 언어들에 자신들이 지역적으로 두 그룹으로 분리되기 전에 자신

들의 형태론적 체계를 발전시킨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많은 접미사들이 그렇게 까지 그 어근에 두루 저장될 수 있었다. 예를들어 복수를 형성하는 하나의 방법은, Mongolian과 Uralic에서처럼, 접미어 -t를 명사에 덧붙이는 것이었다. Turkic과 Tungus에는 그러한 과정의 흔적들이 몇 몇 남아있다. 이 양자의 그룹에 공통인, 처소격(locative)와 laticic 격의 접미사와 그리고 4 격의 접미사와 같은, 본질적인 형태론적 다른 특징들이 있다.

우랄-알타이 어(tongues)의 주요 특징은 외부 형에 의해서 명사와 동사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본질적으로 동사의 활용(conjugation)은 동사적 명사 즉 그 동사의 명사형들에 덧붙여지는 소유-접미사 체계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많은 동사 접미어들이 새로운 명사들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된 것들과 그 형식에 있어 동일하다. **형용사**에는 고유한 변화(declension)가 없다. 그리고 우랄-알타이 대부분의 언어들에서의 형용사는 전혀 변화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문법적인 일치도 거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명사**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변화(declension) 흔적(relics)을 보여준다. 그러나 명사 변화로부터의 강한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언어들 중 그 어느 것에도, 인도-유럽어나 드라비다어나 험-셈어와는 대조적으로, 발전된 **문법적인 성(gender)**이 없다.

우랄어 대부분에서의 **문장 구조**는 오히려 자유롭다. 특히 그 지역의 서쪽에서는 인도-유럽어의 문장구조를 닮았다. 반면에 북 퉁구스어를 제외하면 알타이어는 주어, 목적어, 술어의 연이어짐을 요구하는 오히려 고정된 구문론적 체계를 발전시켰다. 조건절을 제외하면 문법적인 **종속절**은 존재하지 않는 대신에 분사적 동격이나 동명사 절들이 사용된다. 알타이어 문장에서는 항상 지배하는 것(link)이 지배 당하는 것 앞에 온다. 이런 **지배 규칙**은 우랄어 그룹에서 두루 마찬가지로 타당하다.

**수사들(numerals)**.—우랄-알타이어 수사 체계는 철저하게 십진법이다. 수들의 이름들은 해당 언어들마다 폭 넓게 다르다. 왜냐하면 원시-우랄-알타이 말(speech)은 그 분산(dispersion) 이전에 고유한 수사체계를 발전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 //10-3-1)우랄어의 형태론

형태론적으로 **Proto-Uralic**은 교착(**agglutinative**, 膠着)언어로서 재구성될 수 있다. **접미어**들은 (쌍수와 복수) 두 수들과 (4격과 2격) 두 개의 문법적인 격들과 (3격과 처소격과 탈격) 세 개의 위치(local)격들과 술어의 (1인칭과 2인칭) 두 개의 인칭들과 그리고 소유와 목적어의 세 인칭(persons)들(목적어 활용, objective conjugation, 즉 한정 타동사의 한정된 3인칭 목적어를 지시 포함(incorporation, 抱合: 목적어를 동사 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표시하였다. 명사화와 동사화 뿐만 아니라 부가적이고 부사적인 관계 그리고 시제와 상(aspect)을 표현하는 두드러진 수의 다른 접미어들이 재 구성될 수 있다. 접미사적 어형변화들은 말의 명사 부분과 동사 부분 사이에 만들어지는 선명한 구분을 허락한다. 그러나 원시-우랄어-이전(Pre-Proto-Uralic)에는 그러한 구분이 없었다는 암시가 있다. **어순**은 끼워넣어진 문장들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 명사화된 동사구문들과 더불어, 주어 목적어 동사 순으로 재 구성될 수 있다. //

#### // 10-3-2)알타이어의 형태론.

형태론은 단연 **교착적**이고 거의 배타적으로 **접미어적**이다. **어순**은 보통 동사가 절의 마지막에 오는 헤드-파이널(head-final)류형이며 형용사와 소유격과 **관계절** 등 등은 **자신들의 헤드 명사들** 앞에 오고 **후치사**들이 사용된다. 절들을 복합 문장들로 묶는 것은 분사(동사적 형용사)와 그리고 항상 서로 선명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닌 명사상당어구(nominalizations)와 그리고 ‘동명사’(동사적부사)와 같은 그런 비-한정(non-finite)구문들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진다.

#### 10-4)우랄-알타이어의 어휘.

초보적인 문명을 다루는, (아버지, 어머니 삼촌 고모 등) 친족관계를 표현하는 것들 중 많은 것들과 어떤 요소들과 동물들과 식물들과 원시직업들과 단순한 움직임들과 몸짓 낱말과 같은 그러한 아주 많은 단어들이 모든 언어들에 공통적이다. 이런 언어들의 비교 어원학은 북동 유럽과 우랄의 다른 지역에서 그 흔적이 발견되는 신석기 문명을 증명한다. 모든 말(tongues)들의 공통 유산인 이런 원시적인 어휘들은 아주 다양한 기원의 낱말들에 의해서 늘어난다. **Altaic**은 Chinese와 인도유럽어와 아랍어로부터 많은 것들을 차용한다. **Uralic** 언어는 인도-유럽 어계로부터 크게 그리고 역사시대에는 특히 Iranian으로부터 이끌어들이는 다. 후에 Hungarian과 Vogul과 Ostyak과 Cheremiss와 Votyak는 많은 낱말을

Turkic으로부터 받아들인다. Osmanli Turkish는 아랍어과 페르시아어로부터 많은 낱말들을 채용했다. Mongolian과 Turkic은 서로에게 빌려주고 빌려왔다. 그리고 Paleo-Asiatic 요소들은 아시아에서 말해지는 Ural-Altai 언어의 부유하고 다양한 어휘들을 지닌다. 유럽에서의 Hinnish와 Lapp와 Estonian은 Germanic과 Baltic과 Slavic 언어로부터, 그리고 Hungarian은 Ossetian과 Slavic 말(tongues)과 German으로부터 많은 것을 채용했다. 소련 지역에서 말해지고 있는 우랄 언어와 알타이 언어의 어휘들은 러시아의 강한 영향하에 있다.

#### // 10-4-1)알타이어의 어휘들.

Turkic과 Mongolian과 Tungusci 언어들은 많은 어휘를 공유한다는 것은 선명하다. 그러나 이것이 공통 조상으로부터 공유된 유전(inheritance, 遺傳)을 반영하는 것인지 또는 언어들 사이의 접촉들의 결과로서 폭 넓게 채용된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있다. **Korean**과 같은 그런 훨씬 떨어진 어계(stock, 語系)의 구성원이 문제시될 때 관련 논쟁은 증가한다. 하나의 문제는 Turkic과 Mongolian과 Tungusic 이것들 모두에 의해 몇 안되는 사전적인 항목들이 공유되느냐이다. 사람들은 투르크어/통구스어 병렬(parallels, 並列)들이 부재할 때 투르크어/몽고어 또는 몽고어/통구스어 병렬을 보통 발견한다. 이것은 문화 접촉들의 패턴을 반영한다. 공유된 재료들은 구속형의 접사(bound affixes, 接辭)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보통 쉽게 드러나는 알타이 언어 형태론의 **교착어적인 본성**은 심지어 그런 접사들조차 유포(diffusion, 流布)에 의해 확산됐을 것 같지 않도록 만든다. 예를 들어 동작자(agentive)를 나타내는 접미어들이 Turkic -či와 Mongolian -če는 분명히 동족(cognate, 同族)이다. 그러나 엄밀하게 이 접미사는 Turkic 언어 Uzbek으로부터 Iranian (인도 유럽) 언어 Tajik으로 채용됐던 것이다—이것이 그것의 손쉬운 유포를 확인한다. 알타이 언어의 세 가지들의 **대명사** 체계들에도 놀라운 비슷함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비슷한 형식들이 마찬가지로 인도-유럽어와 Uralic과 Yukaghir와 Chukotko-Kamchatkan에서도 발견되므로, 그것들은 아마 투르크어와 몽고어와 통구스어 사이에서 특히 밀접한 연결을 가리키는 것 보다는 더 깊은 수준의 발생 관계(Nostratic, Eurasiatic)을 가리킬 것이다. 아래 도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 패턴은 일인칭에서의 순음(dental, 脣音)과 2인칭에서의 치음(dental, 齒音)을 포함한다.

알타이어와 다른 어떤 언어들에 있어서의 대명사 형들				
	‘I’	‘you’(sg.)	‘we’	‘you’(pl.)
Turkish	ben	sen	biz	siz
Mongolian	bi	či(<*ti)	bid	ta
Manchu	bi	si	be	suwe
Finnish	mina	sina(<*tina)	me	te
Yukagir	met	tet	mit	tit
chukchi	gəm	gət	muri	ture
Latin(acc.)	me	te	(nōs)	(vōs)

목록

1)나의 언어들 .... 1

4)췌기문자 .... 5

4-1)수메르인의 언어 .... 5

4-2)췌기문자 .... 7

4-2-1)그 기원과 글자 ... 9

4-2-2)확산과 발전 .... 11

4-2-3)그 체계 .... 14

4-2-4)쓰기법과 음성학 ... 17

4-2-5)수메르인의 독해 .... 18

5)상형문자 .... 21

5-1)이집트어 .... 22

5-1-\*)Coptic ..... 22-1

5-1-1)이집트어의 역사 .... 23

5-1-2)글쓰기 체계 .... 27

5-2)상형문자 .... 29

5-2-1)로제타 석 .... 37

6)햄-셈어족(아프로-아시아 어족) ....40

6-1)아프로-아시아 어족 .... 40

6-2)셈어 .... 45

6-2-1)아카디아 어 .... 46

6-2-2)가나안 어 .... 50

6-2-2-1)Canaanites ..... 50

6-2-2-2)페니키아어 ..... 54

6-2-2-3)히브리어 ..... 57

6-2-3)아람어 ..... 61

6-2-2-\*)제국 아람어 알파벳..... 61-1

6-2-4)남부 아람어 .... 67

- 6-2-5)셈어 쓰기법 .... 72
- 6-2-6)셈어의 일반적인 특징들 .... 80
  - 6-2-6-1)문법적인 구조 ..... 80
  - 6-2-6-2)음성학 ..... 80
  - 6-2-6-3)형태론과 구문론 .... 84
  - 6-2-6-4)파생어와 어휘 .... 92

## 7)인도-아라어와 인도-이란어 ..... 95

- 7-1)인도-아라어 ..... 95
  - 7-1-1)인도어들 ..... 99
  - 7-1-2)음성학 ..... 103
  - 7-1-3)형태론 ..... 104
- 7-2)드라비다어 .... 107
  - 7-2-1)드라비다 인 ....107
  - 7-2-2)언어들 .... 109
- 7-3)인도-이란어 ... 111
  - 7-3-1)고대 이란어들 .... 113
  - 7-3-2)중세 이란어들 ..... 114
    - 7-3-2-\*)Pahlavi ..... 114-1
    - 7-3-2-\*)Avestan ..... 114-3
    - 7-3-2-\*)Old Persian ..... 114-9
  - 7-3-3)현대 언어들 ..... 116

## 8)인도 유럽어족 ..... 118

- 8-1)가능한 근원들 .... 119
- 8-2)발견들과 해석의 문제 ..... 121
- 8-3)가지들 .... 128
  - 8-3-1)Anatolian ... 128
  - 8-3-2)Indo-Iranian ... 128
  - 8-3-3)Greek ..... 129
    - 8-3-3-\*)선형문자 B ... 129
    - 8-3-3-\*)선형문자 A .... 132

8-3-3-*)키프로스 음절어 ....	133
8-3-4)Italic .....	133
8-3-7)Armenian ....	134
8-3-8)Tocharian ....	134
8-3-9)Balto-Slavic .....	135
8-3-10)Albanian .....	135
8-4)하위 그룹화 .....	135
8-5)재구성된 인도-유럽어 .....	136
8-5-1)음성학 .....	136
8-5-2)형태음소학 .....	139
8-5-3)형태론 .....	140
8-5-4)공통의 특성 .....	142
8-5-5)현재의 경향 .....	144
9)시노-테벳어 .....	146
9-1) 역사 .....	151
10)우랄-알타이어 ....	152
10-1)분류 .....	153
10-1-1)우랄어 .....	154
10-1-2)알타이어 ....	157
10-2)음성학적 체계 .....	161
10-2-1)우랄어의 음성학적 속성들 ....	163
10-2-2)알타이어의 유형론의 특색 .....	163
10-3)형태론 .....	164
10-3-1)우랄어 .....	165
10-3-2)알타이어 .....	166
10-4)우랄-알타이어의 어휘 ....	166
10-4-1)알타이어 .....	167

## 지도 그림 도표들의 목록

- 1)나의 언어 .... 1-2
- 2)세계언어의 분포 .... 3
- 3)셈어군의 계보(나무) .... 3-1
- 4)셈어지도 ..... 4
- 5)앗시리아와 바빌로니아 지도 .... 6
- 6)췘기문자 점토판 사진 .... 7
- 7)췘기문자의 진화 .... 9
- 8)그림문자에서 앗시리아 췘기문자로의 전개 .... 11
- 9)대홍수 췘기문자 기록 점토판 .... 12
- 10)고대 페르시아어 췘기문자 스크립 ..... 15
- 17)수메르인의 쓰기법(기원전 17세기의 우화) ..... 18
- 18)함무라비법전-아카디아인의 쓰기법 ..... 18
- 19)수메로-아카디아 사전 목록의 예들 ..... 19
- 20)고대 이집트 지도 ..... 21
- 21)콥트어 알파벳 ..... 24-2
- 22)상형문자(히에로글리픽에서 히에라틱으로) ..... 29
- 23)상형문자(히에로글리픽에서 필기체, 그리고 그 음가) ....32
- 24)상형문자 쓰는 방향 ..... 35
- 25)로제타 석의 세 가지 언어 .... 36
- 26)런던 박물관과 소재, 로제타 석 사진 .... 37
- 27)아프로-아시아어 지도 ..... 41
- 28)아프로-아시아어의 인칭대명사 ..... 43
- 29)히브리 족장 시대의 고대 근동 지도 ..... 48
- 30)팔레스타인의 지도 ..... 49
- 31)Accadian과 Sinai Signs과 Ugaritic과 Phoenician 알파벳 비교 ..... 55
- 32)페니키아어 알파벳과 초기 그리스어 알파벳 비교 ..... 56
- 33)가나안어들과 히브리어 그리고 그 음가들 .... 59
- 34)제국 아람어 알파벳 .... 61-1
- 35)초기 아람어 비문 분포지도 ..... 64
- 36)시리아 스크립트의 초기 자음들의 순서 .... 65

- 37)시리아 스크립트의 모습들 .... 65
- 38)현대 아랍어 사용 지역 지도 ..... 66
- 39)이슬람 이전의 아라비아 부족 지도 .... 67
- 40)초기아랍어 Nabateans 아랍어 그리스어 초기라틴어 현대로마자 비교 .... 69
- 41)아랍어 알파벳 ..... 70
- 42)아랍어 자음들의 음성학적 분석표 ..... 70
- 43)이슬람어 사용인구 분포 지도 ..... 71
- 44)아랍어와 히브리어 알파벳 비교 .... 75
- 45)히브리어 알파벳 .... 76
- 46)실로암 히브리어 비문 사진 (약 기원전 850년 경) ..... 77
- 47)셈어들의 치찰음 상호비교 ..... 81
- 48)원시 셈어의 음성학적 재구성 .... 83
- 49)고전 아랍어의 굴절 .... 85
- 50)셈어의 주어 표지들 ..... 90
- 51)셈어군에 속하는 언어들의 공통 낱말들 ..... 91
- 52)인도 행정지도 ..... 95
- 53)인도 아라어 계보 .... 97
- 54)기원전 1000 년 경의 인도-아리안 남쪽 아시아 .... 98
- 55)현대 인도어 지도 .. 100
- 56)데브나가리 쓰기법과 알파벳 ..... 102
- 57)드라비다어의 계보 .... 109
- 58)현대 인도 드라비다어 지도 .... 110
- 59)남 아시아의 언어 분포지도 ..... 110
- 60)현대 이란 행정지도 .... 111
- 61)이란어와 인도어 낱말 비교 ... 113
- 62)고대 Pahlavi어 알파벳 .... 114-1
- 63)고대 Avestan어 알파벳 .... 114-3
- 64)고대 페르시아어 췌기문자 ..... 114-10
- 65)현대 이란어들의 분포 지도 ..... 116
- 66)현대 구어체 이란어 분포 지도 .... 117
- 67)인도 유럽어 지도 ..... 118
- 68)인도 유럽어들의 시간표 .... 119

- 69)인도유럽어의 고향지도 .... 120
- 70)인도유럽어의 계보(Satem과 Centum) .... 125
- 71)기원전 첫 밀레니엄의 인도유럽어 분포지도 .... 126
- 72)현대의 인도유럽어 분포지도 .... 126
- 73)현대 유럽지도 ... 127
- 74)현대 인도유럽어 지도 .... 127
- 75)고대 그리스 선형문자 B 사진 .... 129
- 76)고대 그리스 선형문자 B 사진 2 ... 130
- 77)고대 그리스 선형음절문자 B의 음가 .... 131
- 78)고대 그리스 어표선형문자 B .... 132
- 79)고대 그리스 선형문자 A .... 132
- 80)키프러스 음절문자 .... 133
- 81)인도유럽방언들의 친소관계 .... 136
- 82)인도유럽어 파열음들 ... 137
- 83)인도유럽어의 어형변화표 ..... 141
- 84)중국행정지도 ..... 146
- 85)남아시아지도 ..... 147
- 86)중국어분포지도 ..... 149
- 87)시노-티벳어분포지도 .... 150
- 88)아시아지도 ..... 152
- 89)우랄알타이어분류 ... 153
- 90)우랄언어의 하위그룹화 .... 154
- 91)우랄어주요가지들의 발생학적 계보 .... 155
- 92)우랄어의 현대 분포지도 .... 156
- 93)Kalmyk의 위치 .... 159
- 94)중국과 몽고 내의 몽골어와 통구스어 분포지도 .... 159
- 95)시베리아언어분포 지도 ... 160
- 96)재구성된 원시우랄어의 음소들 ..... 163
- 97)알타이어에 속하는 언어들의 대명사형식들 .... 168

